

## 중국 애국주의와 고대사 만들기

## 일러두기

- 이 책은 2020년도 동북아역사재단 기획연구 수행 결과물임(NAHF-2020-기획연구-25).

# 중국 애국주의와 고대사 만들기

김인희 편

高辛(帝喾) 玄器  
高阳(颛顼) 昌意

有熊国  
轩辕黄帝  
(姬)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 책머리에

## 중국 애국주의와 고대사 만들기

### 1. 만들어지는 전통들

“현재의 필요에 의해 과거의 이미지를 만들어 낸다.” 에릭 홉스봄(Eric Hobsbawm, CH, 1917~2012)과 동료들은 『만들어진 전통(The Invention of Tradition, 1983)』에서 우리가 오랫동안 지속된 것으로 믿어 온 전통의 상당수는 최근의 것이며 심지어는 발명된 것이라고 하였다. 그들은 국경일, 국가, 의례, 영웅이나 상징물들은 근대 시기에 발명된 것이라고 한다.

전통은 어떤 집단이나 공동체에서 과거로부터 이어져 내려오는 바람직한 사상이나 관습, 행동 따위가 계통을 이루어 현재까지 전해진 것을 말한다. 따라서 전통은 한 민족 또는 국가의 정체성을 형성하는 핵심적 요소라 할 수 있다. 그런데 홉스봄은 전통은 근대 시기 지배층이

4 중국 애국주의와 고대사 만들기

사람들 사이에 존재하는 경제적, 사회적, 정치적 차이점들을 극복하고 ‘상상된 공동체’인 민족을 만들어 내기 위한 공통분모를 찾는 과정에서 발명된 것이라고 한다. 홉스봄은 국가의식이나 민족주의는 근대의 산물이라고 단언한다.

홉스봄 외에 민족이나 국가가 상상의 공동체임을 주장한 이로는 베네딕트 앤더슨(Benedict Anderson)이 있다. 베네딕트 앤더슨은 홉스봄과 같은 해 『상상된 공동체(Imagined Communities, 1983)』를 출간하고 상상된 공동체로서의 민족 개념과 형성 그리고 전파에 관해 설명하며 전통이 재구성되는 역사적 과정을 보여 주었다.

홉스봄은 위의 책 한국어판 서문에서 “동아시아 지역에서도 창조된 전통이나 그로 인해 상상으로 이뤄진 공동체 의식 등의 사례가 부지기수일 텐데도 구체적으로 연구되거나 나열되지 않은 점은 아쉬움으로 남는다”고 하였다. 홉스봄의 지적처럼 동아시아에서는 근대뿐만 아니라 현대에도 많은 전통이 만들어지고 있다.

이 책은 중국의 ‘중화민족’이라는 전통의 발명에 대한 이야기다. 중화민족이란 용어는 1902년 량치차오(梁啟超)가 쓴 『중국 학술사상 변천의 큰 흐름을 논하다(論中國學術思想之變遷之大勢)』에서 처음 등장한다. 그러나 량치차오의 중화민족 개념은 중국 내 모든 민족을 포괄하는 의미가 아니라 한족만을 지칭했다. 1911년 몽골이 제정러시아의 도움으로 대몽골제국을 건립함에 따라 당시 민국 총통인 위안스카이(袁世凱)는 중국 내 모든 민족을 포괄하는 의미에서 ‘중화민족’이라는 용어를 처음 사용하였다. 이후 ‘중화민족’이라는 용어는 한족(漢族)이 아니라 여러 민족을 지칭하는 개념으로 보편화됐다.

책머리에 5

그러나 이후 중국 정부는 표면적으로는 중화민족을 내세웠으나 실제로는 한족 중심주의 정책을 실시하였다. 쑨중산(孫中山)은 오족공화(五族共和)를 내세웠으나 쑨중산이 사망한 후 한족 중심주의로 회귀하였다. 마오쩌둥(毛澤東) 시기에도 한족 중심주의에서 벗어나지 못하였으며, 중국에서 현재와 같은 중화민족 개념이 본격적으로 사용된 것은 1980년대 말이었다. 1989년 톈안먼 사건 이후 중국 정부는 상상의 공동체인 중화민족을 발명하기 위해 다양한 전통들을 만들어 가고 있다.

## 2. 중국의 애국주의와 중화민족 만들기

1989년 톈안먼 사건 이후 중국 정부는 운명을 다한 사회주의 이데올로기를 대신하여 애국주의를 내세웠다. 교육 현장에서는 애국주의 교육이 실시되었으며, 한국 사회에 ‘공정(工程)’이란 이름으로 알려진 다양한 역사 프로젝트도 실시되었다.

고대사는 애국주의 역사 프로젝트의 핵심 주제다.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문명고국이라는 타이틀은 애국주의 강화에 있어 핵심적인 주제였다. 하상주단대공정은 하나라, 상나라, 주나라가 존재했던 구체적인 연대를 증명하는 프로젝트였다. 중화문명탐원공정은 중화문명의 시원을 찾는 공정으로 하상주 이전의 신화시대를 역사시대로 만들고자 하였다. 이 연구의 대상인 염제, 황제, 요임금은 중화문명탐원공정의 대상이고, 우임금은 하상주단대공정의 대상이었다.

신화상의 인물을 역사적 인물로 바꾸는 방법은 비교적 단순하였다.

### 6 중국 애국주의와 고대사 만들기

문헌상의 기록과 유사한 유물이나 유적이 발견되면 “누구의 도움지다”, “누구의 출생지다”라고 결론 내렸다. 문헌 기록과 실제 고고 유적 사이에 존재하는 수천 년의 시간적 거리는 문제되지 않았다. 문헌 기록 중 유리한 것은 취하고 불리한 것은 무시하였다.

염제와 황제는 신석기 시대 중후기 또는 초기 청동기 유적과 관련이 있다고 한다. 결과적으로 염제, 황제와 관련된 고고 유적은 중국 도처에 분포하며, 시간적으로도 3000년의 시간을 포괄하여 염제, 황제의 역사화는 사실상 실패했다고 할 수 있다.

염제와 황제에게 부여된 임무는 역사적인 것만은 아니었다. 이들은 중화민족의 공통 조상으로서 중화민족을 통합할 의무도 부여받았다. 중국 각지에서는 염제와 황제의 조각상과 사당이 증축, 건립되고 대규모 의례를 거행하기 위한 제전도 건립되었다. 이들 제왕의 기념일에는 유력 정치인들이 참여하여 중화민족의 통합을 독려했다.

요임금과 우임금의 흔적은 청동기 시대 유적에서 찾았다. 두 임금의 실존을 증명하는 유적으로 제시된 것은 타오쓰 유적과 이리두 유적으로, 이들 두 유적은 궁성, 성곽, 계급의 분화, 청동기 사용을 보여 주어 초기 국가 단계에 진입하였음을 보여 준다. 그러나 이들 두 유적 또한 요임금과 우임금의 궁성임을 증명할 수 있는 문자 자료가 출토되지 않아 해당 유적이 두 임금의 도움지였음을 증명할 수 없었다.

### 3. 왜, 중국의 고대사 만들기에 주목하는가?

혹자는 “다른 나라의 역사 만들기에 굳이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는가”라고 의문을 제기할 수 있다. 역사가인 E.H. 카는 역사란 “인간이 과거의 사회를 이해할 수 있도록 해 주는 것, 현재의 사회에 대한 인간의 지배력을 증대시키는 것, 이것이 역사의 이중적인 기능이다”라고 하였다. 즉, 역사의 기능 중 하나는 현재 사회에 대한 지배력을 강화하기 위한 논리를 제공한다는 것이다. 역사 쓰기의 속성이 이러하다면, 굳이 중국의 고대사 만들기를 비판할 이유가 없어진다. 그러나 우리가 중국의 고대사 만들기에 주목하는 이유는 애국주의 이데올로기와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기 때문이다.

E.H. 카는 “우리가 어딘가로부터 왔다는 믿음은 우리가 어딘가로 가고 있다는 믿음과 밀접히 연관되어 있다”라고 하였다. 따라서 중국이 만들고자 하는 고대사는 중국이 가고자 하는 미래를 말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중국은 고대 중국이 세계 최고의 문명고국이었으며, 문명으로 야만 세계를 교화했다고 한다. 고대 시기 세계를 이끌었으니 당연히 미래에도 세계를 이끌 자격이 있다는 것이다.

시진핑(習近平) 주석은 중국사회가 도달할 미래사회의 모습을 중국몽(中國夢)이란 몽환적인 단어로 제시하였다. 중국몽은 중화민족의 위대한 부흥을 의미한다고 하는데, 좀 더 구체적인 의미는 현대화된 중화 질서의 구축이라 할 수 있다. 그도 그럴 것이 최근 중국 지도자들의 발언을 보면 전통 시기 황제가 제후들에게 호통치는 듯하다. 시진핑 주석은 공산당 건당 100주년 기념식에서 “중국 인민은 어떠한 외부 세력이

무시하고, 억압하고, 노예화하는 것을 용납하지 않을 것이며, 만약 이와 같이 하면 14억 중국 인민의 피와 살로 쌓은 강철 만리장성에 부딪혀 피가 날 것이다”라고 엄포를 놓았다. ‘만약’이라는 단서를 달았지만 무력 사용을 배제하지 않겠다는 뜻을 분명히 한 것이다.

한국은 역사적으로 중국과 밀접한 관계를 맺어 왔으며 지금도 그러하다. 따라서 중국이 어떠한 선택을 하느냐는 한국의 미래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 이것이 우리가 중국의 고대사 만들기에 관심을 갖는 이유다.

2021년 7월

저자를 대표하여 김인희 씀

책머리에 9

■ 차례

■ 책머리에\_4

제1장\_중국 애국주의와 고대사 연구·김인희\_13

1. <하상>의 방영과 톨안면 사건\_15 | 2. 허무주의 비판과 애국주의 등장\_16 | 3. 애국주의와 고대사 만들기\_20

제2장\_중국 고고 역사 이론의 재정립·배현준·이유표\_25

1. 고문헌 기록에 대한 시각 변화\_27 | 2. 중국식 문명, 국가 개념의 정립\_39

제3장\_중화문명의 시작, 엄제·배현준\_47

1. 왜, 엄황인가?\_49 | 2. 엄제와 신농에서 엄제신농으로\_53 | 3. 고고 유적과 엄제의 역사화\_59 | 4. 현대 사회 속의 엄제\_68 | 5. 엄제의 역사화와 한계\_76

제4장\_황제, 역사인가? 신화인가?·김인희\_79

1. 역사인가, 신화인가\_81 | 2. 『상서』 「여형」의 문헌적 가치\_83 | 3. 황제의 초기 모델은 주나라 왕\_89 | 4. 역사의 신화화와 황제\_98

10 중국 애국주의와 고대사만들기

## 제5장\_허무주의 극복과 황제의 중화민족 공통 조상 만들기·김인희\_101

1. 허무주의 출현과 염황열(炎黃熱)\_103 | 2. 황제의 역사화와 역사허무주의 극복\_108 | 3. 황제의 신화화와 민족허무주의 극복\_116 | 4. 절반의 성공\_132

## 제6장\_요순우의 본향 산시성, 그 오도된 역사 만들기·심재훈\_135

1. 요순우의 본향 산시성\_137 | 2. 현존하는 산시성의 요순우 사적 개요\_142 | 3. 선진 출토 문헌상의 요순우\_153 | 4. 『좌전』에 명시된 요의 흔적과 산시성\_161 | 5. 『한서』 「지리지」에 나타난 산시성의 요순우\_168 | 6. 『원화군현지』와 『태평환우기』에 나타난 산시성의 요순우\_173 | 7. 『산서통지』의 요순우\_178 | 8. 중국 전통시대 역사 만들기의 한 궤적\_188

## 제7장\_중국 첫 번째 왕조 하나라의 창건자, 우임금·이유표\_193

1. 얼리터우와 하문화\_195 | 2. 우·하 전승의 형성 과정\_197 | 3. 얼리터우는 하문화 유적인가?\_214 | 4. 고고학으로 역사를 밝힐 수 있을까?\_234

## 제8장\_중화민족 공동체론과 신시대 고고학·김인희\_241

1. 신화가 역사가 되다\_243 | 2. 중국 연구자의 문헌고고방법론에 대한 비판\_255 | 3. 중화민족 공동체론과 신시대 고고학\_257

### ■ 부록\_261

1. 신농, 염제, 염제신농 관련 주요 문헌 자료와 번역·배현준\_262 | 2. 황제 관련 고문헌 자료와 번역(춘추시대~한나라)·김인희\_271

### ■ 찾아보기\_313



제1장  
중국 애국주의와 고대사 연구

김인희 · 동북아역사재단 연구위원



## 1. 〈하상〉 방영과 텐안먼 사건

1989년 6월 4일 텐안먼 사건이 발생하였다. 일반적으로 이 사건의 발생 원인은 국내적 요인으로 미비한 정치·경제 개혁과 국외적 요인으로 고르바초프가 시작한 소련의 개혁·개방 정책의 영향을 꼽는다.

그러나 가장 결정적인 것은 중국중앙텔레비전(CCTV)이 1988년 6월 11일부터 18일까지 방송한 다큐멘터리 〈하상(河殤)〉이었다. 〈하상〉은 중국의 전통문화와 공산당을 강하게 비판하고, 이를 극복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서구 문명을 수용하여 완전히 개조하는 것뿐임을 강조하여 당시 중국인에게 충격을 주었다. 이 프로그램은 자오쯔양(趙紫陽)의 지시로 급진적인 서구화를 요구하는 전반서화론자(全盤西化論者)들이 제작한 것이다. 전반서화론자는 중국의 것을 버리고, 완전히 서양화하자는 자유주의파 지식인들이 핵심 세력이다. 이들은 서구 민주주의와 자유를 지향하고, 사회주의식 계획경제를 부정한다.

〈하상〉의 ‘河(하)’는 ‘황하’, ‘殤(상)’은 ‘미성년으로 죽은 주인이 없는 귀신’이라는 의미로, “중국 문명은 이미 오래전에 사망하였다”고 선포하였다. 〈하상〉이 비판한 주요 대상은, 중국을 상징하며 중국인이 가장 자랑스러워하는 황하·장성·용이었다. 황하는 중국 문명을 키운 젖줄이고, 장성은 중국인이 만들어 낸 가장 위대한 건축물이며, 용은 중국인이 조상으로 여기는 상상 속의 신성한 동물이다.

〈하상〉은 중국의 전통문화를 부정하였을 뿐만 아니라 중국 공산당을 직접 비판하였다. “중국이 낙후된 것은 공산당의 관료주의와 특권 의식, 마오쩌둥의 비과학적인 출산장려정책이 원인이다.” 따라서 이

제1장 중국 애국주의와 고대사 연구 15

미 사망한 중국 문명과 공산주의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적극적인 서구 문명 수용, 지식인에 대한 처우 개선, 시장경제의 발전, 관료주의·특권의식으로 빚어진 부정부패 청산 등을 강하게 실시하여 서구식 현대화를 이루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이를 한 줄로 요약하면 “중국 전통문화와 사회주의를 버리고 서구 문명을 받아들여 시장경제화하자”는 것이다.

〈하상〉이 방영된 1년 후인 1989년 6월 4일, 톈안먼 사건이 발생하였다. “〈하상〉은 중국의 전통을 부정하고 서방의 과학기술, 문화, 심지어 정치체제까지 배워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이는 당시 드러나지 않았지만 지하에서 세차게 몰아치고 있던 학생운동에 폭우를 내린 것이었다.”<sup>1</sup>

## 2. 허무주의 비판과 애국주의 등장

공산당은 톈안먼 사건의 원인이 〈하상〉이 주장한 전면적인 서구화와 공산당 부정과 관련이 있음을 깨닫고 대대적인 비판을 시작하였다. 방송 이후 당시 부주석이었던 왕전[王震]의 비판이 있었지만<sup>2</sup> 본격적으로 비판이 시작된 것은 톈안먼 사건 이후다. 톈안먼 사건 발생 20여 일 만에 열린 13기 사중전회(四中全會, 1989년 6월 23~24일) 이후 당 중앙은 집중적으로 비판하였다. 이들은 “〈하상〉이 민족허무주의를 아낌없이 보여 주었으며 중화문화, 즉 황하 문명의 요절과 쇠망을 선고했을 뿐만 아니라 중화민족의 장송곡을 연주하였다”<sup>3</sup>고 비판하였다.

장쩌민은 1989년 9월 중화인민공화국 성립 40주년을 경축하는 회의

16 중국 애국주의와 고대사만들기

에서 “중국의 전통문화를 완전히 부정하는 민족허무주의와 외국 것을 숭배하고 외국인과 결탁하는 것을 특별히 주의해야 한다”<sup>4</sup>라고 비판하며, ‘민족허무주의’라는 용어를 사용하였다. 동시에 “역사를 단절하고, 허무주의를 취하며, 개혁을 핑계로 당의 우수한 전통을 부정하는 태도는 잘못이다”<sup>5</sup>라고 하였다. 그는 역사허무주의라는 용어를 직접적으로 사용하지는 않았지만 공산당의 역사를 허무(부정)하는 관점에 대해서도 비판하기 시작하였다. 이후 1989년 12월 29일 ‘당 건설 이론 연구반(党建理論研究班)’ 연설에서 “당 건설은 사상 건설을 우선으로 한다”고 전제하고, “자산계급의 자유화 사조가 범람하고, 자산계급의 민주·자유·인권 같은 구호가 사람들을 현혹하고, 이기주의·배금주의·민족허무주의·역사허무주의가 자라 당을 침식시켜 당 내 일부는 사상에 혼란이 일어났다”<sup>6</sup>고 하였다. 그는 이 강연에서 처음으로 역사허무주의라는 개념을 사용하여 자유주의파 지식인을 비판하였다.

텐안먼 사건 발생 후 초기에는 <하상>으로 대표되는 자유주의파 지식인들을 민족허무주의라는 용어로 비판하였다. 이후 1989년 9월 장쩌민의 연설에서 유사한 개념이 등장하기 시작하여 12월부터는 역사허무주의라는 용어가 본격적으로 사용되었다. 허무주의라는 말은 독일어 니힐리즘(Nihilismus)을 번역한 것으로 니체는 ‘최고 가치의 탈가치’에 의해 초래되는 의미 상실(Sinnverlust)의 경험 상황, 절대적 무의미함을 경험하는 상황을 허무주의라고 규정하였다.

중국에서 민족허무주의는 “허무주의가 민족문제에 표현된 것으로, 민족은 상상된 개념으로 민족의 특징과 민족 간의 차이를 무시하고, 민족의 문화전통과 역사유산을 부정한다”<sup>7</sup>고 정의하였다. <하상>에서 중

국 전통문화의 핵심인 황하·장성·용을 허무한 것은 전형적인 민족허무주의라고 할 수 있다. 역사허무주의의 광의의 개념은 중국 고대사, 중국 근대사, 공산당사<sup>8</sup> 등을 부정하는 것이며, 협의의 개념은 중국 공산당사와 사회주의 역사를 부정하는 것을 말한다.

중국에서 역사허무주의라는 용어가 처음 사용된 것은 1978년 제 11기 삼중전회 이후 비모화(非毛化) 현상이 등장하면서부터다. 비모화 현상은 마오쩌둥의 역사적 공적, 지위, 사상 등을 부정하는 경향으로 “1981년 제11기 육중전회(六中全會)에서 마오쩌둥의 공과를 평가하고 비모화 사조를 저지하였으나 1980년대 말 다시 등장하였다.”<sup>9</sup> “중국 학계에서는 역사허무주의에 대해 보편적으로 잘못된 유심주의 역사관이며 명확한 정치적 목적을 가진 것으로, 본질은 각종 수단을 통하여 마르크스주의의 지도적인 지위를 해체하고 중국혁명, 중국 공산당사, 사항기본원칙(四項基本原則)<sup>10</sup> 등을 부정하고, 사회주의제도를 전복하여 화평연변(和平演變) 전략으로 서양화하고, 중국의 정치제도를 분화시키려는 기도로 본다.”<sup>11</sup>

마오쩌둥을 주제로 글을 쓰는 허징즈[賀敬之]는 “그들이 신나게 중국 역사를 부정하고 전통문화를 저주하는 것은 역사에 대한 것이 아니라 현실에 대한 것이며, 전통에 대한 것이 아니라 지금에 대한 것이다. 역사를 왜곡하고 부정하고, 특히 혁명 역사를 왜곡하고 부정하는 방법으로 사회주의 제도를 반대할 출로를 찾고자 하는 것이다”<sup>12</sup>라고 하였다.

중국 공산당은 텐안먼 사건을 공산당 통치를 부정한 민중 봉기로 낙인찍고, 이를 제압하기 위해 본격적인 애국주의 교육을 시작하였다. 텐안먼 사건 발생 20일이 경과한 1989년 6월 23~24일 베이징에서 열린

18 중국 애국주의와 고대사 만들기

13기 사중전회(四中全會)에서 당이 견지해야 하는 4가지 중요한 사항을 발표하였다. 내용은 톈안먼 사건 같은 반혁명 폭동을 평정하고, 개혁·개방을 견지하며, 사상교육을 강화하고, 민주와 법치를 건설하겠다는 것이다. 특히 주목되는 것은 세 번째 항목이다. “사상·정치 작업을 강화하여 애국주의·사회주의·독립자주 교육을 전개하고, 자산계급 자유화에 철저히 반대한다.” 이 회의에서 톈안먼 사건 이후 처음으로 애국주의 교육에 대한 의견이 제출되었다.

덩샤오핑은 톈안먼 사건이 발생한 석 달 후 1989년 9월 16일 리정다오[李政道] 교수를 만난 자리에서 “우리의 가장 큰 잘못은 교육에 있으며, 젊은이와 청소년에 대한 교육이 부족하였다”<sup>13</sup>라고 하며, 사상교육을 하지 않은 것을 후회하였다. 장쩌민 또한 1989년 9월 29일 중화인민공화국 성립 40주년을 기념하는 대회에서 사상교육을 제대로 하지 못해 톈안먼 사건이 발생했다고 지적하였다. 그러면서 “대대적으로 이데올로기 영역의 작업을 강화하고, 사상·정치 작업을 개선하고, 끈질기게 전국 인민, 특히 청소년에 대한 애국주의·집체주의·사회주의·자력갱생·고난과 시련을 이겨내는 사상교육과 혁명전통교육을 해야 한다”<sup>14</sup>고 강조하였다.

장쩌민은 1990년 5월 3일 5·4운동 71주년을 기념하는 자리에서 「애국주의와 우리나라 지식인의 사명(愛國主義和我國知識分子的使命)」을 강연하였다. “애국주의는 인민의 단결과 투쟁을 동원하는 데 좋은 수단임을 전제하고, 현 단계에서 애국주의는 주로 사회주의 현대화사업 건설과 수호에 헌신하고, 조국통일사업을 촉진하는 데 헌신하는 것으로 표현된다”고 하며, “당대 중국의 애국주의와 사회주의는 본질적으

로 통일된 것이다”라고 강조하였다. 이 강연은 현재 중국에서 실시되고 있는 애국주의 교육 방향을 제시한 것으로 “개혁·개방 이래 현실적이며, 이론적인 특징을 갖는 애국주의 선진교육, 이론 연구의 제2차 고조가 일어났다.”<sup>15</sup>

2000년대 이후 중국의 애국주의는 자가발전을 거듭하여 후진타오 시기에는 유학열(儒學熱)을 일으켰고, 시진핑 시기에는 중국의 위대한 부흥을 꿈꾸는 중국몽(中國夢)이 대륙을 휩쓸고 있다.

### 3. 애국주의와 고대사 만들기

중국 공산당은 애국주의 강화가 결국 공산당 통치에 유리하게 작용할 것임을 잘 알고 있었다. 특히 역사를 적절하게 활용하면 사회 통제 수단에 유용한 역할을 할 것으로 판단했다.

중국 공산당은 중국 고대사 연구와 교육을 통해 위대한 과거를 설명하고, 중국 공산당의 영도 아래 중화민족의 위대한 부흥을 통해 도달해야 할 목표를 제시하였다. 2020년 12월 1일 출판된 <치우스(求是)> 잡지에는 시진핑 주석의 <중국 특색의 스타일과 중국의 기개가 있는 고고학을 건설하여 유구한 역사와 풍부하고 심오한 중화문명을 잘 이해하자><sup>16</sup>라는 글이 실렸다.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현재 중국은 심각한 사회변혁을 겪고 있으며, 미래 사회의 방향과 이에 대한 실천은 역사적 규율 위에 건립되어야 한다. 이를 전제로 반드시

20 중국 애국주의와 고대사 만들기

시 고고 작업[考古工作]을 중시하여 중화의 우수한 전통문화를 알리고, 문화 자신(自信)을 증강하는 바탕으로 삼아야 한다. 고고 작업을 통해 중화문명이 찬란한 성취를 이뤘음을 알 수 있다. 이는 중국인의 문화 자신의 원천이며, 세계문명에 공헌한 중화문명을 보여 준다. 중화민족은 유구한 역사와 위대한 민족정신, 그리고 우수한 전통문화를 창조하였다. 이는 중화민족이 끊임없이 성장하고 번성하는 문화적 유전자를 가진 민족임을 다시 한번 일깨워 주며, 위대한 부흥을 실현하는 정신적 역량으로 삼아 새로운 것들과 결합하여 발전시켜 나가야 한다.

위의 시 주석 발언은 몇 가지 점에서 주목할 필요가 있다. 우선 '고고 작업'이라는 용어가 눈에 띈다. 일반적으로 고고학은 실물을 대상으로 편년과 형식 분류를 바탕으로 고고 문화를 재구성하는 학문으로, 매우 섬세하고 과학적 연구가 요구되는 분야다. 그런데 시 주석의 '고고 작업'이란 표현은 고고학을 단순히 중국인 혹은 중국 문명의 우수함을 증명하기 위한 수단으로 인식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두 번째, 고고 발굴을 통해 획득한 자료들이 현대 중국인의 자신감을 뒷받침하는 중요한 자료라고 하는데, 이는 고고 연구가 순수한 학문이 아니라 다분히 종족주의적 요소가 있는 특정 민족의 우수성을 증명하는 데 활용될 수 있음을 보여 준다. 세 번째, 중국 고고 문화를 통해 중화문명의 세계문명에 대한 공헌을 발견할 수 있다고 하는데, 이는 선진적인 중화문명이 상대적으로 뒤떨어진 다른 나라들의 개화에 도움을 주었다는 전파론적 시각을 보여 준다. 네 번째, 위대한 고대문화는 중화민족이 위대한 부흥을 하는 정신적 역량이라고 했는데, 이는 시 주석의 핵심 사업인 중국

제1장 중국 애국주의와 고대사 연구 21

몽이나 인류운명공동체 사업 추진에 고고학이 이론적으로 뒷받침하라는 요구다.

중국은 1990년대 애국주의를 강화한 이후 '위대한 고대사 만들기 작업'에 착수하였다. 이 작업은 우선 중국 역사를 시간적으로 확장하고, 고고 문화의 우수성을 증명하는 데 집중됐다. 1990년대 초에는 염황열(炎黃熱)을 중심으로 국학열을 일으켜 중화민족의 자존심을 높이고, 세계 화인을 단합하려 했다. 염황열은 우리말로 하면 '염제·황제 붐'이라 할 수 있다. 이 시기에는 고고 유적과 신화 속의 인물을 직접 연결하지는 않았다.

고대 신화 속 인물을 고고 발굴 유적과 결합하여 역사적인 인물로 재정립한 첫 번째 프로젝트는 하상주단대공정(夏商周斷代工程, 1996~2000)이었다. 몇백 명의 고고학자, 역사학자, 고문자학자, 천문학자, 물리학자 등이 모여 '잃어버린 연표(年表)'를 찾아 하(夏)·상(商)·주(周)의 연대를 확정하고자 하였다. 그 결과 그동안 시대가 불분명한 하나라와 상나라를 각각 기원전 2070년~기원전 1600년, 기원전 1600년~기원전 1046년에 실존한 것으로 정리하였다.

중화문명탐원공정(2001~2015)은 하나라 이전 삼황오제(三皇五帝) 중 오제시대가 중화민족의 기원과 형성에 어떤 관련성이 있는지 밝히려 하였다. 이 작업의 주요 목표는 신화 속의 제왕인 다섯 황제를 고고 유적과 결합하여 신화시대를 역사시대로 만드는 것이었다. 그 결과물은 2018년 5월 29일 언론을 통해 공식 발표되어, 신석기시대 후기인 약 기원전 3500년경부터 오제시대가 실재하였으며, 이에 따라 중화문명의 5000년 역사가 입증되었다고 하였다.

## 22 중국 애국주의와 고대사만들기

이 글의 연구대상은 염제, 황제, 요임금, 우임금이다. 염제는 황제 이전의 인물로 복희씨·여와씨와 함께 삼황에 속한다. 황제는 중국의 모든 제왕이 시조로 삼았으며, 후대 황제(皇帝)들은 모두 황제(黃帝)의 자손임을 자처하였다. 요임금은 오제 중 한 명으로 덕정을 베푼 것으로 유명하다. 하나라의 제왕인 우임금의 실존을 증명한다는 것은 곧 하나라의 실존을 증명한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가 있다. 이 연구는 신화 속의 제왕들이 고고 유적과 결합하여 역사적 인물로 재탄생되는 과정을 추적하여 고대사 만들기가 중국 애국주의 강화와 어떠한 관련이 있는지 살펴보고자 하겠다.



제2장  
중국 고고 역사 이론의 재정립

배현준 · 동북아역사재단 초빙연구위원  
이유표 · 동북아역사재단 연구위원



## 1. 고문헌 기록에 대한 시각 변화

중국 고대 문헌에는 반고(盤古), 여와(女媧), 신농(堯), 황제, 치우, 요 임금, 순임금, 우임금, 성탕(成湯), 문왕, 무왕, 주공, 태공망(太公望) 등 수많은 인물이 등장한다. 이 중 천지개벽 후 처음 태어났다고 전해지는 반고, 인간을 흙으로 빚었다고 전해지는 여와, 농사의 신 신농(堯) 등은 신화적 색채가 강한 인물들이다. 효의 상징인 순임금, 치수를 완수한 우임금, 상나라를 개창한 성탕, 공자가 자주 거론했던 문왕과 무왕, 그리고 주공 등은 전설 속 인물 같으면서도 실존했던 인물처럼 보이기도 한다. 이처럼 많은 인물이 중국 고대 문헌의 신화, 전설, 그리고 역사를 구성하고 있지만 그 경계는 아주 모호하다.

중국 사학계의 고대 문헌을 대하는 태도는 신고(信古)·의고(疑古)·석고(釋古)로 구분할 수 있다. 철학자 펑유란(馮友蘭)은 1938년 『고사변』(제6책) 서문에서 처음으로 신고·의고·석고라는 용어를 사용하여 당시 역사학계의 연구 경향을 설명하였다.

중국 사학계는 신고·의고·석고 세 종류의 연구 경향이 있다. 신고는 사료를 그대로 믿는 것이며, 의고는 사료 비판을 중시하는 것이고, 석고는 사료에 정통하게 되는 것이다. 하나의 역사가 완성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사료 비판이 이루어지고, 그 사료에 정통하게 되는 단계에 이르러야 가능하다.<sup>1</sup>

즉, 신고는 고문헌 자료를 맹목적으로 믿는 것이고, 의고는 고문헌

자료에 의심을 품고 진위를 판별해 내는 것이며, 석고는 고문헌 자료를 완전히 믿을 수는 없다고 하더라도 그 안에 존재하는 일부 진실을 찾아 내는 것이다. 신고와 의고가 고문헌에 대한 믿음과 부정의 양극단에 위치한다면, 석고는 그 중간쯤에 위치한다.<sup>2</sup>

19세기 말까지 중국에서는 고사 전설을 그대로 믿는 신고 경향이 강했다. 전통 사학자들은 문헌상의 기록을 깊이 신뢰하여 중국 역사가 황제로부터 시작되었다고 믿었다. 청 말의 량치차오[梁啓超]와 샤쯩여우[夏曾佑]는 황제를 중국 역대 제왕의 시조일 뿐만 아니라 중화민족의 혈연적인 조상으로 여겼다. 이들은 황제를 역사적 인물로, 중화민족의 혈연적인 조상으로 만들어 근대 국가를 형성하는 구심점으로 삼고자 하였다.

그러나 청나라 학계 일각에서는 고증학의 발달에 따라 전통시대 상고사 체계에 의문을 제기하는 의고 사조가 눈을 뜨고 있었다. 청대 건가(乾嘉) 시기에 활동했던 최술(崔述, 1740~1816)은 당시 신고 중심의 학문 세계에 작지만 묵직한 돌을 던졌다. 건가 시기는 건륭제(乾隆帝, 1711~1799)와 가경제(嘉慶帝, 1760~1820)가 재위한 1746~1820년에 이르는 시기를 말한다. 이 시기는 청대 고증학의 전성시대로, 이 시기 학문을 건가지학(乾嘉之學) 혹은 건가학과(乾嘉學派)라 부르기도 한다.

최술은 『주역』과 『춘추』에서는 복희·신농·황제 때의 일을 적잖이 말하고 있는데, 대개 전해 들은 말을 기록하거나 후대 사람들이 기억하는 방식으로 서술된 것으로 생각했다. 그는 또 『국어』와 『대대례기』에서는 상고시대의 일을 크게 과장하였고, 양주(楊朱)와 묵적(墨翟)의 무리는 요임금의 당(唐), 순임금의 우(虞), 하·상·주 삼대(三代) 등의 치세를 드러내기 위해 사적을 거짓으로 편찬했다고 여겼다. 한나라 이후 초

주(譙周, 201~270)의 『고사고(古史考)』, 황보밀(皇甫謐, 215~282)의 『제왕세기(帝王世紀)』 같은 문헌에서는 더욱 뒤섞여 혼란스럽게 기록하면서 수인(廕人)과 포희(包犧)가 나타났고, 『하도(河圖)』와 『삼왕력(三王曆)』, 『외기(外紀)』, 『황왕대기(皇王大紀)』 등에서는 천황씨(天皇氏)와 반고씨(盤古氏)가 등장하기에 이르렀다고 하였다.<sup>3</sup> 다시 말해 중국 고사 기록에서 오래된 인물일수록 만들어진 시기가 늦다는 것을 지적한 것이다.

최술의 의고 정신은 유봉록(劉逢祿, 1776~1829), 위원(魏源, 1794~1857), 소의진(邵懿辰, 1810~1861), 라오핑(廖平, 1852~1932), kang유웨이(康有爲, 1858~1927), 추이스(崔適, 1852~1924) 등으로 이어져 청 말 의고 열풍이 일어나는 도화선이 되었다.

최술이 일으킨 파장은 일본에서도 큰 반향을 불러왔다. 나카 미치요[那珂通世, 1851~1908]는 가노 나오키[狩野直喜, 1868~1947]로부터 『최동벽선생 유서(崔東壁先生遺書)』를 얻은 후, 『사학잡지(史學雜誌)』에 「고신록해제(考信錄解題)」<sup>4</sup>를 발표하여 일본 학계에 최술을 소개하였다. 또 표점을 찍어 1903년 일본사학회총서(日本史學會叢書)로 출판하였다.<sup>5</sup> 그 영향으로 나카 미치요의 제자인 시라도리 구라키치[白鳥庫吉, 1865~1942]는 곧바로 「지나 고전설 연구(支那古傳說の研究)」를 집필하여, 이른바 ‘요·순·우 말살론(堯舜禹 抹殺論)’을 본격화하였다.<sup>6</sup> 시라도리 구라키치의 연구는 일본 학계의 의고적 사고에 큰 영향을 끼쳤다.

이러한 의고적 사고는 당시 일본에 체류하던 류스페이[劉師培, 1884~1919]를 통해 중국에 소개되었다. 일본의 의고적 사조는 첸첸통[錢玄同, 1887~1939], 후스(胡適, 1891~1961) 등에 영향을 끼쳤으며, 1920년대에 이르러서는 구제강[顧頡剛, 1893~1980]의 ‘누층적으로 조성된 중국 고사(層

累造成的中國古史)’론으로 발전하였다.<sup>7</sup>

시라도리는 요·순·우는 유교 전설이고, 삼황오제는 『주역』 및 노장파의 전설로 음양오행설이 근거가 되었다고 지적하였다. 그리고 요·순·우는 중국 상층 사회 사상을 이끄는 유교 사상으로 나타났으며, 삼황오제는 민간 사상을 이끄는 도교 숭배로 나타났다고 하였다. 물론 하야시 다이스케[林泰輔, 1854~1922]의 반론이 제기되기도 했지만,<sup>8</sup> 당시 실증사학이 대세를 이뤄가던 일본 학계의 분위기 속에서 이른바 요·순·우 말살론은 학계에 큰 영향을 끼쳤다.

5·4 신문화운동 이후 1920년대 중국에서는 의고파 학자들의 활동이 본격화되었다. 의고파는 기존의 삼황오제 고사체계에 도전하였고, 중국 역사에 대한 자아비판을 통해 중국문화를 새롭게 수정하려는 젊은이들의 혁신 운동이었다. 이들은 위기감에서 출발하여 중국이 고대의 것만을 계승한다면 서구열강의 침입에 대비할 수 없다고 생각하였다.

의고파는 삼황오제와 요·순·우의 선의에 의한 양위 등 많은 고사 내용에 의심을 제기하며, 삼황오제의 고사체계에 의문을 제기하였다. 이들은 문헌 비판(textual criticism)이라는 방법을 통하여 요·순·우에 대한 무조건적인 믿음을 비판하고, 문헌이 만들어진 시기, 저자 등에 대한 비판이 필요하다고 생각했다.

의고파의 대표적 인물인 구제강은 중국 고대 전설의 형성 시기와 목적에 주목했다. 그는 『시경』에 우는 보이지만 요와 순이 보이지 않고, 「요전(堯典)」과 「고요모(皋陶謨)」를 제외한 『상서(尙書)』에 우는 보이지만 요와 순이 보이지 않는 점을 들어, 요·순·우 가운데 우 전설이 가장 이르고, 요와 순 전설은 춘추시기에 이르러서야 등장한다고 했다.

구제강은 요·순·우 사이에 이루어진 선양(禪讓) 전설에 대해서도 의문을 표하였다. 선양은 통치자가 살아있을 때 혈통이 다른 이에게 제위를 양보하는 것을 말한다. 요는 덕이 부족한 아들 단주(丹朱) 대신 효성과 덕성, 능력 등을 갖춘 순을 후계자로 삼았다고 한다. 순 역시 아들 상균(商均)이 왕위에 적합한 성품이 아니라 생각하고 우가 치수를 완수하자 왕위를 넘겼다고 한다. 구제강은 선양에 대해 묵가의 창조물이지만 훗날 묵가의 영향을 받은 유가의 선전으로 널리 유행하게 되었다고 생각했다. 특히 요가 순에게 양위를 할 때 순의 효성을 강조한 것을 두고 유교적 영향을 크게 받았다고 인식하였다.

앞서 최술의 학문이 일본에 전해져 일본의 의고 사조 형성에 큰 영향을 끼친 것을 언급한 바 있다. 이와는 대조적으로 나이토 토라지로(内藤虎次郎, 内藤湖南, 1866~1934)는 에도시대 사상이 도미나가 나카모토(富永仲基, 1715~1746)의 「노인의 글(翁の文)」을 발굴, 일본 내에서도 이미 의고 사조가 있었다는 것을 증명하였다. 도미나가 나카모토는 불교와 유교의 가상설(加上說)을 주장하였는데, 정통성을 확보하기 위해 시대를 더욱 거슬러 올라가 이전의 증거를 구하여 논의를 전개하는 경향이 있기에, 이러한 배경까지 염두에 두고 객관적으로 교리와 학설을 분석해야 한다고 주장한 것이다.<sup>9</sup>

도미나가 나카모토의 의고 사조는 이러하다. 공자(孔子)는 생전에 사람들이 패자를 존송하는 것을 보고 문왕(文王)과 무왕(武王)을 더하였고, 공자 이후 묵가가 흥기하면서 묵가는 문왕과 무왕 위에 요와 순을 더하였으며, 훗날 양주(楊朱)는 그 위에 또 황제를, 『맹자(孟子)』에 보이는 허행(許行)은 그 위에 신농을 더했다고 여겼다. 나이토 토라지로는

도미나가 나카모토의 이 같은 설에 입각하여, 중국사의 가상원칙(加上原則)을 내세웠다. 그는 중국 고대 학파의 탄생 순서와 전설 속 역사의 발생순서는 상반되는데, 늦게 나타난 학파일수록 그가 가탁한 전설 속 역사 인물은 더욱 이르다고 정리한 것이다.<sup>10</sup> 이는 앞서 열거한 최술, 시라도리, 구제강 등의 설과 대체로 일맥상통한다.<sup>11</sup>

이러한 의고 사조는 당시 무결점으로 여겨졌던 경서(經書)에 비판을 가하며, 경서를 역사연구의 대상으로 바꾸는 등 중국 학계의 역사관에 근본적인 전환을 가져왔다. 그 결과 삼황은 물론 요·순·우의 역사성은 부정되었다. 대체로 1920년대 이후에는 의고파가 중국 역사학의 주도권을 장악했는데, 이러한 상황은 당시 역사 교과서를 통해서도 알 수 있다.

다음 표는 20세기 전반, 중국에서 출판된 역사서 또는 논문에 나타난 중국 역사 시조에 대한 견해를 정리한 것이다. 이를 통해 알 수 있듯이, 명스제[孟世傑]와 장친[章欽]을 제외한 모든 학자는 황제가 중국 역사의 시작이라는 점에 동의하지 않았다. 따라서 20세기 전반 중국 역사학의 주류 관점은 의고였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지나치게 역사를 의심하는 의고파의 경향은 많은 비판을 받았다. 의고파는 고고 자료는 고려하지 않고 단지 진위에만 천착하여 고대사(古史)에 대한 비판적 연구가 아닌 고서(古書)에 대한 비판적 연구를 한다는 비난을 받았다. 심지어 의고파의 다른 이름인 고사변파(古史辨派)를 고서변파(古書辨派)로 불러야 한다는 견해도 등장하였다. 또한 문헌에 약간의 오류만 있으면 해당 문헌 전체를 위조된 것으로 판단하는 극단성도 지적되었다.<sup>12</sup> 쉬 쉬성[徐旭生]은 그의 저서 『중국 고사의 전설시대[中國古史的傳說時代]』<sup>13</sup>를 통해 인쉬[殷墟] 이전의 역사는 모두 후한 시기 역사가들에 의해 위

조된 것으로 보는 의고파의 극단적인 역사관을 비판하였다. 그리고 “아주 오래된 옛날의 전설은 역사적인 요소와 핵심이 보존되어 있어 결코 허황하고 날조된 것이 아니다”라고 하였다.<sup>14</sup>

〈표 1〉 20세기 전반 주요 역사서에 나타난 중국 역사의 시작

연도	이름	책·논문	황제	요순	하우	상	춘추
1901	량치차오	『중국사 서론(中國史敘論)』 <sup>12</sup>	○				
1903	량치차오	『중국 역사(中國曆史)』 <sup>13</sup>	○				
1904	샤쟁여우	『최신 중학교과서 중국 역사(最新中學教科書中國曆史)』 3책(1904~1906) <sup>14</sup>	○				
1922	리타이펀[李泰芬]	『중국사강(中國史綱)』 <sup>15</sup>			○		
1923	구제강·왕중린[王鍾麟]	『본국사(本國史)』 <sup>16</sup>					○
1924	왕귀웨이	『고사신증(古史新證)』 <sup>17</sup>			○		
1927	루마오더[陸懋德]	중국상고사(中國上古史) 수업 교재 <sup>18</sup>				○	
1927	왕통링[王桐齡]	『중국사(中國史)』 <sup>19</sup>					○
1930	귀모뤄[郭沫若]	중국고대사회연구(中國古代社會研究)』 <sup>20</sup>				○	
1930	장진난[張震南]	『국사통략(國史通略)』 <sup>21</sup>			○		
1931	멍스제[孟世傑]	『중국사(中國史)』 <sup>22</sup>	○				
1931	리윈포[李雲坡]	『본국사(本國史)』 <sup>23</sup>		○			
1932	마오펑린[繆鳳林]	『중국통사강요(中國通史綱要)』 第一冊 <sup>24</sup>		○			
1933	장친[章欽]	『중화통사(中華通史)』 <sup>25</sup>	○				
1933	바이진차이[白進彩]	『고등학교중국사(高中中國史)』 <sup>26</sup>				○	
1941	장인린[張蔭麟]	『중국사강(中國史綱)』 <sup>27</sup>				○	
1943	마오펑린	『중국통사요약(中國通史要略)』 <sup>28</sup>		○			
1944	리둥팡[黎東方]	『중국역사통론·원고편(中國曆史通論·遠古篇)』 <sup>29</sup>		○			
1945	진자오쯔[金兆梓]	『중국사강(中國史綱)』 <sup>30</sup>				○	
1947	저우위통[周予同]	『본국사(本國史)』 <sup>31</sup>				○	

이들은 진실에 다가가기 위해서는 이중증거법(二重證據法)으로 연구해야 한다고 하였다. 왕귀웨이[王國維, 1877~1927]는 당시 발견된 인취 갑골문이나 둔황문서 등 새롭게 등장한 지하 자료를 통한 대량의 연구가 다방면으로 이루어지는 상황에서 지상(紙上), 곧 문헌상의 자료와 지하(地下)의 새로운 고고 자료를 종합적으로 이용해야 한다는 이중증거법을 제안하였다.<sup>35</sup> 또 홍콩의 라오쥔이[饒宗頤]는 이를 발전시켜 지하의 새로운 자료를 고문자 자료와 고고 자료로 분류하는 삼중증거법(三重證據法)을 제시하기도 하였다.<sup>36</sup> 그리고 평유란은 1938년에 신고·의고·석고 담론을 제시하며, 의고는 사료 비판, 석고는 사료에 정통한 것으로, 역사의 완성은 반드시 사료 비판 및 사료에 정통한 단계에 이르러야 가능하다고 하였다. 많은 학자들은 고고학적 방법론이 석고의 주요한 방법론이기 때문에 석고를 고고로 바꿔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고고가 석고의 핵심이기는 하지만 석고의 개념은 고고보다 훨씬 더 광범위하다.<sup>37</sup>

초기 석고의 관점에서 연구하는 학자들은 주로 문헌 자료를 분석 대상으로 삼았다. 대표적인 학자로 쉬쑤성과 명원통[蒙文通]이 있다. 이들은 고문헌을 종합적으로 정리하여 중국 상고 시기에 화하(華夏)·동이(東夷)·묘만(苗蠻) 3대 집단이 존재했다고 여겼다.<sup>38</sup> 이들은 중국 상고시대 주요 집단을 3대 집단으로 구분하였지만, 각 집단에 속하는 부족이나 활동 공간에 대해서는 차이가 있었다. 가령, 명원통은 염제를 남방의 묘만에 속하는 것으로 보았으나, 쉬쑤성은 염제를 서북 지역의 화하에 속하는 것으로 보았다. 이는 문헌 해석 차이에서 기인한 것이다.

이들은 문헌 자료뿐만 아니라 고고 자료에도 관심을 보였다. 예컨대

34 중국 애국주의와 고대사만들기

쉬쉬성은 문헌 자료를 근거로 하나라의 흔적, 곧 하허(夏墟)를 찾기 위해 허난성(河南省) 중부 뤼양(洛陽)평원에 대한 고고 조사를 추진한 바 있다. 이때 허난성 덩펑(登峰) 왕청강(王城崗)과 옌스(偃師) 얼리터우(二里頭)를 조사하였으나 하나라의 흔적이라는 것을 밝히지는 못했다.

이후 중국에서 고고 발굴이 활발하게 추진되면서 성과가 축적되자, 췌우형(鄒衡)은 ‘알고 있는 것에서 그 이전의 역사를 찾아 올라간다(從已知求未知)’는 방법으로 고대사를 연구하기 시작하였다. 그는 갑골문을 통해 이미 알려진 상나라 후기 인취문화를 기점으로, 그보다 앞선 시기의 얼리강(二里崗)문화는 상나라 전기, 얼리터우문화는 하문화에 속한다고 여겼다.<sup>39</sup>

이러한 의고를 극복하기 위한 석고적 연구가 문헌 자료와 고고 자료를 중심으로 중국 각 지역에서 활동했던 고대 민족을 증명하는 데 집중했다면, 고고 성과가 축적되면서, 그리고 중국의 문화대혁명 이후 개혁·개방이 추진되면서, 1980년대 이후에는 ‘중화민족’이라는 차원으로 전환되었다. 이는 다민족국가라는 중국의 현실적인 문제에서 출발한 것으로, 중화민족이라는 개념으로 중국 내 소수민족을 통합하는 데 고고학적 근거를 제공하였다.

췌빙치(蘇秉琦)는 1979년 4월 시안(西安)에서 열린 ‘전국고고학 기획회의(全國考古學規劃會議)와 중국고고학회 성립대회(中國考古學會成立大會)’에서 중국 고고학의 학문적 방향을 제시하였는데, 하나는 구계유형(區系類型) 개념이고, 다른 하나는 원시사회의 해체와 계급·국가의 생성과 통일적 다민족국가의 형성과 발전에 관한 것이었다. 그는 이러한 학문적 연구를 통해 “왜곡된 역사를 바로잡아 중원 중심·한족 중심·왕조

중심의 전통 관념을 변화시켜야 하며, 학문적 연구 성과물은 중국 문명의 기원, 중화민족의 형성과 통일적 다민족국가 형성과 발전에 답을 해야 한다. 이러한 연구는 국가의 통일, 인민의 단결, 국내 각 민족의 단결에 많은 공헌을 할 수 있다”고 하였다.

구계유형 개념은 중국 고대문화를 6개 구역으로 구분하고 독자적인 특징이 있음을 밝혔으나, 근본적인 목적은 다민족국가인 중국이 소수 민족을 아우르는 역사관과 민족관을 형성하기 위함이었다. 쑤빙치는 1985년 10월에 랴오닝 싱청[興城]에서 열린 ‘랴오시고고회의[遼西考古會議]’에서 “학문은 이론적으로 중화 문화·중화 민족·중화 국가 등 3개 과제에 공헌을 해야 한다”고 역설하면서, 고고학의 목적이 ‘중화’라는 새로운 공동체에 답하는 것임을 분명히 하였다.

이러한 분위기는 자연스럽게 중국 고고학으로 고대 문헌을 증명하려는 강한 열망으로 나타났다. 중국의 저명한 고고학자인 위웨이차오[俞偉超], 쑤빙치, 옌원밍[嚴文明] 등은 중화문명의 기원 연구를 통해 신석기시대 후기의 양사오문화[仰韶文化], 룡산문화[龍山文化] 등에 속하는 고고 유적에 이미 문명단계의 요소가 확인되는 것으로 보고, 하나라 이전에 오제시대가 실존하였음을 증명할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먼저, 위웨이차오는 창강[長江] 중류의 삼묘문화는 황하 중류의 양사오문화 및 룡산문화와 밀접한 관련이 있고, 초나라의 선조 집단은 삼묘문화와 관련 있기 때문에, 이들이 실재했을 가능성을 제시했다.<sup>40</sup> 그리고 고사 전설로 여겨지던 초나라의 선조와 삼묘의 관계를 문헌 자료와 고고 자료로 밝히고자 하였다.

쑤빙치는 고고 자료를 통해 중국 선사시대를 재구성하고자 하였다.

그는 7000년~5000년 전 웨이하[渭河] 유역에서 시작된 양사오문화가 반포[半坡]유형과 마오디거우[廟底溝]유형 단계를 거치며 문화적으로 재편되는 과정을 겪었을 뿐 아니라 분포 범위도 넓어졌다고 여겼다. 이후 5000년~4000년 전에는 전국적으로 대규모 변화가 발생하여 대형 취락이 출현하고, 무덤이 분화하였으며, 옥기, 칠기, 채색토기, 단각(蛋壳) 토기 등 제사 용기의 출현이 확인된다고 하였다. 이 시기는 각 지역의 고고 문화가 체계적으로 발전하여 고성(古城)·고국(古國) 같은 문명 사회로 진입하였으며, 고사 전설 중의 오제가 이 시기에 활동했을 것이라 하였다.<sup>41</sup>

엔원밍은 한층 더 대담한 논지로 고사 전설 중의 태호(太昊), 소호(少昊), 치우(蚩尤) 등은 룡산문화 시기 다윈커우문화[大汶口文化] 후기에 활동하였으며, 이 시기에 치우와 황제, 염제가 전쟁을 벌였다고 하였다. 그리고 오제 중 황제, 전욱, 제곡 및 염제와 치우 등은 기원전 3500년~기원전 2600년에 해당하고, 당요(唐堯)는 기원전 2600년~기원전 2000년에 활동한 것으로 추정하였다.<sup>42</sup>

이러한 분위기 속에서 역사학 또한 이들에 호응하며 ‘의고시대를 걸어 나오자’는 목소리가 등장했다. 당시 중국사회과학원 역사연구소 소장이었던 리쉐친[李學勤]은 1992년 베이징대학교에서 주최한 학술좌담회에 참석하여 의고 사조의 공과를 언급하면서, 이제는 수많은 고문자 자료와 고고 자료를 통해 의고시대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되었다는 자신감을 내비쳤다.<sup>43</sup> 그러자 중국은 이러한 학계의 움직임에 관심을 보이며 하상주단대공정을 추진하였다. 이는 인쉬 이전의 역사를 증명하면서 그 연대까지 확정하고자 한 프로젝트였다. 비록 수많은 의문점을

남기며 2000년에 마무리되었지만,<sup>44</sup> 중국은 국가적으로 그 성과를 대적으로 홍보하며 애국주의 교육에 반영하였다. 이를 통해 한나라가 대략 기원전 207년에서 기원전 1600년에 존재했다고 여기고, 그보다 이른 시기인 오제시대도 역사화할 수 있다고 생각하였다. 중국 정부의 주도로 추진된 중화문명탐원공정의 2018년 결과보고회에서는 중화역사 5000년을 재확인했다고 천명하였다.

최근에는 하상주단대공정과 중화문명탐원공정 추진을 통해, 또 그동안 축적된 고고 자료를 바탕으로 고사 전설의 상당 부분이 실제 역사적 사실을 반영한다는 관점이 고고학계를 중심으로 더욱 강세를 띠고 있다. 리보첸(李伯謙)은 “한나라와 상나라에 대해 과거에는 전설이라고 하였지만, 후대에는 신사(信史)가 되었다. 한나라와 상나라가 중국 문명과 국가 기원이 아니라 문헌에 기록된 삼황오제가 최초 시원일 가능성이 크다. 삼황시대는 고고학적으로 구석기에서 신석기 전기와 중기에 대응될 수 있고, 오제시대는 대체로 신석기 후기와 말기에 대응될 수 있다”<sup>45</sup>고 하였다. 즉, 문헌에 기록된 삼황오제 전설을 ‘믿을 수 있는 역사(信史)’로 여긴 것이다.

순칭웨이(孫慶偉)는 중국 고사에 대해 의심을 할 수는 있지만, 의심 역시도 증거가 있어야지 의심을 위한 의심은 옳바르지 않다며 의고파를 비판하였다. 그는 서주 초기의 청동 예기인 하준(何尊)에 새겨진 ‘택자중국(宅茲中國)’의 ‘중국’은 하의 근거지인 이하(伊河)와 뤼하(洛河) 하류 일대이며, 얼리터우 유적에 대응될 수 있다고 하였다.<sup>46</sup> 그리고 허난 룡산문화의 메이산유형[煤山類型], 왕완유형[王灣類型], 얼리터우문화 1~4기 등의 고고학 문화가 하문화에 속한다고 하였다.<sup>47</sup>

이러한 중국의 행보는 서구 학계는 물론 중국 내부 일각에서도 비판을 받고 있다. 고고학과 문헌학은 각기 나름대로 가치를 갖는 학문이지만, 같은 시대의 문자 자료 없이 선불리 이 두 자료를 결합하는 것은 결코 실증적이지 못하다는 것이다.

그러나 중국 학계는 이러한 실증주의 사학을 비판하고 여전히 문헌 기록을 믿는 신사 관점을 강조하고 있다. 예컨대, “서방세계에서 말하는 진리라는 것은 시대에 따라 바뀔 수 있는 것으로 절대적인 것이 아니다. 따라서 이러한 관점에 기반한 중국 역사 비판도 절대적인 ‘참’이 아니다”라고 한다. 중국 학자들은 100여 년 전 서방세계의 영향을 받기 이전의 중국은 수천 년 동안 선조로부터 이어져 내려온 문헌 기록을 믿으며 역사를 구축해왔다고 역설한다. 따라서 중국은 서방세계와 다름을 인정하고, 다시 100년 전으로 돌아가 중국의 전통적 역사관에 기반한 중국 고대사 연구가 필요하다고 주장한다.<sup>48</sup> 결과적으로 신사는 고고 자료를 활용한 방법론이 추가된 신고일 뿐이다.

## 2. 중국식 문명, 국가 개념의 정립

1960년대 이후 등장한 신고고학자들에 의하면, 문화는 환경에 적응해 나타난 결과라고 한다. 이들은 보편적인 문화(culture)에서 양적·질적 변화를 거쳐 도시와 문자가 등장하면 문명(civilization) 단계에 이르게 되고, 여기에 무력을 합법적으로 사용하고, 중앙집권적 체제를 구축하고, 경제활동과 이데올로기 등이 나타나면 국가(state) 단계라고

하였다.<sup>49</sup>

국가 단계에 이르는 과정에 대해서 서양 학계와 중국은 관점이 다르다. 서양 학계에서는 일반적으로 엘만 서비스에 의해 주창된 ‘무리(band)-부족(tribe)-군장 혹은 수장사회(chiefdom)-국가(state)’ 단계 개념을 사용하여 설명한다.<sup>50</sup> 부족 단계는 분절적 종족체계(segmentary lineage system)로도 표현되는데, 이 체계 내의 종족들은 공동조상에서 갈라져 나온 분파로서 동등한 지위를 보유하는 특징이 있다. 부족 단계는 기본적으로 평등사회로 아직 문명이 출현하지 못한 단계다. 수장사회 단계에는 이미 중앙집권화된 의사결정 과정이 존재하며, 지역을 통제할 수 있는 특정 수준의 사회 계층화가 나타난다. 수장의 권력은 왕에 비하면 제한적이다. 예를 들면 수장의 권력은 강압이 아니라 협상을 통해 행사된다. 국가 수준으로 발전하려면 권력이 더욱 집중되어야 한다. 그러나 고고학 자료의 한계로 인해 수장사회 또는 국가를 명확하게 구분하기는 쉽지 않기 때문에 수장사회와 국가라는 개념의 대체제로 복합사회(complex society)라는 용어를 사용하기도 한다.<sup>51</sup> 즉, 복합사회 단계부터는 문명이 출현하며, 국가 역시 출현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본다.

한편, 중국의 저명한 고고학자인 쑤빙치는 사회 발전 단계를 ‘고문화(古文化)-고성(古城)-고국(古國)-방국(方國)-제국(帝國)’ 과정으로 보았다.<sup>52</sup> 쑤빙치에 의하면 고문화는 원시문화를 말한다. 고성은 성곽을 가진 중심 집단 취락이 출현하여 도시와 촌락이 최초로 분화된 단계를 말한다. 고국은 집단 취락보다 높은 단계로 안정적이고 독립적인 정치 실체가 존재하는 원시국가 단계를 말한다. 방국은 고국에 비해 성숙하고 한층 더 높게 발달한 단계의 국가를 말한다. 마지막으로 제국은 각지에

40 중국 애국주의와 고대사 만들기

산재한 다양한 정치체를 통일하여 이른바 중화일통(中華一統)을 완성한 진(秦)나라, 한(漢)나라 등의 국가를 가리킨다. 여기서 국가의 초기 형태인 고국은 『사기』 「오제본기」에 만국(萬國)이라는 용어가 등장하는 것을 염두에 두고 설정된 것으로 보인다. 「오제본기」에는 “(황제는) 좌우에 대감(大監)을 두고 만국을 감독했다… 만국이 화평했다”는 기록이 있는데, 이를 신뢰한다면 당시 중국 여러 지역에 ‘국’이라는 지방 정치체가 존재한 것이 된다.<sup>53</sup>

사실 당시 국 형태가 어떠한지는 문헌을 통해서든 고고 자료를 통해서든 알 수 없다. 다만 갑골문과 금문에서 ‘국(國)’ 자는 ‘或(혹)’ 자로 확인되는데, 『설문해자』에 의하면, ‘或(혹)’ 자는 무기인 ‘과(戈)’ 자와 사람의 ‘입(口)’이 합쳐진 것으로 인구와 무기가 갖추어졌음을 의미한다고 한다. 여기에 명확한 강역이 존재하면 바로 ‘국(國)’이 된다. 따라서 당시의 국은 인구, 무기, 명확한 강역 및 강역 내 성곽 등으로 구성되었다고 볼 수 있으며, 이것이 중국 고고학계에서 말하는 고국 단계이다.<sup>54</sup>

이렇게 고국이 오제시대와 대응되고, 제국이 진나라, 한나라 등에 대응되면, 그 중간 단계인 방국은 자연스럽게 하나라, 상나라, 주나라 등에 대응된다.

서양과 중국의 사회발전단계론을 비교하면 다소 맞지 않는 부분도 있지만, 대체로 서양의 ‘국가’는 중국의 ‘방국’, ‘수장사회’는 ‘고국’, ‘부족사회’는 ‘고문화’에 대응시킬 수 있다. 동시에 ‘방국’과 ‘고국’은 복합사회로, ‘고성’은 초기 복합사회 또는 평등사회에서 복합사회로의 전환기로, ‘고문화’는 평등사회로 대응시킬 수 있다. 이러한 관계는 다음과 같이 도식화할 수 있다.<sup>55</sup>

〈표 2〉 서양과 중국 학계의 사회 발전 단계 대응표

서양 및 한국	분절적 종족사회 (평등사회)	초기 복합사회	복합사회 (불평등사회)	
	부족사회	초기 수장사회	수장사회	국가
중국 학계	고문화	고성	고국	방국
	신석기시대			청동기시대
	복희-수인-신농(염제)	황제-전욱-제곡-요-순	하, 상, 주	

현재 중국 고고학의 목적은 중국이 역사적으로 언제부터 시작되었는지를 증명하는 데 집중되어 있다. 그런데 중국이라는 국가의 출현을 말하기 위해서는 먼저 문명 단계에 진입하였음을 증명해야 한다.

그렇다면 과연 문명 단계에 진입한 것은 어떤 상태를 말하는 것인가? 이에 대해서는 다양한 논의가 있었다. 미국 고고학자인 브루(Brew, J. O.)는 문명을 정의하는 주요 요소로 다음의 것을 들었다.<sup>56</sup>

- 하나, 인구 증가에 따른 도시 형성과 성곽 축조
- 둘, 모든 변화를 촉진하는 잉여생산물
- 셋, 식량 생산에 종사하지 않는 전문가 집단의 등장, 직업의 전문화
- 넷, 기념비적 건축물 등장
- 다섯, 과학과 수학 발달
- 여섯, 문자나 기록체계 발명

일곱, 가축 이용과 수레바퀴 발명으로 교통이 발달하고, 집단 간의  
무역을 발달  
여덟, 야금술 발달  
아홉, 국가 출현

위 요소 중 도시, 문자, 야금술 등의 3요소는 문명 출현 여부를 가늠하는 대표적인 지표로 여겨진다. 그러나 문제는 이 3요소가 전 세계적으로 통용되는 것이 아니라는 점이다. 가령, 서아시아의 메소포타미아 문명이나 북아프리카의 이집트문명의 경우 이러한 조건을 충족하지만, 중앙아메리카의 마야문명은 금속기를 사용하지 않았고, 남미의 잉카문명은 문자를 사용하지 않았다. 따라서 중국 학계는 문명에 대한 기존 개념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문자를 포함하지 않는 문명 기준을 새롭게 제시하였다.<sup>57</sup> 간단히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생산력이 발전하고 사회 분화가 일어난다. 농업이 현저하게 발전함에 따라 농업과 수공업의 분리가 일어나고, 일부 수공업(옥기 제작, 옷칠, 고급 토기 제작, 야금)은 전문화되는 특징이 나타난다.

둘째, 명확한 사회계층 분화가 일어나고 왕권이 출현한다. 사회계층화가 현저히 진행되어 일부 상층부가 사회를 관리할 권한을 독점한다. 예컨대, 군사지휘권, 원시종교 제사권 등이 있다. 최고 통치자인 왕이 출현하여 엄격한 사회등급 제도와 규범을 보호하는 예제를 거행한다. 귀족과 지위가 높은 사람은 소금, 구리 등 중요 경제 자원 및 고급 수공업 제품 생산과 분배를 제어한다. 왕과 귀족 계층을 전문적으로 매장하는 묘지와 고급 예기를 부장한 대형 무덤이 출현한다.

셋째, 인구가 현저히 증가하고 집중화되면서 도성과 읍성으로 대표되는 도시가 출현한다. 도시는 정치·경제·문화의 중심지가 된다. 왕권을 반영하는 대형 건축물과 다량의 인력과 물자를 소모하여 건설한 대규모 공공시설이 출현한다. 그리고 도시[城]와 촌락[鄉]의 명확한 분화가 나타난다.

넷째, 왕이 관장하는 지역적 성격의 정치체와 사회 위에 균립하는 폭력적 공권력을 지닌 국가가 출현한다. 전쟁, 형벌, 살육 등의 폭력 행위는 비교적 보편적인 사회현상이 된다. 제사 등의 활동은 사회생활 중 중요한 위치를 점한다.

결론적으로 중국은 직업·사회계층 분화, 독점 권력·도시·국가 출현 등을 문명 단계에 진입한 지표로 삼았다. 이와 같은 문명 개념에 의해 중국 고고 문화를 해석하면 국가(방국) 단계에 대응되는 고고 문화는 타오스[陶寺] 유적, 얼리터우문화, 얼리강문화 등이 있다. 특히, 얼리터우문화의 얼리터우 유적은 제2기부터 도로망과 높은 담장으로 둘러싸인 규격화된 도시와 궁성, 대규모 궁전 건축군, 궁실제도와 완비된 등급제도, 성숙한 청동 야금술이 확인되어 주목된다. 비록 얼리터우문화에서 문자 사용 여부는 불확실하나 중국 학계가 제시한 발달한 문명 국가 기준에는 부합된다.

중국이 제기하는 문자를 포함하지 않는 문명 기준은 고대 사회 발전 기준을 가늠하는 하나의 지표로 충분한 가치가 있다고 생각한다. 다만, 왜 훌륭한 문자 전통을 유지하고 있는 중국이 문자를 포함하지 않는 문명 기준을 제기했는가에 대한 합리적 의문이 인다. 여기서 먼저 들 수 있는 것은 비교문화적인 콤플렉스다. 이른바 세계 4대 문명 가운데 문

자를 포함한 기준으로 본다면 출현 시기가 가장 늦는 것이 황하문명이다. 만약 갑골문으로 증명되는 인취문화를 황하문명의 시작으로 본다면, 이는 메소포타미아문명, 이집트문명 등과 비교했을 때 최소 1500년 이상이나 떨어진다. 따라서 이른바 중화문명의 우수성을 강조하기 위해 새로운 문명 단계 기준을 내세워 그 간극을 메우려는 의도도 배제할 수 없다.<sup>58</sup>

이 밖에 서구와 중국 학계 일각에서 지속적으로 지적하는 고고 문화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 연구하기보다는 전래 문헌을 밝히는 수단으로 생각하는 것이 아닌지 의심이 든다.<sup>59</sup> 다시 말해, 앞서 제기한 석고의 수단으로 생각한다는 것이다. 이는 중국이 제기한 문명론 자체도 체계적인 고고학적 사고에서 제기된 것이 아닌 전래 문헌을 밝히기 위해, 또 동시대적 문자 자료라는 직접적 증거가 있어야 '역사'로 믿을 수 있다는 주장에 대한 반박으로 제기된 이론이라는 혐의를 지을 수 없다.

예컨대, 중국이 새로운 문명 단계로 국가 단계에 대응되는 고고 문화의 사례로 든 타오스 유적, 얼리터우문화, 얼리강문화 등은 그 자체로 훌륭한 고고 문화이기에 당시 사회발전 단계를 논할 수 있는 고고학적 증거를 충분히 제공하지만, 이를 문헌과 연결하여 타오스는 당요(唐堯) 시기, 얼리터우는 하문화, 얼리강문화는 상나라 초기 문화로 포장하고 있다. 특히, 얼리터우문화는 세계문화유산 등재를 추진하는 등 하문화로 공인받기 위해 박차를 가하면서 향후 발굴도 세계문화유산의 표준에 맞출 것을 천명하였다.<sup>60</sup>

이러한 맥락에서 중국 학계가 이른바 하문화 유적으로 상정하는 얼리터우 유적이 국가 단계에 이르렀다면 그보다 앞선 단계인 오제 시기

는 수장사회, 이른바 고국과 연결할 수 있다. 이 시기 유적 중에서 중국이 상정한 문명 단계에 진입한 유적으로는 저장성[浙江省] 항저우[杭州] 량주[良渚] 유적, 허난성 궁이[鞏義] 쌍화이수[雙槐樹] 유적, 산시성[陝西省] 스마오[石峯] 유적, 랴오시[遼西] 지역의 홍산[紅山] 유적 등이 있다.<sup>61</sup>

이 유적들 중 량주 유적은 최근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되면서 초기 지역 국가(early regional state)<sup>62</sup>로 공인되었고, 현재 홍산 유적을 포함한 홍산문화 유적이 세계문화유산 잠정 목록에 등록되어 국제 공인을 기다리고 있다. 따라서 향후 중국학계는 이른바 오제 시기에 이미 고국이 존재했기에 역사적 실체가 있다는 주장을 더욱 강하게 펼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러한 연구는 고고학적 연구를 통한 결과가 되어야 하며, 결코 문헌에 맞춘 본말이 전도된 연구가 되어서는 안 된다.

제3장  
**중화문명의 시작, 엄제**

---

배현준·동북아역사재단 초빙연구위원



## 1. 왜, 염황인가?

중국은 자신들을 염제(炎帝)와 황제(黃帝)의 자손으로 일컫는다. 이 염제와 황제는 형제 관계로 중국 역사서에 등장하는 삼황오제(三皇五帝) 시기의 대표적인 인물 혹은 집단을 말한다. 과거에는 전설 속의 존재로 여겼지만 최근에는 실제로 존재한 인물 또는 집단으로 구체화하는 작업이 진행 중이다.

사실 중국에서 제일 빠른 문자 기록인 상주(商周) 시기의 갑골문(甲骨文)이나 금문(金文) 중에 염제나 황제의 기록은 보이지 않는다. 염제와 황제라는 명칭은 아무리 빨라도 춘추전국시대가 되어야 출현한 것으로 보인다. 『좌전(左傳)』 소공(昭公) 17년 기사에는 담자(鄭子)가 고대의 제왕들을 언급하면서 황제는 구름으로, 염제는 불로 설명했는데,<sup>1</sup> 『좌전』은 대체로 전국 초기에 편찬되었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리고 제(齊) 위왕(威王 기원전 378~기원전 320) 시기의 <진후인둔(陳侯因敦)> 청동기 명문에 고조 황제(高祖黃帝)가 확인되어,<sup>2</sup> 황제와 염제를 늦어도 전국시기부터 제왕으로 인식했을 것으로 여겨진다.

한나라 시기에 편찬된 『사기(史記)』 「봉선서(封禪書)」에는 “진(秦)나라 영공(靈公)은 오양(吳陽)에 상치(上時)을 설치하여 황제에게 제사를 지냈고, 하치(下時)를 설치하여 염제에게 제사를 지냈다”<sup>3</sup>는 것으로 보아, 진한 시기에 황제와 염제에게 제사를 지내기 시작한 것으로 보인다. 이후 청나라 말까지 염제와 황제는 국가 제의와 민간의 숭배 대상이 되었다. 그러나 왕조의 정통성을 중시하는 왕조 국가 아래에서는 민간의 염황 숭배가 다소 제한적이었다.<sup>4</sup>

佳正六月癸未, 陈侯因齐  
 曰: 皇考孝武赧(桓)公, 恭哉! 大  
 慕(谟)克成。其惟因齐扬皇考,  
 邵(绍)练(纁)高祖黄帝, 休嗣赧(桓)、文,  
 淖(朝)昏(问)诸侯, 合(答)扬厥德。诸侯  
 寅荐吉金, 用祚考武赧(桓)公  
 祭器敦。台(以)登台(以)尝, 保有其

	
陳侯因敦(진후인둔)(《銘圖(명도)》06080)	陳侯午敦(진후오둔)(《集成(집성)》4647)
	
淄博辛店(치박신점) M20:31	淄博隽山(치박전산) M1P2:19

〈그림 1〉 〈진후인둔〉 청동기와 명문<sup>5</sup>

한편, 중국의 천자를 중심으로 하는 천하 세계관은 19세기 중반 아편전쟁 이후 큰 충격을 받았다. 거듭되는 패배 속에서 서구에 대항하기 위해서는 중국인을 하나로 단결시켜야 했다. 그 과정에서 서구의 민족국가, 민족주의 개념을 접하면서 중국의 민족의식도 형성되기 시작했다. 이에 따라 천자의 전유물이었던 황제는 중화민족의 상징이 되며,

50 중국 애국주의와 고대사 만들기

‘염황 자손’ 같은 구호가 한순간에 퍼져 나가게 되었다.<sup>6</sup>

염황 자손 개념은 처음 등장한 이후 현재까지 몇 번의 변화를 겪었다. 청나라 말에서 중화민국 시기에 활동한 사상가이자 정치가인 변법파(變法派)의 kang유웨이[康有爲]는 1899년 4월 캐나다 망명 후 첫 번째 연설에서 “우리는 모두 황제의 자손으로 각지에 흩어져 있지만 모두 한 가족과 같다”라고 하였다. 이어서 그의 제자인 량치차오[梁啓超] 역시 『소년 중국설(少年中國說)』, 『중국사서론(中國史敍論)』, 『신사학(新史學)』, 『신민설(新民說)』 등 여러 저술에서 ‘황제의 자손’을 언급하였다. 반대편인 혁명파(革命派)도 이 용어를 강조하였다. 그들은 황제를 한족(漢族)의 시조로 숭배하고, 황제기년(黃帝紀年)을 사용했으며, 스스로 황제의 자손이라고 칭했다. 또한 황제릉에 제사를 지내고, 황제를 국혼으로 숭배하였다.

변법파와 혁명파는 염황 자손이라는 용어도 사용했으나 황제의 자손이라는 용어가 더 보편적이었다. 그들은 같은 구호를 사용했지만, 그 의미에는 명확한 차이가 있었다. 변법파가 민족에 상관없이 중국을 구성하는 중국인 전체를 대상으로 ‘우리는 모두 황제의 자손’임을 강조하였다면, 혁명파는 ‘한족이 염황의 유일한 후예’임을 강조하였다. 그 이유는 혁명파에게 만주족(滿洲族)이 세운 청나라는 타도의 대상이므로 만주족을 배척할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그 대척점에 있는 한족을 강조한 것이다.<sup>7</sup>

1911년 신해혁명(辛亥革命) 이후 중화민국이 건립되었다. 중화민국의 영토는 청나라의 영토와 같고, 구성원 역시 변함이 없었다. 그리고 불안한 국내 정치와 사회 상황 속에서 외국의 영향을 받은 중국의 소

수민족, 특히 변강의 소수민족들이 독립을 요구하며 민족문제가 대두되었다. 따라서 이들을 포용할 수 있는 민족 개념이 필요하게 되었다. 1912년 1월 쑨중산(孫中山)은 남경임시정부의 임시 총통 신분으로 ‘한족, 만주족, 몽골족, 회족, 장족’은 모두 중국을 이루는 민족임을 공식적으로 선포하였다(五族共和). 이 선포는 대표적인 5대 민족을 선정한 것이고 실제로는 중국을 구성하는 모든 소수민족을 포함한 것이었다.<sup>8</sup> 이로써 한족뿐만 아니라 소수민족도 중국을 이루는 구성원이 되었다. 자연스럽게 한족의 조상으로 추앙받던 황제도 소수민족들의 공통 조상이 되었다.

한편, 1919년 5·4운동으로 유교 중심의 전통문화에 대한 반발이 커지며 타도 공자점(打倒孔子店)이라는 구호와 함께 반봉건 사상이 심화되었다. 이러한 시대적 분위기 속에서도 황제를 중심으로 하는 민족의식은 당시 제국주의 열강에 대항하는 기제로서 지속되었다. 또한 항일전쟁을 연이어 겪으면서 중국인은 황제의 자손이라는 기치 아래 뭉칠 수 밖에 없었다.<sup>9</sup>

이러한 관념은 중화인민공화국 성립 이후 다소 침체되었다가 1970년대 후반 개혁·개방 정책을 실시하면서 염제와 황제를 포함한 전통문화 자원이 다시금 중시된다. 1976년에는 귀모뤄(郭沫若)가 『중국사고(中國史稿)』에서 “화하족은 ‘염황’의 자손이다”라고 서술하면서 ‘뿌리 찾기 열풍[尋根熱]’에 불을 지폈다. 1980년대 중반부터는 염황 자손이라는 용어가 다량으로 유통되어 보편화 된다. 현재 염황 자손은 혈연계승 관계뿐만 아니라 문화·경제적으로 서로 얽힌 중국 56개 민족을 포괄하는 상징적인 개념으로 사용되고 있다.<sup>10</sup>

## 2. 염제와 신농에서 염제신농으로

염제와 황제는 중국민족의 시조로 여겨지지만, 이들이 속한 시대는 다르다. 황제는 ‘황제-전욱(顓頊)-제곡(帝嚳)-당요(唐堯)-우순(虞舜)’으로 비정되는 오제시대의 시작을 알리는 대표적인 인물이다. 반면, 염제는 ‘복희(伏羲)-수인(燧人)-신농(神農)’으로 비정되는 삼황시대의 마지막 인물 신농과 동일 인물 또는 집단으로 여겨진다. 그래서 염제신농이라는 단어가 고유명사처럼 쓰이기도 한다.

그런데 염제는 황제와 형제 관계이기 때문에 원칙적으로는 오제시대에 속해야 한다. 형제 관계는 거의 같은 시기에 존재함을 의미하는데 어떤 이유에서 앞 시기의 신농이라는 전혀 다른 존재와 동일시되는 걸까?

문헌 기록을 살펴보면 염제와 신농은 따로 언급되기도 하고, 염제신농 하나로 언급되기도 한다. 주요 사례를 살펴보면 전국시기에 편찬된 것으로 추정되는 『국어(國語)』 「진어(晉語)」, 『열자(列子)』 「황제(黃帝)」, 서한 시기에 편찬된 『회남자(淮南子)』 「범론훈(汜論訓)」 등에 염제가 단독으로 명기되었다.

옛날 소전씨가 유교씨를 아내로 맞이하여 황제와 염제를 낳았다. 황제는 희수(姬水)에 의지하여 나라를 이루었고, 염제는 강수(姜水)에 의지하여 나라를 이루었다. 나라를 이룬 뒤 덕성이 서로 달랐으며, 황제는 희(姬)를 성씨로 삼았고, 염제는 강(姜)을 성씨로 삼았다. 두 제왕이 군사를 써서 서로 다툰 것은 덕성이 다르기 때문이었다.<sup>11</sup>

- 『국어』 10, 「진어」 4

제3장 중화 문명의 시작, 염제 53

황제와 염제가 관천(阪泉)에서 싸웠다.<sup>12</sup>

— 『열자』 2, 「황제」

그러므로 염제는 화(火)의 덕으로 제왕이 되었다.<sup>13</sup>

— 『회남자』 13, 「범론훈」

여기서 추출할 수 있는 염제에 대한 정보는 ‘황제와 형제 관계이며, 강수에 활동했으며, 강씨 성을 가지고, 황제와 관천에서 전투를 벌인 적이 있으며, 불과 관련된 덕을 가지고 있다’ 등이다.

편찬 시기를 정확히 알 수 없지만 대체로 전국시기의 것으로 여겨지는 『주역(周易)』 「계사하(繫辭下)」, 『관자(管子)』, 전국 말 또는 진한 교체기의 것으로 알려진 『세본(世本)』 「작편(作篇)」 등에는 신농이 단독으로 명기되었다.

포희씨가 죽자 신농씨가 나와서 나무를 베어 보습을 만들고, 나무를 구부려 쟁기를 만들었다. 쟁기로 밭을 매는 이익을 세상 사람들에게 알려주어 여러 이익을 취하게 하였다.<sup>14</sup>

— 『주역』, 「계사하」

백성들에게 밭을 갈아 곡식을 기르도록 하였다.<sup>15</sup>

— 『관자』 1, 「형세」

기산 남쪽에 오곡을 심었다.<sup>16</sup>

— 『관자』 24, 「경중무」

약으로 사람을 구하였다.<sup>17</sup>

— 『세본』 秦嘉謨輯輔本 9, 「작편」

거문고를 만들었다.<sup>18</sup>

— 『세본』 秦嘉謨輯輔本 9, 「작편」

이상을 통해 신농은 도구를 만들고, 농업, 의학, 음악 등을 세상에 알린 인물임을 알 수 있다.

한편, 전국 말 또는 진한 교체기에 편찬된 것으로 알려진 『세본』 「제계편」에는 ‘염제신농씨’가 한 단어로 사용되는데, 한대(漢代) 송중자(宋仲子)는 주석을 달아 “염제는 신농씨이다”<sup>19</sup>라고 설명하였다. 따라서 전국 말 또는 진한 교체기부터 염제와 신농을 동일시하는 인식이 등장하였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전한(前漢) 시기까지 염제와 신농을 동일시하는 인식이 보편화 된 것은 아니었다. 사마천의 『사기』 「봉선서」와 「오제본기」에는 염제와 신농이 여전히 별개의 인물로 등장한다.

신농이 태산에 봉제를 드리고, … 염제는 태산에 봉제를 드리고, …  
황제는 태산에 봉제를 드리고, …<sup>20</sup>

— 『사기』 28, 「봉선서」

현원 때 신농씨가 쇠약해져 제후들이 서로 침략하고 정벌하여 백성들에게 포악하게 굴었으나 신농씨는 정벌할 수 없었다. 이에 현원은

제3장 중화 문명의 시작, 염제 55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창과 방패 사용법을 익혀 조공하지 않는 제후들을 정벌하니 모두 신하로 복종했다.… 염제가 제후들을 치려 하자 제후들이 모두 현원에 게 귀의했다. 현원은 덕을 닦고 군대를 정비하였다. 오행의 기운을 다스리고, 다섯 가지 곡식을 심는 등 만민을 어루만졌다.… 관천 들에서 염제와 세 번 싸운 끝에 뜻을 이루었다.<sup>21</sup>

—『사기』 1, 「오제본기」

이 기사는 신농·염제·황제의 시간성을 파악하는 데 중요한 단서를 제공한다. 사마천은 기본적으로 신농, 염제, 황제를 선후관계를 가지는 개별적인 존재로 파악했던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신농은 염제, 황제(현원)보다 먼저 번성했고, 염제는 이미 제(帝)로 불린 반면 황제는 아직 현원으로 불리고 있어 염제가 황제보다 좀 더 일찍 번성했던 것으로 추정된다. 이후 관천대전에서 현원과 염제가 전쟁을 벌이기에 이 둘은 공존하기도 하였으나, 최종적으로는 현원이 승리한다. 그리고 현원은 토덕(土德)을 가졌기에 황제로 불린다. 이를 정리하면 ‘신농-염제-염제·황제-황제’의 순서가 마련된다.

한대(漢代) 이후부터는 염제와 신농이 하나로 결합하는데, 구체적인 사례는 당대(唐代) 사마정(司馬貞)이 편찬한 『사기색은(史記索隱)』 「삼황본기(三皇本紀)」를 통해 알 수 있다.

염제신농씨는 강성이다. 어머니는 여등이며, 유교씨의 딸로 소전의 부인이며, 신룡에게 감응하여 염제를 낳았는데 사람의 몸에 소의 머리였다. 강수에서 자라났기에 그것으로 성을 삼았다. 화덕(火德)으로

왕이 되었기에 염제라고 하였으며, 화(火)로 관직 이름을 삼았다. 나무를 베어 보습을 만들었으며, 나무를 구부려 쟁기를 만들었다. 쟁기로 김매는 법을 사람들에게 가르쳤다. 농사를 처음으로 가르쳤으므로 신농씨라고 불렀다. 납제사를 지냈으며, 붉은 채찍으로 초목을 채찍질하여 처음으로 온갖 풀을 맛보았으니 처음으로 의약이 있게 되었다. 또 오현의 거문고를 만들었으며, 사람들에게 해가 중천에 있을 때 시장을 열게 하여 교역을 하고 물러나게 하였으니 각자 그 맡은 바를 얻게 되었다.<sup>22</su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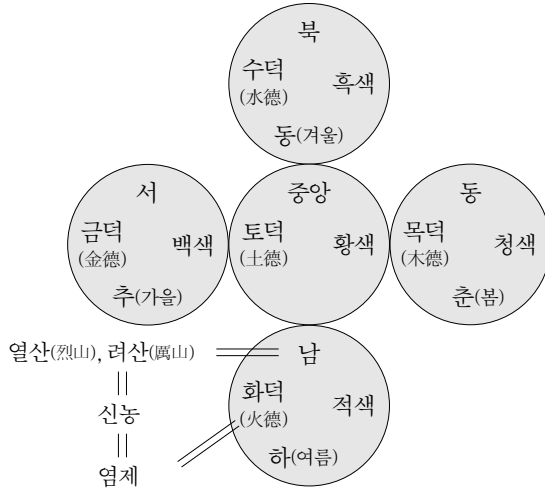
—『사기색은』 130, 「삼황본기」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은 애초에 염제에 관한 내용이었던 강씨 성을 가졌다는 점, 화덕을 가졌다는 점 외에는 모두 신농에 관한 내용인 도구 제작, 농업, 의약, 음악 등과 관련된 내용이 하나로 합쳐져 염제신농의 성격으로 변모한 점이다.<sup>23</sup>

개별적으로 등장하던 염제와 신농이 하나로 합쳐지는 것은 비교적 명확한 단계성을 보인다. 전국시대 이전까지는 확실히 염제와 신농은 서로 다른 인물 또는 집단으로 서술되다가, 대체로 전국 말에 혼용되기 시작하며, 한대 이후부터는 염제신농으로 합쳐지는 현상이 보편화된다. 이러한 사실은 중국 학자들도 인정하는 바이다.<sup>24</sup>

신농과 염제가 합쳐지는 배경에는 당시 유행했던 오행설의 영향이 컸다. 오행설은 ‘5’라는 숫자로 세계를 개괄하려고 하는 것이다. 『관자(管子)』 「사시」편을 보면, 동쪽은 목(木), 서쪽은 금(金), 남쪽은 화(火), 북쪽은 수(水), 그리고 중앙은 토(土)에 대응한다.<sup>25</sup> 이러한 예는 전국 말

제3장 중화문명의 시작, 염제 57



〈그림 2〉오행설과 염제 신농의 결합 양상

기에 편찬된 『여씨춘추(呂氏春秋)』 「십이기(十二紀)」와 서한 시기 편찬된 『회남자』 「시즉훈(時則訓)」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여기서 황제는 중앙에 위치하며 황색의 특징을 가지고, 염제는 남쪽에 위치하며 적색 및 화덕(火德)의 특징을 가진다.<sup>26</sup>

그런데 『국어』 「노어(魯語)」에는 “옛날 열산씨가 천하를 다스릴 때, 아들 주(柱)는 온갖 곡식과 채소를 심을 줄 알았다”<sup>27</sup>고 하여 열산씨와 그 아들 역시 농업과 관련이 있다고 한다. 농업이라는 공통점으로 인해 열산씨와 신농씨는 같은 인물 또는 집단으로 여겨지게 되었다. 그리고 열산(烈山)은 열산(列山) 또는 여산(厲山)과 같은 것으로 여겨지는데, 대체로 중국 남부인 후베이성(湖北省) 쑤이현(隨縣)에 위치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결론적으로 화의 덕인 염제가 오행설에 의해 남쪽에 배치됨에

따라 남쪽에서 활동한 신농과 결합하였다.<sup>28</sup>

이후 위진남북조 시기부터 수당 시기까지는 기본적으로 염제신농이 하나의 인물 또는 집단으로 묘사된다. 이러한 인식은 현재까지 이어지고 있어 중국에서 염제는 일반적으로 염제신농을 의미한다고 보아도 무리가 없다.

### 3. 고고 유적과 염제의 역사화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문헌상 염제의 성격은 변화가 있었으며, 염제와 신농이 결합한 염제신농은 오행설의 영향으로 후대에 형성되었다. 그렇다면 중국에서는 어떤 근거로 염제라는 인물 또는 집단이 실재했다고 보는 것일까?

염제를 실체화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전제가 필요하다. 첫째는 문헌 기록을 신뢰할 수 있어야 한다. 둘째는 염제가 활동한 사회가 이미 문명 단계에 진입했거나 최소한 문명의 징후가 발견되어야 한다. 만약 문명사회가 아니라면 문헌에 기록된 것처럼 왕이 되었다거나, 관직이 있거나, 군사를 두고 전쟁을 벌였다는 일은 근본적으로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사실, 1920~1950년대까지는 중국 문명의 시작을 안양(安陽) 인취(殷墟) 유적 발굴 성과에 기초하여 상나라 문명으로 보았다. 이후 1950년대 말~1970년대 중반 얼리터우(二里頭) 유적 발굴 성과로 얼리터우문화 시기에 이미 문명이 출현한 것으로 보게 되었다. 동시에 산둥성(山

東省), 허난성[河南省] 등지에서 룡산[龍山] 시기의 유적들이 발굴되었다. 특히, 1970년대 중반 이후 산시성[陝西省] 상편[襄汾] 타오쓰[陶寺] 유적, 창강[長江] 하류의 환타이후[環太湖] 지역 량주[良渚] 유적 발굴 성과가 속속 공개되고, 1980년대부터는 허난성 덩펑[登封] 왕청강[王城崗], 화이양[淮陽] 핑량타이고성[平糧臺古城], 산둥성 룡산문화 성지 등 다수의 토축 성벽이 발견되었다. 이들 유적은 기본적으로 성벽으로 둘러싸인 취락으로 취락 내 또는 취락 간의 계층 차이가 확인되어 문명사회에 진입한 것으로 평가된다.

이러한 고고학 자료의 증가에 힘입어 엔원밍[嚴文明]은 선사시대에서 문명사회로의 전환은 신석기시대 후기와 말기, 두 차례에 걸쳐 커다란 변화가 있었던 것으로 보았다. 첫 번째는 양사오문화[仰韶文化] 후기로, 이 시기 빈부 차이와 초보적인 계층 분화가 일어나고 주변 취락보다 높은 수준의 중심 취락이 출현하며, 무덤에서 보편적으로 석월(石鋸)이 출토되어 약탈성 전쟁이 있었다고 한다. 석월은 돌로 만든 도끼라는 뜻이다. 두 번째는 룡산시대로, 이 시기 출현한 성곽은 도성일 가능성이 있으며, 높은 귀족 무덤이 출현하고, 수공업의 비약적 발전이 있고, 계급 간의 대립이 첨예하여 프로토타입의 국가[雛形國家]가 출현했을 것으로 보았다. 그리고 이 시기의 첫 번째는 대체로 오제 중 황제·전욱·제곡이 대응되며, 두 번째는 요순과 대응되는 것으로 보았다.<sup>29</sup>

그의 견해는 이후 통설로 굳어지며, 5000년 전 또는 그 이전에 중국 문명이 기원했다는 견해가 학계의 주류로 자리 잡게 되었다.<sup>30</sup> 2001~2015년까지 국가 프로젝트로 진행된 중화문명탐원공정의 주요 임무는 바로 이 중화문명 5000년을 고고학적으로 증명하여 염황·오제의

60 중국 애국주의와 고대사만들기

역사와 문화를 탐색하는 것이었다.<sup>31</sup> 그 성과의 하나로 최근 발간된 『구역, 사회와 중국문명기원(區域, 社會與中國文明起源)』에서도 이 양사오 문화 후기인 기원전 3500년~3000년에는 수장사회[酋邦社會]가 출현하여 지역 문명이 시작되었으며, 룡산문화 시기인 기원전 3000년~기원전 2300년에는 고국이 형성되었다고 하였다.<sup>32</sup> 따라서 30년 전 엔원밍의 견해가 아직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신석기시대 후기는 평등한 부족사회에서 불평등한 초기 복합사회로 전환되는 양상이 확인된다. 이러한 특징은 문헌 기록뿐만 아니라 고고학적 사회발전 단계에서 말하는 문명의 출현과도 관련이 있는 시기다. 그렇다면 양사오문화의 문명화 정도는 어떠했을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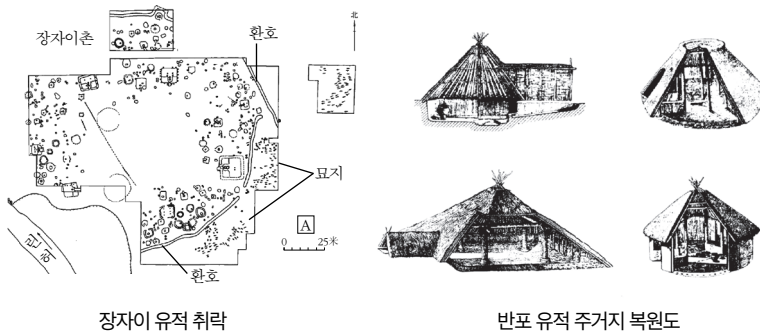
양사오문화는 허난성, 산시성[陝西省], 허베이성[河北省] 남부와 간쑤성[甘肅省] 동부에 걸쳐 분포하는데, 산시성 중남부와 허난성 서부 일대가 중심지다. 대체로 반포유형[半坡類型], 마오디거우유형[廟底溝類型] 등이 대표적인 양사오문화에 속한 문화 유형이다.

그중 반포유형의 대표적인 유적인 장자이[姜寨] 유적을 보도록 하자. 유적의 면적은 약 5만 제곱미터에 달하며, 주변에 인공적으로 조성된 환호가 둘러져 있다. 유적 중심에는 광장이 있고, 주변으로 100여 기의 반지하식 주거지가 산재해 있다. 이 주거지들은 중앙의 광장을 바라보고 몇 개의 그룹을 이루며 배치되어 있다. 각 그룹은 대형·중형·소형 주거지로 구성되어 있다. 소형 주거지는 규모로 볼 때 한 가족이 거주했던 것으로 보이며 수량도 제일 많다. 각 그룹은 직계 가족의 집합체로 보이며, 이 유적은 혈연으로 이루어진 씨족공동체가 모여 사는 마을이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이 유적 부근에 위치하는 무덤군은 주거지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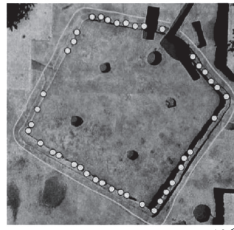
마찬가지로 몇 개의 작은 그룹으로 구분되는데, 이 또한 혈연관계를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 무덤 내에는 토기 몇 점만이 안치되어 있어 당시 사회 내부의 빈부 차이가 크지 않았음을 알 수 있다.<sup>33</sup>

장자이 유적은 대형 취락으로 계획성 있는 주거지 배치와 주위의 방어시설로 보아 체계적인 계획과 관리하에 형성되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사회 계층화와 분업화가 뚜렷하지 않고, 대체로 평등한 사회로 아직 복합사회로 진입하지는 못한 것으로 판단한다.

반면, 마오디거우유형 사회는 반포유형 사회에 비해 보다 체계화된 사회 양상을 보여 주며 분포 범위도 월등히 넓다. 대표적인 유적인 허난성 서부 산문샤[三門峽]에 위치한 링바오[靈寶] 주딩위안[鑄鼎原] 유적군을 보자. 이 유적군은 소수의 대형 취락, 중형 취락, 대다수의 소형 취락 등이 분포되어 취락 간의 위계질서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대형 취락으로는 약 90만 제곱미터의 베이양핑[北陽平] 유적과 약 40만 제곱미터의 시포[西坡] 유적이 대표적이다. 그중 시포 유적은 발굴을 통해 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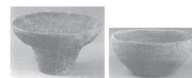
〈그림 3〉 양사오문화 반포유형 취락 및 주거지<sup>34</sup>



F106



M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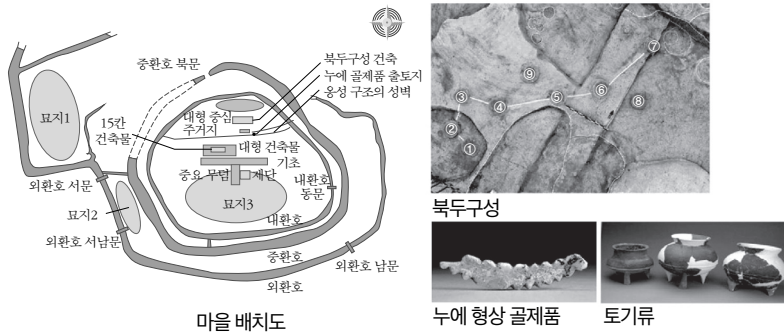
M11

〈그림 4〉 시포 유적의 대형 건물지와 무덤 및 출토 유물<sup>35</sup>

을 주위로 환호 방어시설이 발견되었고, 마을 중앙에는 광장이 있으며, 광장 부근에 마을의 공동 제의를 위한 여러 기의 대형 건물지가 광장을 바라보며 배치되어 있다. 이러한 양상은 반포유형의 취락 배치와 일부 유사성을 보인다.

한편, 이보다 늦은 시기에는 중형 건물지가 다수 출현한다. 환호 바깥에는 공동묘지가 있고, 무덤 규모가 차이가 있으며, 일부 무덤에는 옥월(玉鉞) 1점과 토기가 부장되어 있어, 미세하지만 사회 분화가 시작되었음을 짐작할 수 있다.<sup>36</sup>

최근 조사된 마오디거우유형보다 다소 늦은 시기의 허난성 궁이[鞏義] 쌍화이수[雙槐樹]에서는 3중 환호로 둘러싸인 대형 마을 유적이 발견되었다. 유적은 대체로 약 5300년 전 전후로 편년되어 양사오문화 시기에 해당한다. 유적의 총면적은 117만 제곱미터 정도이며, 환호, 옹성, 주거지, 제사 유적, 토기 공방, 내부 도로, 공공묘지 등이 확인되었



〈그림 5〉 상화이수 유적의 취락 배치 및 출토 유물<sup>37</sup>

다. 공공묘지는 총 3곳으로 무덤 배열이 정연하다. 가장 안쪽 환호 내에는 대형 건물지가 위치하며, 옹성 일부가 확인된다. 이 옹성은 일반 주거 구역과 정치적 활동 공간을 구분하는 용도로 판단된다.

한편, 유적 내에서는 토기 항아리(罐)가 북두구성(北斗九星)<sup>38</sup>을 연상케 하도록 지면에 배치되어 있어, 당시 천문에 대한 이해가 있었음을 추정케 한다. 또한 누에 형상의 골(骨) 제품이 출토되어 당시 견직물 생산이 이루어졌음을 알 수 있다.<sup>39</sup> 중국 학계에서는 상화이수 유적이 앞의 두 사례보다 더욱 체계적이고 분화된 사회 양상을 보여 주어 이미 고국 단계에 진입했다고 보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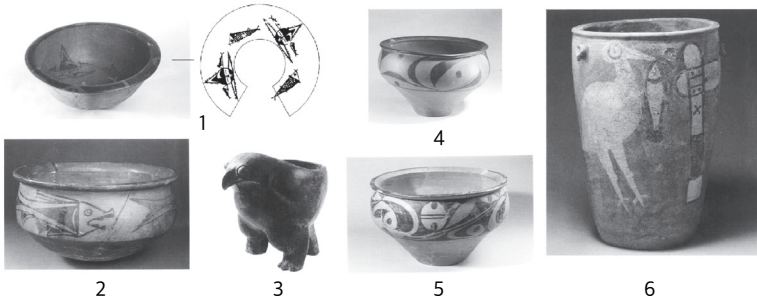
중국 학계에서는 양사오문화 시기 상화이수 유적을 이미 고국 단계에 진입한 것으로 보고 중국 문명이 형성되는 시기라고 한다. 그러면 이보다 앞선 시기인 마오디거우유형과 반포유형도 중국 문명의 기원과 관련된 시기로 볼 수 있다. 사실, 반포유형은 아직 평등사회 구조여서 문명이 출현했다고 할 수 없다. 그럼에도 주나이칭(朱乃誠) 같은 연

구자는 마오디거우유형 단계에 문명의 초기 형태가 나타남으로 염제와 대응시킬 수 있고, 반포유형은 신농과 관련될 가능성을 제기한다. 아울러 황제는 룡산시대에 해당하며, 대표적인 고고문화로 랴오시[遼西] 지역의 홍산문화[紅山文化]를 제시한다.<sup>40</sup>

그런데 이럴 경우 문헌 기록과 고고학 자료가 서로 대응하지 못하는 문제점이 발생한다. 문헌 기록에 의하면 염제와 황제는 형제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동일한 문화권에 속해야 할 것인데, 서로 다른 고고학문화인 양사오문화와 홍산문화를 형제 관계인 염제와 황제에 대응시킬 경우 문헌과 대응되지 않는 상황이 발생하는 것이다. 그리고 염제가 활동했다고 하는 강수[姜水]는 산시성[陝西省] 바오지시[寶鷄市]를 흐르는 웨이허[渭河] 상류 일대로 비정되고, 황제가 활동했다고 하는 희수[姬水]는 산시성의 치수[漆水], 허난성의 이수[潁水] 등 다양한 견해가 있지만 적어도 동북지역은 해당되지 않는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한젠예[韓建業]는 양사오문화 반포유형을 염제와, 마오디거우유형은 황제와 대응시킨다. 이 경우 양사오문화라는 같은 문화권 안에서 선후관계<sup>41</sup>를 두고, 반포유형과 마오디거우유형의 출현은 염제→황제의 순서와 대응되며, 반포유형의 중심지가 관중 서부지역인 점, 마오디거우유형의 중심지가 산면샤[三門峽] 지역이라는 점 역시 염제 및 황제의 활동지역과 대응 되기에 문헌 기록과 고고학 자료가 대체로 부합하는 것으로 보인다.

다른 한편으로 한젠예는 염제의 실체를 밝히기 위해 과감한 추론을 폈다. 양사오문화의 주요 특징인 채도[彩陶]에는 다양한 문양이 그려져 있는데, 그중에서도 동물 문양이 가장 시선을 끈다. 문양은 대체로 물



〈그림 6〉 반포유형과 마오디거우유형 출토 토기 비교도<sup>42</sup>(1·2: 반포유형, 3~6: 마오디거우유형)

고기 문양과 사람 얼굴이 결합한 도안이 주를 이루는데, 새 도안이 주를 이루는 마오디거우유형과 구별되는 큰 특징이다.

그런데 산시 바오디 베이서우링[北首嶺] 유적과 허난성 루저우[汝州] 옌촌[閻村]에서는 물새가 물고기를 물고 있는 모습[水鳥銜魚]과 황새가 물고기를 물고 있고, 돌도끼가 그려진 도안[觀魚石斧](〈그림 6-6〉)이 각각 확인된다. 여기서 새가 물고기를 물고 있는 것은 새를 숭배하는 황제 부족과 물고기를 숭배하는 염제 부족이 충돌한 결과 황제 부족이 승리하였음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한다. 이것이 바로 문헌에 기록된 염제와 황제의 전쟁, 즉 판천대전이 실제로 일어났음을 반영하는 것이라고 한다.<sup>42</sup>

이러한 추론에는 몇 가지 문제점이 있다. 먼저, 반포유형은 아직 사회 분화가 일어나지 않은 문명 이전 단계이기 때문에 문명적 요소를 갖춘 문헌 속 염제와의 대응이 근본적으로 불가능하다. 차라리 주나이칭의 주장처럼 마오디거우유형 단계를 염제와 대응시키는 것이 합리적

이다. 그러나 이 경우 황제와 대응시킬 수 있는 문화 유형이 없다는 맹점이 있다. 그리고 단순히 토기 문양을 근거로 당시 두 부락 사이에 전쟁이 발생했음을 유추하는 것은 다소 근거가 부족한 논리 전개라 할 수 있다. 각기 다른 지역에, 또는 각기 다른 시기에 유행하던 문양이 복합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은 고고학적으로 시대를 불문하고 어렵지 않게 관찰된다. 이러한 융합은 전쟁 외에도 평화적인 교류에 의해서도 충분히 나타날 수 있다.

그 외에 엔원밍은 양사오문화에서 석월이 출토되는 현상을 당시 전쟁이 빈번했음을 나타낸다고 하였는데, 이 또한 인정받기 어렵다. 석월은 옥월과 재질 차이는 있지만 실용기가 아닌 의기로 사용되었을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무력충돌이 빈번했음을 증명하기 위해서는 의기보다는 무기류가 다량 출토되는 점을 강조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그러나 양사오문화 시기에 보고된 무기류는 소량의 석촉(石鏃)을 제외하면 알려진 바가 별로 없다.

사회발전 단계 측면에서 볼 때 양사오문화를 중국 문명의 기원과 연결하는 것은 어느 정도 합리성이 있어 보인다. 그러나 특정 고고학 문화 유형을 문헌 속의 특정 인물 또는 집단과 직접 대응시킬 경우 문제가 발생한다. 사실, 고고 자료와 문헌상의 인물이나 사건을 그대로 대응시키는 것은 고고학 연구에서 신중을 요구하는 작업이다. 『의고시대를 걸어나오며(走出疑古時代)』를 저술한 리쉐친(李學勤) 역시 “어떤 고고 문화를 전설 속의 인물과 가볍게 연결해서는 결코 안 된다”고 강조하였다.<sup>44</sup>

#### 4. 현대 사회 속의 염제

염제가 전설 속의 인물(부족)이거나 혹은 역사 속의 인물(부족)이거나  
에 관계 없이 현대 중국 사회에서 염제는 이미 황제와 함께 중화민족의  
시조로 여겨지고 있다. 염제에 대한 숭배는 상징 건축물과 제사의식 등  
을 통해 이루어진다. 특히 염제의 고향으로 여겨지는 산시성[陝西省] 바  
오지시[寶鷄市] 선농진[神農鎭]에는 염제의 후손들이 거주하는 장청마오  
촌[姜城堡村]이 있으며, 염제를 기리는 신농사(神農祠)와 염제릉(炎帝陵),  
염제고리(炎帝故里) 등의 기념물도 있다.<sup>45</sup>

장청마오촌은 상고 시기 염제신농을 우두머리로 하는 강씨성[姜姓]  
부족이 생활하며 형성된 마을이라고 한다. ‘姜城(강성)’은 ‘강씨의 성  
(城)’이라는 뜻으로, 염제의 후손들이 쌓은 성이라는 뜻이다.

그런데 이 마을이 염제의 후손들이 거주하는 마을이라는 근거는 명  
나라 시기인 1608년 제작된 문헌에 기인한다. 『바오지현지(寶鷄縣志)』  
에 의하면 “강씨성(姜氏城)은 염제로부터 전해졌으며, 주장(周姜)이 이곳  
에서 태어났다”고 한다.<sup>46</sup> 주장은 태강(太姜)이라고도 하는데 주나라의  
조상인 공단부(公奭父)의 정비이며, 주 문왕(文王)의 할머니다. 이 기록  
은 염제 시기와는 동떨어진 후대 기록이며, 현재 이 마을에는 강(姜)씨  
성을 가진 사람은 없고 주로 진(陳)씨가 거주하고 있다.

이 마을의 장청마오장[姜城保障]이란 이름의 사당에는 토지신과 함께  
염제와 염제의 어머니가 모셔져 있다. 토지신은 사당 정면 중앙에, 염  
제와 염제의 어머니는 양쪽 측면에 위치한다. 규모에서 토지신이 염제  
보다 훨씬 크며, 심지어 염제의 어머니인 강원(姜嫄)은 관음보살 형상

68 중국 애국주의와 고대사 만들기



〈그림 7〉 장청바오촌 모습(©김인회)



〈그림 8〉 장청바오장 사당 전경(©김인회)



〈그림 9〉 장청바오장 사당 정중앙의 토지신(©김인희)



〈그림 10〉 장청바오장 사당 측면의 염제신(©김인희)

70 중국 애국주의와 고대사 만들기



〈그림 11〉 신농사 전경(©김인희)



〈그림 12〉 신농사 앞 신농이 농사를 가르치는 모습을 형상화한 벽화(©김인희)

제3장 중화 문명의 시작, 엄제 71

을 하고 있다. 중국에서 관음보살은 아이를 돌보는 신인 삼신할머니 역할을 한다. 규모가 가장 큰 토지신이 중앙에 위치하고, 관음보살을 모시는 점으로 미루어 이 사당은 본래 염제와 관련 없는 토지신을 모시는 사당이었음을 알 수 있다. 중국에서 염황열이 일어나면서 염제를 모시기 시작한 것으로 보인다.

위취안촌[峪泉村]에는 염제신농씨를 모신 사당인 신농사가 있다. 이전에 있었던 것은 무너지고, 현재의 것은 2002년에 지었다고 한다. 사당 안에는 염제신농씨, 신농의 아버지 소전(少典), 어머니 임사(任姒)가 모셔져 있다. 신농사 앞 벽에 쓴 소개글에는 “염제와 관련된 고문헌 기록을 정리하여 염제의 업적을 설명하고, 염제정신은 중화의 후예에게 우매와 야만을 벗어나 선진과 문명을 추구하게 하였으며, 이러한 정신을 바탕으로 화하민족이 고도로 단결하고 통일을 이루었다”고 설명하고 있다.

창양산(常羊山)에는 염제릉이 있다. 염제릉은 제사 지역과 염제 무덤으로 구분된다. 염제 무덤은 산 정상에 위치하며, 흙을 쌓은 구릉으로 초목이 무성하다. 능 앞에는 염제릉이라 쓴 비석이 세워져 있다. 염제릉 아래쪽에는 ‘만 명이 제사할 수 있는 광장[萬人祭祀廣場]’이 있는데 대형 석조 건물인 귀근당(歸根堂)과 제사 및 각종 공연을 거행할 수 있는 광장으로 구성되어 있다. 귀근당은 “뿌리를 찾아 돌아온다”라는 뜻으로 염제가 중화민족의 공통 조상임을 강조한 것이다. 귀근당 벽면에는 “같은 뿌리를 가진 공통의 조상을 화하족이 함께 제사 지낸다(同根同祖 華夏共祭)”라는 글귀가 있다. 광장은 1만 명 정도가 모일 수 있는 규모로 염제가 사망한 7월 7일과 출생한 1월 11일 제사를 지내고 있다. 이 염제제전은 2008년 국가무형문화유산에 등재되었다.



〈그림 13〉 엄제릉. 뒤쪽 봉분이 엄제 무덤이다.(©김인희)



〈그림 14〉 귀근당과 엄제상. 황금색 인물상이 엄제다.(©김인희)

제3장 중화 문명의 시작, 엄제 73



〈그림15〉염제상. 염제는 머리에 소뿔을 달고, 손에는 이삭을 들고 있다.(©김인회)



〈그림 16〉성씨 수(樹)와 성씨 기둥. 가운데 황금나무는 중화민족이 모두 염제에서 시작됐음을 알리는 것이며, 네 기둥은 중화민족 각 성씨의 기원을 문양으로 설명한 성씨 기둥이다.(©김인회)



〈그림 17〉 성씨 기둥의 문양. 신석기시대 토기와 청동기시대 금문상의 문양을 현대 중국의 각 성씨의 기원으로 설명하고 있다.(©김인희)

염제릉 안내 표지판에 의하면 “창양산은 중화민족의 위대한 시조인 염제가 출생하고, 생활하고, 사망한 곳으로, 5000년 전 신농씨 부락은 이곳에서 생활했고, 중화민족은 이곳에서 태어나고, 성장하고, 발전하였다. 염제의 정신은 중화민족의 민족정신이며, 중화민족의 혼이 되었다”고 한다.

이 밖에도 후베이성[湖北省] 수이저우[隨州]에는 염제신농의 탄생지로 여겨지는 염제신농고리(炎帝神農故里)가 있다. 후난[湖南] 주저우시[株洲市]에는 염제가 사망한 곳으로 여겨지는 염릉(炎陵)이 있다. 산시성[山西省] 가오핑[高平]에는 신농이 오곡을 맛본 곳으로 여겨져 이를 기념하는 염제릉(炎帝陵)이 있다. 허난성 상추시[商丘市]에는 염제신농씨보다 더 이른 시기에 활동했다는 염제주양씨(炎帝朱襄氏)의 능이 있다. 허난

제3장 중화 문명의 시작, 염제 75

성 정주시(鄭州市)에는 염제와 황제의 얼굴을 조각한 거대한 조형물이 있으며, 중국 곳곳에 염제 관련 기념물과 무덤이 분포되어 각 지역마다 제사를 지내고 있다. 일부 유적지는 전국 애국주의 교육 기지로 지정되어 국가 차원에서 애국정신을 함양하는 데 활용되고 있다.

이러한 기념물과 제사의식은 성지(聖地) 역할과 염황의 자손이라는 정체성을 강화하는 역할을 한다. 매년 중국인뿐만 아니라 세계 각지의 화교들이 이러한 성지를 방문하여 정체성을 공고히 하고, 제사의식(祭典)에 참여하여 자신들의 뿌리 찾기를 실천하고 있다.<sup>47</sup>

## 5. 염제의 역사화와 한계

염제와 황제는 형제 관계이며, 중화민족의 시조로 여겨진다. 염제는 신농과 결합하여 삼황시대를 대표하고, 황제는 다음 시대인 오제시대를 대표한다. 문헌 속에서 염제의 실제 출현이 전국시대 이후라는 점은 중요하지 않다. 왜냐하면 염제로 대표되는 부족은 전국시대보다 훨씬 이른 시기에 실재했지만, 문헌에 늦게 기록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중국 학계에서는 염제 관련 기록이 허구일 가능성을 인정하면서도 과거부터 사람들의 기억으로 이어져 왔기 때문에 완전히 허구로만 볼 수는 없다고 주장한다.

이러한 낙관론에 근거하여 염제를 실존 인물로 만들기 위해 고고학 자료를 적극적으로 이용하고 있다. 그 이유는 염제 관련 문헌의 내용이 농업으로 대표되는 사회와 신석기 후기 사회가 어느 정도 연결점이 있

76 중국 애국주의와 고대사만들기

는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특히 신석기 후기 양사오문화의 취락과 무덤에서 평등사회에서 복합사회로 전환되는 양상이 확인되는 점을 들어 문명의 초기 요소가 등장하였음을 강조한다. 나아가 양사오문화 반포유형을 염제에 대응시키고, 먀오디거우유형을 황제에 대응시켜 이들을 실존한 인물로 만들려고 한다. 신석기시대 후반 먀오디거우유형이 반포유형을 대체하는 것을 문헌상의 황제가 신농을 대신하게 되었다는 기록을 증명하는 것이라고 한다. 그리고 토기 문양 중 새가 물고기를 물고 있는 도안을 황제와 염제의 판천대전에서 황제가 승리한 상황을 반영한 것이라 한다.

위와 같이 다소 억지스러운 문헌과 고고 자료의 결합은 염황 자손 개념이 허구가 아님을 증명하기 위한 것이다. 중국은 염제와 황제의 실존을 통해 중화민족의 시원을 신석기시대까지 소급시켜 중화민족의 오랜 역사와 우수한 문화를 강조하여 민족적 자긍심을 고취하고, 소수민족을 비롯한 화교를 단합시키는 추동력으로 삼으려 한다.

1990년대 염황열과 함께 중국 각지에서는 염제 관련 기념물이 건립되었고, 염제에 대한 제의가 거행되었다. 문헌과 전설의 신빙성 여부와는 상관없이 무분별하게 수용되어 전국 각지는 염제신농의 고향이 되었고, 농사를 짓고, 사망한 곳이 되었다.

문헌 기록과 역지로 연결하지 않더라도 새롭게 발견되는 고고학 자료들과 연구성과는 중국문명이 생각보다 이른 시기에 출현했을 가능성을 보여 준다. 문제는 고고학적 현상을 문헌 기록과 대응시키려는 데 있다. 기존 연구에 의하면 중국 역사는 청동기시대인 하나라부터 시작되었다고 한다. 이후에는 신석기시대 인물인 황제에서 시작되었으

며, 중화문명 5000년이 실재한다고 하였다. 그런데 지금은 한발 더 나아가 그 보다 이른 시기인 염제부터 중화문명이 시작되었다고 한다.

만약 중국 학계가 삼황시대의 마지막과 오제시대의 시작에 걸쳐 있는 염제의 실존을 증명한다면, 오제시대보다 더 신화시대로 여겨졌던 삼황시대의 역사화에 발판을 놓을 수 있을 것이다. 염제는 황제와 함께 중화민족의 시작이자, 그보다 더 오래된 중화문명의 기원을 찾는 실마리이다. 하지만 염제의 실존에 대한 충분한 학문적 근거가 마련되지 않는다면 한국을 비롯한 외국 학계의 동의를 얻기는 어려울 것이다.

제4장  
황제, 역사인가? 신화인가?

김인희 · 동북아역사재단 연구위원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 1. 역사인가, 신화인가

그동안 이루어진 황제 연구는 황제를 신화적 존재로 보느냐, 역사적 존재로 보느냐에 따라 두 갈래로 나뉜다. 한국과 서양 학계에서는 신화적 인물인 황제가 전국시대 제자백가에 의해 고대 성왕(聖王)으로 숭배되면서 역사적 인물이 되었다고 한다. 중국 학자 대부분은 역사의 신화화를 지지하며, 황제는 실존한 역사적 인물이라고 한다. 일부 학자는 초기 황제가 신화적 존재였다고 한다. 구제강[顧頡剛]·양상쿠이[楊向奎]<sup>1</sup>·장순후이[張舜徽]<sup>2</sup>·우광평[吳廣平]<sup>3</sup>·허신[何新]은 황제(黃帝)가 태양신에서 기원하였다고 한다. 귀모뤄[郭沫若]<sup>4</sup>·창위즈[常玉芝]<sup>5</sup>·천밍위안[陳明遠]<sup>6</sup>은 상제(上帝)에 대한 숭배에서 황제가 기원하였다고 한다.

황제를 역사적 존재로 보는 입장은 1943년 쉬취성[徐旭生]이 출판한 『중국 고사의 전설시대(中國古史的傳說時代)』<sup>7</sup>에서 시작된다. 쉬취성은 의고파(疑古派)가 고대를 지나치게 의심하는 편향적인 경향에 반대하며 이 책을 집필하였다. 책 제목을 ‘신화시대’가 아닌 ‘전설시대’로 한 이유에 대해서는 “신화는 허구이고, 전설은 역사적 사실을 내포하고 있는데, 중국의 전설에는 신화 성분이 크지 않기 때문”이라고 하였다. 이후 중국 학계의 통설은 화하족인 황제가 동이족인 치우를 정벌하고 화하집단 중심의 국가를 최초로 세웠다는 것이다.

1990년대 이전 연구가 주로 문헌 중심이었다면 1990년대 이후에는 고고 유적과 결합하여 황제의 실존을 증명하는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었다. 우리에게 잘 알려진 학자로는 쑤빙치[蘇秉琦]<sup>8</sup>와 리쉐친[李學勤]<sup>9</sup>이 있는데, 이들은 황제의 생존 시기를 기원전 3000년 이전의 신석기

시대로 비정하였다. 황제시대를 고고학적으로 증명하기 위해 국가 차원에서 중화문명탐원공정(中華文明探源工程)과 같은 프로젝트도 실시하였다.

현재 황제는 중국 모든 제왕의 시조일 뿐만 아니라 한족을 포함한 중화민족의 혈연적인 조상이다. 황제가 제왕의 시조가 된 것은 한나라 시기 사마천의 『사기』 「오제본기」에서 최초의 제왕으로 황제를 기록했기 때문이다. 그런데 황제가 역대 제왕의 시조가 될 수 있었던 것은 치우를 물리치며 정의를 실현하고 국가를 세운 공로 때문이었다. 따라서 ‘황제와 치우의 전쟁’ 이야기는 황제신화의 핵심이라 할 수 있다.

황제와 치우의 전쟁 이야기를 처음으로 전한 것은 『상서·주서(尙書·周書)』 「여형(呂刑)」편이다. 그런데 「여형」에서는 치우와 전쟁을 치른 존재가 ‘黃帝’가 아니고 ‘皇帝’<sup>10</sup>라고 기록되어 있다. 『상서』는 중국에서 가장 오래된 전적이자 춘추 이전 역대 사관이 기록하고 수장한 정부 문건으로 신뢰성이 높다. 따라서 『상서·주서』 「여형」편에서 皇帝라고 기록한 것은 특별한 역사적 사실을 반영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 글에서는 「여형」의 ‘皇帝와 치우의 전쟁’ 이야기를 중심으로 초기 황제의 형상이 특정한 역사적 사건과 역사적 인물을 모델로 형성되었음을 증명해 보도록 하겠다.

## 2. 『상서』 「여형」의 문헌적 가치

### 1) 소실과 복간을 반복한 『상서』

『상서』는 선진 시기에는 『서(書)』라 하였으며, 서한 초기에 이르러 『상서』라 부르기 시작하였다. 이후 한 무제가 오경박사를 설립한 후에 『서경(書經)』이라 부르게 되었다. “춘추전국시기 사학의 발달에 따라 사람들이 점점 군주를 중심으로 전문 기록을 하게 되었으며, 통치자의 중요한 말을 정리한 것을 『서』라 하였는데, 『서』라고 불린 이 자료들은 이후 『상서』의 중요한 내원이 되었다.”<sup>11</sup> “『상서』는 고대 사적과 전장제도를 기록하여 사람들이 어떻게 통치해야 하는지 교육하는 책이다.”<sup>12</sup>

『상서』의 제작 시기에 대해서는 논란이 있으나 관련 기록을 통해 볼 때 춘추시기에 이미 광범위하게 전승되었음을 알 수 있다. 정현(鄭玄)은 『서론(書論)』에서 『상서위(尚書緯)』를 인용하여 “공자는 황제(黃帝)의 증손 제두(帝魁)로부터 『서』 3,240편을 얻었는데, 그중 120편을 남기고 모두 없었으며, 102편은 『상서』로 삼고, 18편은 『중후(中侯)』로 삼았다”<sup>13</sup>고 한다. 일반적으로 『상서위』는 위서로 보기 때문에 3,240편이라는 말은 믿을 수 없으나 공자 시기 『서』라고 불리는 서적이 매우 많았음을 알 수 있다. 그리고 “공자가 『시(詩)』·『서(書)』·『집례(敎禮)』를 강의하였다”<sup>14</sup>고 한 것으로 보아 『서』는 공자가 학생들에게 강의할 때 사용한 교과서였음을 알 수 있다. 『장자』에 의하면 “『시(詩)』·『서(書)』·『예(禮)』·『악(樂)』에 기록되어 있는 것들은 추나라와 노나라의 유학자들이 대부분 밝혔다”<sup>15</sup>고 하여 『서』는 선진 시기 학자들의 주요 연구대상이기도

하였다.

이처럼 춘추전국시기 유학자들의 중요한 교과서이자, 연구대상이었던 『서』는 진시황에 의해 새로운 운명을 맞게 된다. 진시황은 전국을 통일한 후 문자 통일을 명령하여 관가에 전하던 『상서』를 예서로 고쳐 쓰게 하였다. 관가에 전하는 『상서』는 진나라 당시의 문자로 썼다고 하여 『금문상서(今文尚書)』라 한다. 민간에는 여전히 선진 시기의 고문자로 쓴 『상서』가 전승되었는데 이를 『고문상서(古文尚書)』라 하였다. 진시황은 말년에 분서갱유를 단행하여 관가에서 제작한 『금문상서』를 제외한 민간에 전승되는 『고문상서』를 모두 불태웠다. 이후 항우가 진나라 궁궐을 불태울 때 『금문상서』마저 소실되었다.

완전히 소실된 듯하던 『상서』는 한나라 시기에 다시 등장한다. 『금문상서』는 진나라 박사관(博士官) 출신의 복생(伏生)이 전한 것이다. “복생은 분서갱유 때 『상서』를 벽 속에 숨겨두었으며, 전쟁을 피해 도망갔다가 돌아와 벽을 허무니 수십 편이 사라지고 29편만 남아 있었다.”<sup>16</sup> 복생은 노나라와 제나라 지역에서 학생들에게 『상서』를 강의하였는데, 한 문제는 조조(晁錯)를 복생에게 보내 『금문상서』를 전수받았다. 『고문상서』는 “한 무제 말년에 노(魯) 공왕(恭王)이 공자의 집을 부술 때 발견”<sup>17</sup>한 것으로, 공자의 집 담장에서 나왔기 때문에 공벽본(孔壁本)이라고 하며, 공안국(孔安國)이 조정에 올렸다.

『상서』는 서진(西晉) 시기 영가지란(永嘉之亂)으로 다시 소실되었다. 동진(東晉) 초기 예장군(豫章郡) 내사(內史) 관직에 있던 매색(梅賾)이 『상서』를 조정에 바쳤다. 매색이 바친 『고문상서』는 58편으로 복생의 『금문상서』보다 25편이 많았다. 매색이 바친 이 판본은 후세 학자들의 정

리를 거쳐 당나라 초기 공영달(孔穎達) 등이 『오경정의(五經正義)』를 저작하여 관방에 배포하였다. 청나라 시기 『십삼경주소(十三經注疏)』도 『오경정의』본을 채용하였다. 이때부터 『십삼경주소』에 수록된 『상서정의(尙書正義)』가 전해져 현재 통용되는 판본이 되었다.

이처럼 『상서』는 제작 연대가 명확하지 않고, 소실과 복간을 반복하였기 때문에 내용의 진위 여부에 대한 논란이 끊이지 않았다.

## 2) 「여형」의 문헌적 가치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그동안 『상서』에 대한 여러 논란이 있었다. 따라서 「여형」의 皇帝 이야기를 연구하기 위해서는 먼저 「여형」의 문헌적 가치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져야 한다.

현재 전하는 『상서』 28편은 「우서(虞書)」 2편, 「하서(夏書)」 2편, 「상서(商書)」 5편, 「주서(周書)」 19편으로, 「여형」은 「주서」의 한 편목이다. 청나라 말까지 「여형」은 서주 목왕(穆王) 시기 제작된 것이라는 사실을 믿어 의심치 않았다. 근대 시기 의고파의 구제강은 초기에 「여형」에 신뢰를 보였으나<sup>18</sup> 이후 초문화와 관련성을 주장하며<sup>19</sup> 전통의 목왕설을 부정하고 춘추 혹은 그 이후의 것이라 하였다. 첸무(錢穆)는 “「여형」은 전국 후기 학자들이 〈주관(周官)〉에 근거해 만든 것으로 전국 후기에 제작되었다”<sup>20</sup>고 하였다. 귀모뤄(郭沫若)는 “「여형」에 등장하는 ‘절지천통(絕地天通)’은 금문(金文)에 ‘地(지)’자가 없고, ‘하늘과 짝을 이루는 땅의 개념이 보이지 않는 것’으로 보아 후대에 삽입된 것이라 하였다.”<sup>21</sup> 장시당(張西堂)은 귀모뤄의 주장 외에도 4가지 증거를 더 제시하며 서주 시

기 저작이 아니라고 하였다.<sup>22</sup>

최근에는 「여형」을 인용한 출토 문헌이 발견되어 과학적인 방법으로 제작 시기를 연구할 수 있게 되었다. 관련된 출토 문헌으로는 귀톈 [郭店] 초묘(楚墓)에서 출토된 선진 시기 죽간본인 「치의(緇衣)」, 상하이 박물관[上海博物館] 소장 선진 시기 죽간본 「치의(緇衣)」, 『예기·치의(禮記·緇衣)』 경본(經本), 『묵자·상동중(墨子·尚同中)』 등이 있다. 차오푸린 [晁福林]은 “귀톈 초간(楚簡) 「치의(緇衣)」에서 『상서』 「여형」을 3차례 인용하였으므로 「여형」의 초기본은 귀톈 초간본보다 이른 춘추 말에서 전국 초기에 제작되었으며, 현전하는 「여형」의 완성본은 귀톈 초간본보다 늦은 전국 후기에 완성되었을 것”<sup>23</sup>이라고 하였다. 귀징윈(郭靜云)도 「여형」을 인용한 5가지 판본의 문자를 비교하여 차오푸린의 설을 인정하였다.<sup>24</sup> 따라서 「여형」은 춘추 말에서 전국 초 원형이 만들어졌고, 전국 후기에는 완성본이 등장하였음을 알 수 있다.

일반적으로 학자들은 「여형」에 대해 높은 신뢰성을 보인다. 귀징윈은 “『주서(周書)』의 「목서(牧誓)」에서 「여형(呂刑)」에 이르는 16편은 서주 시기의 역사 사실을 기록한 것이다. 『상서』 중 요·순·우·하·상은 후대인이 기억을 더듬어 쓴 것이나, 주 왕조 때 일을 기록한 「주서」는 대부분 서주 시기 원시 공문서 자료를 바탕으로 한 것으로 「주서」 중 한 편인 「여형」은 신뢰도가 매우 높다”<sup>25</sup>고 하였다. 그리고 “중국 학계가 죽간, 백서, 고서 등으로 대표되는 출토 문헌 연구를 진행한 결과 『상서』(주로 「주서」), 『일주서(逸周書)』(「상서(商誓)」 외 몇 편), 『좌전(左傳)』, 『국어(國語)』 등 많은 사료의 완성본은 늦은 시기에 등장하나 내용은 사료상의 시대에 부합한다”<sup>26</sup>고 하였다. 따라서 「여형」은 서주 시기 역사 사

실을 기록한 공문서이며, 서주 시기 역사 사실을 반영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 3) 어정비(魚鼎匕) 명문과 「여형」

「여형」에 등장하는 皇帝와 치우의 전쟁 이야기는 청동 숟가락인 어정비 명문에 등장한다. 어정비는 1923년 산시성[山西省] 훈위안[渾源]에서 발견되었는데, 정식 발굴이 아니었기 때문에 제작 연대와 유물의 소속에 대해서 논란이 있다. 제작 연대에 대해서는 춘추 중·말기,<sup>27</sup> 춘추 말에서 전국 교체기,<sup>28</sup> 전국시대 초기<sup>29</sup> 등 여러 설이 있는데, 하한은 전국시대 중·말기<sup>30</sup>를 넘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어정비에 대해서는 진(晉)나라,<sup>31</sup> 대국(代國),<sup>32</sup> 연나라<sup>33</sup> 등 여러 설이 있으나 진나라 유물로 보는 견해가 우세하다. 따라서 어정비는 춘추전국 교체기, 진나라 유물로 볼 수 있다.

어정비는 현재 두 개가 발견되었다. 뤼전위[羅振玉]가 소장한 것은 일부가 손상되어 명문 36자가 남아 있다. 2010년 베이징용지당[北京永吉堂]이 공개한 것은 온전한 형태로 명문 40자가 새겨져 있다. 명문 해석은 학자에 따라 차이를 보이는데, 이 책에서는 뤼전위가 소장한 것은 두샤오위[杜小鈺],<sup>34</sup> 새로 발견된 것은 우전평[吳鎮烽]<sup>35</sup>의 견해에 따라 해석하겠다.

〈표 1〉 어정비 명문의 번역문 비교

뤼전위 소장 어정비 명문	원문	曰：蚩尤亡之，述(隳)王魚觸(鼎)。曰：欽伐(戡)，出旅(游)水虫! 下民無智(知)，參蚩虺(尤)命，帛(迫)命入歎(羹)，裕(滯)入粉(滯)出，毋處其所。
	번역문	치우 손가락이 왕의 어정(魚鼎)에 빠졌다. 왕은 말하였다. “신중하고 조심하여라, 나와서 돌아다니는 물뱀아! 무지한 백성아, 치우의 운명을 보아라. 박명하여 어정에 빠져 뜨거운 탕 속에서 이리저리 미끄러지니 살아날 길이 없다.”
2010년 공개된 어정비 명문	원문	曰：徯(誕)又(有)[氏(是)] 虺(昆)尸(夷)，述(遂)王魚顛(顛)曰：欽(戡)，出旅(游)水虫，下民無智(智一知)，(參三)[目人之]蠱(蚩)虺(尤)命，帛(薄)命入歎(羹)，藉(柔)入藉(柔)出，母(毋)處(其)所°
	번역문	곤이(昆夷)라는 사람이 왕에게 물고기머리를 바쳤다. 왕은 말하였다. “신중하고 조심하여라! 사방으로 헤엄쳐 돌아다니는 물뱀은 죽임을 당한다. 백성들은 삼묘(三苗)의 수령인 치우가 어수(魚首)에 묻힌 운명을 알지 못하고 있는데, 박명한 물고기머리가 탕 속에 던져져 이리저리 미끄러지면서 줄여지는 것과 같은 처지에 이르지 말아야 한다.

두 번역문은 내용에 차이가 있다. 뤼전위가 소장한 것은 손가락이 뜨거운 탕 속에서 줄여지는 것이 치우의 운명 같다고 한 반면, 2010년 공개된 것은 물고기 머리가 줄여지는 것이 치우의 운명과 같다고 하였다. 2010년에 공개된 어정비에서 말하는 삼묘는 「여형」편의 묘민을 말한다.

그러나 두 명문의 핵심 스토리와 주제는 일치한다. 분수를 모르고 설치다가 죽임을 당한 치우의 일을 잊지 말라고 왕이 훈계하는 것이다. 먼저 왕은 자신의 말에 주의를 기울일 것을 요구한다. 그다음 치우가 분수를 모르고 행동하다가 죽임을 당했던 사건을 설명한다. 마지막으로 백성들이 치우의 운명을 본보기 삼을 것을 경고한다. 어정비와 「여형」은 ‘왕의 선포-구체적인 사례 제시-왕의 경고’라는 동일 서사 구조를 가진다. 그리고 왕은 ‘새겨들어라[念之戡]’, ‘공경하여라[敬之戡]’고 선포하는데 이와 같은 문장은 어정비에도 등장한다. 비록 어정비에 치우

를 징벌한 존재로 皇帝가 등장하지는 않지만 「여형」과 어정비 명문은 핵심 모티브, 주제, 서사 구조, 표현법 등에서 일치한다. 따라서 춘추전국 교체기 유물인 어정비에서 皇帝와 치우의 전쟁 이야기가 발견되는 것으로 보아 「여형」의 내용은 춘추전국 교체기에 이미 존재하였음을 알 수 있다.

### 3. 황제의 초기 모델은 주나라 왕

#### 1) 「여형」의 주요 내용

주 목왕이 여후(呂侯)가 만든 여형을 천하에 반포할 때 한 말을 기록한 것이 「여형」이다. 여후는 목왕의 명을 받아 하나라의 속형(曷刑)을 모범으로 삼아 여형을 만들었다. 목왕은 새로 만든 가벼운 형벌인 속형의 장점을 설명하기 위해 가혹한 형벌의 기원을 설명하였는데, 그 과정에서 皇帝와 치우의 이야기가 등장한다.

「여형」의 첫 단락은 목왕이 여후에게 명령하여 속형인 여형을 만들었음을 말한다. 두 번째 단락은 선왕의 유훈임을 들어 皇帝가 난을 일으키고, 가혹한 형벌을 행한 치우와 묘민을 멸절하고, 덕정(德政)을 실시하였음을 말한다. 세 번째 단락은 皇帝가 세 명의 후(后)를 임명하여 이들에게 덕정을 실시하도록 하였음을 말한다. 네 번째 단락은 목왕이 관리들에게 덕정을 할 것을 훈계하는 내용이다. 목왕이 이 문장에서 하고자 하는 이야기는 자신은 치우나 묘민과 달리 가벼운 형벌인 여형을

채용하여 덕정을 실시할 것이니 모두 따르라는 것이다.

## 2) 「여형」의 皇帝와 황제의 관계

중국 학계에서는 「여형」에 등장하는 皇帝를 일반적으로 전욱 황제라고 번역한다. 『국어·초어(國語·楚語)』에 의하면 ‘절지천통(絕地天通)’한 인물이 전욱 황제이기 때문이다.<sup>36</sup> 그러나 절지천통은 귀모뤄에 의해 후대에 첨가되었음이 지적되었다.

皇帝라는 말은 진시황이 처음 사용하였다. 전국시기까지 황(皇)과 제(帝)는 따로 사용했는데, 진(秦) 왕 영정(嬴政)은 6국을 통일한 후 자신이 “삼황의 덕을 겸비하고 업적이 오제를 뛰어 넘는다”<sup>37</sup> 하여 자신을 皇帝로 불렀다. 皇帝는 진나라에서 왕을 부르는 정식 호칭으로 『사기(史記)』 중 진시황 시기 조서(詔書)는 모두 皇帝라는 용어를 쓰고 있다. 따라서 「여형」의 皇帝라는 용어는 진나라 이후 첨가된 것임을 알 수 있다.

청나라 가경(嘉慶) 연간 완원(阮元)은 『십삼경주소』를 편찬하고, 매 권 마지막에 「교감기(校勘記)」를 덧붙였다. 완원은 『상서정의』 「교감기」에서 “육덕명(陸德明)은 ‘마땅히 皇(황)자는 君(군)자가 옳다’고 하였으며, 명나라 때 모진(毛晉)이 제작한 모본(毛本)에서도 ‘皇(황)’을 ‘君(군)’이라 썼다”<sup>38</sup>라고 하였다. 육덕명은 당나라 시기 저명한 경학자로, 당나라 시기에는 皇帝가 아닌 君帝라고 썼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전통은 명나라까지 이어졌다. 청나라 시기 일본인 야마이나에(山井鼎)는 “송나라 판본에서는 君(군)을 모두 皇(황)이라 하였으며, 정(正)·가동(嘉同)·고본(古本)·만력(萬曆)·송정(崇禎) 본에서 모두 君(군)이라 하였다”<sup>39</sup>라고

하였다. 이로 보아 송나라 시기 ‘君(군)’자를 ‘皇(황)’자로 바꾸어 皇帝라는 용어가 「여형」에 등장하게 되었으며, 君帝(군제)도 명나라 때까지 사용되었음을 알 수 있다.

『상서』는 요순부터 진(秦) 목공(穆公)까지 역사적 사실을 기록하고 있어, 황제에 대한 기록은 없다. 『상서』 편찬자들이 황제에 대해 기록하지 않은 것은 황제의 존재를 알지 못했기 때문이다. 황제라는 용어가 처음 등장하는 것은 춘추 말기 문헌인 『국어』와 『좌전』이다. 황제는 관천(阪泉)에서 염제와 전쟁을 하고,<sup>40</sup> 만물의 이름을 짓고, 필요한 것들을 백성에게 제공하였으며,<sup>41</sup> 체제(禘祭)의 대상<sup>42</sup>이 되기도 한다. 그러나 이 문헌들 중 황제가 치우와 전쟁을 하였다는 이야기는 없다. 따라서 같은 시기 문헌인 「여형」의 皇帝는 황제가 아님을 알 수 있다.

전국시기에 이르면 치우와 전쟁한 인물이 황제라고 한다. 이후 모든 문헌에서 황제로 기록하고 있다. 그럼에도 「여형」의 후기 판본은 君帝 또는 皇帝를 고집하고 있다. 이처럼 후기 판본에서 황제와 구분하여 皇帝라고 기록한 것은 편찬자들이 「여형」의 皇帝가 국가를 다스리는 군왕의 의미임을 명확히 알았기 때문이다.

「여형」의 皇帝는 국가를 다스리는 군왕의 모습을 보여 준다. 皇帝는 전쟁을 통해 치우와 묘민을 제압한다. 그리고 백이·우·직을 형법·치수·농사를 담당한 관리로 임명한다. 皇帝의 군사적·정치적 행보는 국가를 다스리는 왕의 모습으로 신들의 창조행위와는 구분된다.

### 3) 주나라 왕의 남정(南征)과 皇帝

왕충(王充)은 “『상서』는 상고 제왕의 책이다”<sup>43</sup>라고 하였고, 사마천도 “『상서』는 선왕의 사적을 기록하였다”<sup>44</sup>라고 하였다. 「여형」은 주 목왕의 사적을 기록한 것으로 목왕은 ‘고대의 유훈’임을 전제로 皇帝와 치우 이야기를 꺼낸다.

연구에 의하면 「여형」은 목왕 시기 역사적 상황을 반영하고 있다고 한다. 마샤오홍(馬小紅)은 “목왕의 부친인 주 소왕(昭王)은 남정을 하였으나 형초를 정벌하는 중에 사망하여 돌아오지 못했다. 이로 인해 목왕은 남방에 깊은 적의를 갖고 있었다. 목왕은 선왕을 계승하고, 하늘을 대신해 초나라를 징벌하기 위해서 남정하였다”<sup>45</sup>라고 하였다. 즉, 목왕은 아버지인 소왕이 남정하는 과정에 사망하였기 때문에 초나라에 적의를 갖고 있었고, 이를 복수하기 위해 남정하였다는 것이다.

여우샤오화(憂韶華)는 한발 더 나아가 주 목왕이 여형을 만든 이유가 초나라를 정벌하기 위한 군비를 마련하기 위해서라고 한다. “주 목왕은 장기간의 순유와 정벌로 국고가 바닥나자, 대규모 속형을 실시하여 국고를 채우고자 하였다. 여형은 속형이 중심으로, 주 목왕은 초나라를 정벌하는 37년 전후에 여형을 제작하여 정벌에 필요한 비용을 조달하고 국고를 채웠다.”<sup>46</sup> 속형은 원래 정한 형벌을 관련 규정 혹은 관련 허가에 근거하여 재산으로 배상하는 것을 말한다. 따라서 속형의 실시는 주 왕조 재정에 상당한 도움이 되었다. “서주 시기 속형의 범위는 매우 넓어 묵형(墨刑), 의형(劓刑), 비형(劓刑), 궁형(宮刑) 등도 속형할 수 있었다.”<sup>47</sup>

목왕은 속형을 실시하여 군비를 마련한 후 아버지의 원수를 갚기 위하여 남정하였다. 「여형」에서 목왕이 선왕의 유훈임을 전제하고 皇帝와 치우·묘민의 전쟁을 이야기한 것은 주 목왕 이전 주나라 왕들이 초나라를 정벌한 역사와 관련이 있다.<sup>48</su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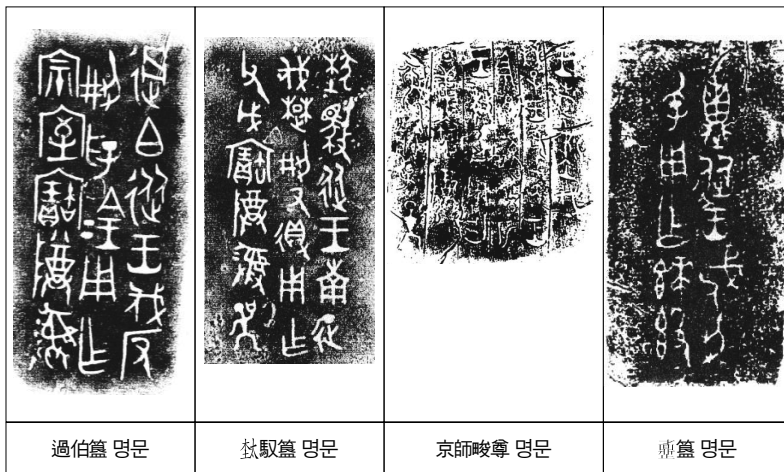
목왕 이전에 남정을 한 왕으로는 2대 성왕(成王)과 4대 소왕이 있다. 특히, 소왕은 대대적으로 남정을 하였는데 『좌전·희공(左傳·嘻公)』 4년,<sup>49</sup> 『초학기(初學記)』 권7 인용 고본(古本) 『죽서기년(竹書紀年)』,<sup>50</sup> 『태평어람(太平御覽)』 권874 인용 고본 『죽서기년』,<sup>51</sup> 『여씨춘추·음초(呂氏春秋·音初)』,<sup>52</sup> 『초사·천문(楚辭·天問)』,<sup>53</sup> 『사기·주본기(史記·周本紀)』<sup>54</sup> 등에 관련 기록이 보인다.

『죽서기년』에 의하면 주 소왕은 초나라를 3차례 공격하였다고 한다. 첫 번째는 주 소왕 16년으로, “한수를 건널 때 대시(大兕)를 보았다”<sup>55</sup>고 한다. 대시는 코뿔소로, 이는 주 소왕이 창강(長江) 유역까지 남정하였음을 의미한다. 두 번째는 주 소왕 19년으로, “하늘이 어두워지고, 습한 바람이 사방에서 일어 썩과 토끼가 모두 놀라 사방으로 숨었으며, 주 왕조 군대가 한강(漢江)에서 많이 죽었다”<sup>56</sup>고 한다. 마지막은 소왕 말년으로, 소왕은 “마지막 정벌에서 돌아오는 길에 한강을 건너다 다리가 부서져 한강에 빠져 죽었다”<sup>57</sup>고 한다. 『사기·주본기』에서는 주 소왕이 초나라를 정벌하는 과정에서 사망한 것이 아니라 남순(南巡) 중에 사망하였다<sup>58</sup>고 한다. 주 소왕의 직접적인 사망원인에 대해서는 논란이 있으나 남방에서 사망하였다는 것에는 이견이 없다.

문헌 외에 청동기 명문을 통해서도 주나라와 왕의 남정을 확인할 수 있다.

〈표 2〉 주나라 초기 남정 관련 청동기 명문 번역

시기	청동기명	원문과 번역
성왕 시기	원문	矢令簋 唯王于伐楚, 伯在炎.
	번역문	시령궤 왕이 초나라를 정벌하였으며, 초나라는 남방에서 패권을 장악하고 있었다.
소왕 시기	원문	棼馭簋 棼馭從王南征, 伐楚荊荊, 有得, 用作父戊寶尊彝.
	번역문	棼어궤棼어가 소왕을 따라 남정을 하여 초형(楚荊)을 정벌하고 청동을 얻어 조상님들을 위하여 귀한 이(彝)를 만들었다.
	원문	過伯簋 過伯從王伐反荊, 孚(俘)金, 用作(作)宗室寶尊.
	번역문	과백이 주 소왕을 따라 반란을 일으킨 형(荊) 지역을 정벌하였으며, 청동을 획득하여 종실의 귀중한 청동기인 존(尊)을 만들었다.
	원문	鴻叔簋 唯九月, 鴻叔從王員征楚荊, 在成周, i 妾作寶簋.
	번역문	홍숙궤 9월 홍숙은 소왕을 따라 초형을 정벌하여 청동을 얻어 낙읍에서 귀한 궤를 만들었다.
	원문	肅簋 肅從王伐荊, 孚, 用作簋.
	번역문	자궤 지는 소왕을 따라 형을 정벌하여 궤를 만들었다.



〈그림 1〉 주나라 초기 남정 관련 명문

앞 명문을 보면 주나라 왕이 초나라를 정벌한 이유는 두 가지다. 하나는 제후국의 본분을 지키지 않고 남방에서 패권을 장악한 초나라를 정복하기 위함이었다. 「여형」에 의하면 치우뿐만 아니라 묘민은 끊임없이 난을 일으켰다고 하는데, 이는 초나라가 남방에서 패권을 장악했다는 시령궈, 과백궈 등의 내용과 일치한다. 연구에 의하면 “주 소왕은 초나라가 봉호(封號)와 분기(分器)를 요구하고, 자존(自尊)을 원하였기 때문에 정벌하였다”<sup>59</sup>고 한다. 다른 하나는 초나라에 다량 매장된 청동원료를 얻기 위함이었다. 이에 대해서는 그동안 많은 연구가 이뤄졌는데, “통계에 의하면 창강 중하류 청동금속의 저장량은 중국 전체 매장량의 31.9%에 이르며, 전국의 4대 구리광산이 가장 많이 분포한다”<sup>60</sup>고 한다. 앞 명문에서도 남정한 후 청동원료를 얻어 돌아왔다는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따라서 「여형」에서 치우·묘민과 전쟁을 한 皇帝는 남정한 주나라 초기 왕들을 모델로 하였을 가능성이 있다. 성왕과 소왕은 남정하였고, 특히 목왕의 아버지인 소왕은 돌아오지 못하였다. 목왕은 아버지가 초나라를 정벌하는 과정에 사망하였기 때문에 초나라에 적의를 갖고 있었는데, 이러한 감정이 치우와 묘민에 대한 증오로 표현되었다.

이 밖에도 황제의 성씨가 주 왕조의 왕과 같은 희(姬)씨라는 점도 초기 황제가 주나라 왕을 모델로 하였을 가능성을 보여 준다. “황제는 희수에서 성장하여 희씨가 되고, 염제는 강수에서 성장하여 강씨가 되었다”<sup>61</sup>고 한다. 아사노유이치[淺野裕一]는 『국어·진어(國語·晉語)』편에 나오는 ‘황제가 희(姬)씨’라는 말을 중시한다. 그는 황제가 주 왕조를 건립한 희(姬)씨 성의 시조라고 본다. 당시에는 씨족과 개인의 이름이 혼용되었기에 황제는 희씨족(姬氏族)의 시조라고 하였다.<sup>62</sup>

#### 4) 주나라의 천명사상과 皇帝

“상나라 사람들은 신을 숭배하고 신을 모셨으며, 귀신을 중시하고 예(禮)를 경시하였다.”<sup>63</sup> 상나라의 천명사상은 무속 성격이 강하여, 서주에서는 수용되기 어려웠다. 주나라는 상나라의 천명사상에 덕(德)을 보충하여 새로운 개념의 천명사상을 제시하였다. “상제는 공평하여, 오직 덕이 있는 사람만 보호하는데”,<sup>64</sup> “상나라 통치자는 덕정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복을 잃었다.”<sup>65</sup> 따라서 “상제는 자신의 장자를 바꾸어 상나라의 천명을 멈추게 하고, 주나라 왕에게 천명을 주었다.”<sup>66</sup> 즉, 상나라가 멸망한 이유는 덕정을 하지 않았기 때문이며, 주 무왕(武王)은 덕정을 할 인물이기 때문에 상제의 특수한 보호와 명을 받아 천하를 다스리게 되었다는 것이다.

주 왕조의 천명사상은 두 가지 특징이 있다. 하나는 주나라 왕이 천자(天子), 즉 상제의 아들로 인식되었다는 것이다. 따라서 주나라 왕은 상제의 대리인으로, 때로는 상제 자체이기도 했다. 다른 하나는 위에서 지적한 바와 같이 덕(德) 개념을 강조하였다는 것이다. 결론적으로 주나라 왕은 상제를 대리하여 덕정을 실시하는 존재라 할 수 있다. 주나라 천명사상의 특징은 「여형」의 皇帝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여형」의 皇帝와 상제는 동일 인물이기도 하고, 아니기도 하다. 두 번째 단락에서 皇帝는 상제의 명의로 묘민을 정벌한다. 그런데 마지막 단락에서는 상제가 묘민을 징벌하였다고 한다. 마지막 단락의 내용으로 보아 皇帝와 상제는 동일 인물로 주 천자가 상제를 대리하는 주나라 천명사상의 특징을 보여 준다.

「여형」에는 덕정을 강조하는 주나라 천명사상의 특징이 잘 나타나 있다. 皇帝가 치우와 묘민을 정벌한 이유는 덕정을 실시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치우가 난을 일으키기 시작하면서 묘민 사회는 혼란에 빠졌고, “묘민불용령(苗民弗用靈)”하였다. 그동안 ‘靈(영)’자를 ‘명령’이란 의미로 해석하였기 때문에 묘민불용령은 “묘민이 정령을 따르지 않아”라고 번역하였다. 그러나 최근 연구에 의하면 “‘靈(영)’은 ‘善(선)’의 의미로, 묘민불용령은 ‘묘민은 선도(善道)를 행하지 않고, 가혹한 형벌인 오학지형을 제정하여 법으로 삼았다’라고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sup>67</sup>라고 한다. 그런데 “靈(영)은 인간계의 善(선)이 아니라 하늘의 善(선), 즉 천은(天恩)을 의미한다.”<sup>68</sup> 따라서 皇帝가 치우와 묘민을 정벌한 이유는 천은, 즉 하늘이 내려준 은혜인 덕정을 실시하지 않았기 때문임을 알 수 있다.

고문헌에 의하면 皇帝 외에도 전욱, 요, 순, 우, 제곡, 성왕 등은 모두 묘민이 덕정을 실시하지 않았기 때문에 정벌하였다고 한다. “묘민 군주의 권력은 하늘의 뜻에 의해 수여된 신령한 모습을 보여 주지 않기 때문에 천덕(天德)에 의존하지 않고 천은(天恩)이 아니라 사람이 만든 형법으로 백성을 복종시켰다. 「여형」의 이야기는 고대 조상들의 민족 간 충돌에서 기원한 것으로, 화하 전설에서는 계속해서 삼묘 군주의 권력은 하늘의 정통성을 계승하지 못하고 있다고 한다.”<sup>69</sup>

「여형」에서는 덕정을 실시하지 않아 멸절당한 묘민과 덕정을 실시하여 복을 누린 세 명의 후에 관한 이야기를 대비하여 관리들에게 덕정할 것을 강조하였다. 따라서 「여형」의 핵심 주제는 덕정을 실시하라는 것으로, 이는 주나라 천명사상의 특징이기도 하다.

#### 4. 역사의 신화화와 황제

이 연구에서 초기 황제의 형상은 서주 초기 왕들을 모델로 하였음을 밝혔다. 춘추시기 황제 관련 자료를 보면 황제는 염제와 전쟁을 하고, 인문시조로서 제사의 대상이 되었다. 그러나 이 시기 자료에서는 황제가 치우와 전쟁을 벌였다는 내용은 없다. 전국시기에 이르러 치우와 전쟁하는 인물은 皇帝가 아니라 황제라고 한다. 「여형」의 皇帝 이야기는 황제신화에 흡수되어 황노학파를 비롯한 제자백가에 의해 황제숭배가 강화되는 데 일조한다. 이후 한나라에 이르러 황제는 사마천에 의해 제왕의 시조가 된다. 따라서 황제는 역사의 신화화(서주~전국), 신화의 역사화(전국~한나라) 과정을 거쳤음을 알 수 있다. 결론적으로 황제는 역사가 신화화한 인물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황제가 구체적으로 어느 시기를 역사적 배경으로 하고 있는가에 대해서는 중국 학계와 의견이 다르다. 중국 학자들은 문헌 자료를 고고 유적에 대입하는 방식으로 황제가 생존했던 시기를 규명하고 있다. 시기적으로 가장 이른 것은 페이리강문화[裴李崗文化, 기원전 5500년~기원전 4900년]<sup>70</sup>이고, 가장 늦은 것은 치자문화[齊家文化, 기원전 2000년~기원전 1900년]<sup>71</sup> 또는 룡산문화[龍山文化, 기원전 2350년~기원전 2000년]<sup>72</sup>이다. 많은 학자들은 양사오문화[仰韶文化, 기원전 4900년~기원전 2900년]가 황제 문화와 관련이 있다고 한다.<sup>73</sup>

종합하면 황제의 생존 시기는 기원전 5500년 페이리강문화부터 기원전 1900년 치자문화까지로 무려 3600년을 포괄하며, 황제문화가 분포하는 지역도 매우 광범위하여 중국 전역에 이른다. 허난성 일대의 페

98 중국 애국주의와 고대사 만들기

이리강문화와 양사오문화, 내몽골 일대의 홍산문화, 산둥성[山東省] 일대의 다윈커우문화와 룡산문화, 창강 하류의 량주문화, 간쑤성[甘肅省] 일대의 치자문화가 모두 황제와 관련이 있다고 하니 중국 전체가 황제의 영역이 아닌 곳이 없다고 할 수 있다.

중국 학계에서는 위와 같은 연구성과를 바탕으로 신석기 시기 황제가 존재하였으며, 초기 국가를 형성하였을 것으로 보고 있다. 그러나 세계적으로 볼 때 신석기 시기 국가가 성립된 예가 없고, 황제 관련 신석기 고고 유적 중 국가 성립을 고려할 만한 유적이 없는 것으로 보아 위의 주장이 성립하기는 어렵다.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여형」은 군왕이란 의미의 皇帝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고, 서주 초기 왕들이 남정한 역사적 사실을 반영하고 있으며, 주나라 천명사상의 특징을 담고 있다. 따라서 황제는 역사가 신화화한 결과이며, 구체적인 역사적 배경은 서주 초기(기원전 11세기~기원전 10세기)이다. 이는 중국 학계가 주장하는 신석기시대와는 현격한 차이가 있다.



제5장  
허무주의 극복과  
황제의 중화민족 공통 조상 만들기

김인희 · 동북아역사재단 연구위원



동북아역사재단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 1. 허무주의 출현과 엄황열(炎黃熱)

문화대혁명을 거치면서 중국의 전통 사상은 심각하게 훼손되었으며, 문화대혁명 시기 젊은이들의 가슴을 뜨겁게 했던 혁명의 이상도 1978년 개혁·개방과 함께 이별을 고하였다. 1980년대 중국인들은 전통적 가치관과 이상주의 가치관의 몰락으로 극단적인 허무감에 휩싸였으며, 다른 한편으로는 중국을 세울 또 다른 가치관을 찾아 고뇌하였다. 이와 같은 사상의 공백기에 서구 자본주의의 유입과 함께 민주주의 사상이 유입되었고, 그 결과 톈안먼 사건이 일어났다.

중국 정부는 톈안먼 사건이 일어난 원인을 이데올로기 공백에 의한 허무주의 때문이라고 생각하였다. 더는 효력을 발휘할 수 없는 사회주의 이데올로기를 대신해 등장한 것이 애국주의다. 애국주의는 민족허무주의와 역사허무주의를 극복하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민족허무주의가 주로 전통문화에 대한 부정을 의미한다면, 역사허무주의는 중국 역사에 대한 부정을 말한다. 황제는 신화적 인물이기도 하고, 역사적 인물이기도 하여 민족허무주의의 대상이자 역사허무주의의 대상이기도 하다.

1990년 국가교위사회과학발전연구중심(國家教委社會科學發展研究中心)은 ‘민족문화와 사회주의 현대화 건설(民族文化與社會主義現代化建設)’이라는 주제로 학술회의를 개최하였는데 지셴린[季羨林], 장다이넨[張岱年], 뤼룽취[羅榮渠] 등이 참여하여 민족허무주의의 표현과 근원, 위험성, 전통문화와 현대문화를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에 대해 논의했다.<sup>1</sup> 중화염황문화연구회 상무부회장 겸 비서인 루춘[魯淳]은 국제학술회의에서 “중국 특색의 사회주의 문화를 건설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엄제와 황제

두 임금에서 시작되고 대표되는 중화 문화에 대해 이해해야 한다”<sup>2</sup>고 하였다. 루춘의 말을 통해 중국 정부는 사회주의 이데올로기 공백을 메우고, 인민 사이에 만연한 허무주의를 극복하는 데 엄제와 황제가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음을 인식했음을 알 수 있다.

1991년 4월 베이징에서 중화염황문화연구회(中華炎黃文化研究會)가 설립되었다. 이름만 민간조직이었지만 이 학회의 회장은 저우구청(周谷城), 샤오커(蕭克), 페이샤오통(費孝通), 청쓰위안(程思遠) 등 중국 정치의 고위급 정치가이거나 정부의 이데올로기를 정립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 학자들이다.

저우구청(1898~1996)은 역사학자이자 사회학자로 푸단대학(復旦大學) 교수를 역임하였다. 전국인대(全國人大) 대표와 전국인대 상무위원회(全國人大常務委員會) 부위원장, 중국 농공민주당(中國農工民主黨) 중앙 주임위원(中央主任委員)을 역임한 정치가이기도 하다. 샤오커(1907~2008)는 군인으로 해방 후 국방위원회(國防委員會) 위원, 중국 공산당 중앙위원(中央委員)을 역임하였다. 페이샤오통은 소수민족을 하나로 묶는 민족이론인 중화민족다원일체격국(中華民族的多元一體格局)을 제시한 학자이다. 사실상 염황열은 중국 정부가 주도한 국가프로젝트였다.

1990년대 중국에서는 ‘염제와 황제 붐’이 일었는데, 이를 ‘염황열’이라 한다. 중화염황연구회 활동을 통해 염황열을 일으킨 목적이 무엇인지 알 수 있다. 중화염황연구회는 염황시대의 역사문화를 탐색하고 선전하기 위해 주로 3가지 활동을 하였다. “첫째, 염제와 황제 두 임금과 그 시대 역사문화에 대한 학술회의를 개최하였다. 둘째, 관련 있는 지방과 연계하여 염제와 황제 두 임금에 대한 제사와 염황문화 축제를 주

관 및 참가하였다. 셋째, 염제와 황제 두 임금과 그 시대의 역사문화 자료 총서인 『염화회전(炎黃匯典)』을 발간하였다.”<sup>3</sup>

중화염황연구회 활동을 통해 염황열을 일으킨 주요 목적이 황제를 역사화하고 신화화하는 것임을 알 수 있다. 황제의 역사화는 문헌상의 기록을 고고 유적에 대입하여 황제를 실존 인물로 만드는 방식으로 진행되었다. 신화화는 기존의 황제 사당이나 무덤을 중심으로 확장하거나 새로운 공공기념물을 건축하고, 공공제의를 성대하게 거행하여, 중화민족의 공동 조상으로 숭배하는 방향으로 진행되었다.

그동안의 황제<sup>4</sup> 연구는 황제를 신화적 존재로 보느냐, 역사적 존재로 보느냐에 따라 두 갈래로 나뉜다. 한국과 서양 학계에서는 신화적 인물인 황제가 전국시대 제자백가에 의해 고대 성왕(聖王)으로 숭배되면서 역사적 인물이 되었다고 한다. 중국 학자 대부분은 역사의 신화화를 지지하며, 황제를 실존한 역사적 인물로 보지만 일부 학자는 초기 황제가 신화적 존재였다고 한다. 구제강[顧頡剛], 양상쿠이[楊向奎],<sup>5</sup> 장순후이[張舜徽],<sup>6</sup> 우광핑[吳廣平],<sup>7</sup> 허신[何新] 등은 황제가 태양신에서 기원하였다고 하였고, 귀모뤄[郭沫若],<sup>8</sup> 창위즈[常玉芝],<sup>9</sup> 천밍위안[陳明遠]<sup>10</sup> 등은 상제(上帝) 숭배에서 기원하였다고 하였다.

중국에서 황제를 역사적 존재로 보는 입장은 1943년 쉬취성[徐旭生]이 출판한 『중국 고사의 전설시대(中國古史的傳說時代)』<sup>11</sup>에서 시작된다. 쉬취성은 의고파(疑古派)의 고대를 지나치게 의심하는 편향적인 경향에 반대하기 위해 이 책을 집필하였다고 한다. 책 제목을 ‘신화시대’가 아닌 ‘전설시대’로 한 이유에 대해서는 “신화는 허구이고, 전설은 역사적 사실을 내포하고 있는데, 중국의 전설에는 신화 성분이 많지 않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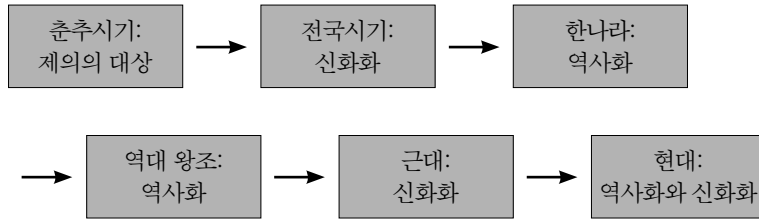
때문”이라고 하였다. 즉, 고문헌에 전하는 신들의 이야기는 역사적 진실성을 상당 부분 담고 있다는 것이다. 쉬취성은 황제를 역사적 인물로 보며, 화하족의 수장으로 동이족의 치우를 물리치고 최초의 국가를 세웠다고 하였다. 이 같은 주장은 현재 중국 학계에서 보편적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1990년대 이전 연구가 주로 문헌 중심이었다면, 1990년대 이후에는 고고 유적과 결합하여 황제의 실존을 증명하는 연구가 활발하게 진행되었다. 잘 알려진 학자로는 쑤빙치[蘇秉琦]<sup>12</sup>와 리쉐친[李學勤]<sup>13</sup>이 있다. 이들은 황제의 생존 시기를 기원전 3000년 이전인 신석기시대로 비정하였다. 중국은 황제시대를 고고학적으로 증명하기 위해 국가 차원에서 중화문명탐원공정(中華文明探源工程) 같은 프로젝트를 실시하였다.

황제는 춘추 말 전국 초 처음 문헌에 등장한 이래 배역을 달리하며 신화와 역사를 오갔다. 춘추시기 황제 관련 자료를 보면 황제는 염제 또는 치우와 전쟁을 하고, 인문시조로서 제사의 대상이 되었다. 전국시기에 이르면 치우와 전쟁하고, 황노학파를 비롯한 제자백가에 의해 숭배되어 신화적 색채가 강화된다. 한나라에 이르러서는 사마천에 의해 제왕의 시조가 되어 정사에 편입되어 역사적 인물로 거듭난다. 한나라 이후 역대 왕조의 통치자들은 황제를 제왕의 시조로 숭배하여 역사적 성격이 강화되었다. 근대에 이르러서는 단순히 제왕의 시조가 아니라 한족의 혈연적 조상으로 숭배되어 신화적 성격이 증폭되었다. 민국 시기 정치가들에 의해 제의의 대상이 되기도 하였으며, 문화대혁명 시기에는 봉건미신으로 탄압받기도 하였다. 그러나 1990년대 이르러 황제

에 대한 평가는 급반전하였다.

1990년대 이후에는 황제의 역사화와 신화화가 동시에 이루어진다. 시대에 따른 황제의 성격 변화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그림 1〉 황제의 성격 변화

〈그림 1〉을 통해 황제의 성격 변화에 관건이 되는 시기는 춘추·한나라·근대·현대임을 알 수 있다. 이 시기는 중국의 급속한 정치적 변동이 발생한 시기라는 공통점이 있다. 에릭 홉스봄은 “전통의 발명이 자주 일어나리라 예상할 수 있는 경우는 사회가 급속히 약화되거나 파괴되어 그 결과 낡은 전통과 충돌하면서 새로운 전통이 만들어질 때나, 아니면 낡은 전통과 그것들을 제도적으로 매개하고 보급하는 수단이 더는 융통성 있게 적응할 수 없는 것으로 판명되거나 아예 사라져 버렸을 때”<sup>14</sup>라고 하였다. 그렇다면 현대 중국이 황제에 대한 대대적인 역사화와 신화화를 진행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 2. 황제의 역사화와 역사허무주의 극복

### 1) 황제의 역사화와 특징

중국 학자들은 문헌 자료를 고고 유적에 대입하는 방식으로 황제가 생존했던 시기를 규명하고자 하였다. 사료에 등장하는 황제의 출생지, 활동 지역, 매장 지역 등은 모두 황제의 실존을 증명하는 중요한 증거가 되었다. 그리고 토톰 숭배, 민간 전설, 고대 시기 환경 상황, 고대 점성술 등도 황제의 활동 지역과 시대를 연구하는 데 중요한 자료로 활용되었다. 1950년대 이래 학자들은 고고문화와 황제문화를 대응시켜 양사오문화[仰韶文化] 마오디거우유형[廟底溝類型], 치자문화[齊家文化], 룡산문화[龍山文化], 페이리강문화[裴李崗文化], 홍산문화[紅山文化] 등이 황제부락과 관련이 있다고 하였다.

최근 바이홍취[白紅菊]<sup>15</sup>는 중국 내 100년간 황제부락 발상지 연구를 정리하였는데, 서북설(西北說), 허난설(河南說), 산둥설(山東說), 경기설(京冀說), 상악설(湘鄂說), 영몽설(寧蒙說) 등이 제기되었다고 한다. 그중에서 산둥설, 상악설, 영몽설은 연구가 시작된 지 얼마 되지 않으며, 근거가 부족하여 학계의 인정을 받지 못하고 있다.

산둥설은 “황제는 수구에서 태어났는데, 수구는 노성(魯城) 동쪽 문북쪽에 있으며, 연주(兗州) 곡부현(曲阜縣) 동북 6리에 있다”<sup>16</sup>를 근거로 한다. 연구자들은 수구가 지금의 취푸(曲阜)이며, 산둥 룡산문화(龍山文化)는 황제족이 창조한 것이라고 한다. 상악설은 『사기·오제본기』에 기록된 황제가 “남으로 창강(長江)을 건너 웡상(熊湘)에 올랐다”<sup>17</sup>는 말

108 중국 애국주의와 고대사 만들기

에 근거하여 황제의 발상지가 후베이·후난 지역으로 본다. 연구자들은 “황제족의 곰 토템과 초나라 곰 숭배의 관련성”,<sup>18</sup> “고대 점성술과 천문학”<sup>19</sup> 등을 근거로 상악설을 주장한다. 영몽설은 라오닝과 내몽골 일대를 배경으로 하는 것으로 “황제가 운사(雲師)·운관(雲官)을 거느렸다고 하는데, 구름은 몽골 거주민의 삶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sup>20</sup>는 점을 부각하였으나 설득력이 없다.

필자는 바이홍취의 분류가 실제 고고 상황을 반영하지 못한 측면이 있다고 판단하며, 일부 내용을 수정하여 분석해 보도록 하겠다. 서북설과 허난설은 그대로 수용하고, 경기설은 탁록설과 홍산문화설로 구분하여 살펴보도록 하겠다.

## 2) 고고 유적과 황제

### (1) 서북설

서북설은 간쑤성과 산시성[陝西省] 일대를 황제의 발상지로 보는 학설로 현원구(軒轅丘), 희수(姬水), 강수(姜水) 등의 지명과 고고문화, 고문헌을 비교하여 고증하였다. 1940년대 판원란[範文瀾]<sup>21</sup>은 “기원전 2700년 경 서쪽에서 이동해 온 황제족이 중원에 거주하던 강족(羌族)과 만족(蠻族)을 물리치고 건립한 것이 양사오문화라고 하였는데” 이 주장은 근대 시기 황제의 서방기원설의 잔재다. 1950년대 구제강<sup>22</sup>은 “황제를 진(秦)나라의 민족신”이라 하였으며, 쉬취성<sup>23</sup>은 “교산(橋山)과 공동(空桐)의 위치 비정과 희성(姬姓) 전설의 전승”을 근거로 서북설을 주장하였다.

1980년대 학자로는 린경상[林庚祥],<sup>24</sup> 궁웨이잉[龔維英],<sup>25</sup> 왕셴탕[王獻



〈그림 2〉 황제릉 지역에서 출토된 신석기 유물. 다른 지역의 양사오문화 유물보다 수준이 현격히 떨어진다. (황제릉박물관 소장, ©김인희)

唐],<sup>26</sup> 류치위[劉起釡]<sup>27</sup> 등이 서북설을 지지하였다. 특히, 류치위는 황제 시대가 간쑤성의 신석기 말기 문화인 치자문화[齊家文化, 기원전 2000~기원전 1900년]와 관련이 있다고 한다.

21세기 이후 루민제[魯敏杰]와 치후이[祁慧]는 “황제족은 간쑤성 동쪽과 산시성[陝西省] 북쪽에 거주하였으며, 양사오문화 중 마오디거우유형에 대응한다”<sup>28</sup> 고 하였다. 후이칭[胡義成]은 마오디거우유형 중 시안[西安] 왕관자이 유적[楊官寨遺蹟, 기원전 4000~기원전 3500년]이 황제의 도읍이자 국가 제사를 지내던 유적으로, 황제는 지금으로부터 5727년 전에 존재하였다<sup>29</sup> 고 한다. 선창윈[沈長雲]<sup>30</sup>은 신석기시대 말기 유적인 스마오고성[石峁古城, 기원전 2200~1900년]이 황제성(黃帝城)이라고 주장하였다. 2016년 산시역사박물관[陝西歷史博物館]에서 ‘황제문화의 발자취를 찾다-양관자이·스마오 고고 발견이 주는 시사점[黃帝文化尋踪-楊官寨, 石峁考古發見的啓示]’ 전시는 현지 고고학자들이 이 유적들을 황제의 유

적으로 인정하고 있음을 말해 준다.

2007년에는 황제릉 주변의 자오산산성[橋山上城]과 자오궈[趙藹] 유적을 조사하여 양사오문화 시기의 유적이 존재함을 확인하였다고 한다. 당시 발굴한 유물들은 황제릉 문물전시실에 전시하고 있는데, 다른 양사오문화 유물에 비해 수준이 현격히 떨어져 실제로 황제가 황제릉 주변에 거주하였는지 증명할 수 없었다.

## (2) 허난설

허난설은 1960년대 제기된 이래 현재까지 가장 영향력 있는 학설이다. 1980년대 쉬순잔[許順湛]은 “헌원구는 유웅(有熊) 경내에 있는데 그 위치는 신정(新鄭)”<sup>31</sup>이라고 하였다. 후에 “양사오문화인 친왕채[秦王寨] 유적 혹은 다허촌[大河村] 유적에서 출현한 정저우(鄭州) 시산고성[西山古城, 기원전 3300~2800년]이 황제성이라 하였다.”<sup>32</sup> 1980~1990년대에 양귀용[楊國勇],<sup>33</sup> 양야창[楊亞長],<sup>34</sup> 리야쥙[李耀宗],<sup>35</sup> 쉬제순[徐杰舜],<sup>36</sup> 리여우모우[李友謀],<sup>37</sup> 여우위에[有爲]와 신이[辛夷],<sup>38</sup> 리샤오롄[李紹連],<sup>39</sup> 왕전중[王震中],<sup>40</sup> 천취[陳旭],<sup>41</sup> 엔원밍[嚴文明]<sup>42</sup> 등이 허난설을 지지하였다. 일반적으로 양사오문화를 황제문화로 비정하는 데 반하여, 리샤오롄은 옹황시대가 페이리강문화[裴李崗文化, 기원전 5500~기원전 4900년]에 해당한다고 하였다. 엔원밍은 황제문화가 룡산문화[龍山文化, 기원전 2350~기원전 2000년]에 속한다고 하였다.

21세기에는 한젠예[韓建業],<sup>43</sup> 리샤오롄,<sup>44</sup> 장광위안[張光遠],<sup>45</sup> 리쉐친[李學勤],<sup>46</sup> 리구이민[李桂民],<sup>47</sup> 마스즈[馬世之],<sup>48</sup> 리더팡[李德芳],<sup>49</sup> 쉬르후이[徐日輝]<sup>50</sup> 등의 연구가 있었다. 한젠예는 허난성 링바오[靈寶]의 양사



〈그림 3〉 다허춘 유적에 나타난 신석기인의 삶(다허춘 유적 박물관, ©김인희)  
 ① 도기를 만드는 모습 ② 다허춘 가옥 ③ 채도 쌍연호(彩陶雙連壺) ④ 귀갑(龜甲)

오문화 마오디거우유형에 속하는 베이양핑[北陽平] 유적과 시포[西坡] 유적이 황제의 활동 중심지라 하였다. 리쉐친은 황제가 역사 무대에 등장한 시기는 기원전 3500년이라고 하였다. 리구이민은 쉬순잔의 견해를 비판하며, “하상주단대공정(夏商周斷代工程) 성과에 의하면 하대가 기원전 2075년에 시작함을 근거로 황제시대는 기원전 3000년 전으로 마오디거우 2기 문화에 해당한다”고 하였다. 마스즈는 정저우 지역에서 발견된 양사오문화 말기 유적인 시산고성[西山古城]을 오읍(五邑) 중 하나라고 하였다. 리더팡은 양사오문화 말기에서 룡산문화 초기에 해당하는 저우리[妯婁] 유적 왕만2기문화(王灣二期文化, 기원전 2780~기원전 2100년)가 황제문화라 하였다.<sup>51</sup> 쉬르후이는 양사오문화에 속하는 허난성 신미시[新密市] 구청자이[古城砦] 유적이 현연구라고 하였다.

허난설은 시기적으로 가장 이른 것이 페이리강문화(기원전 5500~기원전 4900년)이고, 가장 늦은 것은 룡산문화(기원전 2600~기원전 2000년)이다. 대부분의 학자들은 양사오 중기 문화인 먀오디거우유형을 황제문화로 보고 있다. 21세기 이후에는 황제 유적에 구체적인 시간과 유적을 대입하여 역사화하려는 경향이 뚜렷하다.

### (3) 쥐루설

쥐루설은 1980년대 시작되었다. 궁옌싱[宮衍興]과 뤼하오윈[呂浩文]은 “기방(冀方)에 황제 부족이 거주하였다”<sup>52</sup>고 하였다. 양샹쿠이[楊向奎]는 “황제족의 활동 중심지는 지금의 베이징 근처”<sup>53</sup>라고 하였다. 왕베이천[王北辰]은 『한서·지리지(漢書·地理志)』에서 황제가 ‘북으로 탁록을 지났다[北過涿鹿]’라는 대목에서 탁록이 지금의 허베이성[河北省] 쉬안화현[宣化縣]<sup>54</sup>이라 하였다. 왕베이천의 주장은 쥐루설이 힘을 얻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였고, 황제 사당 건립으로 이어졌다. 선창원은 “황제시대의 문화는 룡산문화와 대응하며, 황제족의 발상지는 쥐루 일대”<sup>55</sup>라고 하였다.

쥐루설은 황제의 발상지보다는 치우와 전쟁을 치른 곳에 주목하였다. 이러한 주장에 힘을 실은 이가 쑤빙치[蘇秉琦]다. 그는 쥐루현이 탁록이라고 직접 주장하지는 않았으나 이를 암시하는 발언을 하였다. “홍산문화가 황제부락의 문화”<sup>56</sup>이고, “옌산(燕山) 양측의 장자커우 웨이현[蔚縣] 옌융딩하[沿永定河] 상류 쌍간하[桑干河]의 지류인 후류하[壺流河] 유역에서 특징이 있는 신석기시대 유적을 발굴하였는데 지금으로부터 6000년에서 5000년경 전의 것으로 추정된다. 이 유적에 대한 초

보적인 판단에 의하면 홍산문화, 양사오문화 마오디거우유형, 안양(安陽) 허우강하층[后岡下層]으로 대표되는 양사오 신문화(新文化) 등 여러 문화가 교차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sup>57</sup>고 하였다.

위와 같은 쑤빙치의 주장에 힘입어 황제의 홍산문화설과 치우 등이 족설이 결합하여 쥐루현 일대가 황제와 치우가 전쟁을 벌인 장소로 등장하게 되었다. 한젠에는 “장자커우시 일대에서 북방의 황제족 문화인 홍산문화, 염제족 문화인 양사오문화의 마오디거우유형, 치우족 문화인 양사오문화의 허우강유형[后崗類型]이 나타난다. 장자커우시에서 세 종류의 문화가 발견되는 것으로 미루어 이는 황제·염제·치우가 전쟁을 벌이고 융합하였다는 문헌의 기록과 일치한다”<sup>58</sup>고 주장하였다.

#### (4) 홍산문화설

홍산문화설은 쑤빙치에 의해 1990년대 시작되었다. 그는 “홍산문화는 용 문양이 특징이며, 『사기·오제본기』에 기술된 황제시대의 활동 중심지는 시공간 범위에서 오직 홍산문화와 일치한다”라고 하였다. 귀다순(郭大順)은 “홍산문화는 황제집단이 창조한 것이며, 황제족은 본래 연산(燕山) 지역의 토착 부족”<sup>59</sup>이라 하였다. 진위페이(金宇飛)는 “홍산문화는 판첸, 탁록 등지에 나타나며, 전쟁 이전 황제족 문화일 가능성이 크다”<sup>60</sup>고 하였다. 레이광진(雷廣臻)은 “『산해경(山海经)』의 「해외서경(海外西經)」과 「대황서경(大荒西經)」은 홍산문화인들의 활동과 생존환경을 서술한 것이며, 홍산문화는 황제와 전욱부락이 활동한 곳”<sup>61</sup>이라 하였다. 장위안산(張遠山)은 고고학 연구성과를 근거로 “『산해경』에 기록된 황제 사적은 오류가 없으며, 화하 동북은 황제의 조상이며, 황하 서

북은 서쪽으로 확장한 황제의 지계로, 다른 시기의 다른 문화 유형에 속한다”<sup>62</sup>고 하였다.

홍산문화설은 1990년대 이후 등장하였으나 오랫동안 황제가 중원의 화하족 시조로 인식되었기 때문에 중국 학계에서는 인정을 받지 못하고 있다.

### 3) 자기모순에 빠진 황제의 역사화

현재까지 연구성과를 종합하면 시기적으로 볼 때 가장 먼저 제기된 것이 서북설이며, 이후 허난설, 탁록설, 산둥설, 내몽골설, 후난·후베이설 등이 이어져 중국 남부를 제외한 모든 지역이 황제의 발상지이자 활동지가 되었음을 알 수 있다. 이처럼 황제의 활동지는 다양하게 제시되었지만 중원과 관계는 부정하지 않았다. 황제가 변방에 위치하였다는 학자들도 황제족이 점차 중원으로 진입하였다고 한다.

중국 내 발달한 신석기 유적은 모두 황제문화라는 주장이 제기되었다. 중원의 양사오문화를 비롯해 동북의 홍산문화, 서북의 치자문화, 산둥의 룡산문화 등이 황제문화라고 한다. 심지어 황제와 초민족의 곰 토tem을 연계하여 후난과 후베이가 황제의 발상지라는 주장도 등장하였다.

시기적으로 볼 때 가장 이른 것은 신석기 초기 문화인 페이리강문화이며, 가장 늦은 것은 룡산문화 또는 치자문화다. 가장 많은 지지를 받는 것은 허난성의 양사오문화 마오디거우유형이다. 기존에는 몽둥그려 신석기 특정 문화가 황제문화라고 하였으나 21세기 이후에는 특정한 시기, 특정한 유적을 황제문화와 연계시키고 있다.

황제문화는 중국 도처에 분포하며, 시기적으로도 기원전 5500년에 서 기원전 1900년에 걸쳐 있다. 가장 이른 시기와 가장 늦은 시기는 무려 3600년 차이가 난다. 이 같은 결과가 나온 것은 중국 학계가 황제를 역사화하려는 과욕 때문이다. 황제는 너무나 많은 지역에 너무나 긴 시간 동안 존재하여, 결국 황제는 역사적 인물이 아니라는 결과를 낳게 되었다. 고고 유적을 통해 황제의 역사화를 피하려던 중국 학계의 노력은 지나친 황제열로 자기모순에 빠지고 말았다.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황제에 대한 최초 기록인 『상서』 「여형」의 내용으로 보아 초기 황제는 서주 초기 초나라를 정벌한 왕들을 모델로 형성되었음을 알 수 있다. 그런데 현재 중국 학계에서는 황제의 활동 시기를 신석기시대로 상정하고, 구체적인 활동 시기와 지역을 찾고 있다. 그러나 황제는 기원전 10세기 전후 초나라를 정벌한 주나라 왕을 모델로 한 것이기에 신석기시대 유적에서 황제의 흔적을 찾기는 힘들 것이다.

### 3. 황제의 신화화와 민족허무주의 극복

#### 1) 황제에 대한 집단기억 강화

역사는 사실로서의 역사와 해석으로서의 역사가 있다. 앞에서 살펴본 고고 유적을 통해 황제를 역사화하려는 시도가 사실로서의 역사라면, 집단기억의 강화를 통해 황제를 중화민족 공통의 조상으로 만들려는 시도는 해석의 역사라 할 수 있다.



〈그림 4〉 황하변에 건립된 염황거상(©김인희)

“집단기억(Collective Memory)은 집단의 소속감을 다지기 위한 과거 재현이나 기억실천으로 진정한 공동체란 기억의 공동체, 즉 자신의 과거를 잊지 않는 공동체이다. 기억행위(remembering)라는 이름으로 불리는 다양한 실천들이 없다면 기억은 기억일 수 없다.”<sup>63</sup> 기억행위는 구체적으로 영웅의 상징화, 기념물 제작, 영웅을 위한 의례 형식 등으로 이루어진다.

필자는 2017년 10월 18~25일 허난성 정저우시(鄭州市) 염황거상[炎黃巨塑]과 신정시(新鄭市) 황제고리[黃帝故里], 링바오시(靈寶市) 황제주정원[黃帝鑄鼎原] 등을 조사하였고, 2018년 6월 30일에는 산시성(山西省) 황제릉도 조사하였다. 두 차례 조사를 통하여 황제를 기리는 거대한 공공기념물과 성대한 의례가 거행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조사 대상 중

중국 정부가 염황열을 일으키기 위해 직접 개입한 황제고리와 황제릉을 중심으로 살펴보겠다.

## 2) 황제의 고향, 황제고리

### (1) 황제의 고향

황제고리는 황제의 고향이라는 뜻으로 신정시는 황제가 태어나고 도읍을 한 곳이다. 신정을 황제고리라고 하는 이유는 서한 시기 건립한 현원고리사(軒轅故里祠)가 있고, 주변에 양사오문화에 속하는 다허춘유적이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세본(世本)』의 “황제는 현원구(軒轅丘)에 살았다”<sup>64</sup>에 대해 진대(晉代) 황보밀(皇甫謐)이 “황제의 다른 이름이면서 황제가 세운 국가이기도 한 유웅(有熊)은 지금의 허난성 신정이다”<sup>65</sup>라는 기록도 황제고리를 비정하는 데 중요한 근거가 되었다.

황제고리가 주목받기 시작한 것은 염황열이 시작된 1991년 중화염황문화연구회 집행회장 샤오커(蕭克) 장군이 시찰하면서부터다. 샤오커 장군은 1990년 중화염황문화연구회를 창립하고 1년 후 황제고리를 방문하였다. 그는 이곳에서 『국어』, 『수경주』, 『제왕세기』 등에 신정이 황제고리라는 내용이 있다는 얘기를 듣고 매우 기뻐하였다고 한다. 그는 “역사적 사실은 최고의 권위를 가지는 것으로, 우리가 성실하게 근원을 찾아내고 전승할 때 황제문화는 대대로 계승될 수 있다”고 하였다.

### (2) 황제를 기념하는 공공기념물 조성

샤오커 장군이 황제고리를 방문한 후 현원고리사 맞은편에는 7만



〈그림 5〉 복을 비는 나무, 기복수(©김인화)

제곱미터의 중화성씨광장(中華姓氏廣場)이 조성되었다. 현원고리사 안에는 황제고리사, 현원기념관, 그 뒤쪽에 배조광장(拜祖廣場), 가장 뒤쪽에 현원구 등 각종 역사기념물이 있다. 배조광장은 “조상에서 제사를 드리는 광장”이라는 뜻이다.

황제고리는 황제의 실존을 증명하고, 황제의 후손들이 그를 숭배하는 장소로 구성되었다고 한다. 현원구는 황제가 출생한 곳으로 현원구 위에는 황금색 기복수(祈福樹)가 있는데 ‘복을 비는 나무’라는 뜻이다. 기복수는 중화의 아들딸이 복을 비는 성지라고 한다. 매년 3월 3일 배조대전을 거행할 때 국가 지도자들은 기복수 앞에서 국민안을 빌고, 소원을 적은 패를 건다고 한다. 일반인들은 소원을 붉은 띠에 적어 기복수에 건다. 황금색 기복수에는 붉은색 띠가 주렁주렁 걸려 있다.

현원고리사는 황제를 모시는 사당이며, 배조광장은 매년 황제에 제의를 거행하는 곳이다. 현원기념관에는 신정 지역의 페이리강문화·양사오문화·룽산문화의 유물이 전시되어 있다. 중화성씨광장은 중화민족이 모두 황제의 후손임을 상징적으로 형상화한 광장이다. 현원구와 현원고리사가 역사적 건축물이라면 배조광장, 현원기념관, 중화성씨광장, 기복수 등은 현대 공공기념물이다. 이처럼 과거와 현재를 아우르는 각종 기념물은 황제가 태어나고, 창업하고, 사망한 후에 중화민족의 조상신이 되어 제향을 받는 과정을 생동감 있게 연출하고 있다.

### (3) 중화민족의 근원, 황제

황제고리의 핵심 주제는 황제가 ‘중화의 뿌리[中華之根]’라는 것이다. 따라서 각종 기념물과 표어들은 모두 중화민족이 황제의 후손임을 강조하는 내용으로 가득 차 있다. 현원고리사에는 ‘같은 뿌리·같은 조상·같은 원류[同根同祖同源]’라는 내용의 표어가 곳곳에 등장한다.

중화성씨광장은 중화민족이 모두 황제의 후손임을 건축물로 표현한 것으로, 규모는 1.5만 제곱미터이다. “중화민족은 하나의 나무와 같은 것으로 모든 염황자손은 봄에 나무가 꽃을 피우고, 가을에 열매를 맺듯이 우리가 어디를 가도 어느 뿌리, 줄기, 잎사귀에 근원하는지 잊지 말아야 한다”는 의미로 건립했다고 한다. 광장 중앙에는 정단(鼎壇)이 있는데, 중앙의 정(鼎)을 황제보정(黃帝寶鼎)이라 한다. 정은 중국 청동기 문화에서 가장 중요한 기물 중 하나다. 정은 청동으로 만든 일종의 솥으로 사방형도 있고, 원형도 있다. 국가급의 제사를 지낼 때면 커다란 정 안에 소 한 마리를 넣어 삶아 바치기도 하였다. 황제보정은 “황제의



〈그림 6〉 중화성씨벽에서 한 남자가 자신의 성씨를 찾아보고 있다.(©김인희)



〈그림 7〉 황제보경 밑에서 쉬고 있는 주민들(©김인희)

제5장 허무주의 극복과 황제의 중화민족 공통 조상 만들기 121

고귀한 정”이라는 뜻이다.

헌원 황제는 웅씨(熊氏)이기 때문에 곰으로 정의 밭을 만들었다. 정에는 조국이 발전하기를 바라는 의미로 아홉 마리의 용과 붉은 태양, 수문(水紋)을 새겨넣었다. 광장 벽에는 중국의 모든 성씨를 벽에 새긴 성씨벽이 있다. 광장 주변에는 메타세쿼이아 960그루를 심었는데, 중국 영토 넓이인 960만 제곱킬로미터를 상징한다고 한다.

중화성씨광장의 의미를 하나로 압축하여 표현한 것이 중화성씨 기원도[尋根圖]이다. 중화민족의 성씨를 한 그루의 나무로 표현한 것인데 성씨수(姓氏樹)라고도 한다. 성씨수는 헌원고리사 곳곳에 벽화로 그려져 있으며, 종이에 인쇄해 판매하기도 한다. 성씨수에 의하면 하나의



〈그림 8〉 중화성씨 기원도 벽화  
(©김인희)

## 122 중국 애국주의와 고대사 만들기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뿌리에서 황제·치우·염제가 나왔으나 치우는 뿌리에서 멀지 않은 곳에서 곁가지로 뻗어 나가지만 그리 번성하지 못하고, 염제는 치우보다는 위쪽에서 곁가지를 뻗어 꽤 두꺼워지며 비교적 많은 성씨를 형성하였다고 한다. 황제는 위로 뻗어 올라가 중심 기둥이 되어 중국의 전설적인 시조들의 조상이 되었고, 중국 모든 성씨의 조상이 되었다고 한다. 전욱, 제곡, 요, 순, 하, 상, 주 등은 모두 황제의 직계 후예이며, 전세계 화인은 모두 황제의 후손임을 보여 준다.

황제의 후손들이 모여 공통의 조상에게 합동으로 제사를 지내는 장소가 배조대전 광장이다. 배조대전은 “조상에게 드리는 큰 제사”라는 뜻이다. 배조대전 광장 뒤쪽에는 죽간을 형상화한 벽을 세웠는데 모두 황금색이다. 이 벽 앞의 황제상은 찬란하게 빛나는 황금빛 벽으로 둘러



〈그림 9〉 황제에 대한 제의가 거행되는 배조대전(©김인희)

싸여 신비로움을 더한다. 황제상 양쪽에는 황금용이 각각 조각되어 있으며, 그 옆에는 황금 대포도 있다.

배조대전은 전체 9개 장면으로 연출되었는데, ‘하나의 뿌리·하나의 조상·하나의 근원, 평화·조화·화목[同根同祖同源, 和平和谐和睦]’이 주제이다. 따라서 황제에게 제사를 드리는 배조대전에는 중화민족의 모든 후손이 참여한다.

#### (4) 황제고리와 현대 정치

배조대전은 황제 탄신일인 음력 3월 3일 거행된다. 1992년 제사를 처음 지냈으며, 2006년 이후에는 허난성 정부와 성정협(省政協), 국무원(國務院) 산하의 교무관공실(僑務辦公室)과 대만사무관공실(臺灣事務辦公室), 대만중국통일연맹(臺灣中國統一聯盟), 중화염황문화연구회(中華炎黃文化研究會) 등이 연합하여 거행하고 있다. 이 단체들은 정부기관과 관련 시민단체, 관변 학술단체 등으로 배조대전이 정치적인 목적으로 거행되고 있음을 말해 주고 있다.

배조대전에 참여하는 인물들을 통해서도 정치적인 성격을 띠고 있음을 알 수 있다. 2017년까지 12차례에 걸쳐 천윈[陳云], 보이보[薄一波], 샤오커, 리더성[李德生], 저우구칭[周谷城], 청쓰위안[程思遠], 장쓰칭[張思卿] 등 국가급 지도자 33명이 참석하였다.

황제고리는 1990년대 초 열황열과 함께 번성하기 시작하였다. 정부의 핵심 인사 방문으로 역사기념물이 조성되었고, 국가적 제의로 승격되었다. 황제고리에는 황제가 중화민족의 공통 조상임을 강조하는 내용 외에 ‘평화·화목·조화[和平和睦和諧]’라는 슬로건이 곳곳에서 보인다.



<그림 10> 후진타오 총서기의 핵심 슬로건을 알리는 현수막(©김인희)



<그림 11> 일대일로를 통해 번영을 함께 누리자는 정치선전물(©김인희)

다. 이 슬로건은 후진타오 정부가 내세운 것이다. 황제고리에 세워진 정치선전물에는 “중화민족은 오천년 역사 동안 평화·화목·조화를 추구하였으며, 이러한 가치관은 모든 사람의 마음속에 스며들어 중국인의 독특한 가치 관념이 되었다”라고 쓰여 있다. 황제고리는 황제의 후손인 중화민족은 평화롭게 조화를 이루며 화목하게 살아가자는 정부 정책의 선전장이다.

시진핑 주석의 주요 정책은 일대일로와 중국몽이다. 황제고리에는 일대일로와 중국몽을 선전하는 간판이 세워져 있다. 배조대전과 일대일로의 선전물에는 “일대일로란 무엇인가? 일대일로는 어떤 내용인가? 일대일로는 보통 사람에게 어떤 의미인가?”라는 주제로 일대일로 사업을 설명하고 있다. 특히 주목되는 것은 국가사업인 일대일로가 개인에게 어떤 이득이 있는가를 설명한 내용이다. 이에 의하면 일대일로는 개인에게 더 많은 돈을 벌수 있게 하고, 취업의 기회도 많아지며, 유럽 여행이 편해지고, 경비도 절감되며, 동남아시아와 중앙아시아 일대를 쉽게 여행하고, 유학할 수 있으며, 해외 상품도 쉽게 구매하게 될 것이라고 한다.

2017년 ‘일대일로와 문명 교감’이라는 제목으로 개최된 제11회 황제문화논단에서는 학술회의를 통해 국내외 염황 자손들이 단결하여 국가사업인 일대일로를 위해 일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중화민족의 위대한 부흥인 중국몽을 이루는 데 지식을 제공했다고 한다. 이처럼 황제고리는 후진타오 주석과 시진핑 주석의 정치 선전의 장이 되었다.

## 2) 황제의 무덤, 황제릉







### (1) 황제 관련 공공기념물

산시성[陕西省] 옌안시[延安市] 황링현[黃陵縣] 차오산[橋山]에 있는 황제릉은 사당인 현원묘(軒轅廟) 구역과 시신을 안장한 황제릉 구역으로 구성되어 있다.

현원교를 건너 현원묘 정문을 지나면 1938년 국민당이 세운 규모가 크지 않은 목조건물인 인문시조대전(人文初祖大典)이 있다. 1990년대 이후 염황열의 부흥에 따라 인문시조대전 위쪽에 제사를 거행하는 현원전을 신축하였다. 현원묘와는 다소 떨어져 있는 황제릉은 코끼리차를 타고 가야 한다. 황제릉은 흙더미가 쌓인 구릉으로 초목이 무성하게 우거져 있다. 『사기·오제본기』에는 “황제가 사망하여 교산에 장례를 지냈다”<sup>66</sup>고 하며, 『사기·효무본기』와 『사기·봉선서』에는 한 무제가 10만 병사를 이끌고 북방을 순시한 후 돌아올 때 교산에 들려 황제 무덤에 제사하였다<sup>67</sup>는 기록이 있다. 현원묘, 황제릉의 건축물과 각종 시설물은 황제가 역사적 존재이며, 중화민족의 공통 조상임을 말하고 있다.

현원묘에는 황제가 직접 심은 나무와 황제의 발자국이 있고, 황제릉에는 황제의 시신을 매장한 무덤이 있어 황제가 실존 인물임을 보여 준다. 현원묘에는 한 무제가 갑옷을 걸어놓은 곳이 있고, 역대 중국 황제가 제사를 지낸 기록을 새긴 비석을 전시하고 있다. 황제릉에는 한 무제가 제사를 지낸 곳이 있어 황제 숭배가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음을 보여 준다.

황제가 실존한 인물이며, 고대부터 제사의 대상이었음을 보여 주는 각종 기념물은 다음과 같다.

번호	기념물명	내용	사진 자료(©김인희)
1	황제가 직접 심은 나무 [黃帝手植柏]	전설에 의하면 황제가 직접 심은 나무라 하며 수령이 5000년이라고 한다. '중화 최고의 나무[中華第一柏]'라는 명예가 있다.	
2	황제 발자국 [黃帝 footprint]	돌판에 발자국 두 개가 새겨져 있는데 황제의 발자국이라고 한다.	
3	한 무제가 갑옷을 건 나무 [漢武掛甲柏]	한 무제가 북방을 정벌하고 돌아갈 때 이 나무에 갑옷을 걸었다고 하며, 장군수라고도 한다.	
4	황제릉	황제의 시신을 매장한 무덤이라고 한다.	
5	한 무제 선대 [漢武仙臺]	한 무제가 북방의 적을 소탕하고 제사를 지낸 곳이라고 한다.	
6	헌원묘 비석 회랑 (軒轅廟碑廊)	북송 가우(嘉佑) 6년 이래 황제가 지은 축문, 중수비기(重修碑記), 황제릉에 제사 지낸 기록 등 67개의 비석을 모아놓았다. 그러나 최초의 기록이 송나라로 황제릉에 대한 제사가 오래 되지 않았음을 알 수 있으며, 대부분 청나라 것으로 청나라에 이르러 황제릉에 대한 제사가 본격화되었음을 알 수 있다.	

## (2) 신축된 공공기념물과 황제의 신화화

기존의 건축물과 시설물이 황제의 역사성을 증명한다면, 현대에 새로 건립된 건축물과 각종 표어, 황제에 대한 제의는 황제를 신화적 존재로 숭배하는 역할을 한다. 2004년 사방이 40m인 대형 석조건물로



〈그림 12〉 현원전에서 기를 받기 위해 팔을 벌리고 있는 관광객의 모습(©김인희)

완성된 현원전은 5,000명이 합동으로 제사를 거행할 수 있다. 현원전은 지붕 가운데에 구멍을 뚫어 하늘·구름·햇빛이 실내로 들어오도록 하였으며, 바닥에는 청색·붉은색·흰색·흑색·황색 5종의 석재를 깔아 전통적인 오색토(五色土)를 은유하였다. 이는 조국의 대지에 황제의 은택이 비추는 것을 상징한 것이다. 황제의 기를 받기 위해 두 팔을 벌리고 있는 사람들을 쉽게 볼 수 있다.

황제에 대한 제사는 신중국 성립 후 1963년까지 거행되다가 문화대혁명 기간에 중단되었다. 그러다가 1980년 회복되었고, 2004년 이후에는 청명절 제사가 국가급 제사로 승격되어 관이 주관하였다. 중앙절에는 민간에서 제사를 지낸다. 공식적인 제사는 산시성[陝西省] 인민정부에서 주관하고 성급 지도자가 제의를 주재한다. 현원전 안내표지판에는 제사 목적에 대해 “중화민족 공통의 조상에 대한 공동 제사와 국가 대일통 이념을 표현하고, 민족문화의 발전을 기원하기 위함”이라고 하였다. 즉, 황제에 대한 제사를 통해 국내외 화인들의 통합을 이루어 내겠다는 것이다. 에릭 홉스봄은 “기념행위는 국민 정체성을 형성하는 전략이며, 신화와 의례가 사람들에게 만들어진 공식 기억을 민도록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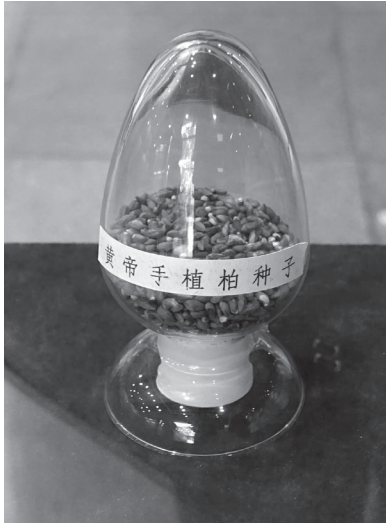
도적으로 사용되었음”<sup>68</sup>을 지적하였다. 황제에 대한 의례에 참여함으로써 사람들은 자신이 황제의 후손임을 확인하게 된다.

### (3) 황제릉과 현대 정치

황제에 대한 제사는 정치적 성격이 강하기 때문에 역대 지도자들이 참석하였다. 1912년에는 쑨중산이 대표를 파견하였으며, 1937년과 1938년에는 국공 양당이 합동으로 제사하였다. 1988년에는 덩샤오핑이 황제릉을 위해 ‘염황자손(炎黃子孫)’이라는 글자를 썼다. 1992년 주룽지[朱鎔基], 1999년 장쩌민[江澤民]과 원자바오[溫家寶], 2000년 리펑[李鵬], 2002년 리르환[李瑞環] 등이 황제릉을 방문하였다. 1994년부터 전국인대(全國人大), 국무원, 전국정협, 각 성 대표와 홍콩, 마카오, 대만 등 해외교포 1만 명 이상이 참여하였다.

황제고리의 정치선전물은 후진타오 사상을, 황제릉은 시진핑 사상을 선전하고 있다. 이러한 차이가 2017년과 2018년 사이의 변화인지 아니면 시진핑 주석이 황제릉에서 멀지 않은 옌안(延安)에서 청소년기를 보내서인지는 알 수 없다. 현원전 정문 양쪽 벽에는 ‘최초의 조상을 회고하며 신시대의 꿈을 구축한다[緬懷初祖, 築夢新時代]’는 표어가 붙어 있다. ‘신시대의 꿈을 구축한다’는 시 주석의 핵심 정책인 중국몽이다.

중국몽은 중화민족의 위대한 부흥으로, 제19차 당 대회 보고문건에서 중국몽의 구체적인 실천방안 2가지를 발표하였다. “공산당이 성립된 지 100주년이 되는 2020년경까지 소강사회를 완성하고, 건국 100주년이 되는 2050년경에는 부강한 민주 문명과 조화롭고 아름다운 사회주의 현대화 강국을 완성한다. 이 시기 중국은 종합국력과 국제적 영



〈그림 13〉 우주여행을 다녀온 '황제가 심은 나무 [黃帝手植柏] 씨앗' (©김인희)



〈그림 14〉 황제릉에 제사하는 모습과 마오쩌둥 얼굴이 그려진 티셔츠를 입은 관광객 (©김인희)

향력에서 선두주자가 되며, 전체 인민이 공동으로 부유해지는 것을 실현하고, 중화민족이 세계민족이라는 숲에 우뚝 서게 될 것이다.”<sup>69</sup>

현원묘 옆 전시실에 마련된 '황제가 심은 나무[黃帝手植柏] 씨앗' 7,383개는 2016년 9월 15일 텐궁(天宮) 2호에 실려 우주여행을 하였으며, 선저우(神州) 11호를 타고 2개월 만에 지구로 돌아왔다. 현재 2,016개 씨앗이 황제릉에 전시되어 있다. 황제가 직접 심은 나무의 씨앗은 중화민족과 5000년의 영욕을 함께 하였으며, 중국인의 강인한 생명력과 응집력을 보여 주는 것으로 중국몽을 실현하는 데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한다.

황제고리에서 볼 수 있는 또 하나의 광경은 황제릉에서 마오쩌둥의 얼굴이 그려진 티셔츠를 입은 단체 관광객들이다. 시 주석은 마오의 흉내를 내며 제2의 문화대혁명을 일으키고 있다.

“최초의 조상을 회고하며 신시대의 꿈을 구축한다”는 황제릉의 핵심 슬로건이 황제와 시진핑 주석을 직접 연결하고 있다. 이를 해석하면 세계 최초로 위대한 문명을 창조한 황제를 본받아 중화민족의 위대한 부흥인 중국몽을 실현하지는 것이다. 황제릉의 황제 역시 현 정권의 정치적 입지를 강화하는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다.

#### 4. 절반의 성공

춘추 말기 처음 등장한 황제는 시대에 따라 역할을 바뀌가며 소임을 다하였다. 현재는 중화민족의 공통 조상이며,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문명국인 중국을 빛낼 역할을 부여받고 있다. 1990년대 이후에는 두 가지 역할을 부여받았다. 하나는 세계에서 가장 오래되고 가장 발달한 문명을 창조한 역사적 인물이 되어 중국을 세계 최고의 문명고국으로 만드는 것이다. 다른 하나는 중화민족의 공통 조상으로서 공산당을 중심으로 전 인민의 통합을 이뤄 내는 것이다.

황제를 역사적 인물로 정립하기 위해 중국의 신석기 유적들이 동원되었다. 이로써 황제의 활동 시기는 기원전 5500년경 페이리강문화부터 기원전 1900년경 치자문화와 룡산문화까지 무려 3600년을 아우르게 되었다. 그리고 황제문화가 분포하는 지역은 허난성 일대의 페이리강문화와 양자오문화, 내몽골 일대의 홍산문화, 산둥성 일대의 다윈커우문화와 룡산문화, 창강 중류의 초문화, 간쑤성 일대의 치자문화 등 중국 전체가 황제의 발길이 머문 곳이 되었다.

서주 초기의 왕들이 초나라를 남정한 역사적 사실을 기반으로 한 「여형」의 皇帝 이야기는 전국시기에 이르면 黃帝와 치우의 전쟁으로 바뀐다. 이미 모든 문헌에서 치우와 전쟁을 한 인물이 黃帝라고 기록했음에도 불구하고 『상서』 후기 판본에서 ‘皇帝’라고 쓴 것은 후대의 교감자들도 「여형」의 皇帝가 黃帝가 아님을 명확히 인식하였기 때문이다. 황제는 주나라 역사가 신화화한 결과이며, 역사적 배경은 서주 초기(기원전 11~10세기)다. 이는 중국학계가 주장하는 신석기시대와는 현격한 편차가 있다.

황제에 대한 최초의 기록이라 할 수 있는 「여형」을 중국 학계에서는 황제 연구에 활용하지 않고 있다. 이는 유용한 기억은 강화하고, 유용하지 않은 기억은 망각하는 방식으로 황제의 역사가 만들어져 왔음을 말한다. 유용하지 않은 기억의 구조적 망각 속에 황제는 중국 신석기 시대의 인물이 되었으며, 중국 도처가 활동지가 되었다. 황제는 너무나 긴 시간, 너무나 많은 공간에 출현함으로써 스스로 역사가 아님을 증명하였다. 결국 과욕이 화를 불러 황제는 역사적 실존 인물이 아니라는 결론을 낳았다.

학문적으로 황제의 역사를 증명함과 동시에 황제를 중화민족의 공통 조상으로 정립하는 집단기억 강화작업도 착실하게 진행되었다. “집단기억에는 ‘삶에 보탬이 되는 지혜나 교훈의 보고’라는 온축적 가치를 넘어 역사의 물줄기를 새로운 방향으로 바꾸려는 집합적 열망이 투영되어 있다는 점에서 큰 의의를 부여할 수 있다.”<sup>70</sup> 집단기억은 정체성이 다른 성원들이 상상의 공동체를 형성하는 데 필요한 추상적 신념을 제공한다.

현재 중국은 미국을 비롯한 세계 각국과의 마찰, 빈부격차, 정치적 사상 대립, 56개 민족 통합 등 정치적 안위와 연결된 다양한 사회 문제들이 산적해 있다. “전통의 발명이 자주 일어나리라 예상할 수 있는 경우는 사회가 급속히 약화되거나 파괴되어 낡은 전통과 충돌하면서 새로운 전통이 만들어질 때나 아니면 낡은 전통과 그것들을 제도적으로 매개하고 보급하는 수단이 더는 융통성 있게 적용할 수 없는 것으로 판명이 나거나 아예 사라져 버렸을 때다.”<sup>71</sup> 이 같은 문제점을 극복하기 위해 중국의 통치자들은 황제를 공통의 조상으로 하는 족원 기억을 중화민족이라 지칭하는 새로운 군체가 믿게 하고자 하였다.

한 조상의 후손이라는 집단기억을 강화하기 위해 중국 정부의 주도로 각종 공공기념물이 세워졌으며, 성대한 의례도 거행되었다. 그러나 황하변에 염화거상이 세워질 때 먀오족을 비롯한 중국 내 소수민족들은 우리는 “중화민족이기는 하지만 염황의 후손은 아니다”라고 반발하였다. 중국 정부는 이를 무마하기 위해 쥘루현에 황제·염제·치우를 중화민족의 공통 조상으로 하는 중화삼조당을 건립하였다.

현재 황제는 중화민족의 공통 조상으로 인정받지 못할 뿐 아니라 그의 역사적 실존도 학문적으로 인정받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황제를 중화민족의 공통 조상으로 만들고자 한 목표는 절반의 성공을 이루었다 할 수 있다.

제6장  
요순우의 본향 산시성,  
그 오도된 역사 만들기

---

심재훈·단국대학교 사학과 교수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 1. 요순우의 본향 산시성

중국 전설상의 성왕인 요순우(堯舜禹)가 역사적 실체로 자리매김하는 과정은 흥미롭다. 오늘날까지도 중국 여러 지역에 요순우 관련 사적이 저마다의 역사를 지니며 보존되어 있다. 이 글은 그러한 사적들이 풍부하게 남아 있는 산시성(山西省)을 사례로 그 역사화 과정을 추적해 보려고 한다. 이 책의 다른 연구들이 주로 20세기 이후의 역사화 작업에 치중한다면, 이 글은 그러한 역사 만들기가 고대 이래 현재까지 지속되는 현상임을 보여 줄 것이다.

요순은 『대대례기(大戴禮記)』 「오제덕(五帝德)」과 『사기』 「오제본기(五帝本紀)」 등에 나타나는 오제의 마지막 두 제왕으로, 요가 순에게 선양(禪讓)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우는 오제에 속하지는 않지만 여러 문헌에서 치수에 성공한 하(夏)의 시조로 순으로부터 선양받은 것으로 나타난다.

중국 학계 일각에서는 산시성 서남부의 이른바 진남(晉南) 지역을 요순우의 본향으로 인식하고 있다. 그 실례로 2015년 발굴보고서가 나온 산시성의 룡산문화(龍山文化)에 속하는 상편현[襄汾縣] 타오쓰[陶寺] 유적을 들 수 있다. 타오쓰에서는 대형 묘와 성터, 궁전터, 관상대로 추정되는 유적 등이 발견되어 중국 최초의 도시 유적 중 하나로 주목받고 있다.<sup>1</sup> 상당수의 중국 고고학자들은 대략 기원전 2500년에서 기원전 1900년에 존재한 것으로 추정되는 이 유적을 요의 도성으로 간주하고 있다.<sup>2</sup> 더욱이 순과 우의 도성도 진남 지역에 위치했을 것으로 보고 허난성[河南省]이 아닌 산시성이 중국 초기 문명의 중심이었을 것으로 추정하기도 한다.<sup>3</sup>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서 타오쓰 유적 남쪽에 위치한

샤현[夏縣] 동사평[東下馮]을 중심으로 발전한 문화를 얼리터우문화[二里頭文化] 동사평 유형이라 명명하며, 하 왕조가 진남 지역에서 발흥하여 허난성으로 확장해나간 증거로 보거나, 얼리터우 유적을 하 후기의 귀족, 동사평은 평민 계층을 대변하는 문화로 보기도 한다.<sup>4</sup>

사실 근래에 중국 도처에서 발견되는 신석기시대 대형 유적지들을 신화·전설상의 존재와 일치시키며 역사화·문명화하려는 중국 학계의 다양한 시도는 점입가경이라는 표현이 적절할 듯하다.<sup>5</sup> 동북지역의 홍산문화[紅山文化] 유적마저 황제(黃帝)의 그것으로 파악하며, 중국 문명이 그 지역에서 발흥했다는 이른바 요하(遼河)문명론이라는 입증하기 어려운 가설까지 산출하고 있을 정도이다.<sup>6</sup> 이러한 경향은 1990년대 후반 리쉐친[李學勤, 1932~2019]과 리링[李零] 등이 의고(疑古) 사조에 대한 강한 반박과 함께 『대대례기』 「오제덕」과 「제계(帝繫)」 등의 문헌에 나타난 삼황오제 전설의 역사성을 긍정한 것과 무관하지 않을 것이다.<sup>7</sup> 이들이 주도하는 고대 문헌에 대한 신고적(信古的) 인식이 애국주의뿐만 아니라 상업주의와도 맞물리면서 다양한 지역에서 요순우의 사적들을 탄생시키고 있다.<sup>8</sup>

그러나 필자는 과연 중국 학계 일각의 인식에 신뢰할만한 근거가 있는지, 어떤 과정을 거쳐서 이러한 인식이 형성되었는지 궁금하다. 로타 팔켄하우젠이 적절하게 지적한 바와 같이, 다른 나라에 비해 상대적으로 풍부한 전래 문헌이 중국 학자들로 하여금 고고학 자료 자체에 천착하기보다는 유적들의 모호한 주인 찾기에 골몰하도록 만드는지도 모른다.<sup>9</sup> 이러한 측면에서 추시구이[裘錫圭]의 시각은 경청할 가치가 있다. 물론 그 역시 출토 문헌을 비롯한 고고학 자료들이 1930년대 구제

강[顧頡剛]이 주도한 이른바 의고파의 중국 고문헌에 대한 인식에 문제가 있었음을 보여 주는 것은 인정한다. 다만 의고시대에서 벗어나자는 주장이 학문의 진전을 위한 것이지, 경솔하게 신고로 돌아가자는 것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역설한다.<sup>10</sup> 고사변파의 이론을 여전히 존중하는 천용차오[陳泳超]와 우루이[吳銳]의 요순에 관한 근래 연구 역시 요순과 관련된 사적이 상고시대의 진상이 아니라 동주 후기에서 진한 시기에 창출되었음을 강조한다.<sup>11</sup>

이러한 측면에서 필자는 2017년 출토 문헌과 전래 문헌에 동시에 등장하는 고대 지명들을 분석한 연구를 완성하였다.<sup>12</sup> 이 과정에서 중국 학계에서 일반적으로 산시성으로 비정하는 일부 지명이 고대가 아닌 중세 이후부터 그렇게 되기 시작했음을 알게 되었다. 그 좋은 실례가 최근 공간된 죽간 사서인 청화간(淸華簡) 『계년(繫年)』에서 주(周) 평왕(平王)이 동천(東遷) 당시 장기간 은거한 것으로 언급된 악(鄂)이라는 지명이다.<sup>13</sup> 대부분의 중국 학자가 요의 나라 당(唐)의 도움으로도 알려진 악을 산시성 상녕현(鄕寧縣)에 위치시킨다. 이러한 견해는 7세기 초반 『괄지지(括地志)』라는 유실된 문헌에 최초로 출현한다. 더욱이 최근의 고고학 성과로 후베이성(湖北省) 쑤이저우(隨州)와 허난성 난양(南陽) 지역에서 악이라는 명문을 담은 서주시대와 춘추 초기의 청동기 명문들이 발견되어 오히려 이 지역들이 악의 원소재지일 가능성이 크다.<sup>14</sup> 더욱 흥미로운 사실은 현재까지 알려진 요와 관련된 고당국(古唐國)의 소재지만 해도 최소한 산시성, 후베이성, 허베이성(河北省) 등 세 곳에 이른다.<sup>15</sup>

필자는 악(鄂)에 대한 역사지리를 출토 문헌과 전래 문헌으로 연구하여 전국시대 중후반 이래 황제에서 비롯된 대일통(大一統) 세계(世系) 정

립 과정 중 요와 당, 악 등의 관계가 뒤엉키면서 요의 본거지 중 하나로 추정된 산시성에도 요(당)의 도움으로 알려진 악의 존재가 막연히 상정 되었을 가능성을 제시한 바 있다. 이러한 오인으로 인해 『괄지지』가 찬수된 당(唐) 초(624)에 이르러 오늘날의 상녕현 인근에 존재했던 한 고성(故城)을 악 유적으로 추단한 것으로 보았다.<sup>16</sup> 이러한 필자의 추론은 전통시대 최고이자 최선의 지리서로 평가받는 이길보(李吉甫, 758~814)의 『원화군현지(元和郡縣志)』<sup>17</sup> 자주(慈州) 창녕현(昌寧縣, 현재 상녕현)에 관한 서술에서 악과 관련된 이야기가 전혀 언급되지 않음과도 일맥상통한다. 『괄지지』까지 참고하며 당시까지 중국 각 지역의 고사와 연혁을 충실히 설명한 『원화군현지(元和郡縣志)』에 나타난 상녕현의 역사는 “원래 한(漢) 임분현(臨汾縣)이었다”로 시작함으로써 그 이전에 대해서는 공백으로 남겨두었다.<sup>18</sup> 창녕현이 속한 자주 전체로 범위를 넓혀도, 춘추시대 진(晉) 헌공(獻公)의 아들인 이오(夷吾)가 거주한 굴읍(屈邑)이 거기에 있었다는 이야기 이상으로 연대가 소급되지 않는다. 『원화군현지』에 서술된 오늘날 산시성의 어느 지역에도 악과의 관련성이 나타나지 않음은 물론이다. 악사(樂史, 930~1007)가 편찬한 북송(北宋)의 지리서 『태평환우기(太平寰宇記)』 역시 상녕현(鄉寧縣, 권48)뿐만 아니라 산시성 전체에도 악과 관련된 사적이 전혀 언급되어 있지 않다.<sup>19</sup> 최소한 당송을 대표하는 두 지리서의 편찬자들에게 『괄지지』에서 확정된 창녕(혹은 鄉寧)과 고악성(故鄂城)에 관한 고사가 받아들여지지 않았음이 분명하여,<sup>20</sup> 그 고사 자체가 설득력이 없었거나 와전되었을 가능성이 커 보인다.

요와 관련된 악이라는 고대의 지명이 산시성에 전혀 존재하지 않았

을 가능성이 크지만, 어떤 연유에선가 위진남북조시대를 거치며 7세기 일부 학자들에 의해 이 지역으로 확정되기 시작한 사실에서 본 연구는 아주 중요한 시사를 받았다. 요와 관련된 악이 진한대까지 산시성으로 비정되지 않았듯이, 요순우와 관련된 산시성의 다른 지명들 역시 후대에 그 지역으로 자리 잡기 시작했을 가능성을 상정하며, 그 유래를 꼼꼼히 따져볼 필요성을 느끼게 되었다.

물론 요순우와 관련된 산시성의 지역들이 정말 무관하지 않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으며, 특히 요의 나라로 인식되는 당의 경우 갑골문에서 산시성 서남부의 정치체로 나타난다. 이 연구에서는 이 문제도 함께 다루어 그 실마리를 찾을 수 있으리라 기대한다. 나아가 악의 경우처럼 그러한 지명들이 요순우와 연관되어 산시성에 이식되는 과정을 밝힐 수 있다면, 산시성에서 신화·전설이 역사화 되어가는 중요한 시기와 그 연유까지 포착해낼 수 있을지도 모른다. 이러한 역사화의 과정이 비단 산시성에만 국한되지는 않았을 것이기에, 이 연구는 궁극적으로 중원 지역을 비롯한 다양한 지역에서 신화·전설이 역사화 되어가는 양상을 추적하는 중요한 단서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이를 통해 중국 전통시대 역사 만들기의 한 궤적을 설정할 수 있으리라 기대한다.

이 연구의 방법은 비교적 단순하다. 우선 갑골문과 초간(楚簡) 등 출토 문헌에 나타나는 요순우를 검토하고, 필자가 요순우와 산시성의 관계 확정에 계기를 제공한 자료로 보고 있는 『좌전』으로 넘어갈 것이다. 그 이후 본격적으로 여러 지리서에 나타나는 요순우의 사적을 검토할 것인데, 『한서(漢書)』 「지리지(地理志)」가 시발점이 될 것이다. 나아가 앞

에서 언급한 『원화군현지』 및 『태평환우기』와 함께 명말(明末) 만력(萬曆) 연간(1629)과 청(淸) 옹정(雍正) 연간(1734)에 각각 편찬된 『산서통지(山西通志)』<sup>21</sup>에 언급된 요순우와 연관된 산시성 사적들을 집중적으로 살펴볼 것이다. 이를 위해 과연 산시성에 오늘날까지 존재하는 요순우 관련 주요 사적들이 어떤 역사적 맥락 속에서 이어져 왔는지부터 검토해 보자.

## 2. 현존하는 산시성의 요순우 사적 개요

필자는 2017년 7월 약 1주일 동안 산시성을 답사하며 현존하는 요순우 관련 사적들을 살펴보았다. 대체로 산시성 서남부의 편하[汾河] 유역과 황하(黃河) 인근에 요순우의 사묘(祠廟)나 능묘(陵墓)가 남겨져 있었고, 어떤 곳은 대대적으로 확대·보수하여 대형 공원처럼 꾸며지기도 했다. 그것들을 요순우 순서로 관련 전래 문헌의 기록과 함께 살펴보기로 한다.

### 1) 린펀[臨汾]의 요묘(堯廟)

산시성 서남부의 린펀시 남쪽에 있는 요묘는 중국에서 가장 오래된 요묘 중 하나이다. 이 요묘는 원래 편하 서쪽에 지어졌다가 진(晉) 원강(元康, 291~299) 연간에 편하 동쪽으로 옮겼고, 당 현경(顯慶) 3년(685)에 오늘날의 자리로 옮긴 것으로 전한다.<sup>22</sup>



<그림 1> 린편의 요묘(©심재훈)



<그림 2> 윈청 순제릉(©심재훈)

제6장 요순우의 분향 산시성,그오도된 역사 만들기 143

요와 린편을 연결시킨 가장 오래된 기록은 『한서』 「지리지」의 하동군(河東郡) 평양현(平陽縣)에 대한 안사고(顔師古, 581~645)의 주(注)에 후한대(後漢代)의 응소(應劭, ?~206?)를 인용하여 ‘요도야(堯都也)’라고 주해한 것이 아닐까 한다.<sup>23</sup> 여기서 중요한 것은 『한서』 「지리지」 원문에는 그런 연결고리가 명시되어 있지 않은 점이다. 어쨌든 445년 편찬된 『후한서(後漢書)』 「군국지(郡國志)」에도 하동군 평양을 요도로,<sup>24</sup> 646년 찬수된 『진서(晉書)』 「지리지」에서도 평양군(平陽郡) 평양을 구요도(舊堯都)로 명시하고 있다.<sup>25</sup>

554년 편찬된 『위서(魏書)』 「지형지(地形志)」에는 진주(晉州) 평양군 평양에 요묘가 있었고,<sup>26</sup> 「고조기(高祖紀)」에는 태화(太和) 16년(492) 효문제(孝文帝)가 성왕들의 제사 체계를 정리하여 “당요(唐堯)는 평양에서, 순우(舜虞)는 광녕(廣寧)에서, 하우(夏禹)는 안읍(安邑)에서, 주공(周公)은 낙양(洛陽)에서” 제사 지내도록 조서를 내렸다고 전한다.<sup>27</sup> 효문제 시기 이래 평양, 즉 오늘날의 린편이 당요의 공식적인 제사 장소로 확정됨으로써<sup>28</sup> 요묘가 있는 요의 도읍으로 공인된 것이다.

이 요묘의 남쪽 35km 지점에서 앞에서 언급한 타오쓰 유적이 발견되었다. 중국 학계에서 이 유적지를 요의 도읍으로 추정하는 견해가 점차 강해지고 있음은 일면 자연스러워 보인다. 따라서 린편 요묘 정문 앞에 중국의 1,000개에 달하는 성(姓)이 모두 요를 시조로 한다는 천가성기념벽(千家姓紀念壁)을 만든 것도 우연은 아니다. 그렇지만 린편을 전설상의 요와 연결시킨 현존 최초의 기록이 『한서』 「지리지」가 아닌 2세기의 응소에서 비롯되었을 가능성을 기억해야 한다.

## 2) 원청[運城]의 순제릉묘(舜帝陵廟)와 위안취[垣曲]의 순왕평(舜王坪)

산시성 서남부 원청시의 밍타오강[鳴條崗] 서쪽에 위치한 순제릉묘는 당 개원(開元) 26년(738)에 시건되었다. 『맹자(孟子)』 「이루하(離婁下)」에 나오는 순이 명조에서 죽었다[卒于鳴條]는 기록이 가장 오래된 근거이다. 『맹자』에 등장하는 구절은 다음과 같다.

순은 제풍(諸馮)에서 태어났고, 부하(負夏)로 이주하여 명조(鳴條)에서 죽었으니, 동이(東夷) 사람이다. 문왕(文王)은 기주(岐周)에서 태어서 필영(畢郢)에서 죽었으니, 서이(西夷) 사람이다. (두 사람) 상호 간의 지리적 거리가 1천 리가 넘고, 세대 차이도 1천 년 이상이다.<sup>29</sup>

이 구절은 순과 주의 문왕이 지역적·시대적 차이에도 불구하고 중심지에서 성인의 치세를 이룬 법도는 결국 한 가지라는 맹자의 경구이다. 명조라는 지명이 오늘날까지 원청 지역에 남아 있으므로 그 지역에 있는 순제릉이 상당히 자연스러워 보일 수 있다.

그렇지만 위 구절의 순과 관련된 지명들의 위치에 대해서는 역대 주석가들 사이에 이견이 분분했다. 후한대 조기(趙歧)의 『맹자장구(孟子章句)』에서는 제풍과 부하, 명조 등을 “동방 이복(夷服)의 땅”으로 보았다. 송대 『맹자주소(孟子注疏)』에서는 정의(正義)를 인용하여 제풍은 기주(冀州)로, 부하는 위지(衛地), 즉 『한서』 「지리지」의 동군(東郡)으로 추정했다. 명조에 대해서는 『상서(尚書)』 「탕서(湯誓)」의 『서서(書序)』에 탕(湯)과 결(桀)이 결전을 벌인 장소인 명조지야(鳴條之野)로 보고, 공전(孔

傳)을 인용하여 안읍(安邑) 서쪽, 즉 오늘날 산시성 윈청 일대로 추정했다.<sup>30</sup> 『상서』의 공전은 동진(東晉)시대 이후의 해석으로 보는 게 통설이기 때문에, 명조를 산시성과 연관시키는 견해는 현대에는 아직 나오지 않았을 가능성이 크다.

따라서 같은 주석에 언급된 대로 후한대의 정현(鄭玄, 127~200)은 명조를 오히려 남이(南夷)의 지역으로 보기도 했다. 이는 아마 『예기(禮器)』 「단궁상(檀弓上)」에 순이 통상 남방으로 추정되는 창오의 들[蒼梧之野]에 묻혔다고 나오고,<sup>31</sup> 『사기』 「오제본기」에도 순이 제위(帝位) 39년 남쪽에서 순수 중에 창오의 들에서 붕어하여 강남(江南) 구의(九疑)의 영릉(靈陵)에 묻혔다고 전하기<sup>32</sup> 때문일 것이다. 실제로 현재 후난성(湖南省) 용주(永州) 주이산(九疑山)에도 한대 이래 존재했다는 대형 순제릉과 유적이 복원되어 있다.

청대의 주석가인 초순(焦循)은 동방설을 고수한다. 특히 명조에 대해서 「탕서」에 뒤이은 「전보(典寶)」편의 『서서』에 탕(湯)이 하(夏)의 군대를(鳴條에서) 궤멸시키고, 삼종(三腰)을 공격하여 보옥(寶玉)을 노획한 것으로 언급된 것에 주목한다. 『후한서』 「군국지」에 제음군(濟陰郡) 정도현(定陶縣)에 삼종정(三驕亭)이 있었다고 나오므로, 명조 역시 오늘날 산둥성(山東省) 서남부의 당타오현[定陶縣]에서 멀지 않은 지역으로 추정하는 것이다.<sup>33</sup>

사실 순의 행적을 둘러싼 역사지리 문제는 전통시대 학자들의 견해만으로도 별도의 논문을 작성할 수 있을 정도로 다양한 논의가 제시되어 있다. 이러한 측면에서 현대의 주석가인 양보권(楊伯峻)은 순이 전설상의 인물이므로 위의 세 지명은 원칙적으로 고증이 불가한 것으로 보

았다. 그럼에도 『맹자』 원문의 의미는 마땅히 동쪽으로 보는 게 타당하고, 산시성설의 근거가 된 명조 역시 상의 탕왕이 하의 걸왕을 물리친 곳으로 전해지는 명조는 아닐 것으로 본다.<sup>34</sup> 맹자 시대에 이 지명들에 대한 명확한 인식이 존재했는지 알 수 없지만, 문왕과 관련된 지명인 기주와 필영이 오늘날 산시성[陝西省] 일대, 즉 서방이라는 데는 이견이 없으므로 그와 대비된 순 관련 세 지명도 동방으로 이해하는 게 순리적이다.

순과 관련된 산시성의 또 다른 사적으로 원청 동쪽 위안취[垣曲]의 역산(歷山)자연보호구 내 해발 2358m의 봉우리에 순왕이 경작을 했다는 순왕평(舜王坪)이 있다. 『묵자(墨子)』 등에 언급된 순경역산(舜耕歷山) 고사에 따라 조성된 것으로 보이며, 역사적으로 알려진 역산도 산동 허쩌[荷澤]와 역시 산동 지난[濟南]의 첸포산[千佛山] 등 여러 곳임을 감안할 필요가 있다.<sup>35</sup>

### 3) 대우묘(大禹廟)

현재 산시성 서남쪽과 동남쪽의 황하 양안에 우묘(禹廟)들이 남겨져 있다. 허진시[河津市] 룡문촌[龍門村]과 한청시[韓城市]의 대우묘가 그것인데, 『상서』 「우공(禹貢)」에 나타나는 구주(九州) 중 옹주(雍州)의 지명인 용문(龍門)과 『묵자』 「겸애중(兼愛中)」, 『설원(說苑)』 「귀덕(貴德)」, 『회남자(淮南子)』 「인간훈(人間訓)」, 『사기』 「진시황본기(秦始皇本紀)」 등에 언급된 “우착용문(禹鑿龍門)”의 용문을 그 근거로 한다.

허진의 대우묘는 현대 이래 존재한 것으로 알려져 있지만 명확한



<그림 3> 허진 대우묘(©심재훈)



<그림 4> 한청 대우묘(©심재훈)

148 중국 애국주의와 고대사 만들기

근거는 파악하기 어렵다. 허진과 한청이 마주 보는 황하 양안을 용문으로 불렀고, 명청대 이래로 웅장한 대우묘가 마주 보고 건립되었지만 1942년 전쟁 중에 파괴되었다고 한다. 현존하는 한청의 대우묘는 원(元) 대경(大德) 5년(1301) 시건된 것이다. 「우공」의 성서(成書) 연대에 대해서는 이견이 있지만 대체로 전국시대 후반이나 진 통일 이후로 보는 견해가 우세하여<sup>36</sup> 그 내용을 전설상 우의 치적으로 단정하기는 위험이 따른다. 더욱이 『목자』 「검애중」에는 우가 천하를 다스리며 용문을 뚫은 방위가 북쪽으로 연(燕)과 대(代), 호(胡), 맥(貉), 서하(西河) 등을 이롭게 한다고 명시되어 있어,<sup>37</sup> 위의 용문 위치와는 맞지 않는다.

#### 4) 사현[夏縣]의 우왕성(禹王城)

사현에는 하나라 시조인 우의 성, 즉 우왕성 유적이 남아 있다. 성벽 위에 우의 사당까지 세워져 있다. 이 지역을 『사기』 「하본기(夏本紀)」 등 전래 문헌에 등장하는 우도(禹都) 안읍(安邑)으로 보기 때문에 이러한 인식이 정착되었을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연관성도 후한대 이후 창출되었을 가능성이 크다. 『한서』 「지리지」의 하동군 안읍에 대한 반고(班固)의 주에는 “위강(魏綱, ?~기원전 552)이 위(魏)로부터 이 지역으로 이주했고, (기원전 361) 혜왕(惠王)에 이르러 대량(大梁)으로 이주했다”는 내용만 전해져<sup>38</sup> 전국시대 이전 상황에 대한 언급은 전혀 없기 때문이다. 이 지역에서 발견된 우왕성으로 알려진 고성도 전국시대 위국(魏國)의 초기 도성이라는 데는 이론의 여지가 없다.<sup>39</sup> 더욱이 이 지역과 하의 연관성을 확정하듯 이 지역



<그림 5> 사현 우왕성(©심재훈)



<그림 6> 우왕 사당(©심재훈)

150 중국 애국주의와 고대사만들기

명이 안읍에서 하현으로 변경된 것도 북위(北魏) 태화(太和) 18년(494)이었다.<sup>40</sup>

## 5) 타이위안[太原]의 진사(晉祠)

요순우와 직접적 관련성은 없지만 산시성 사묘(祠廟)의 역사를 이해하기 위해 타이위안의 진사에 대해서도 언급할 필요가 있다. 진사는 원래 춘추시대의 패국인 진(晉)의 시조 당숙우(唐叔虞)를 위한 사당으로 시건되었는데, 명확한 연대는 고증하기 어렵다. 현존하는 진사에 대한 가장 이른 기록은 6세기에 편찬된 『수경주(水經注)』 ‘진수(晉水)’에 나타난다. 오늘날 타이위안 인근 진양현(晉陽縣) 서쪽의 현옹산(懸壘山)에서 발원한 진수에 대해 설명하며, 역도원(鄴道元)은 이 지역을 후술할 『좌전』에 명시된 당숙우가 분봉된 당요(唐堯)의 지역으로 보고, 거기에 당숙우사(唐叔虞祠)가 있다고 명시했다.<sup>41</sup> 『수경주』와 비슷한 시기에 편찬된 『위서』 「지형지」에도 같은 지역에 진왕사(晉王祠)가 있었던 것으로 전한다.<sup>42</sup> 이후 수차에 걸친 중수를 통해 송대에 당숙우의 모친 음강(邑姜)을 위한 성모전(聖母殿)이 지어지고, 그 성모가 농사에 필수적인 물의 수호신으로 주신의 위치를 차지함에 따라, 당숙우는 부차적인 위치로 밀려나게 된다. 다양한 부속 건축물과 함께 다른 신들도 합사되어 있다.

진사와 관련하여 한 가지 흥미로운 사실은 타이위안이 서주 초 진의 최초 분봉지와는 전혀 무관한 지역이라는 점이다. 정확한 위치에 대해서는 여러 설이 제기되지만 대체로 산시성 서남부의 편하 중하류 유역을 벗어나지 않고,<sup>43</sup> 최근의 고고학 성과 역시 이를 뒷받침한다.<sup>44</sup> 실제



〈그림 7〉 타이위안의 진사(©심재훈)

로 진은 오늘날 산시성 서남부 허우마[侯馬] 일대[취위(曲沃)-이청(翼城) 일대와 원시(聞喜)]에서 발전하다가 춘추시대인 기원전 7세기에 들어서야 주변 세력을 정복하고 영역 확대를 꾀한다.<sup>45</sup> 진의 분봉지가 타이위안과 무관함을 최초로 논증한 학자는 고염무(顧炎武, 1613~1682)로 진이 평공(平公, 기원전 557년~기원전 532년)대에야 타이위안 일대를 장악하기 시작했음을 밝혔고,<sup>46</sup> 현대 학자인 천판[陳槃, 1905~1999] 역시 이를 따랐다.<sup>47</sup> 1980년대 후반 타이위안 남쪽 교외 진성촌(金勝村)에서 발굴된 대형 조경묘(趙卿墓) M251 역시 이를 뒷받침한다. 연대가 대략 기원전 475년에서 기원전 450년 정도로 추정되어, 춘추시대 조씨의 유력자였던 조간자(趙簡子, ?~기원전 476년)가 이 지역에 축성을 시작했다는 견해와 상통한다.<sup>48</sup>

그럼에도 6세기까지 그 지역 식자층에게 확고히 각인된 진사를 통

한 타이위안과 서주 초 분봉된 진의 연관성은 그 지역이 주 왕실의 합법적 영역이었다는 점을 확증해 주었을 것이다.<sup>49</sup> 이는 『좌전』이나 『한서』 「지리지」 같은 이전의 기록에 대한 맹신 혹은 오독에서 초래되었을 가능성이 크다. 이 문제는 뒤에서 다시 언급할 것이다.

어쨌든 트레이시 밀러(Tracy Miller)가 적절하게 지적했듯이 이러한 연관성은 위진남북조 분열의 시대에서 송대에 이르기까지 황제들이 그 지역을 지속적으로 주요 근거지로 삼고자 하는 열망의 근거가 되었다. 특히 이 지역을 군사 거점으로 삼아 흥기하여 진이나 당이라는 국호를 차용한 고환(高歡, 547 사망)이나 이세민(李世民, 620~649 재위), 석경당(石敬瑭, 892~942) 등에게 그 지역의 고대 군주로 알려진 당숙우는 각별할 수 밖에 없었을 것이다.

그렇지만 송의 두 번째 황제인 조광의(趙匡義, 太宗)가 979년 타이위안을 정복한 이래로 당숙우 위주의 의례는 성모 의례에 의해 뒷전으로 밀려나고 만다. 명이 멸망한 이후 청대에 당숙우가 주된 신앙의 대상으로 복귀함은 시사적이다.<sup>50</sup>

### 3. 선진 출토 문헌상의 요순우

앞에서 산시성에 현존하는 요순우 및 당숙우의 사적을 문헌상의 존재 근거와 함께 살펴보았다. 이러한 사적들은 나름대로의 문헌 근거를 토대로 만들어졌지만, 그 근거가 실제 역사와 부합하는지는 의심의 여지가 있음을 알게 되었다. 사실 17~18세기 고증학이 등장하기 전까지 중국의

전통시대 역사학자들은 고대 이래 남겨진 문헌 기록을 대체로 맹신했다. 이러한 상황에서 최초의 기록에 오류가 있었음에도 오히려 그 오류가 확대·재생산되며 역사적 사실로 각인된 사례들이 적지 않았다.<sup>51</sup> 방대한 출토 자료에 힘입어 더욱 강해지고 있는 중국 학계의 신고 경향이 그 형성 과정이 불명확한 전래 문헌상의 역사를 모두 보증해 주지는 않듯이,<sup>52</sup> 필자는 이 연구에서 다루는 산시성에 정착된 요순우 사적의 역사성 문제 역시 오류의 확대·재생산을 보여 주는 좋은 사례로 보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위험성에서 자유롭기 어려운 요순우 관련 전래 문헌을 검토하기에 앞서 원초성이 어느 정도 담보되는 출토 문헌을 우선 검토할 필요가 있다. 갑골문과 전국시대 초간에 관련 내용이 남겨져 있다.

기원전 13세기~기원전 11세기인 상 후기 갑골문에는 오늘날 산시성 서남부로 비정되는 정치체들이 상당수 등장한다.<sup>53</sup> 일부 연구자들이 갑골문에 요순우가 나타난다고 주장한 바 있지만<sup>54</sup> 이를 따르는 이는 거의 없다. 그럼에도 전래 문헌에 요와 연관성을 지닌 것으로 나타나는 당(唐)뿐만 아니라 당숙우의 분봉지와 연관이 있는 양(易)도 갑골문에 분명히 나타난다. 일단 당이 언급된 복사들을 살펴보자.

- ① 貞：作大邑于唐土.(英國 1105正：I)—점치기를：“당토에 대읍을 지을 것이다.”
- ② 貞：帝狝唐邑.(合集 14208正：II)—점치기를：“제가 당읍을 해할 것이다.”

위의 두 복사에 명시된 당(唐)에 대해 많은 학자는 진의 시조 당숙우

가 분봉된 당으로 보지만, 위치뿐만 아니라 당숙우와의 연관성에 대해 이견이 있다. 그럼에도 갑골문의 당을 산시성 서남부로 위치시키지 않은 연구자는 없어서, 위의 복사들은 상 후기의 한 왕이 편하 중하류 어딘가에 있던 당토(唐土)에 자신의 읍을 건설하고, 그 안위에 신경을 쓰고 있었음을 보여 준다.

아래의 복사 역시 상 후기 당이 처한 정치적 상황에 대해서 중요한 자료를 제공한다.

- ③ …雀…唐.(合集 4169: I) — “…작…당.”
- ④ 弗其征唐.(合集 11484正: I) — “당을 정벌하지 못할 것이다.”
- ⑤ …來艱自微, 友, 唐, 舌方圍… 戛(龔)垂, 示, 易, 戊申, 亦有來(艱)自西, 告牛家. …(合集 6063反: I) — “어려움이 미와 우, 당(唐)으로부터 닥쳐와, 공방이 포위하여 삼과 시, 양을 멸하였다. 술신일(45)에도 [어려움이] 서쪽으로부터 닥쳐와 牛家(?)에 고하였다.…”
- ⑥ 貞… 在唐… 三月.(合集 24374: II) — 점치기를: “당에서… 3월.”

작(雀)은 무정왕(武丁王) 시기인 I기의 이른 시기에 산시성의 많은 정치체를 빈번하게 공격하는 것으로 나타나는 상의 장군이다. 따라서 ③과 함께 ④는 산시성의 다른 정치체들과 마찬가지로 당 역시 상의 세력권으로 편입되기 전에 상의 공격을 받았음을 암시한다.<sup>55</sup> 앞에서 인용된 복사 ①과 ②는 당이 상의 지배하에 있음을 보여 주는 것이고, ③는 당이 산시성 서남부의 다른 정치체들과 함께 상의 강력한 적인 공방(舌方)의 공격을 받았음을 암시한다. ⑥은 II기, 즉 조경(祖庚) 혹은 조갑(祖

甲) 왕 시기에도 당이 상의 통제하에 있었음을 보여 준다.

위의 복사들은 상 후기까지 당이라는 정치체가 산시성 서남부 어딘가에 분명히 존재했음을 보여 주지만, 요나 당숙우와의 연관성에 대해서는 속단하기 어렵다. 이러한 측면에서 갑골문에 나타나는 산시성 서남부의 또 다른 정치체인 양(陽)도 위의 복사 ⑤에서 당과 함께 공방의 공격을 받은 것으로 나타난다. 양과 관련된 아래의 다른 복사들 역시 주목할 가치가 있다.

- ⑦ … 𠄎(龜) 甬… 易…(合集 3394: 1) — … 𠄎 … 양을 멸하였다.
- ⑧ 辛巳卜, 𠄎貞: 王比易伯𠄎.(合集 3380: 1) — 신사(17)일에 금을 내고, 곡이 점치기를 “왕이 양백 𠄎와 연합할 것이다.”
- ⑨ 易入卅.(合集 5637反: 1) — 양이 (龜甲) 20뫼음을 공납했다.
- ⑩ 己酉卜, 賓貞: 鬼方, 易亡憂. 五月.(合集 8591: 1) — 기유(56)일에 금을 내고, 빈이 점치기를 “귀방과 양에 우환이 없을 것입니다.” 5월.

⑦은 잔편만 남겨져 있어서 이렇지만, 양이 산시성 서남부의 정치체로 추정되는 𠄎(甬)과 함께 상의 공격 대상으로 나타난다. 양 역시 위의 당을 비롯한 산시성 서남부의 정치체들과 마찬가지로 무정 시기에 상의 공격을 받고 복속되었을 가능성이 있다. 이를 뒷받침하듯 나머지 복사들은 거의 상과 양의 우호적 관계를 보여 준다. ⑧은 왕이 양과의 연합 여부를 점친 것으로, 이러한 유형의 복사가 상당수 남겨져 있다. ⑨는 양이 상에 바친 공납을, ⑩은 양에 화가 미칠 지 여부에 대해 점친 것이다. 정제상(鄭杰祥)은 그 위치를 타이구[太谷]로 추정했지만,<sup>56</sup> 근래

편하 중류 홍통(洪洞) 지역의 고고학 성과와 함께 양을 그 지역에 위치  
한 것으로 전해지는 희성(姬姓) 제후국 양(楊)의 전신으로 보는 견해가  
설득력을 얻고 있다. 나아가 진의 시조 당숙우의 분봉지로 언급된 당을  
양으로 보아 최초 분봉지를 홍통현 인근에서 찾기도 한다.<sup>57</sup> 필자 역시  
이 견해를 더욱 보완한 바 있다.<sup>58</sup>

2007년 공간된 요공괘(猷公龔) 명문이 이러한 인식을 뒷받침한다. 이  
명문은 서주 전기의 성왕(成王) 혹은 강왕(康王) 28년, 당숙우의 아들이  
자 2대 진후인 섭보(燮父)로 추정되는 양백(陽伯)을 진에 후로 봉했  
다는[王命易(唐)白(伯)侯于晉] 기록을 담고 있다.<sup>59</sup> 당에 분봉되어 당숙(唐  
叔)으로 불린 부친과 마찬가지로 그의 아들도 진의 제후로 다시 분봉되  
기 전까지 양(陽)백으로 지칭되었던 것이다. 여기서 중요한 사실은 많  
은 학자가 인정하는 ‘갑골문의 당(唐)=전래 문헌의 당’의 등식과 달리,  
요공괘 명문에는 진에 후로 봉해진 인물이 당이 아닌 양의 백으로 명시  
되어 있다는 점이다. 더욱이 춘추시대 진국 기물인 진공분(晉公盆, 集成  
10342) 명문에도 당숙우를 지칭하는 당공(鄗公)의 ‘鄗’ 자에 당보다는 양  
이 주요 부분을 이루고 있다. 2014년 공개된 진공분과 동일한 명문을  
지닌 진공반(晉公盤) 명문 역시 마찬가지이다.<sup>60</sup> 물론 고음이 모두 양부  
(陽部)에 속하는 당과 양은 출토 문헌과 전래 문헌에 통가 사례가 많아  
서 요공괘의 양을 당으로 보는 견해를 오류로 볼 수는 없다. 그럼에도  
갑골문에 당과 양이 엄연히 다른 정치체로 등장하고, 서주와 춘추시대  
청동기 명문에 당이 아닌 양이 당숙우나 전래 문헌의 당을 지칭하는 글  
자의 핵심으로 나타나는 사실은, 이 문제의 이해를 더욱 어렵게 한다.

어쨌든 상 후기까지 산시성 서남부에서 당과 양이라는 정치체가 존

재한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고, 최근 추가된 출토 문헌 자료들은 갑골문의 당보다는 오히려 양이 당숙우가 최초로 분봉된 지역일 가능성에 무게를 실어준다. 그 양은 오늘날의 흥통현으로 『한서』 「지리지」에 하동군에 속하는 24개 현 중 하나인 양현(楊縣)<sup>61</sup>일 가능성이 크다. 갑골문의 양이나 당이 전래 문헌에 요의 도움으로 알려진 당과 어떤 관련이 있는지는 예단할 근거가 존재하지 않는다.

갑골문에 요순우와 직접 관련된 내용이 나타나지 않는 것과 달리 2002년 공간된 서주 중기 빈공수(鬲公盪) 명문에는 땅을 다스리고 산과 강을 정비한 우(禹)의 사적이 언급되어 주목받은 바 있다.<sup>62</sup> 지상 세계에 질서를 부여한 창조신적 존재로서 우에 대한 관념을 서주 중기까지 소급시키는 귀중한 자료이지만,<sup>63</sup> 전래 문헌에 나타나는 지리적 측면에 대한 정보는 담고 있지 않다.

요순우는 1990년대 이래 출간된 전국시대 초간 문헌에서 비교적 빈번히 나타나 전국시대에 이미 그들과 관련된 전설이 상당히 유행했음을 알 수 있다.<sup>64</sup> 우선 귀토훈초간[郭店楚簡] 『당우지도(唐虞之道)』에는 요순 선양의 도와 함께 이들이 실천했다는 애친과 존현, 효 등이 강조되어 있다. 우의 치수에 대해서도 언급되어 있지만, 요순우를 특정 지역과 연관시키는 내용은 없다.<sup>65</sup>

상박초간(上博楚簡) 제2권에 수록된 『자고(子羔)』 역시 요순 선양과 함께 순의 덕이 강조되어 있는데, 등을 갈라 태어났다(剖於背而生)는 우의 새로운 탄생설화도 나타난다. 총 14매의 죽간으로 구성된 『자고』의 제2간과 제3간에 순과 관련된 지역명일 가능성이 있는 동토[童土: 舜穡於童土之田, 童土之黎民]가 나타난다. 『자고』의 최초 정리자인 마칭위안[馬承

源]은 이를 『장자(莊子)』 「서무귀(徐無歸)」에 나오는 “요가 순이 어질다는 소문을 듣고 그에게 동토(童土)의 땅을 주었다”는 유사한 용례로 보고, 성현영(成玄英)과 육덕명(陸德明)의 주해에 따라 “황무지토(荒蕪之土)”로 이해했다.<sup>66</sup> 그러나 잔결자가 많은 『자고』의 간 배열에 천젠(陳劍)과 추시구이 등이 의문을 제기했고, 최근 구스카오(顧史考, Scott Cook)도 이들의 연구를 토대로 자신 나름의 간 재배열과 함께 동토(童土)가 순과 관련된 ‘동토(東土)’ 혹은 ‘당토(唐土)’일 가능성을 제시하며 산시성과 연관 시킨 바 있다.<sup>67</sup> 흥미로운 해석이지만 구스카오 자신도 언급한 바 있듯이 서주 이래의 동토는 성주(成周, 洛陽) 동쪽을 지칭하는 개념이다. 그의 해석을 따라 동토(東土)로 본다고 해도 이는 앞서 언급한 『맹자』 「이루하」에 나오는 대로 순을 동이 사람으로 파악한 맹자의 이해와 유사한 맥락일 가능성이 커 보인다.

삼박초간 제2권에 수록된 『용성씨(容成氏)』에서도 요와 순의 활동지가 언급되어 있다. 상고 제왕의 시대부터 상주 교체기까지 각 왕조의 흥망성쇠 역사를 다룬 『용성씨』에는 요순우의 행적과 그들이 베푼 선정이 핵심 내용으로 자리한다. 우선 요와 관련하여 “옛날 요는 단부(丹府)와 적릉(翟陵) 사이에서 거했다”며 두 지명이 등장한다. 이승울은 두 지명이 기존의 전래 문헌에 나타나지 않은 것으로 보았으나,<sup>68</sup> 리링은 『금본죽서기년(今本竹書紀年)』과 『주역(周易)』 「계사하전(繫辭下傳)」의 소(疏)에 인용된 『제왕세기(帝王世紀)』 및 『송서(宋書)』 「부서지(符瑞志)」 등에 요가 단릉(丹陵)에서 태어난 것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단릉을 단부와 적릉이 합쳐진 것으로 보았다. 그렇지만 리링 역시 두 지명을 요의 유년기 거처로 보면서도 위치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하지 않고 있다.<sup>69</sup> 위

의 전래 문헌에 나타나는 단릉의 위치 역시 미상으로 남아 있다.

『용성씨』에는 순과 관련된 지명도 나타나는데, “옛날 순이 역구(鬲丘)에서 경작을 했고, 하빈(河濱)에서 도기를 제작했으며, 뇌택(雷澤)에서 물고기를 잡아서 부모를 효로 봉양했다”고 서사되어 있다. 이 내용은 귀덴초간 『궁달이시(窮達以時)』뿐만 아니라 『여씨춘추(呂氏春秋)』 「신인(慎人)」, 『목자』 「상현중(尙賢中)」과 「상현하(尙賢下)」, 『관자(管子)』 「판법해(版法解)」, 『사기』 「오제본기」 등 전래 문헌에도 비슷하게 전해진다. 『궁달이시』에 “순경어역산(舜耕於鬲山)”이라고 명시되어 있기 때문에 리링은 『용성씨』의 ‘구(丘)’를 ‘산(山)’의 오류로 보고 ‘鬲山’을 위의 전래 문헌들에 나오는 ‘歷山’과 일치시켰다. 그 위치에 대해서 산동 지난 첸포산[千佛山]과 허쩌[河澤] 동북, 산시 우안취 동북, 산시 용지[永濟] 동남의 네 가지 설을 제시하고, 산시설이 타당하다고 보았다. 뇌택에 대해서도 산동 허쩌 동북과 산시 용지 남쪽 두 가지 설을 제시했다.<sup>70</sup> 「오제본기」에 나타나는 같은 지명들에 대한 『집해(集解)』나 『정의(正義)』 등의 주석을 통해서 이미 후한대 이래로 이 지명들에 대해 산동설과 산시설이 대체로 양분되어 있었음을 알 수 있다.<sup>71</sup>

『용성씨』의 제40간(簡)에는 상의 탕이 하의 걸왕을 멸했을 때 걸이 도피한 지역 혹은 부족명으로 역산씨(鬲歷山氏)가 나오고 탕이 이를 쫓아 걸을 굴복시킨 명조(鳴條)라는 지명도 언급되어 있다. 두 지명 모두 순과도 관련 있고, 산시성 서남부로 비정되기 때문에 리링이 위의 순 관련 지명들도 산시성으로 추정하는 토대가 되었다.

지금까지 살펴본 갑골문과 초간 문헌은 요순의 활동지를 산시성으로 보는 중국 학계 일각의 인식이 나름대로 근거가 있음을 보여 준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그러한 기록들이 단편적일 뿐만 아니라 산출 시점 역시 요순우가 실존한 시기로 추정되는 신석기 후기(기원전 2000년 이전)와 시간적 격차가 존재한다. 갑골문과 700~800년, 초간은 무려 1600년 정도의 시차를 감안해야 한다. 전국시대 출토 문헌의 저자들도 요순우의 선양전설과 함께 그들을 최고 성인으로 보았지만, 사라 앨런(Sarah Allan)이 지적한대로 왜 이렇게 되었는지 불명확하다.<sup>72</sup> 더욱이 이들과 관련된 일부 지명이 나오지만 그것들을 특정 지역과 연관시키기도 어렵다. 그런데 다음에 살펴볼 『춘추좌전』에 그 실마리가 나타난다.

#### 4. 『좌전』에 명시된 요의 흔적과 산시성

대체로 전국시대의 저작으로 인정되는 『좌전』에는 전설상의 여러 족속에 관한 나름대로 완결성을 구비한 이야기가 들어 있다. 대표적인 것이 필자가 ‘요(순우)=산시성’설의 핵심 원인 제공 자료로 보고 있는 『좌전』 소공(昭公) 원년(元年)에 나타나는 이야기로, 당(요)과 하, 진(당숙우)의 내력에 대한 언급이다. 이 이야기는 진 평공(平公)이 재위 17년(기원전 541년)에 병이 들어 정백(鄭伯)이 공손교(公孫僑, 子産)를 보내 병문안했을 때, 진의 숙향(叔向)과 자산이 나눈 대화이다.

(숙향) 이르기를 “우리 군주의 질병에 대해 복인(卜人)은 ‘실침(實沈)과 대태(臺駘)가 괴롭힌다’고 하는데 우리 사관은 그들이 누군지 알지 못합니다. 감히 묻건대 이들은 어떤 신입니까?”

자산이 대답하기를 “옛날 고신씨(高辛氏)에게 아들이 둘 있었습니다. 큰아들은 알백(閼伯)이고, 작은아들은 실침인데 광림(曠林)에 거했습니다. 그들은 사이가 나빠 매일 방패와 칼에 의지하여 서로 싸움을 일삼았습니다. 후제(后帝)가 이를 용납하지 않아 알백을 상구(商丘)로 이주시켜 진성(辰星)에 따라 다스리도록 했습니다. 상나라 사람[商人]들이 이를 따라서 진(辰)이 상성(商星)이 되었습니다. 실침은 대하(大夏)로 이주시켜 삼성(參星)에 따라 다스리도록 했습니다. 당나라 사람(唐人)들이 이를 따름으로써 하와 상에 복무했습니다. 그 마지막 세대의 후손을 당숙우로 불렀습니다. (주나라) 무왕(武王)의 부인 읍강(邑姜)이 대숙(大淑)이 될 아이를 가진 직후에 제(帝)가 다음과 같이 이르는 꿈을 꾸었습니다. ‘내가 명하노니 아들을 우(虞)라고 불러라. 장차 그에게 당(唐)을 주고 삼성(參星)에 속하게 하여 그 자손이 번성하게 할 것이다.’ 아들이 태어났을 때 그의 손에 우(虞)라는 글자가 있었습니다. 따라서 그렇게 이름을 짓도록 명했습니다. 성왕(成王)이 당을 멸했을 때 대숙을 거기 봉했고, 따라서 삼(參)이 진성(晉星)이 되었습니다. 이런 측면에서 볼 때 실침은 삼성(參星)의 신입니다.”<sup>73</sup>

자산의 언설은 계속 이어져 산시성 편하 유역의 다른 신인 대태의 내력으로 이어지고, (복인의 점복과 달리) 실침과 대태가 아닌 다른 요인들이 이 평공의 질병에 영향을 미쳤다는 설명으로 끝난다.

이 이야기는 진의 점복 결과에 나타난 실침이라는 신에 대한 자산의 설명을 통해 중국 상고사의 중요한 계보를 설명하고 있다. 고신씨의 두 아들이 사이가 나빠 전쟁을 일삼으므로 후제가 큰아들 알백은 상구로

보내 진성[전갈자리, 三星]을 주관하여 상나라 사람들을 다스리게 하고, 작은아들 실침은 대하로 보내 삼성[오리온자리, 七星]을 주관하게 했다. 알백과 실침이 각각 상과 하의 별자리를 주관하여 그 지역을 다스렸음을 암시하는데, 실침이 다스린 대하 지역에 있었을 듯한 당은 삼성을 따라 하와 상에 복무했고, 마지막 통치자가 당숙우라고 불렸다. 여기서 아주 흥미로운 이야기가 덧붙여진다. 주나라 무왕의 부인 읍강이 임신했을 때 제의 계시를 받는 꿈을 꾸는데, 태어날 아이에게 우라는 이름을 붙이고, 당에 분봉하라는 것이다. 실제로 그 아이는 손바닥에 우라는 글자를 가지고 태어나 당을 계승하여 번성하게 되리라 예견되었는데, 그가 바로 앞에 나온 상 말의 당숙우와는 다른 서주의 당숙우로 진의 시조이다.

이 이야기가 후대인들의 역사 인식 형성에 끼친 결정적인 영향력과 관련하여 짚고 넘어가야 할 부분은 바로 『좌전』에 대한 최초의 주석가인 두예(杜預, 222~284)의 해석이다. 그는 필시 한대 이래의 인식을 바탕으로 고신씨를 제곡(帝嚳)으로, 후제를 제곡의 아들로 알려진 요(堯)로 추단하면서, 대하를 당시의 진양(晉陽, 太原)으로 보아 당인들 역시 같은 대하 지역에 있었을 것으로 보았다.<sup>74</sup> 그렇지만 앞에서 언급했듯이 타이위안 지역은 춘추 후기쯤에야 중원 세력인 진이 장악하기 시작했고, 이 지역을 하와 연관시킨 사례도 없다. 서주 초 당숙우가 분봉된 당 역시 타이위안과는 무관한 지역이다. 후제는 『좌전』에 한 번 더 등장하는데, 문공(文公) 2년에 『시경(詩經)』 「노송(魯頌)」의 비궁(闕宮)을 인용한 “황황후제(皇皇后帝), 황조후직(皇祖后稷)”이라는 구절이 그것이다. 양보전은 이 후제를 천(天)으로 보고 있다.<sup>75</sup> 선진 문헌에 거의 유일하게

나타나는 후제의 다른 용례는 『논어』 「요왈(堯曰)」에 탕이 걸을 물리치고 서약한 대상인 “황황후제(皇皇后帝)”로, 이 역시 천제(天帝)로 이해된다.<sup>76</sup> 후제를 요로 단정할만한 다른 용례는 사실상 존재하지 않는다.

물론 『좌전』 양공(襄公) 9년에 알백이 도당씨(陶唐氏)의 별자리를 관장한 화정(火正)으로 언급되어 있어서,<sup>77</sup> 두예가 이를 언급하지는 않았지만, 위의 인용문에서 알백을 상구로 옮긴 주체인 후제와 도당씨를 동일시할 수 있을지도 모른다. 도당씨는 전설상 요의 족속으로 알려져 있으므로 두예의 주장은 나름대로 근거를 확보한 셈이다. 뒤에서 언급하겠지만 이러한 이해는 그보다 200년 정도 앞선 『한서』에 그 일단이 나타나기 시작한다.

그럼에도 위 구절의 역사성에 대한 의혹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 일반적으로 수용되는 요와 당 혹은 도당씨와의 연관성에 대한 의문이 해소되지 않기 때문이다. 구제강이 당과 요, 순과 우(虞), 우와 하의 연관성을 전국시대에 창작된 것으로 본 이래,<sup>78</sup> 통수예(童書業) 역시 『좌전』에 나타나는 도당씨가 하상시대에 존재한 나라[國]였지만, 요와는 무관하다고 보았다.<sup>79</sup> 최근 천용차오와 우루이도 통수예의 견해를 수용하여 요와 당이나 도당씨가 원래 별개의 존재였을 것으로 보는데, 특히 우루이는 한대 이래 『한서』 「율력지(律曆志)」에 인용된 유흠(劉歆)의 『세경(世經)』에서 그 둘의 합체가 완성되어 더욱 큰 위력을 발휘했을 것으로 추정한다.<sup>80</sup>

이에 대한 반론도 있다. 양관(楊寬)은 일단 요가 당에 봉해졌다는 전제로 왜 유당씨(有唐氏)가 아닌 도당씨으로 불리게 되었는지 의문을 제기한다. 그렇지만 도당을 고양(高陽)의 음이 전사된 것으로 보면서 고

양이 원래 상제의 의미였고, 요도 상제(혹은 虞帝)였으므로 요를 도당으로 칭한 것은 이해할 수 있다고 보았다.<sup>81</sup> 『용성씨』의 서술을 토대로 요를 하상주에 앞선 우(虞)의 통치자로 본 귀용빙(郭永秉)도 양관의 반론을 수용하여 당을 도당씨의 줄임말로 보고 있다. 귀덴초간 『당우지도』에서 당우와 요순이 교차 사용되는 것 역시 전국시대에 이미 당과 요의 관계가 확정된 증거로 제시한다.<sup>82</sup> 다만 당이 도당씨의 줄임말임을 입증할 방법이 없으므로, 전국시대에 당요가 일반적으로 함께 지칭되었다는 것만으로 요와 도당씨의 관련성을 확증하기에는 위험성이 따른다.

요와 당(도당씨)을 둘러싼 현대 학계의 논쟁처럼 『좌전』 역시 요와 도당씨의 연관성에 대해 부정과 긍정이라는 양면적인 해석의 여지를 남기고 있다. 우선 문공 18년에 나오는 계문자(季文子) 언설부터 살펴보자.

부친 기공(紀公)을 살해하고 노(魯)로 도주한 기(紀)의 태자 복(僕)을 수용한 선공(宣公)에 대해 계문자가 사관 극(克)을 통해 훈계한 내용에는 고양씨(高陽氏)의 유능한 8대 후손과 고신씨(高辛氏)의 유능한 8대 후손이 등장한다. 이 16족이 대대손손 선행을 베풀다가 요 시기에 이르러 선행이 멈추었고, 순이 요의 신하가 되어서야 16족의 원칙이 회복되었다는 이야기이다.<sup>83</sup> 요가 선행과 무관한 무능한 군주로 등장하는 것이 이례적인 한편, 위에 인용된 소공 원년의 기록에서 고신씨와 후제(요?)가 비슷한 세대로 나타나는 것과 달리, 요가 고신씨보다 최소한 8대 이후의 인물로 등장하여, 『좌전』이라는 하나의 문헌 속에 상당히 다른 맥락의 고사가 병존했음을 알 수 있다. 더욱이 『좌전』 시기에 요와 도당씨의 연관성이 확정되어 있었다면, 고양씨에서 고신씨로 이어지는 이 언설 속 계보의 성격상 요 대신 도당씨가 자리해야 자연스럽게

지 않을까? 후술하겠지만 『좌전』이라는 방대한 문헌이 전국시대 산출된 다양한 고사가 집대성된 것이라면, 원래 개별적으로 만들어져 『좌전』에 섞인 무관한 이야기들이 후대인들의 시각에 정합성을 지닌 이야기로 보였을 가능성을 고려해야만 한다. 물론 『좌전』에 모두 4회 등장하는 도당씨의 용례 중 양공(襄公) 24년의 언설에서는 요와 도당씨의 간접적인 연관성을 찾을 수 있다. 범선자(范宣子)가 진(晉)을 방문한 목숙(穆叔, 叔孫豹)에게 “불후(不朽)에 대해 질문하며 자신들의 조상이 “우(虞)시대 이전에는 도당씨였다”고 언급한다.<sup>84</sup> 우시대를 순과 연관시킬 수 있다면 이 구절은 우순 이전은 당요라는 인식과 일맥상통한다. 이러한 맥락에서 『세본』과 『사기』 「오제본기」 등 한대의 문헌들에서 ‘요=도당씨’의 등식이 최초로 확정되어 나타났을 것이다.<sup>85</sup>

한대의 인식처럼 요와 도당씨 관계의 역사성을 인정한다 하더라도, 위의 소공 원년 고사에는 다른 문제들도 존재한다. 그 이야기에 언급된 별자리 중 진(辰)은 전갈자리인 삼성을, 삼(參)은 오리온자리인 칠성을 의미하는 것으로 두 별은 동시에 나타날 수 없어 별자리를 통해 동서의 알백과 실침 혹은 상나라와 하나라의 대비까지 암시한다. 이 전설은 기원전 두 번째 천년기까지 소급될 수 있는 선사시대 천문학과 역법 지식의 전수 가능성을 암시하지만,<sup>86</sup> 이러한 지식이 신석기시대 후기까지 소급되는 당시 정치체들의 양상에 실제로 적용될 수 있을까? 당시 산시성에서 허난성 동남쪽 끝 지점까지 광범위한 지역을 아우르는 강력한 정치세력의 존재라는 대담한 전제 없이 이 이야기가 성립되기는 불가능하다.

다른 측면에서 『좌전』이나 『국어』에 별자리를 통한 점성술 사례들이

남겨져 있는 것을 보면, 이는 상당히 체계화된 춘추전국시대 엘리트들의 관념 세계에 천체(天體)의 상관성이 아주 중요하게 작용했음을 보여주는 증거일 가능성이 크다.<sup>87</sup> 하와 상, 두 왕조를 병존한 경쟁 세력으로 파악한 것도 당대의 현실보다는 춘추전국시대의 관점이 투영되었음을 암시한다. 더욱이 읍강이 곧 당숙우에 대한 제의 계시 꿈은 이러한 가능성을 더해 주며, 이 이야기의 작위성마저 의심케 한다. 춘추전국시대 꿈이 통치자들에 대한 수명(受命)이나 신비화의 논리적 근거로 자주 활용된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sup>88</sup>

최근 세상에 모습을 드러내고 있는 초간들도 전국시대에 다양한 유형의 고사전설이 생겨나 유포되었음을 보여 준다. 여기에 해당하는 것이 초간의 고사류(故事類) 문헌들인데, 2018년까지 알려진 것만 42종으로, 초간 역사류 문헌의 64%를 차지한다고 한다. 대체로 완결된 한편의 이야기를 이루는 이러한 고사류 문헌은 신빙성이 인정되는 기사(記事)보다는 대화체인 기언(記言) 분량이 훨씬 많다.<sup>89</sup> 내용 또한 교훈적 일화 중심의 도덕적 서술 경향이 뚜렷하여 이러한 유사역사설화(quasi-historical lore)를 모두 액면 그대로의 역사적 사실로 받아들이기는 어렵다.<sup>90</sup> 이미 리링이나 데이비드 스카버그(David Schaberg) 등이 주장했듯이, 『좌전』이나 『국어』 같은 문헌이 이러한 고사류 문헌을 주종으로 편집되었을 것이라는 견해가 점차 힘을 얻고 있다.<sup>91</sup> 따라서 필자는 진에서 요까지 소급되는 위의 이야기가 진의 시조로 알려진 당숙우를 전설상 군주들의 계보와 연결시키려는 전국시대판 산시성 고대사 만들기 일 가능성을 제기한다.

물론, 서주 초 진의 시조 당숙우가 당을 멸망시키고 거기에 분봉되

었다는 사실과 당(혹은 양)이 갑골문에 엄연히 등장한다는 사실은 위의 이야기 차체를 온전히 허구로 치부할 수는 없게 한다. 『좌전』이 편찬된 전국시대까지 전해지던 당이라는 상 후기 정치체에 대한 희미한 기억과 고대의 유력 통치자들에 대한 단편적인 계보를 뼈대로, 꿈이라는 당시 유행하던 서술 기법이 더해져 진을 중심으로 하는 산시성의 고대사가 상고시대까지 연장될 수 있었을 것이다. 이미 밀리가 위에 인용된 『좌전』의 이야기가 실제 사실과는 무관하게 당숙우를 위한 타이위안의 진사 건립에 결정적 근거로 활용되었음을 지적했듯이,<sup>92</sup> 이 기록을 액면 그대로 믿었던 한대 이후의 지식인들 역시 그 오인을 통해 산시성을 요순우의 본향으로 인식하기 시작한 것은 아닐까. 다음 장에서 살펴볼 『한서』 「지리지」에는 그 일단이 조금씩 구현되어 나타나기 시작한다.

## 5. 『한서』 「지리지」에 나타난 산시성의 요순우

『한서』는 한 고조(高祖) 원년(기원전 206년)에서 왕망(王莽) 지황(地皇) 4년(기원전 23년)까지 포괄하는 단대사로, 반고(32~92)가 기원후 80년 완성하였다. 반고는 사마천의 『사기』에는 없던 지리만을 다룬 「지리지」라는 항목을 최초로 고안하여 이후 역대 중국 정사에 들어가는 전형을 만들어냈다. 진의 통일 이후 전한시대를 거치며 제국의 행정 수단으로 지리 자료들이 체계적으로 수집되어, 이를 망라한 『한서』 「지리지」는 고대의 지리를 파악하는 데 귀중한 근거를 제공한다. 서주의 역사지리

를 천착한 리펑(Li Feng)은 『한서』 「지리지」에 명시된 서주 국가의 지리가 최근의 고고학 발견으로 대체로 정확함이 밝혀져 상당히 유용하다고 본다. 다만 일부 고대 유적들이 당시까지도 남아 있어 정확한 정보를 제공했음에도 불구하고, 부정확한 역사지리 지식이나 오도된 믿음으로 한대 이후에 그럴듯한 위치에 세워진 기념비적 건축물도 있었을 것으로 보았다. 후자의 경우 다음 시대에 고대의 국가 위치 확정을 도와주는 근거로 등재되었을 것이고, 이러한 사례들이 반복적으로 재현되어 끊임없는 오류가 생겨났으리라 추정했다.<sup>93</sup>

필자가 이 글에서 제기하고자 하는 내용과 유사한 맥락의 주장이다. 한대에 이르면 성왕, 현신 등의 출생지나 능묘 부근에 사묘(祠廟)가 존재했으리라 보기도 하지만,<sup>94</sup> 실상 『한서』 「지리지」에 언급된 산시성의 요순우 관련 사적은 별로 많지 않다. 전한시대에 오늘날 산시성 편하 유역은 하동군(河東郡)과 태원군(太原郡) 산하로 편입되었고, 하동군에 24개, 태원군에 21개, 총 45개의 현이 있었다. 『한서』 「지리지」에 따르면 편하 중하류의 산시성 서남부를 포괄하는 하동군에는 요순우와 관련된 사적이 거의 없다. 단지 포반현(蒲反縣)에 “요산(堯山)”과 “수산사(首山祠)”가 있다고 언급되어 있을 뿐이다.<sup>95</sup> 그 내력이 설명되어 있지 않지만, 오늘날 산시성 동남쪽 언저리의 용지현[永濟縣] 푸주[蒲州]에 해당하는 이 지역에 요산(堯山)이 있었고, 그곳을 요와 관련된 지역으로 추정하여 요산사(堯山祠)를 세웠을 수 있다. 646년 찬수된 『진서(晉書)』 「지리지」에는 포반(蒲反)에 역산(歷山)이 있어서 순이 경작한 지역으로도 나타나,<sup>96</sup> 포반은 요와 순의 도읍 전설을 다 갖게 되었다.

오늘날 산시성 서남부, 즉 한대의 하동군은 요순우의 본향으로 자리

잡은 지 오래이지만, 『한서』 「지리지」에서는 아직 이러한 인식이 뚜렷이 드러나지는 않는다. 앞에서 언급했듯이 후대에 우의 도움으로 확고히 자리 잡은 안읍현(安邑縣)에 대해서 반고 자신이 “위강(魏絳, ?~기원전 522년)이 위에서 이주한 곳으로 혜왕 대에 이르러 (기원전 361년) 대량으로 이주했다. 철관과 염관이 있다”고 주해할 뿐이다.<sup>97</sup> 요의 또 다른 도움으로 인식되어 오늘날까지 요묘가 자리한 평양현, 즉 린편(臨汾)에 대해서도 반고는 “한무자(韓武子, 韓萬)의 현손인 정자(貞子)가 여기서 거했다. 철관이 있다.”고 주해했다. 반고는 린편의 주요 역사를 춘추 초까지 소급시킨 반면, 그보다 약 550년 후의 안사고(581~645)는 같은 지역에 대해 응소를 인용하여 “요도이다. 평하(平河) 남쪽에 있었다.”<sup>98</sup>고 주해하여 그 지역을 요도로 인식케 한 토대를 제공하였다. 응소의 생물 연대를 정확히 할 수 없지만 후한 말까지 생존해 있어서 반고보다 120여 년 후의 인물로 추정된다.

『한서』 「지리지」에 나타나는 산시성의 또 다른 지역인 태원군 역시 요순우에 관한 한 하동군과 크게 다르지 않다. 단지 오늘날의 타이위안 지역인 진양현(晉陽縣)에 대해서만 “(『시경』) 「당풍(唐風)」의 고당국(故唐國)이다. 주 성왕이 당을 멸하고 아우 숙우를 (그곳에) 봉했다. 그 서북쪽에 용산(龍山)이 있다. 염관이 있다”고 주해했다.<sup>99</sup> 이를 통해 최소한 한 때까지 타이위안을 당숙우가 분봉된 당국으로 보는 인식이 존재했음을 알 수 있다. 반고는 여기서 고당국이 요의 나라라고 명시하지 않았지만, 「지리지」 후반부에 오늘날 산시성의 이른 시기 역사를 전체적으로 조망한 아래 구절에서 하동(河東)을 당요의 거주 지역으로 보며 다음과 같이 서술하였다.

170 중국 애국주의와 고대사 만들기

하동의 땅은 평이하고 염철이 풍부하다. 원래 당요가 거주한 지역으로 『시경』 「국풍」의 당국(唐國)과 위국(魏國) (땅)이다. 주 무왕의 아들 당숙이 출생 전 어머니 뱃속에 있을 때 제가 무왕에게 이르는 꿈을 꾀었다. “내가 이름을 지어 그 아들을 우(虞)라고 부르노니 장차 그에게 당을 주어 삼성(參星)에 속하게 하라.” (아들이) 태어나자 우라고 불렀다. 성왕이 당을 멸하자 숙우를 그곳에 봉했다. 당에는 진수(晉水)가 있어서 숙우의 아들 섭(變)에 이르러 진후(晉侯)라고 부르니 삼성이 진의 별자리가 되었다.<sup>100</sup>

위 인용문은 앞에서 살펴본 『좌전』 소공 원년에 나오는 자산의 언설을 토대로 한 것으로 보인다. 다만, 제의 계시를 받는 꿈을 꾸 주체가 무왕의 부인 읍강이 아닌 무왕으로 바뀌었고, 진이 2대 통치자인 섭 때 당 근처에 있던 진수로 인해 진으로 개칭했음을 추가하였다. 이 인용문은 비록 진으로 이어진 요의 나라 당의 위치를 특정하고 있지는 않지만, 위에서 언급한 대로 각 현의 연혁 설명에서 진양현을 고당국으로 주해하였다. 『좌전』 단계에서 아직 특정되지 않았던 당의 위치를 반고의 시대에 오늘날 타이위안으로 비정했던 것이다. 정현이 『모시보(毛詩譜)』에서 이를 언급했고,<sup>101</sup> 앞에서 언급한 두예 등이 이를 따름으로써 이는 점차 정설의 지위를 차지하게 된다. 앞에서 당숙우의 분봉지가 그 지역과 무관했음을 제시한 것처럼 이러한 인식은 확실히 문제가 있다. 뒤에서 언급하듯이 실제로 다른 주장이 제기되기도 했다. 『수경주』에도 언급된 타이위안 근처의 진수를 통해 진이라는 국명이 나왔다는 반고의 주장 역시 진이 그 지역에 분봉된 적이 없으므로, 후대에 부회되

있을 가능성이 크다.<sup>102</sup>

마지막으로 위 인용문이 앞의 『좌전』 소공 원년과 또 다른 차이는 하 나라에 관한 내용을 차용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이는 앞에서 언급한 안 읍현에 대한 반고의 주해와도 일맥상통한다. 『한서』 「지리지」에 반고 자신의 주(自註)로 언급된 하동군과 태원군 소속 현들의 내력이 대부분 춘추시대 이상으로 소급되지 않는다는 사실도<sup>103</sup> 한대까지 고대사의 인식체계가 그다지 확장되지 않았음을 보여 준다. 전·후한 두 왕조 모두 유씨(劉氏) 왕가가 요의 후손이라는 학설을 성행시키며 요순을 부각 시킨 점을 고려하면,<sup>104</sup> 『한서』 「지리지」에 요와 관련된 산시성의 두 지역으로 포반현과 진양현만 나타나는 점은 상당히 의미심장하다.<sup>105</sup> 더욱이 순과 우 관련해서는 어떤 실마리도 제시되지 않았다.

한대는 진시황의 분서 이후 기원전 191년 협서율(挾書律)의 폐지로 숨겨졌던 많은 문헌들이 불완전한 형태로 세간에 출현하여 이른바 금문과 고문 논쟁이 치열했다.<sup>106</sup> 많은 학자가 그 불완전한 문헌들을 정리하며 (나름대로는 정본에 가깝게) ‘다시 쓰기’ 노력을 기울이던 시기였다.<sup>107</sup> 이러한 상황에서 훈고의 학풍이 강해질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고문헌 혹은 고사 활용에도 엄정성이 중시되었을 것이다. 『한서』 「지리지」에 나타난 산시성의 요순우 관련 사적이 극히 제한적인 것 역시 이와 무관하지 않으리라 본다. 그렇지만 위진남북조와 수당시대는 뚜렷히 다른 양상으로 나타난다. 다음 장에서는 산시성에서 요순우가 새롭게 부각되는 과정을 살펴보기로 하자.

## 6. 『원화군현지』와 『태평환우기』에 나타난 산시성의 요순우

『한서』의 뒤를 이은 중국 정사의 지리지에서는 상당한 변화가 나타난다. 445년 편찬된 『후한서』 「군국지」에서는 하동군 평양현을 “요도(堯都)”라고 추가한다.<sup>108</sup> 이미 『한서』 「지리지」 안사고의 주에 인용된 응소의 주장에서 예견된 것이다. 「군국지」에는 태원군 진양현도 “원래 당국”이라 하여 『한서』의 뒤를 잇는다. 평양현이 요도로 추가되어서인지 진양현 당국에 대한 주에서 정현의 『모시보』를 인용하여 “요가 처음에 이곳을 도읍으로 삼았다가 뒤에 하동 평양으로 옮겼다”고 정리한다.<sup>109</sup> 한 가지 흥미로운 사실은 산동성 역시 요와 관련된 지역으로 부각되는 점이다. 『후한서』 「군국지」에는 제음군(濟陰郡) 도당현(古陶縣)을 “요가 거주한 곳(堯所居)”으로, 성양현(成陽縣)은 요의 무덤(堯冢)이 있었던 지역으로 보았다.<sup>110</sup> 『한서』 「지리지」에 언급된 내용을 더욱 확장한 것이다.

554년 찬수된 『위서』 「지형지」의 변화도 두드러진다. 앞에서 북위 효문제 태화 16년(492) 당요는 평양에서, 우순은 광녕에서, 하우는 안읍에서 제사를 공식화한 조서를 언급한 바 있다. 마찬가지로 「지형지」의 진주(晉州) 평양군 평양현에 요묘(堯廟)가 등장한다.<sup>111</sup> 더욱 흥미로운 사실은 오늘날 산시성 동남 지역인 상당군(上黨郡) 악양현(樂陽縣)과 향군(鄉郡) 향현(鄉縣) 및 동제현(銅鞮縣)에도 요묘 혹은 요사(堯祠) 세 곳이 더 생겨나는 점이다.<sup>112</sup> 그 분포 범위가 산시성 동쪽 중원 전역으로도 확대되었다.<sup>113</sup>

선비족 탁발부의 북위시대에 일어난 급격한 변화에 대해서는 여러

해석이 가능하겠지만, 이때 새롭게 늘어난 요묘의 상당수에 대해 후대 학자들은 근거가 부족하다고 여겼던 것 같다. 특히 현존하는 가장 오래된 전문 지리서인 이길보(758~814)의 『원화군현지』에 북위시대 산시성 동남부에 추가된 요묘(사)들은 모두 누락되어 있다. 당대 노주(潞州)에 속한 10개 현과 택주(澤州)에 속한 6개 현 중 택주의 양성현(陽城縣)에만 “현 서북쪽 12리의 호택(濩澤)이 『목자』에 언급된 순이 물고기를 잡았다는 호택이다”라고 나올 뿐이다.<sup>114</sup> 그럼에도 당대의 대표 지리서라 할 수 있는 『원화군현지』에는 후한대 이후부터 당시까지 학자들의 노력으로 추가되었을 산시성의 요순우 관련 사적들을 다음과 같이 망라하였다.

- ① 河東縣(漢代的 浦坂縣): 舜廟, 舜宅; 二妃壇; 古陶城; 故堯城<sup>115</sup>
- ② 翼城縣: 故唐城
- ③ 龍門縣: 大禹祠, 高祖神堯皇帝廟<sup>116</sup>
- ④ 臨汾縣: 堯廟<sup>117</sup>
- ⑤ 昌寧縣: 禹廟<sup>118</sup>
- ⑥ 夏縣: 安邑故城(夏禹所都)
- ⑦ 安邑縣: 夏舊都(湯과 桀의 결전지인 古鳴條陌)<sup>119</sup>
- ⑧ 晉陽縣: 故唐城, 唐叔虞祠, 唐叔虞墓<sup>120</sup>
- ⑨ 陽城縣: 舜漁于濩澤<sup>121</sup>

우선 한대의 포반현인 하동현(①)에는 『한서』 「지리지」와 마찬가지로 요산(堯山)이 있었던 것으로 명시하면서도, 요산사(堯山祠)가 아닌 고

요성(故堯城)이 있었던 것으로 언급한다. 나아가 앞에서 언급한 『진서』 「지리지」에서 예고된 대로 “순경역산(舜耕歷山)” 고사로 인해 이 지역에 순과 관련된 사적이 대거 편입된 것으로 보인다. 순묘(舜廟)와 순택(舜宅)뿐만 아니라 순의 두 부인을 기념하는 이비단(二妃壇)과 “순이 하빈에서 도기를 제작했다”는 고사에서 유래한 고도성(古陶城)까지 추가되었다. 위에서 언급한 대로 ⑨의 산시성 동남부 양성현에도 순과 관련된 지역이 새롭게 생겨났다.

요와 관련해서는 ⑧의 진양현에 한대와 마찬가지로 고당성이 있었던 것으로 나타나 이를 “요가 축조하고 당숙우의 아들 섭보(變父)가 천도한 곳”으로 명시한다. 이 지역에는 앞에서 언급한 진사와 연관된 당숙우사(唐叔虞祠)와 당숙우묘(唐叔虞墓)까지 있었던 것으로 전한다. 이와 함께 세 군데가 더 추가되었는데 ④의 임분현 요묘는 응소 이래 부각된 평양현의 요묘이다. 임분 남쪽의 익성현(②)에도 고당성이 있었던 것으로 새롭게 나오는데, 진양의 고당성과 구분하기 위해서인지 “요의 후예가 분봉된 곳”으로 설명한다. ③의 용문현에도 요황제묘(堯皇帝廟)가 있었다고 한다. 용문현에는 대우사(大禹祠)도 함께 있었던 것으로 나타나는데, 그 북쪽 황하 변의 창녕현(⑤)에도 우묘가 추가되었다.

우나 하나라 관련 사적 역시 두 군데 더 추가되었는데, 한대의 안읍현이었던 하현(⑥)을 안읍고성, 즉 “하우(夏禹)의 도성”으로, 오늘날 원청 인근의 안읍현(⑦)을 “탕과 걸의 결전지인 고명조맥(古鳴條陌)이 있던 하나라의 옛 도읍(舊都)”으로 보았다.

이처럼 『원화군현지』가 편찬된 당대에 이르면 오늘날 산시성에 요 관련 사적 4곳과 순 관련 사적 2곳, 우 관련 사적 4곳이 자리 잡게 된 것

으로 보인다. 이를 통해 편하 유역을 비롯한 산시성 서남부는 요순우의 전설이 체현된 지역으로 탈바꿈했을 것이다. 북위나 당 같은 북방에서 흥기한 왕조들이 산시성을 기반으로 발전함으로써 이러한 변화에 영향을 끼쳤을 것이다. 김상범에 따르면 북위 효문제 시기에 탁발씨의 전통 의식을 폐지하여 중원식으로 가다듬는 와중에 요순우와 주공 등의 사묘가 공식 제사장소로 확정되었고, 수대에 제사의 정례화가 이루어졌고, 당대에 국가예전으로 편입되어 당 후기에 이르면 제사 장소와 대상이 확산되는 경향이 뚜렷하다고 한다.<sup>122</sup> 따라서 전국 각지에 성현의 사묘가 보편화되었을 것으로 본다. 그럼에도 『원화군현지』에는 산동성 이외에 산시성만큼 요순우 관련 사적이 두드러진 지역은 없다.<sup>123</sup> 물론 산동성도 산시성에는 미치지 못한다.

그렇다면 송대에도 이러한 양상이 지속되었을까? 송 태종(太宗) 태평흥국(太平興國) 연간(976~983)에 약사가 편찬한 북송대 대표 지리서인 『태평환우기』에서 일단을 살펴볼 수 있다. 『태평환우기』 하동도(河東道) 1~11까지에 언급된 요순우 관련 사적은 다음과 같다.

- (A-8)<sup>124</sup> 平晉縣(漢 晉陽縣): 故唐城(堯所筑), 夏禹祠<sup>125</sup>
- (B-4) 臨汾縣: 堯廟; 堯妻舜二女之地<sup>126</sup>
- (C-9) 陽城縣: 舜漁于澗澤; 舜田<sup>127</sup>
- (D-1) 河東縣(漢 蒲阪縣): 堯山; 舜耕歷山處, 舜祠, 故陶城
- (E) 寶鼎縣(漢, 汾陰縣): 夏 少康의 邑
- (F-3) 龍門縣: 大禹祠<sup>128</sup>
- (G-7) 安邑縣: 堯以二女妻舜; (舜)虞, 夏의 兩都; 鳴條陌<sup>129</sup>

176 중국 애국주의와 고대사 만들기

(H) 正平縣(漢 臨汾縣): 旋台(夏桀所造)

(I-2) 翼城縣: 故唐城

(J) 絳縣(漢 聞喜縣): 禹廟, 禹臺; 璇臺, 琮室(夏桀造)<sup>130</sup>

(K-5) 鄉寧縣: 禹廟<sup>131</sup>

먼저, 요(A-8, B-4, D-1, I-2)나 순(C-9, D-1)과 관련된 지역은 『원화군현지』와 큰 차이가 없다. 다만 임분현이 요가 순에게 두 딸을 준 지역으로 나타나고, 양성현에도 순전(舜田)이 추가되었다. 안읍현 역시 임분현과 마찬가지로 요가 두 딸을 순의 처로 삼게 한 지역이지만, (순)우의 도움으로 인정되어 순 관련 사적이 확대되었음을 알 수 있다. 우의 사묘도 『원화군현지』와 마찬가지로 용문현(F-3)과 향(창)녕현(K-5)에 그대로 있었지만, 평진현(A-8)에 하우사가 추가되었다. 하와 관련된 지역도 안읍현 이외에 보정현(E)이 하 소강의 읍으로, 정평현(H)에 하의 걸왕이 축조했다는 선대, 강현에도 우묘와 우대와 함께 역시 하의 걸왕이 축조했다는 선대와 경실이 추가되었다. 대체로 『원화군현지』의 틀을 유지하지만 순과 하우 관련 사적이 늘어났음을 알 수 있다.

『태평환우기』에서 한 가지 흥미로운 사실은 요순우의 사적이 존재하지 않지만, 요순 고사와 관련된 지역들이 생겨난 점이다. 우선 산시성 중북부의 정락현(靜樂縣, 한대의 汾陽縣)<sup>132</sup>과 수용현(秀容縣, 한대 陽曲縣)<sup>133</sup>에 걸쳐 있는 계주산(繫舟山)을 요의 홍수[堯遭洪水]에서 유래된 지명인 계주로 보았다. 동남쪽인 상당현에 있는 경운산(慶雲山)에 대해서는 『상당기(上黨記)』라는 유실된 문헌을 인용하여 “요가 장차 홍성할 때 오색 구름이 이 산에서 나와 경운산이라 불렀다”<sup>134</sup>라고 하여 요와 관

련된 그 지역의 고사까지 수용한 듯하다. 마지막으로 동남 산악지대에 위치한 동제현에 대해서는 “동제산의 원래 이름이 요산이었다”<sup>135</sup>고 하여, 요와 관련된 새로운 후보지를 추가하였다. 이는 앞에서 언급한 『위서』 「지형지」의 동제현에 요사가 있었다고 하는 것과 관련이 있을 것이다. 어쨌든 요순 고사의 확산에 따라 새로운 이야기가 동반된 역사 만들기 양상이 시사적이다.

이처럼 당대뿐만 아니라 송대를 거치면서도 이전 시대와 마찬가지로 산시성에서 요순우 관련 지역들이 꾸준히 확산되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확산은 약 700여 년 이후 청대 들어서며 산시성 전역으로 확대된다.

## 7. 『산서통지』의 요순우

명청시대에 6종이 출간된 성급(省級) 방지인 『산서통지』에서는 이유정(李維楨, 1547~1626)이 명대 만력(萬曆) 연간 찬수[송정(崇禎) 2, 1629 판각]한 판본(이하 『(萬曆)山西通志』)과 저대문(儲大文, 1665~1743)이 옹정(雍正) 연간 찬수[序 1734]한 판본(이하 『(雍正)山西通志』)을 살펴볼 것이다. 100여 년의 시차가 있는 두 저작을 검토하려는 이유는 요순우 사적과 관련하여 두 자료 사이에 엄청난 변화가 나타나기 때문이다. 우선 『(만력)산서통지』의 경우 이 연구의 주제와 관련된 권10의 「사사(祠祀)」와 권14의 「고적(古蹟)」 항목을 검토하여 명대 말까지 산시성에 존재한 요순우 관련 사적을 행정구역별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 ㉠ 太原縣: 唐叔虞祠<sup>136</sup>; 叔虞墓<sup>137</sup>
- ㉡ 祁縣: 二帝行祠
- ㉢ 河曲縣: 禹王廟<sup>138</sup>
- ㉣ 平陽府城: 帝堯廟<sup>139</sup>; 陶唐氏陵<sup>140</sup>
- ㉤ 安邑縣: 四聖廟<sup>141</sup>; 虞舜陵<sup>142</sup>
- ㉥ 蒲州: 禹王廟<sup>143</sup>; 帝舜廟,<sup>144</sup> 虞都古城, 舜井, 雷澤, 陶邑鄉<sup>145</sup>
- ㉦ 翼城縣: 唐城<sup>146</sup>
- ㉧ 沁水縣: 舜田, 可陶谿(舜作陶)<sup>147</sup>

『(만력)산서통지』에 명시된 산시성의 요순우 관련 사적은 앞에서 살펴본 『원화군현지』나 『태평환우기』를 크게 벗어나지 않는다. 태원현의 당숙우사(㉠)나 평양부성의 제요묘(㉣), 안읍현의 우릉순(㉢), 포주의 우왕묘(앞의 용문현 우묘)와 순 관련 사적들(㉥), 익성현의 (고)당성(㉤) 등이 당대 이래로 이미 존재하고 있었다. 산시성 동남부 탁주(澤州) 심수현의 순 관련 사적들(㉧) 역시 심수현이 앞의 양성현과 인접한 지역이라는 점에서 서로 연관성이 있어 보인다. 다만 원래 요묘가 있던 평양부성에 요의 무덤으로 추정되는 도당씨릉(㉣)이, 순과 하우 관련 사적들이 있던 안읍현에도 요순우탕(堯舜禹湯)을 섬기는 사성묘(㉢)가 새롭게 생겨난 것으로 보인다. 이전의 지리서들과 다른 특징은 태원부의 기현(㉤)에 요와 순을 제사지내는 이제행사가, 하곡현(㉢)의 황하 동쪽 연안에 우왕묘가 새롭게 추가되어, 요순우 사묘의 분포 범위가 타이위안과 산시성 서남부 위주에서 북쪽으로 확대되는 경향이 나타난 점이다.

그러나 한 세기가 지난 후 편찬된 『(용정)산서통지』에 나타나는 요순

우의 사적은 격세지감이라는 표현이 딱 맞을 정도로 거의 산시성 전역을 뒤덮는다. 『(웅정)산서통지』의 「고적(古迹)」(권57~60)과 「사묘(祠廟)」(권164~167), 「능묘(陵墓)」(권172~174) 등의 항목에 관련 정보들이 수록되어 있다. 필자의 조사에 따르면 요순우와 당숙우의 사묘가 있었던 지역만 해도 아래와 같이 대폭 늘어난다.

- ① 太原府: \*太原縣(唐叔虞祠), \*祁縣(二帝行祠) \*徐溝縣(堯廟 다수), \*文水縣(唐堯廟), \*太谷縣(叔虞祠)
- ② 平陽府: \*臨汾縣(堯廟), \*洪洞縣(堯廟), \*浮山縣(帝堯廟, 禹湯廟), \*太平縣(帝堯廟, 帝舜廟, 禹王廟), \*岳陽縣(帝舜廟), \*翼城縣(唐叔虞廟 2곳), \*靈石縣(禹王廟 3곳), \*霍州(帝堯祠)<sup>148</sup>
- ③ 潞安府: \*長治縣(大禹廟), \*長子縣(帝堯廟), \*屯留縣(禹王廟), \*襄垣縣(堯祠), \*潞城縣(禹王廟), \*壺關縣(大禹廟), \*平順縣(大禹廟 3곳, 夏王廟)
- ④ 汾州府: \*平遙縣(帝堯廟, 堯母慶都靈臺廟, 帝堯陶唐氏廟), \*孝義縣(大禹廟)
- ⑤ 大同府: \*廣靈縣(禹王廟)
- ⑥ 朔平府: \*平魯縣(禹王廟)<sup>149</sup>
- ⑦ 澤州府: \*高平縣(舜廟), \*沁水縣(舜廟)
- ⑧ 蒲州府: \*永濟縣(帝舜廟, 舜廟, 禹王廟), \*臨晉縣(禹王廟), \*猗氏縣(虞帝廟, 禹王廟), \*萬泉縣(禹王廟)
- ⑨ 遼州: \*榆社縣(堯神廟)
- ⑩ 沁州: \*武鄉縣(堯廟)<sup>150</sup>

- ⑪ 代州: \*代州(舜廟), \*繁峙縣(堯廟)
- ⑫ 保德州: \*河曲縣(禹王廟)
- ⑬ 解州: \*解州(舜廟), \*安邑縣(堯舜禹三聖廟, 帝舜廟) \*夏縣(舜帝廟, 禹廟) \*平陸縣(神禹廟), \*芮城縣(大禹廟)
- ⑭ 絳州: \*絳州(禹王廟), \*聞喜縣(舜廟, 禹王廟, 禹廟), \*河津縣(大禹廟), \*稷山縣(禹王廟) \*垣曲縣(堯廟, 舜廟, 禹王廟)
- ⑮ 吉州: \*吉州(大禹廟), \*鄉寧縣(禹王廟)<sup>151</sup>

당시 산시성 행정구역은 9부(府)와 10주(州) 산하에 96개 주현(州縣)이 편제되어 있었는데, 요순우와 당숙우 관련 사묘가 있던 지역은 8부, 7주에 속하는 47개 주현에 달한다. 대부분의 행정구역에 요순우 관련 사묘가 퍼져 있었음을 알 수 있다. 더욱이 1개 주현에 사묘가 여러 개 있었던 경우를 고려하면 웅정시대에 산시성에 존재한 요순우와 당숙우 관련 사묘의 전체 수는 약 70곳에 달한다.

이전부터 요순우 사적의 중심지라 할 수 있는 산시성 서남부의 평양부(②)와 포주부(⑧), 해주(⑬), 강주(⑭) 등 여러 주현[홍동현, 부산현, 태평현, 악양현, 영석현, 광주(이상 평양부), 임진현, 의씨현, 만천현(이상 포주부), 평륙현, 예성현(이상 해주), 직산현, 원곡현(이상 강주) 등에 요순우의 사묘가 새롭게 나타난다. 또 다른 중심지였던 산시성 중부의 타이위안 인근 지역[서구현, 문수현(이상 태원부 1), 평요현, 효의현(이상 분주부 4), 유사현(요주 9)] 역시 예외가 아니다. 길주(⑮)에도 이전의 향녕현 우왕묘와 함께 대우묘가 추가되었다. 서남부 편하 일대 대부분과 황하 연안의 일부 지역에 요순우의 사적이 확고히 이식되었음이 분명해 보인다.

『(용정)산서통지』에서 뚜렷하게 나타나는 특징은 이전에 거의 불모지대였던 곳까지 요순우의 사묘가 확대되는 양상이다. 특히 요순우 관련 사적이 드물었던 동남부에 해당하는 노안부(③)의 약진이 뚜렷하다. 전체 8개 현 중 여성현(黎城縣)을 제외한 7개 현(장치현, 장자현, 둔류현, 양원현, 노성현, 호관현, 평순현)에 요순우 관련 사묘가 나타난다. 같은 동남부인 택주부(⑦)의 고평현과 심수현, 심주(⑩) 무향현에도 각각 순묘와 요묘가 추가되었다. 산시성 동남부 역시 서남부나 타이위안 인근과 마찬가지로 요순우 사묘의 또 다른 중심지로 자리 잡게 된 것이다.

산시성 북부도 더 이상 불모지대가 아니었다. 『(만력)산서통지』에 명대까지 타이위안보다 북쪽에 위치한 것으로 나타나는 요순우 관련 사묘는 황하 변의 하곡현에 있던 우왕묘(㉔)가 유일했다. 그러나 청대에 이르면 오늘날 다통시[大同市] 바로 남쪽인 대동부의 광령현(㉕)에 우왕묘, 대주(㉖)에 요묘 및 번치현의 순묘가 생겨났다. 다통 서남쪽 삭평부(⑥)의 평로현에도 우왕묘가 세워짐으로써 수당대 이전까지 대체로 이적의 지역으로 여겨지던 산시성 북부까지 요순우의 흔적이 미친 화하(華夏)의 지역으로 자리하게 되었다.

청대 산시성에서 요순우 사적의 확대는 사묘에서만 그치지 않는다. 이전부터 존재했던 요순우의 능묘들과 함께 제요묘가 추가된 평양부의 부산현(②)에 고요릉(古堯陵)이 있었다고 한다.<sup>152</sup> 해주의 하현(⑬)에도 하후씨릉(夏后氏陵)이 추가되었다.<sup>153</sup> 이러한 청대 요순우 사적의 확산은 이미 『태평환우기』에서 지역의 고사를 수용한 것에서 알 수 있듯이, 무형의 새로운 이야기 창출이라는 다른 형태의 역사 만들기를 동반한 점이 흥미롭다.

앞에서 살펴본 대로 『좌전』 등으로부터 고대 이래 전해 내려오는 요순우 관련 이야기가 대체로 타이위안 및 그 서남부 지역과 연관되어 있었다면, 이러한 새로운 이야기는 『태평환우기』에서처럼 동남이나 북부 지역으로 확산되는 것과 관련 있어 보인다. 동남부의 노안부 관할인 장자현에는 제요묘가 새롭게 생겨난 것과 함께 그 지역의 단주성(丹朱城)을 당십도도(唐十道圖)에 나오는 요의 장자 단주(丹朱)가 축조한 성으로 보았다.<sup>154</sup> 더불어 우왕묘가 세워진 북쪽 대동부 광령현 인근 혼원주(渾源州)의 대무산(大茂山)은 순이 순수한 지역으로 나타난다.<sup>155</sup> 또한 산시성 남쪽 황하 변에 위치한 강주의 원곡현(⑭)에도 요순우의 사묘가 추가된 것과 함께 그곳에 있던 강도대(講道臺)를 제요(帝堯)의 강도처로 전해진다고 한다.<sup>156</sup>

『(용정)산서통지』와 관련하여 마지막으로 지적하고 싶은 점은 당숙우(唐叔虞)의 사적이다. 산시성 전역에 요순우 관련 사적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난 것과는 대조적으로 당숙우(唐叔虞) 관련 사적은 앞에서 살펴본 저작들에서와 마찬가지로 태원현과 익성현 이외에 태곡현(①) 한 곳만 추가되었다. 이는 성왕의 반열에 자리 잡은 요순우와 서주 초 봉건제후에 불과한 당숙우의 위상 차이에서 기인할 수 있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전설로 전해지는 유사역사상의 실체일 수밖에 없는 요순우와 달리 시기적으로 더 가깝고 근거가 비교적 명확히 남아 있는 당숙우에 대해서는 새로운 이야기 창출이 그만큼 어려웠음을 방증한다.

『(용정)산서통지』에 홍동현의 순묘(②)의 경우 “송 천성(天聖) 7년 향인(鄉人) 이량보(李良輔)가 건립했다”고 명시하듯이, 시건 연대가 송원대까지 올라가는 것들도 꽤 있다.<sup>157</sup> 따라서 이렇게 대폭 늘어난 사묘들

이 모두 청대에 만들어진 것은 아니지만, 어쨌든 『(용정)산서통지』에 나타난 산시성에서 요순우 사적의 급격한 확산은 당시까지 이 지역을 요순우의 본향으로 확증케 하는 토대가 되었을 것이다.

이러한 전방위적 확산에는 당시 국가의 제사 정책이나 산시성의 특수한 상황 등 다양한 요인이 작용했을 것이다. 명청대 사묘 확산의 추이를 거시적으로 검토한 로메인 테일러(Romeyn Taylor)와 옹정시대 지방사전(祀典) 확산을 다룬 이윤석의 연구에서 요순우의 사묘는 주요 분석 대상으로 포함시키지 않고 있다.<sup>158</sup> 전국적인 분포가 뚜렷한 사직단(社稷壇)과 선농단(先農壇), 문묘(文廟), 성황묘(城隍廟), 관제묘(關帝廟) 등 보편적인 숭배의 대상과 달리, 요순우 사묘는 처음부터 지역 연고가 있다고 여겨지는 곳에 건립되다 보니 그 분포 범위가 제한적일 수밖에 없었을 것이다.

그렇지만 진한대 이래로 존재한 흔적이 뚜렷한 요순우의 사묘는 어떤 사묘 못지않게 오랜 역사를 지니고 있다. 진시황을 비롯한 역대 제왕들이 그들의 사적이 남아 있던 곳을 방문하여 제사를 올렸고, 수당대에는 경사(京師)에 요순우를 비롯한 역대제왕묘(歷代帝王廟)를 건립하고 정기적으로 제사 지내기 시작했다. 송대에는 요순우의 능묘(陵廟)를 보호하고 수리하면서 3년에 한 번씩 제사드리는 규정을 정했고, 명청시대를 거치며 더욱 완비된 능침(陵廟)제도를 수립했다. 당대 이래로 대체로 경사에 있던 역대 제왕묘와 지역의 사묘들에서 정기적으로 제사를 올렸는데, 왕조마다 정통으로 간주한 지역의 사묘가 일정하지는 않았다.<sup>159</sup>

비록 전국의 부주에 보편적으로 존재하지는 않았지만, 국가에서 공

인한 제왕의 계보에 포함된 요순우의 사묘 확산은 당시 국가 정책과 무관치 않아 보인다. 우선 강희(康熙)와 옹정 연간을 거치며 생산력 회복과 발전을 위한 조처들과 함께, 옹정 2~6년(1724~1728)에 산서성 행정구역을 명대 만력 연간 이래의 5부 3주에서 9부 10주로 세분화했다.<sup>160</sup> 행정구역이 정비되면서 그 지역의 상징이 될 만한 장소들이 필요하던 차에, 이미 산서성 중부나 서남부 위주로 퍼져 있었던 성왕 요순우의 사묘가 적절한 대상이 되었을 수 있다. 실제로 이때 부주로 승격된 삭평부와 태주부, 포주부, 대주, 해주, 강주, 길주 등에서 새로운 사묘들이 추가되어 나타난다.

또한 청 황실은 입관 초부터 명을 이어서 역대 제왕과 명신(名臣)의 제사에 각별히 신경을 썼다. 소수민족 정권으로서 중화의 통서(統緒)를 계승하여 그 문명과의 융합을 꾀했을 것이다.<sup>161</sup> 이와 관련하여 만주족 청(淸)에 반한 화이(華夷) 구분 논쟁을 접한 옹정제가 “순(舜)이 동이(東夷) 사람이고, 문왕(文王)이 서이(西夷) 사람”이라는 『맹자』 「이루하(離婁下)」 구절을 언급하며 화하(華夏)의 대표 격인 이들도 원래 이(夷) 지역 출신이었다고 자신들과 동일시한 점이 시사적이다.<sup>162</sup> 옹정 시기는 특히 국가제사제도에 가장 큰 변화가 일어난 시기이기도 했는데, 문묘(文廟) 사전(祀典)과 함께 건묘(建廟)를 통한 지방사전(地方祀典)이 크게 확대되었다.<sup>163</sup> 이에 따라 국가 차원의 지원 아래 전국에 다양한 사묘 건립이 유행했고, 특히 문헌 기록을 통해 요순우와의 관련성이 각인된 산서성은 그들에 대한 기억을 양산하기에 유리한 조건이었을 것이다.

중앙과 지방 정부의 영향력과 함께 지역 신사들의 역할도 무시할 수 없을 것이다. 지방 사전의 확산을 사회적 위계 형성과 유지 측면에서

파악하는 테일러는 대중적 민간신앙이 강하게 유행하는 상황에 직면해서, 19세기까지도 문묘나 존송받는 성인, 지역 출신 관리 등 학교(學校) 항목에 속하는 사묘들이 여전히 확산하고 있었음에 주목한다.<sup>164</sup> 자신들을 하위 계층과 구분하고자 했던 유교 지식인들에게 명 세종(世宗) 이래 청대까지 성사(聖師)로서 제사 대상이 된 성인 요순우<sup>165</sup>는 존송의 대상이었을 것이다. 홍동현의 요묘를 원대(元代) 향인 양도보(楊道甫)가, 순묘도 송대 향인 이량보가 건립했다고 명시하듯<sup>166</sup> 옹정시대까지 산서성에서 새롭게 나타나는 요순우 관련 사묘 건립에 신사층이 기여했을 가능성이 크다. 따라서 국가나 지방 정부, 지역 신사층의 지원 아래 전국에 다양한 사묘 건립이 유행했을 것이고, 특히 『(옹정)산서통지』에서 명확히 드러나듯 고대 이래 문헌 기록을 통해 요순우와 관련성이 오인된 산시성은 그들의 성지(聖地)로 자리 잡았을 것이다. 다음 <표 1>은 지금까지 검토한 한대 이래 청대까지 산시성에서 요순우 관련 사적이 확산되는 양상을 정리한 것이다.

<표 1> 한대부터 청대까지 산시성 요순우 사적의 추이

	한서 지리지	원화군현지	태평환우기	만력산서통지	옹정산서통지(사묘만)
중 부	晉陽(太原): 故唐國	故唐城, 唐叔虞祠, 唐叔虞墓	故唐城, 夏禹祠	唐叔虞祠, 叔虞墓	唐叔虞祠
				祁縣(晉中): 二帝(堯舜)行祠	二帝行祠
					徐溝: 堯廟 多士
					文水: 唐堯廟
					太谷: 叔虞祠
					平遙: 帝堯廟, 堯母慶都靈臺廟, 帝堯陶唐氏廟

				孝義: 大禹廟
				榆社: 堯神廟
	臨汾: 堯廟,	堯廟, 堯妻舜二女之地	帝堯廟, 陶唐氏陵	堯廟
蒲反(永濟): 堯山	舜廟, 舜宅; 二妃壇; 古陶城; 故堯城	堯山, 舜耕歷山處, 舜祠, 故陶城	禹王廟, 帝舜廟, 虞都古城, 舜井, 雷澤, 陶邑鄉	帝舜廟, 舜廟, 禹王廟
	安邑(運城): 夏舊都	堯以二女妻舜, 虞(舜)夏 兩都	四聖(堯舜禹湯)廟, 虞舜陵	堯舜禹三聖廟, 帝舜廟
	夏縣: 安邑故城(夏禹所都)			舜帝廟, 禹廟
	翼城: 故唐城	故唐城	唐城	唐叔虞廟 2곳
	龍門(河津): 大禹祠, 高祖神堯皇帝廟	大禹祠		大禹廟
		絳縣(聞喜): 禹廟, 禹臺		舜廟, 禹廟, 二帝廟
서남부	昌寧(鄉寧): 禹廟	禹廟		禹王廟
				洪洞: 堯廟
				浮山: 帝堯廟, 禹湯廟
				太平(襄汾): 帝堯廟, 帝舜廟, 禹王廟
				岳陽(安澤): 帝舜廟
				靈石: 禹王廟 3곳
				霍州: 帝堯祠
				臨晉: 禹王廟
				猗氏: 虞帝廟, 禹王廟
				萬泉: 禹王廟
				解州(運城): 舜廟
				平陸: 神禹廟
				芮城: 大禹廟
				絳州(新絳): 禹王廟
				稷山: 禹王廟

				垣曲: 堯廟, 舜廟, 舜王坪, 禹王廟
				吉州(吉縣): 大禹廟
동남부	陽城縣(晉城): 舜漁于澗澤	舜漁于澗澤, 舜田	舜田, 可陶谿(舜作陶)	舜廟
				高平: 舜廟
				長治: 大禹廟
				長子: 帝堯廟
				屯留: 禹王廟
				襄垣: 堯祠
				潞城: 禹王廟
				壺關: 大禹廟
				平順: 大禹廟 3곳, 夏王廟
				武鄉: 堯廟
북부			河曲: 禹王廟	禹王廟
				廣靈: 禹王廟
				平魯: 禹王廟
				代州(代縣): 舜廟
				繁峙: 堯廟

## 8. 중국 전통시대 역사 만들기의 한 궤적

중국처럼 고대 이래의 문헌 기록이 많이 남아 있는 지역은 거의 없다. 더욱이 20세기 이래 추가되고 있는 갑골문과 금문, 초간 등의 출토 문헌 역시 그 전례를 찾기 어렵다. 이러한 풍부한 자료는 한편으로 고대사 서술을 다양하고 풍요롭게 해 주면서도 다른 한편으로 고대 이래 전승된 문헌 기록들의 전설적 속성으로 초래될 수 있는 과도한 역사 만

들기를 유발하기도 한다. 이러한 위험성을 본격적으로 인식한 이들은 청대 고증학의 세례를 받은 이른바 의고파 혹은 고사변파였다. 20세기 전반 구제강을 비롯한 의고파의 눈에 비친 요순우는 신화·전설상의 존재에 불과할 뿐이었다. 그러나 20세기 후반 중국의 방대한 고고학 성과는 지나친 의고 사조에 대한 반발과 함께 신고 경향을 대세로 자리 매김하며 요순우의 역사성을 부각시키고 있다.

이 연구는 요순우의 역사성 그 자체뿐만 아니라 그 존재를 역사적 실체로 자리매김하는 역사 만들기의 과정까지 검토한 것이다. 요순우의 분향으로 알려진 산시성에서 이들이 뿌리내리는 계기와 과정은 ‘전설의 역사화’라는 역사 만들기의 흥미로운 한 궤적을 제시한다.

기원전 13세기~기원전 11세기 상 후기의 갑골문에는 전통시대 중국 학자들이 요의 나라로 굳건히 믿었던 당 혹은 양이 산시성 서남부의 정치체로 나타난다. 전국시대 이전의 자료에서 당(양)과 요의 관계를 입증할 방법은 없지만, 갑골문보다 700~800년 이후의 초간 문헌에는 요순의 선양 고사와 함께 당요의 존재가 부각되어 나타난다. 갑골문과 초간의 당을 동일시 할 수 있을 지 여부와 상관없이, 초간 문헌에서 이 당요와 산시성의 연관성을 찾기는 어렵다. 그 연관성을 전하는 최초의 자료는 초간과 마찬가지로 전국시대에 편찬된 것으로 알려진 『좌전』이다. ‘소공 원년’의 한 고사에서 춘추시대 산시성 서남부 진의 지역은 당요까지 소급될 여지뿐만 아니라 하나라와의 연관성까지 지니는 지역으로 거듭난다. 이 이야기가 어느 정도 신빙성을 지닐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겠지만, 기연 위주의 초간 고사와 마찬가지로 『좌전』의 주종을 이루는 기연 고사 역시 유사역사적 작위성을 부인하기는 어

려울 것이다. 본문에서는 그 문제를 비교적 상세히 다루었다.

필자는 근래에 늘어나고 있는 초간의 고사류 문헌들을 통해 전국시대 다양한 역사 만들기의 양상을 감지한다. 물론 청화간 『계년』이나 『초거(楚居)』, 『양신(良臣)』 같은 기사 중심의 초간 문헌들이나 『좌전』에도 수록된 도덕적·교훈적 요소가 결여된, 상세하고 일면 지루하기까지 한 기사들은 상당한 신빙성을 지닐 가능성이 크다.<sup>167</sup> 그러나 전국시대 유행하여 역사류 문헌의 주종을 이루는 기언 위주의 일화들은 대체로 그 이전까지 전승된 상고시대의 정치체나 통치자들에 대한 희미한 기억을 뼈대로 새로운 이야기들이 새롭게 덧붙여진 것으로 보는 게 자연스럽다. 이러한 교훈적 유사역사 일화들은 전국시대 이래로 반복적으로 변용되며 활용되었는데, 역시 교훈적 측면을 중시하다 보니 역사적 사실성 여부는 고려의 대상이 아니었다.<sup>168</sup> 한대 이래 경전이 중시되고 정사 서술이 자리 잡게 됨에 따라 이러한 일화의 중요성이 감소되기는 했지만,<sup>169</sup> 고대 이래 전래된 일화의 상당수는 이미 정확한 역사 지식의 토대로 수용되어버렸을 것이다.

어쨌든, 『좌전』 소공 원년의 이야기가 후대의 역사가들에게 산시성과 요순우를 연관시키는 계기를 제공했지만, 그마저도 제대로 전승되지 않았을 뿐 아니라 전적으로 수용되지도 않았던 것 같다. 전한시대 지리를 다룬 『한서』 「지리지」는 『좌전』에 언급된 진의 시조 당숙우와 당요의 오도된 연관성을 받아들이면서도, 그것이 체현된 장에 대해서는 당숙우의 실제 분봉지와는 전혀 무관한 타이위안 지역으로 명시하였다. 더욱이 요와 관련하여 산시성의 두 지역만 주목했을 뿐, 『좌전』에 나타난 하와의 관련성을 차용하지 않은 것과 마찬가지로 산시성과

순우(舜禹)의 관계 역시 전혀 부각되지 않고 있다. 당시 45개 현의 역사 역시 대체로 춘추시대 이전으로 소급되지 않는다.

후한시대 이후 산시성의 다른 지역과 요순우의 관련성이 새롭게 주목되기 시작했고, 위진남북조시대와 수당시대를 거치며 산시성 서남부와 타이위안 일대의 요순우 관련 사적이 부각되며 사묘나 능묘까지 조성되었다. 당대 편찬된 『원화군현지』와 북송대의 『태평환우기』에 확산 양상이 잘 반영되어 있다. 이미 산시성의 10곳 정도가 요순우의 사적지로 확정되었으며, 관련성이 추가된 지역에는 새롭게 창출된 관련 이야기가 동반하며 이를 뒷받침했다.

명 말 『(만력)산서통지』에도 확산세가 지속되지만 청대의 『(옹정)산서통지』에는 산시성 전역에 요순우의 사묘가 존재했던 것으로 나타난다. 그동안 거의 불모지대였던 산시성 동남부와 북부까지도 요순우의 사묘가 이식되었다. 이러한 확산에 요순우의 능묘와 새롭게 창출된 관련 고사가 함께 했음은 물론이다. 약 70곳에 달할 것으로 추정되는 옹정시대 산시성의 요순우 사묘는 그 지역을 요순우의 본향으로 확정지었을 것이다.

이 연구에서 다룬 산시성에서의 요순우 사적 창출과 확산은 고대 어느 시점에서 새롭게 창작되었을 정합성이 결여된 이야기가 후대의 역사가들에게 역사적 사실로 수용되어 확대·재생산되는 과정을 보여 준다. 전통시대 중국의 역사가들은 나름의 근거를 가지고 요순우 관련 역사를 서술했겠지만, 이 연구에서는 그 근거가 오인에서 초래된 것임을 역설했다. 역사적으로 소급이 가능한 산시성의 첫 번째 군주일 가능성이 큰 진의 시조 당숙우에 관한 이야기가 요순우의 그것과 달리 산시성

에서 확대·재생산되지 못한 점도 이를 뒷받침한다.

『좌전』에서 비롯되어 『(웅정)산서통지』까지 확대된 산시성에서의 요순우 역사 만들기는 “누층적으로 조성된 고대사”라는 구제강의 학설이 고대사 연구의 보편적 지침임을 입증한다. 신고의 강화로 중국에서 입지가 흔들리고 있는 구제강이 아직도 강조하는 듯한 “사료의 입체적 검토”는 고대사를 업으로 삼는 이들 모두가 새겨야 할 경고임이 분명하다.



제7장  
중국 첫 번째 왕조  
하나라의 창건자, 우임금

이유표 · 동북아역사재단 연구위원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 1. 얼리터우와 하문화

중국은 2020년 7월 허난성[河南省] 뤼양[洛陽] 옌스[偃師] 얼리터우[二里頭] 유적을 세계유산으로 등재하기 위해 정식으로 프로젝트를 시작한다고 발표했다.<sup>1</sup> 그리고 나서 중국 국가문화국(國家文物局)은 ‘고고중국(考古中國): 하문화 연구(夏文化研究)’(2020~2024) 프로젝트를 지원 사업으로 선정하고, 얼리터우 유적을 포함한 소위 ‘하나라 문화’ 관련 고고 유적에 대한 전면적인 연구를 추진한다고 밝혔다.<sup>2</sup> 관련 연구자로서 얼리터우 유적을 세계유산에 등재하려는 중국의 움직임에 두 손을 들고 환영한다. 그러나 아직 하나의 실재 여부조차 확실히 밝혀지지 않은 상황에서 얼리터우 유적을 하문화, 곧 얼리터우 유적이 ‘하나라의 흔적[夏墟]’이라는 것을 전제로 연구하는 것은 학술적으로 본말이 전도된 것이라 할 수 있다.

유가적 전통이 지배하던 동아시아에서, 소위 우임금과 하의 존재는 거의 의심의 여지가 없었다. 그러나 18세기 청대(清代)의 최술(崔述, 1740~1816)<sup>3</sup>과 일본의 도미나가 나카모토[富永仲基, 1715~1746]는 이러한 인식에 도전장을 내밀었다.

최술은 춘추전국시대에 편찬된 것으로 알려진 전적에 보이는 복희(伏羲), 신농(神農), 황제(黃帝), 요(堯), 순(舜), 우 등과 관련된 기록이 후대에 추술된 것이거나 제자백가(諸子百家)에 의해 거짓으로 편찬된 것으로 여겼다. 또 수인(燧人), 반고(盤古) 등과 관련된 기록은 한(漢) 이후에야 나타난다는 것을 지적하였다. 그의 학문은 일본에서 먼저 반향을 일으켰는데, 나카 미치요[那珂通世, 1851~1908]<sup>4</sup>가 일본에 소개한 이후 시

라도리 구라키치[白鳥庫吉, 1865~1942]에 이르러 ‘요순우 말살론(堯舜禹 抹殺論)’으로 나타났다.<sup>5</sup> 이러한 일본 학계의 인식은 당시 일본에서 유향하던 류스페이[劉師培, 1884~1919]를 통해 중국으로 전해져 첸첸통[錢玄同, 1887~1939], 후스[胡適, 1891~1961] 등을 거쳐 구제강[顧頡剛, 1893~1980]의 ‘누층적으로 조성된 중국고대사[層累造成的中國古史]’론으로 발전하였다.<sup>6</sup> 다시 말해, 주대(周代)에 우가 있었고, 공자시대에 요와 순이 있게 되었으며, 전국시대에 이르러서야 황제와 신농이 나타나는 등 소위 ‘중국 고대사’에서 시대가 이른 인물일수록 오히려 그 출현 시기는 늦다는 것을 지적한 것이다.

한편, 도미나가 나카모토의 학문은 그의 저작이 일부 소실되는 바람에 전해지지 않다가, 나이토 토라지로[內藤虎次郎, 內藤湖南, 1866~1934]가 「노인의 글[翁の文]」을 발견하면서 세상에 나오게 되었다. 그는 중국 고대 학파의 탄생 순서와 전설 속 역사의 발생순서는 상반되는데, 늦게 나타난 학파일수록 그가 가탁한 전설 속 역사 인물은 더욱 이르다는 도미나가의 설을 발전시켜, 이른바 중국사에 나타난 ‘가상원칙’을 내세웠다.<sup>7</sup> 이는 앞서 제시한 ‘요순우 말살론’ 및 ‘누층적으로 조성된 중국 고대사’론과 일맥상통한다.<sup>8</sup>

이러한 의고적 인식을 종합해 보면, 요·순·우 모두 전설 속의 인물로, 우의 전승은 서주 시기에, 요·순의 전승은 춘추시기에 나타난다는 것이다. 현재 요·순과 관련된 전승을 역사적 맥락에서 이해하는 경우는 드물다. 하지만 우는 다르다. 우는 중국의 이른바 중화 제1왕조(中華第一王朝)로 일컬어지는 하왕조의 창건자로 알려져 있다. 따라서 전설이 아닌 역사적 맥락에서 이해되고 있다. 예컨대 리첸친[李學勤]은 하

나라 우임금[夏禹] 이후에 중국 고대 역사는 새로운 단계에 진입했다고 여겼다. 특히 우는 오제시대에 속하지 않고 삼대의 시작에 속하기 때문에 하우는 역사를 연구하는데, 특히 선진(先秦) 시기의 역사를 연구하는 사람들에게 아주 중요한 경계선이라 인식됐다.

그렇다면 우는 역사적으로 실존했던 인물일까? 아니면 전설 속의 인물일까? 아직 쉽게 결론 내릴 수 있는 상황은 아니다. 따라서 본문에서는 금문과 문헌으로 전하는 우 관련 전승을 살펴보고, 그다음 하 관련 전승을 살펴보고자 한다.

## 2. 우·하전승의 형성 과정

『사기』 「하본기(夏本紀)」는 우로부터 시작한다. 「하본기」에 실린 우 관련 기록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우는 곤(鯀)의 아들이자, 제 전옥(帝顓頊)의 손자이고, 황제의 현손이다. 곤은 요임금 시기에 치수를 담당했으나 치수에 실패한 후 주살되었고, 우는 순임금 시기에 치수를 완수하고 구주(九州)를 획정하여 순으로부터 선양(禪讓)을 받았다. 한편 도산씨(塗山氏)의 딸과 결혼하여 계(啓)를 낳은 우는 훗날 익(益)에게 선양하였지만, 백성들이 익을 따르지 않고 계를 따르자 계가 우를 계승하여 왕위에 올랐다.<sup>10</sup>

이렇게 요-순-우로 이어지던 왕위 선양의 전통이 세습으로 바뀌게

되었고, 하 왕조가 성립되었다. 그러나 사마천의 『사기』 「하본기」는 전승된 자료를 근거로 편집한 것이기 때문에 사실(事實) 그대로를 반영하고 있지 않다. 따라서 그 전승 과정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 1) 우의 전승 과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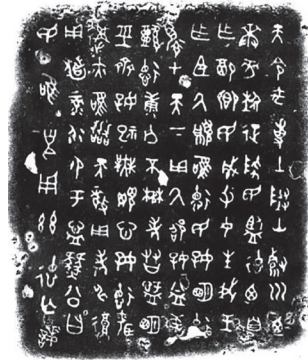
현재 국제적으로 공인되는 중국의 가장 오래된 문자 자료는 상나라 후기 갑골에 기록된 복사(卜辭), 곧 갑골문이지만 상대 갑골문에는 우가 보이지 않는다. 물론 전설 속의 황제, 염제, 요, 순 등의 이름도 보이지 않는다. 우가 문헌에 처음으로 등장한 것은 『시경』과 『상서』다. 먼저 『시경』에 보이는 우를 보도록 하겠다.

〈표 1〉 『시경』에 보이는 우

편명	내용	저작 시기
「소아·신남산」	길게 뻗은 저 남산(南山)은, 우임금의 땅이네 <sup>11</sup>	서주
「대아·문왕유성」	풍수(豐水)가 동쪽으로 흐름은, 우임금의 공적이네 <sup>12</sup>	
「대아·한혁」	높고 높은 양산(梁山)은, 우임금의 땅이네 <sup>13</sup>	
「노송·비궁」	이에 온 세상을 다스려, 우임금의 공적을 계승했네 <sup>14</sup>	춘추
「상송·장발」	홍수가 계속되자, 우임금이 세상을 다스리고 <sup>15</sup>	
「상송·은무」	하늘이 여러 제후(諸侯)에게 명을 내려, 우임금이 공을 세운 땅에 도읍을 세우게 하였네 <sup>16</sup>	

이 중 「소아」와 「대아」의 세 편은 서주 시기에,<sup>17</sup> 「노송」과 「상송」에 속하는 세 편은 춘추시기의 저작으로 알려져 있다.<sup>18</sup> 특히 서주 초기의 저작으로 알려진 「문왕유성」에서 풍수의 흐름을 언급한 것으로 보아,

198 중국 애국주의와 고대사 만들기



〈그림 1〉 빈공수 기물(좌)과 탁본(우)

서주 초기에 이미 우의 치수 전설이 전승되었음을 추측해 볼 수 있다. 이는 서주 금문 빈공수(邠公盨) 명문<sup>19</sup>의 “하늘이 우에게 명하여 땅을 다스리게 하시고, 산을 따라 내를 준설하게 하셨네”라는 구절을 통해서도 알 수 있다.<sup>20</sup>

이어서 『상서』에는 「순전(舜典)」과 「고요모(皋陶謨)」, 「우공(禹貢)」, 「홍범(洪範)」, 「입정(立政)」편 등에 우가 보인다.

「순전」에는 순이 즉위한 후 자신을 도울 인재로 우를 소개받고, “우! 그대는 물과 흙을 다스림에 오직 힘을 다해 주시오”<sup>21</sup>라며 그에게 치수를 맡기는 내용이 들어 있다.

「고요모」에는 고요(皋陶)와 우의 문답이 기록되어 있는데, 위공전(僞孔傳)은 순임금 앞에서 나눈 대화라고 한다.<sup>22</sup> 하지만 전술한 대로 요와 순은 전설성이 강하기 때문에 「고요모」 또한 후대에 저술된 것으로 보이며, 학자들은 대체로 전국시대 이후에 편찬된 것으로 보고 있다.

「우공」에서는 “우가 땅을 다스려, 산을 따라 나무를 베고, 높은 산과



〈그림 2〉 엘리터우 하도 박물관에 있는 하우상(©이유포)

큰 강을 안정시킨<sup>23</sup> 고사를 기록하면서, 우가 구산(九山)·구천(九川)을 따라 치수하고, 구주(九州)를 획정(劃定)한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다.

「홍범」에서는 기자(箕子)의 말을 빌려 “내가 듣건대, 옛적에 곤이 홍수를 잘못 막아 그 오행의 배열을 어지럽혔습니다. 상제께서 이에 진노하여 홍범구주(洪範九疇)를 내려주지 않으셔서, 이륜(彝倫, 사람으로서 지켜야 할 떳떳한 도리)이 무너지게 되었습니다. 곤이 죽임을 당하고, 우가 이

를 계승하여 일어나니, 하늘은 우에게 홍범구주를 내리셔서 이룬이 안  
정되게 되었습니다.”<sup>24</sup>라고 서술하고 있다.

「입정」에서는 주공(周公)이 성왕(成王)에게 “당신의 군사를 신중히 하  
여, 우임금의 발자취에 이르고”<sup>25</sup>라고 조언하는 내용이 들어 있다.

이상 「우공」, 「홍범」, 「입정」에는 모두 우의 치수 전승 혹은 이를 짐  
작할 수 있는 내용이 담겨 있다. 흥미로운 것은 「홍범」에서 곧과 우의  
계승 관계가 나타난다는 점이다. 「우공」은 『상서』의 「우하서(虞夏書)」  
에, 「홍범」과 「입정」은 「주서(周書)」에 들어가 있다. 그렇다면 이 세 편  
장은 모두 동시대의 기록일까?

먼저 「입정」의 경우, 대체로 동시대의 기록으로 보고 있다.<sup>26</sup> 그러나  
「우공」의 경우, 기록이 너무 상세하고 구주, 구산, 구천, 그리고 편말 등  
에 기록된 오복(五服) 제도 등이 모두 일정한 숫자를 기준으로 정리되  
어 있다. 「홍범」도 홍범구주에 속하는 오행, 오사(五事), 팔정(八政), 오기  
(五紀), 황극(皇極), 삼덕(三德), 계의(稽疑), 서징(庶徵), 오복육극(五福六極)  
등 특정 숫자에 맞춰 정리되어 있다. 이는 전국시대 음양오행설 등의  
영향을 받은 저작의 특징이다. 따라서 서술된 사적과 동시대적 입장에  
서 기록된 것이 아닌, 기존 우의 치수 전설에 음양오행설 등 전국시대  
제자백가(諸子百家)의 영향이 더해져 편찬된 것으로 생각된다. 이러한  
관점에서 봤을 때, 「우공」의 구주 획정과 「홍범」의 우가 곤을 계승했다  
는 내용 또한 동시대적인 인식이 아니라 오랜 시간을 거쳐 후대에 형성  
된 것으로 볼 수 있다.

우가 곤을 계승했다는 인식은 『춘추좌씨전』과 『국어』에도 보인다.  
그 용례 몇 가지를 살펴보도록 하겠다.

순이 죄인을 처벌하면서 곤을 추방하였고, 인재를 천거할 때는 우를 기용하였다.<sup>27</sup>

—『춘추좌씨전』 희공(僖公) 33년

유우씨(有虞氏) 때 송백(崇伯) 곤이 있었는데, 그 음란한 마음을 마구 행하여 공공(共工)의 과오를 그대로 따르자, 요가 우산(羽山)에서 그를 죽였다. 그 후에 백우(伯禹)가 과거의 잘못된 것을 유념했다.<sup>28</sup>

—『국어』 「주어하(周語下)」

제사는 나라의 큰일인데, 이를 거스르면 예(禮)라고 일컬을 수 있겠는가?… 그러므로 우는 곤에 앞서지 않고, 탕(湯)은 설(契)에 앞서지 않으며, 문왕과 무왕은 부출(不肖)에 앞서지 않는다.<sup>29</sup>

—『춘추좌씨전』 문공(文公) 2년

하후씨(夏后氏)는 황제에게 체(禘) 제사를 지내고, 전욱에게 조(祖) 제사를 지내며, 곤에게 교(郊) 제사를, 우에게 종(宗) 제사를 지낸다.<sup>30</sup>

—『국어』 「노어상(魯語上)」

이 기록은 모두 곤과 우 사이의 계승 관계를 나타내고 있다. 희공 33년 기록은 곤 이후에 우가 등용되었다는 직무적 계승 관계만 보여 주나, 문공 2년과 「노어상」의 기록은 곤과 우 사이의 혈연적 관계까지 보여 주고 있다. 특히 「노어상」의 경우 곤과 우를 하후씨의 제사 대상으로 인식하고 있다. 따라서 최소한 『춘추좌씨전』과 『국어』 「노어」가 편찬

될 당시 이미 곧과 우의 혈연관계, 그리고 우를 하나라와 연관 짓는 인식이 이미 자리 잡았다고 볼 수 있다. 전통적으로 『춘추좌씨전』과 『국어』는 좌구명(左丘明)이 편찬했다고 전해지고 있으나, 학자들의 연구에 따르면 그 상한 연대는 결코 전국시대를 넘지 않는다<sup>31</sup>고 한다. 심지어 서한 시기 위작이라는 주장도 존재한다.<sup>32</sup> 따라서 『춘추좌씨전』과 『국어』에 보이는 곧과 우, 우와 하의 관계는 결코 그 기록에서 보여 주는 동시대적 인식이 아닌, 후대에 가미된 인식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곧과 우의 관계에 대해 참고할 만한 또 다른 기록은 『대대례기』에 수록된 「제계(帝繫)」와 『산해경』이다.

황제가 창의(昌意)를 낳고, 창의를 고양(高陽)을 낳았는데, 이가 제 전옥이다. 전옥이 곧을 낳고, 곧은 문명(文命)을 낳았는데, 이가 우다. 황제는 현원(軒轅)의 언덕에 거하여 서릉씨(西陵氏)의 여식을 아내로 맞이하였으니, 이가 누조씨(嫫祖氏)로 청양(靑陽)과 창의를 낳았다. 창위는 약수(若水)에 내려와 거하였다. 창위는 촉산씨(蜀山氏)에서 아내를 맞이하였는데, 촉산씨의 여식은 창복씨(昌濮氏)로, 전옥을 낳았다. 곧은 유신씨(有莘氏)의 여식을 아내로 맞이하니, 이가 유지씨(女志氏)로 문명을 낳았다. 우는 도산씨의 여식을 아내로 맞이하니, 이가 여교씨(女橋氏)로 계를 낳았다.<sup>33</sup>

— 『대대례기』 「제계」

황제가 낙명(駱明)을 낳고, 낙명이 백마(白馬)를 낳았는데, 백마가 곧이다. 우와 곧이 처음으로 땅을 다스려 구주를 고르게 획정하였

다... 홍수가 하늘에까지 넘쳐흐르니, 곤이 상제의 식양(息壤)을 훔쳐 홍수를 막았는데, 상제의 명을 기다리지 않았다. 상제는 축융(祝融)에게 명하여 우산의 교외에서 곤을 죽이게 하였다. 곤의 배에서 우가 생겨났다. 상제가 이에 우에게 명하여 땅을 다스려 구주를 확정하게 하였다.<sup>34</sup>

—『산해경』 「해내경(海內經)」

「제계」는 황제에서 우로 이어지는 계보는 물론, 그 여성 조상의 이름까지 구체적으로 서술하였는데, 약수, 촉산씨의 딸, 도산씨 등의 이름을 통해서 이들의 활동 구역까지 살펴볼 수 있다. 「해내경」에서는 황제에서 우로 이어지는 계보는 물론, 우의 치수 및 구주 확정 관련 내용이 간략하게 들어가 있다.

앞서 살펴본 「노어상」에서는 황제-전욱-곤-우로 이어지는 계보가 설정되어 있으나, 다만 시간적 순서에 따른 기록일 뿐 직접적인 부자(父子) 관계, 조손(祖孫) 관계 등이 설정되어 있지 않다. 이에 반해 「제계」에서는 황제-전욱-곤-우로 이어지는 직접적인 부자 관계가 언급되어 있다. 「해내경」에서 우의 먼 조상으로 황제를 설정한 것은 「제계」와 같지만, 낙명이 황제의 아들로 설정되어 있다. 앞서 예로 든 「주어하」에서 곤을 추방한 것은 요지만, 「해내경」에서는 상제가 죽인 것으로 기록되었다는 것이 차이점이다. 심지어 「해내경」 내에서도 상하 모순이 발견되는데, 앞에서는 곤과 우가 함께 구주 확정을 시작했다고 하면서도, 뒤에서는 곤이 죽은 후 우가 태어나자 상제가 우에게 명하여 구주를 확정했다고 한 점이다.

이처럼 우와 관련된 구비 전승이 문헌에 따라 혹은 같은 문헌 속에

서도 다르게 기록되었다는 것은 어느 시점 혹은 장소 그리고 화자에 따라 전승된 내용이 변형되었다는 것을 말한다. 이는 당시 우리가 모르는 어떤 현실적인 목적에 의해 우와 관련된 전승이 재편되었을 가능성이 있음을 말한다. 따라서 지역과 시간, 화자에 따른 변형은 어쩌면 자연스러운 것이라 할 수 있다. 우 전승의 변형 양상은 우의 구주 확정 전설을 통해서도 볼 수 있다.

『춘추좌씨전』 양공(襄公) 4년조에서 인용한 「우인지잠(虞人之箴)」에서는 “망망한 우의 자취여, 천하를 구주로 나누고, 그 아홉 길을 개척하셨네”<sup>35</sup>라고 하였다. 여기에 기록된 우의 구주 확정 전승은 춘추 금문 속이종(叔夷鐘)<sup>36</sup>을 통해 증명할 수 있다. 속이종 명문에 다음과 같은 내용이 보인다.

…이(夷)는 그 선조 및 그 고조께 제사를 지내오니,赫赫(赫赫)하신 성탕(成湯)이시여! 상제의 처소에 계시며, 천명을 널리 받으시어, 하후를 정벌하시고… 구주를 얻으시어 우의 땅에 거하셨도다.<sup>37</sup>

이 명문은 상나라를 개창한 성탕이 하후를 정벌하여 멸망시키고 구주를 얻어 우의 땅에 거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춘추시기에 우가 구주를 확정했다는 고사가 이미 전승되고 있었다는 것을 보여 준다. 그러나 구주 확정 고사는 획일적인 전승이 아닌 시기별 혹은 지역적, 화자에 따라 다르게 전승되고 있다. 대표적인 것이 『용성씨(容成氏)』에 보이는 구주 확정 고사다.

순이 정사를 맡은 지 3년, 산과 구릉이 무너져 물길을 막으니, 물이 불어 계속 흐르지 않아 이에 우를 사공(司工)으로 삼았다. 우가 명을 받은 후 풀과 죽피로 만든 옷을 입고 물풀로 만든 삿갓을 썼다. 손발에 굳은살이 박이고, 얼굴에 마른 주름이 잡혔으며, 정강이에 털이 자라지 않을 정도였다. 그는 급류의 물길을 터서 나누었다. 우는 친히 삼태기와 보습을 잡고서 명도(明都)의 못에 제방을 쌓고, 구하(九河)의 막힘을 뚫으니, 이에 협주(夾州)와 서주(徐州)가 비로소 거주할 만해졌다. 우는 회수(淮水)와 기수(沂水)를 통하게 하여 동쪽으로 바다에 흘러 들어가게 하니, 이에 경주(競州)와 거주(莒州)가 비로소 거주할 만해졌다. 우가 이에 누수(蘧水)와 역수(易水)를 통하게 하여 동쪽 바다로 흘러 들어가게 하니, 이에 병주(并州, 혹은 과주(瓜州))가 비로소 거주할 만해졌다. 우가 이에 삼강(三江)과 오호(五湖)를 통하게 하여 동쪽 바다로 흘러 들어가게 하니, 이에 형주(荊州)와 양주(揚州)가 비로소 거주할 만해졌다. 우가 이에 이수(伊水)와 낙수(洛水), 전수(灋水)와 간수(澗水)를 통하게 하여 동쪽으로 하수(河水)에 흘러 들어가게 하니, 이에 서주(叙州)가 비로소 거주할 만해졌다. 우가 이에 경수(涇水)와 위수(渭水)를 통하게 하여 북쪽으로 하수에 흘러 들어가게 하니, 이에 저주(沮州)가 비로소 거주할 만해졌다.<sup>38</sup>

『용성씨』는 소위 상하이박물관(上海博物館) 소장 죽간 혹은 줄여서 상박간(上博簡)이라 한다. 『용성씨』은 1990년대 상하이박물관에서 대량 구매한 전국시대 죽간의 일부로, 고고학적 발굴을 통해 나온 것이 아니라 도굴을 통해 세상에 나왔기 때문에 진위논란에서 벗어날 수 없다.

그러나 『용성씨』에 기록된 신화체계가 현재 전해지는 삼황오제로 대표되는 중국의 신화체계와 달라 상박간이 위작이라기보다는 오히려 전국시대 다양한 사상적 측면을 보여 준다는 점에서 큰 의의가 있다.

『용성씨』에 기록된 우의 치수 고사는 비교적 자세한 편이지만, 『상서』 「우공」과 비교했을 때 소략한 측면이 있다. 그러나 『용성씨』의 내용이 기존의 구주 확정 고사와 차이가 난다는 점은 오히려 흥미를 더해 준다.

구주를 기록한 순서를 보면, 「우공」에서는 기주(冀州)→연주(兗州)→청주(靑州)→서주(徐州)→양주(楊州)→형주(荊州)→예주(豫州)→양주(梁州)→옹주(雍州)이다. 『용성씨』에서는 협주(연주)→서주→경주→거주→병주(혹은 과주)→형주→양주→서주(叙州, 예주)→저주(옹주)의 순서로 되어 있다. 주의 명칭 또한 차이가 보이는데, 이는 『주례』 「직방씨(職方氏)」,<sup>39</sup> 『여씨춘추』 「유시람(有始覽)」,<sup>40</sup> 『이아(爾雅)」 「석지(釋地)」<sup>41</sup> 등에 보이는 구주 명칭과 비교해 볼 수 있다.

〈표 2〉 각 문헌에 보이는 구주의 명칭

문헌 / 지역	하북(河北)			산둥(山東)			강회(江淮)		호북(湖北)	하남(河南)	관중(關中)	
『상서』 「우공」	기(冀)			연(兗)	청(靑)		서(徐)	양(揚)	형(荊)	예(豫)	양(梁)	옹(雍)
『주례』 「직방씨」	기	유(幽)	병(井)	연	청			양	형	예		옹
『여씨춘추』 「유시람」	기	유		연	청		서	양	형	예		옹
『이아』 「석지」	기	유		연	영(營)		서	양	형	예		옹
『용성씨』			병	협(夾)	경(鏡)	거(莒)	서	양	형	서(叙)		저(沮)

〈표 2〉를 통해 각 문헌이 저술된 시점 혹은 지역에 따른 ‘구주’ 인식이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다. 학자들의 연구에 따르면, 『용성씨』에 보

이는 협주는 연주,<sup>42</sup> 경주는 청주,<sup>43</sup> 저주는 옹주<sup>44</sup>에 상응한다고 한다. 각 기록에 나타난 구주의 명칭은 다르지만, 대략적 지역은 지금의 허베이, 산둥, 장후아이(江淮), 후베이, 허난, 관중(關中) 등으로, 대체로 춘추 시기 열국의 분포에 상응한다. 천하를 구주로 확정하는 것은 일종의 영역 국가적 인식으로, 이러한 인식은 춘추 후기에 나타나 전국시기에 구체화 된다. 따라서 우가 구주를 확정했다는 전승은 춘추 후기에 등장하여 전국시기에 본격적으로 나타난 것으로 파악할 수 있다.

그러나 구주 확정 고사는 각 지역 혹은 열국에서 일원적인 형태로 전승된 것은 아니었다. 시기, 지역, 혹은 화자에 따라 각기 다르게 전승되었다. 예컨대 「직방씨」는 하북 지역에 기·유·병의 세 주를 설정했지만, 『용성씨』는 병주만 설정했다. 반면 『용성씨』가 산둥 지역에 협(연)·경(청)·거 세 주를 설정했지만, 기타 문헌은 연·청[혹은 영주(營州)] 두 주만 설정하였다. 또 「우공」은 관중 지역에 옹주 외에 양주(梁州)도 설정했지만, 다른 문헌에는 보이지 않는다. 이처럼 우의 구주 확정 고사가 문헌별로 다르게 나타나는 것은 앞서 언급한 우의 가계 전승이 다양하게 나타나는 것과 마찬가지로, 우와 관련된 고사 또한 구비전승이 시대적, 지역적, 혹은 화자 등의 특징과 결합해 다양하게 변형된 것으로 볼 수 있다.

## 2) 우와 하의 만남

앞에서 살펴본 우 전승의 형성 과정은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서주 시기에 편찬된 자료를 통해, 주족(周族)은 이미 우라는 인물 혹은 신앙의 대상에 대한 전승을 갖고 있었다. 그는 홍수에 대응하여 천하를

안정시킨 치수(治水)의 영웅으로 짐작해 볼 수 있다. 그러나 빈공수 명문 외에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서주 시기의 출토 자료는 아직 보이지 않는다.

춘추시기에는 속이종 명문을 통해 우가 구주를 확정했다는 인식이 있었으나 구주 명칭이 무엇인지는 분명치 않다. 그러나 춘추시기 제후국이 대체로 황하 중하류와 창강 중하류 지역인 것으로 보아, 구주 또한 여기서 크게 벗어나지 않았을 것으로 추정된다. 이는 전국시기에 나오는 구주가 바로 관중·허베이·허난·산둥·후베이·장후아이 지역이라는 것을 통해서도 알 수 있다.

그러나 문헌에 따라 구주의 명칭은 차이가 있다.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이러한 현상이 발생한 원인은 구주 전승이 각지로 전파되면서 변형이 이루어졌기 때문이다.

전국시기에 이르면 우의 가계가 점점 구체화되기 시작한다. 먼저, 곧과 우는 직무상 선후 관계에서 부자 관계로 변화했는데, 심지어 우가 곧이 죽은 후 태어났다는 전설도 나타난다. 우의 가계는 여기서 더 확장되어 황제까지 거슬러 올라가는 계보가 등장한다. 「제계」에서는 황제-전욱-곧-우, 「해내경」에서는 황제-낙명-백마(곧)-우로 설정되었다. 이 또한 문헌 기록의 시기, 지역 그리고 화자에 따른 변형이 반영된 것이다.

구제강은 우가 구정(九鼎)에 새겨진 동물에서 비롯된 것이라는 의견을 제시한 적이 있다.<sup>45</sup> 이 의견이 학계에 큰 반향을 일으키자, 구제강은 이 설은 의고에 대한 자신의 견해를 이야기하는 과정에 나온 하나의 추측에 불과한 것으로, 자신의 견해를 비판하는 사람도, 긍정하는 사람도 모두 우와 구정에 새겨진 동물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고 한탄하였다.

그러면서 자신은 일찌감치 이 설을 폐기했다고 밝혔다.<sup>46</sup>

여기서 우리가 주의해야 할 점은 구제강이 우를 구정에 새겨진 동물로 인식하였다는 것이다. 구정은 천하를 상징하는 것으로 전설 속의 우 임금이 만들었다고 전해진다. 구제강이 우의 인격은 부정했지만, 구정의 존재를 인정한 것은 그가 하나라의 존재를 부정한 것은 아님을 알 수 있다. 이는 일견 모순으로 보이지만 일찌감치 하와 우의 관계를 분리해 인식했다는 점에서 시사점을 준다.<sup>47</sup>

그렇다면 구제강은 왜 하의 존재를 부정하지 못했을까? 이는 서주 초기 이미 하와 관련된 전승이 존재했기 때문이다.<sup>48</sup> 여기서 『시경』의 하 관련 기록을 살펴보도록 하자.

〈표 3〉 『시경』에서 하(夏)의 쓰임새

출처	내용	시기
「대아·탕」	은(殷)나라의 거울이 먼 곳에 있는 것이 아니니, 바로 <u>하후(夏后)의 때라네</u> <sup>49</sup>	서주
「주송·시매」	내 아름다운 덕을 추구하여 <u>나라(時夏)에 퍼니</u> , 진실로 왕께서는 나라를 잘 보전하시네 <sup>50</sup>	춘추
「주송·사문」	여기저기 가릴 것 없이, <u>나라(時夏)에 진리(常道)를 퍼네</u> <sup>51</sup>	
「상송·장발」	위(韋)·고(顧)를 정벌하고, 곤오(昆吾)와 <u>하갈(夏桀)을 정벌하네</u> <sup>52</sup>	

여기서 「탕」과 「장발」에 보이는 하는 하나라를, 「주송」에 보이는 시하(時夏)는 당시의 하, 주나라를 가리킨다. 이처럼 주나라가 하를 자처한 것은 『상서』에서도 발견할 수 있다. 예컨대, 『상서』 「무성(武成)」에서는 방하(方夏) 혹은 화하(華夏)로,<sup>53</sup> 「강고(康誥)」에서는 아구하(我區夏)<sup>54</sup>로, 「군석(君奭)」<sup>55</sup>과 「입정(立政)」<sup>56</sup>에서는 아유하(我有夏)로 스스로를 일

컬었다.

그 밖에 『상서』에서 하의 쓰임새를 보면, 「소고(召誥)」에서는 “우리는 하나라를 거울삼지 않아서는 안 되고, 은나라를 거울삼지 않아서도 안 된다”<sup>57</sup>고 하였다. 「다사(多士)」에서는 “(하나라 사람들이) 하늘에 대하여 생각하지도 들으려 하지도 않고, 그들이 위대한 하늘의 명을 저버리자, 벌을 내리셔서 그대들의 선조 탕임금에게 하나라의 명(命)을 바꾸게 하시고, 뛰어난 사람들로 세상을 다스리게 하셨다”<sup>58</sup>고 하였다. 「다방(多方)」에서는 “상제가 하나라에 복을 내렸지만 하나라가 놀고 즐기는 것만 일삼고 백성들을 걱정하지 않았다”<sup>59</sup>고 하였다. 여기에 보이는 하는 주나라가 본보기로 삼아야 할 대상이다. 즉, 천명을 받았던 하나라가 놀고 즐기는 데 빠져 천명을 잃어 멸망한 것을 교훈 삼아야 한다는 것이 주된 내용이다. 이는 주가 하를 자처한 것과 대조되는 쓰임새다.

하 관련 사료를 통해 알 수 있듯이, 현재 확인되는 가장 오래된 하는 주대에 등장한다. 『시경』과 『상서』에 보이는 하의 두 가지 쓰임새는 춘추전국시기를 거치며 변화되는데, 상 이전의 나라를 가리키는 하는 삼대의 하나로 완전히 역사화되고, 주족 스스로를 일컫는 용법은 화하, 제하(諸夏) 등으로 발전하였다.

사라 알란(Sarah Allan)은 주가 하를 설정한 것은 주가 상을 멸망시킨 것에 대한 합법성을 증명하기 위한 것이라고 하였다. 주가 상을 멸망시킨 명분은 바로 천명에 있는데, 이는 임금의 덕(德)에 따라 천명이 바뀔 수 있다는 것을 전제로 한다. 만약, 이에 대한 선행이 있다면 주가 상을 멸망시킨 명분은 더욱 합법성을 얻게 된다. 따라서 주는 상 앞에 하를

설정, 하나라가 천명에 복종하지 않아 상에 멸망되었듯이, 주 또한 천명을 따르지 않는 상을 멸망시킨 것은 정당하다는 논리를 더욱 강화했다는 것이다.<sup>60</sup> 뒤에서 자세히 설명하겠지만, 하와 관련된 전설의 구조가 상의 전설과 유사하다는 점을 주목해 보면, 사라 알란의 설은 설득력이 있다.

여기서 다시 우를 보면, 『시경』과 『상서』를 통해 알 수 있듯이, 우는 주족이 인식했던 바와 같이 치수의 영웅이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사실 중국 여러 전적에는 치수와 관련된 영웅들이 많이 등장한다. 예컨대, 『회남자』 「남명훈(覽冥訓)」에 보이는 여와보천(女媧補天)<sup>61</sup> 고사 또한 치수와 관련된 것이다. 『예기』 「제법(祭法)」에서는 “공공씨(共工氏)가 구주의 패자가 되었으며, 공공씨의 아들은 후토(后土)라 하는데 구주를 평정하였기 때문에 사(社)로서 제사 지냈다”<sup>62</sup>고 한다. 또 우의 부친으로 설정된 곤 또한 치수의 영웅 가운데 한 명이었다. 의고 사조가 일어날 때, 양관(楊寬)도 영향을 받아 신화분화설(神話分化說)을 내세운 바 있다.<sup>63</sup> 그는 “고사(古史) 속의 인물과 이야기는 대중이 전승하는 과정에 무수히 재창조된다. 예컨대 하나의 상제는 황제, 전욱, 요, 순, 우 등으로 바뀌었고, 하나의 치수 고사는 여와, 공공, 곤, 우 등이 치수한 이야기로 변화했다”라고 하였다.

그러나 홍수와 치수 고사의 경우, 다른 맥락에서 접근해 볼 필요가 있다. 바로 홍수 고사의 보편성이다. 온라인 플랫폼인 토크오리진 아카이브(The TalkOrigins Archive)에서 제공하는 홍수 신화(Flood-myths)만도 180여 개나 된다.<sup>64</sup> 천젠센[陳建憲]은 중국 내 40여 개 민족 사이에 우의 치수 전설과 각종 홍수 전설이 전승되고 있다고 하였다.<sup>65</sup> 따라서 고대

중국에는 홍수와 치수에 관련된 전설이 다양하게 분포하였으며, 지역마다 다양한 치수 영웅이 존재했을 가능성이 있다.

이와 같은 다양한 홍수와 치수 전설은 춘추전국시대를 거치며 하나로 응집되는 경향이 나타났고, 최종적으로 우를 영웅화하면서 결말을 짓게 된다. 최종적으로 우가 치수의 영웅이 되는 결정적인 요인은 요·순·우 사이의 선양 전설이 우 전설과 결합했기 때문이다. 선양은 유가와 목가의 영향을 받은 것으로, 덕이 있는 사람이 천하를 통치한다는 이상적 군주관과 이러한 군주가 통치하는 대동(大同)과 소강(小康)이라는 태평성대의 이상적 세계관이 더해졌다. 우 전승에는 홍수에 시달리는 백성들, 태평성대의 제왕(帝王)에 대항하는 악역도 동시에 편성되었다. 악역을 맡은 이들은 바로 또 다른 치수 고사 속의 영웅이었던 공공과 곤이다. 이들의 행적은 부덕함과 실패에 초점을 맞춰 우의 영웅화를 더욱 극대화하는 장치로 이용되었다.

우의 영웅화는 주가 설정한 하와 맞물리면서, 선양시대의 마지막 영웅인 우를 중국 최초의 세습 왕조인 하의 개창자로 인식하게 된 것은 아닐지 조심스럽게 추론해 본다. 우를 하의 창건자로 설정한 것은 천하의 홍수를 불식시키고 구주를 획정한 우의 영웅성이야말로, 상을 멸망시킨 주의 정당성을 위해 설정된 하의 개창자로 손색이 없었기 때문이다.<sup>66</sup>

### 3. 엘리트우는 하문화 유적인가?

1920년대 후반, 인취[殷墟] 발굴은 중국 고대사에서 가장 큰 사건이라고 해도 손색이 없다. 19세기 후반부터 갑골문의 존재를 알고 연구하기 시작하면서, 이미 상대(商代)의 기록일 가능성이 제기되었으나 고고학적 발굴이 아니었기 때문에 광범위한 공감대를 형성하기는 힘들었다. 그러던 중 1920년대 후반부터 중앙연구원(中央研究院) 역사어언연구소(歷史語言研究所) 주도로 진행된 인취 발굴로 수많은 갑골문이 함께 출토되면서 상대의 역사적 실재를 증명해 주었다. 당시로는 고고학이라는 보다 과학적이고 선진적인 방법으로 수많은 무덤과 건축유적 등을 발굴한 것으로, 상대의 존재를 확증할 수 있는 공신력이 있었다. 비록 발굴된 유물은 반경(盤庚)이 은(殷)<sup>67</sup>으로 천도한 약 기원전 14세기에서 기원전 13세기 이후의 것이었지만, 갑골문 속에 나오는 선왕(先王), 선공(先公)의 이름은 『사기』 「은본기(殷本紀)」의 세계(世系)와 대략 일치하여 문헌 기록의 신빙성을 어느 정도 제고시켜 주었다는 것에 큰 의의가 있었다.<sup>68</sup>

여기서 한 가지 흥미로운 점이 있다. 그것은 바로 반경의 발굴로 탕(湯)으로부터 시작되는 선왕의 계보는 물론, 그 이전의 선공 계보까지 밝혀졌는데, 그렇다면 이 선공의 시대는 어떤 시대로 보아야 하는가 하는 점이었다. 가장 먼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하대(夏代)이다. 그러나 이러한 추론 자체는 논리적 오류를 지니고 있다. 왜냐하면 이른바 선왕·선공이라는 것은 갑골문에 보이는 기록을 통해 재구성된 것이지만, 이 구분법 또한 문헌 사학의 틀에서 나온 것이기 때문이다. 즉, 갑골문에

선공·선왕이라는 개념이 나온 것이 아니라, 문헌상의 성탕(成湯)에 해당되는 태을(太乙, 혹은 天乙)부터 선왕, 그 이전은 선공으로 구분한 것이다. 따라서 선왕·선공이라는 개념 속에서 하의 존재를 찾는 것은 문헌에서 출발하여 문헌으로 결말을 짓는 순환 논증의 오류를 갖는다. 그럼에도 많은 학자들이 상의 선공시대, 즉 이른바 하왕조시대의 흔적을 찾기 위해 노력하였다.

### 1) 하나라의 후기 도읍지 얼리터우

하나라의 흔적을 찾으려 노력했던 학자들 가운데 가장 대표적인 학자가 쉬취성[徐旭生]이다. 쉬취성은 1959년에 하허(夏墟), 곧 하나라의 흔적을 찾기 위해 문헌 자료를 살살이 뒤진 후 두 지역에 대한 집중적인 조사 계획을 세웠다. 그 지역은 바로 허난[河南] 중부의 뤼양[洛陽] 평원 및 그 부근 지역, 다른 하나는 산시[山西] 서남부 편수이[汾水] 하류 일대였다. 그러나 아쉽게도 산시 남부지역에 대한 조사는 이루어지지 못했으며, 허난 중부 지역의 조사를 통해 몇 가지 중요한 유적을 발견하였다. 그중 하나가 바로 얼리터우[二里頭] 유적이다.<sup>69</sup>

얼리터우 유적은 1959년 쉬취성이 처음 발견한 이후 지금까지 끊임 없이 발굴되고 연구되고 있다. 현재까지의 발굴 결과에 의하면 얼리터우 유적은 시간적으로 4기로 나눌 수 있다. 최근 탄소측정 결과에 의하면, 1기는 기원전 1735년에서 기원전 1705년으로 기원전 1750년을 넘지 않고, 2기는 기원전 1680년에서 기원전 1610년, 3기는 기원전 1585년에서 기원전 1545년(혹은 기원전 1615년에서 기원전 1560년), 4기는 기원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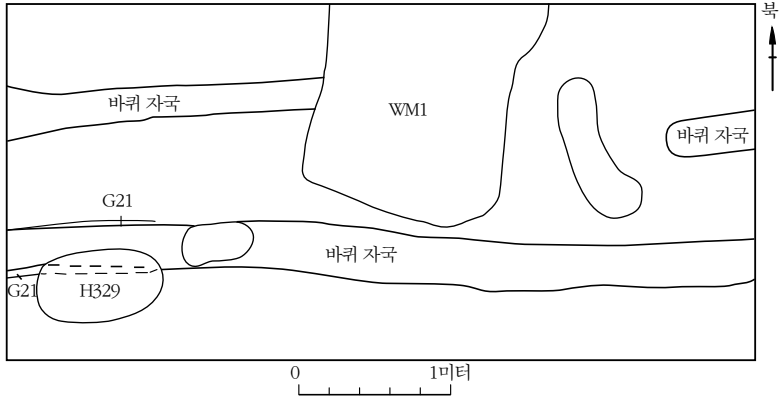
1565년에서 기원전 1530년이다.<sup>70</sup>

1기 유적은 소위 궁성(宮城) 구역 동남부의 수혈(豎穴, 수직으로 움푹 파인 구덩이로, 중국학계에서는 보통 회갱(灰坑)으로 일컫는다)과 무덤, 서남부의 수혈이 있다. 여기서는 주로 토기[陶器]가 출토되었는데, 백도(白陶)가 소량 출토된 것 외에 대부분 니질(泥質) 흑회도(黑灰陶)와 진한 회도(灰陶)가 발견되었고, 문양은 대체로 가는 줄무늬를 띠고 있다.

2기에는 이미 ‘井(정)’자 형의 도로망이 구축되었다. 유적 중심의 궁성 구역의 건축도 이미 건설되기 시작한 것으로 보이는데, 3호와 5호 건축이 나타났다. 또 궁성 남측에는 이미 동기(銅器)와 녹송석(綠松石, 터키석)을 제작하는 공방이 출현한 것으로 보인다. 이는 출토 유물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는데, 3호 건축 주변에서 발견된 M3에서 동령(銅鈴)과 장식, 백도와 칠기(漆器), 그리고 녹송석으로 상감된 용형기(龍形器)가 발견되기도 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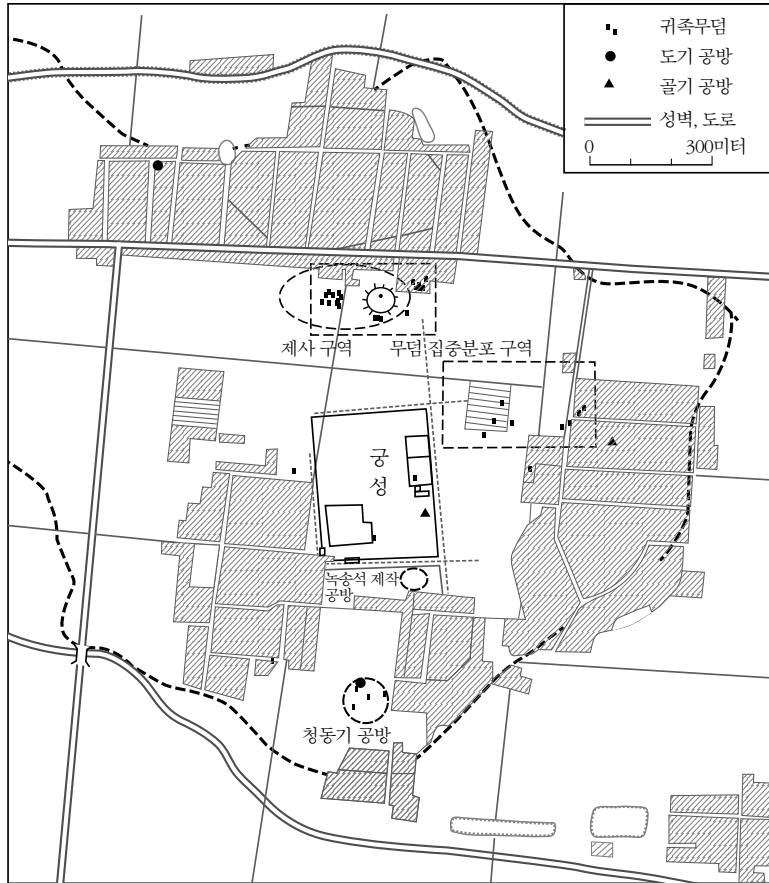
3기에는 ‘井(정)’자 형 도로망 내에 건축 구역을 둘러싼 성벽이 만들어지기 시작했고, 건축 구역 남부에는 유적 내에서 가장 큰 건축인 1호 건축의 기반이 모습을 드러냈으며, 서남쪽 모퉁이에는 7호와 8호 건축, 서남부에서는 9호 건축, 동북부에서는 4호, 그리고 조금 늦은 시기로 보이는 2호 건축이 나타났다. 출토 유물을 보면, 회도의 색깔은 더욱 얼어졌으나 백도는 점차 사라졌다. 그리고 청동기의 수량도 증가했는데, 3기 후반의 것으로 추정되는 1975VIKM3에서는 동작(銅爵)과 동부(銅斧), 과(戈), 녹송석 등으로 상감된 원형기(圓形器) 등이 나타났다. 동작은 대체로 도질(陶質)의 화(盞)와 조합을 이루었다. 이는 공방이 활기를 띠었음을 보여 준다.

216 중국 애국주의와 고대사 만들기



〈그림 3〉 궁성 구역 남측 도로의 바퀴 흔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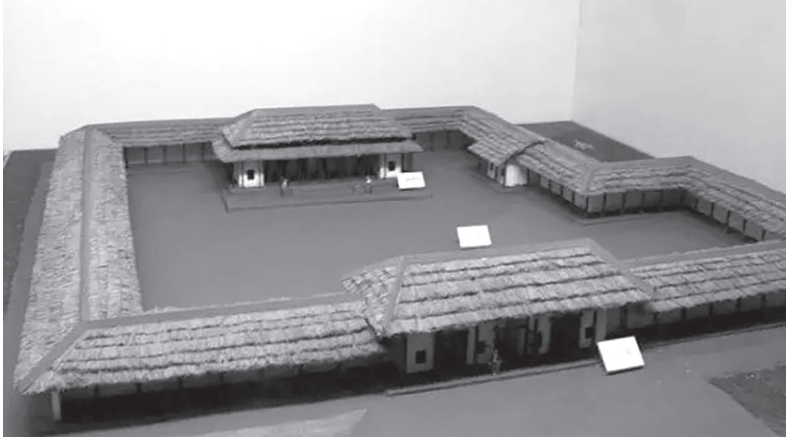
4기는 크게 전반과 후반으로 나눌 수 있다. 전반에는 상술한 도로와 건축물, 성벽이 지속적으로 사용되고 있었으나, 후반으로 넘어가면서 점차 파괴 혹은 폐기되는 양상이다. 1호 건축 같은 경우 계속 사용되다가 4기 후반에 이르러 파괴 혹은 폐기되었다. 그 유적 위로 수혈이 많이 들어섰는데, 이 수혈 속에서는 사치위엔(下七垣)문화의 특성을 갖춘 토기 및 악석(岳石) 문화 특성을 갖춘 토기들이 발견되었다. 기타 건축 또한 마찬가지로 파괴 혹은 폐기된 양상을 보인다. 물론 여기에 다시 6호와 10호 건축이 세워지고, 수공업 공방이 계속해서 사용되기는 했으나 오래 가지 못하고 폐기되었다. 이는 얼리터우문화 주체자들의 몰락 혹은 다른 지역으로의 이주 등을 나타내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출토 유물을 보면 역시 회도가 다수를 차지하는데, 그 색은 더욱 옅어졌고 후반으로 가면서 홍갈색(紅褐色) 토기가 많아졌다. 동기의 수량도 많아졌는데, 대체로 동작과 동가(銅鞮)가 짝을 이루고 있다. 1987VM1에서는 동정(銅鼎)과 동가, 동고(銅觚) 등이 출토되었고, 1986ⅡM1에서는 동



〈그림 4〉 얼리터우 유적 중요 유존 분포도

화(銅盃)가 출토되기도 하였다.<sup>71</su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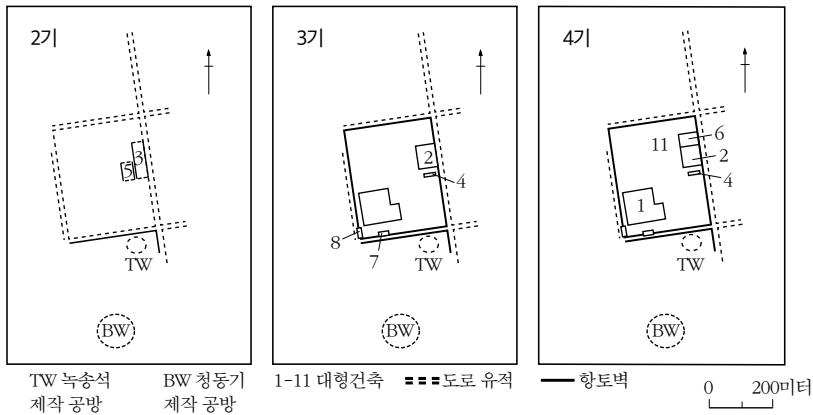
1959년부터 지금까지, 60여 년에 걸친 얼리터우 유적 발굴은 중국은 물론 세계적으로도 큰 주목을 받았다. 2기에 나타나는 ‘井(정)’자형 도로망은 계획도시의 흔적으로 보인다.<sup>72</sup> 도로의 너비는 보통 10여 미터로, 가장 넓은 곳은 20미터에 달한다. 그중 동쪽 도로의 길이는 700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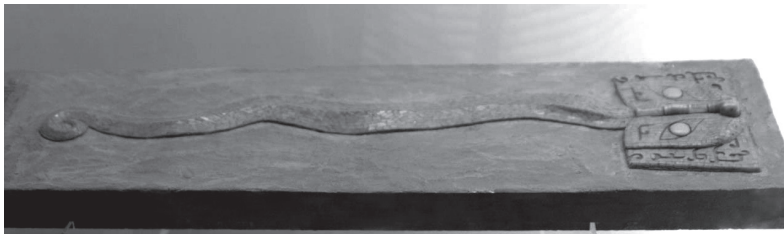
〈그림 5〉 얼리터우 1호 건축 모형도(©김인희)

터 남짓 남아 있는데, 남쪽에는 마을이 들어서 있고, 북쪽은 다른 유적에 의해 끊겨 있어, 당시는 훨씬 더 길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그리고 이 도로에서 발견된 이륜 수레의 흔적은 당시의 교통 혹은 운송 수단의 모습을 보여 준다(〈그림 3〉 참조).<sup>73</sup> 수레의 차축 길이는 1미터 남짓으로, 현재로서는 동물이 끄는 수레였는지, 아니면 사람이 끄는 수레였는지는 알 수 없다.

도로가 마련된 후 2기 후반부터 ‘井(정)’자형 도로 가운데에 건축유적이 등장했다. 발굴자는 이를 ‘궁성’이라 명명하였고, 그 속에서 발견된 건축유적을 궁전(宮殿)으로 인식하였다. 먼저 들어선 것은 3호 건축과 5호 건축으로 궁성의 동북부에 들어섰다. 3기에 이르러서는 3호 궁전과 5호 궁전이 폐기되고, 2호·4호·12호 건축이 들어섰고, 1호 건축이 건설되기 시작했으며, 7호와 8호 건축이 나타났다. 4기에 이르러서는 1호 건축이 완성되었다. 그러나 4기 후반에 이르러서는 건축물이



〈그림 6〉 엘리트우 왕성구의 변화



〈그림 7〉 엘리트우 출토 수면(獸面) 동패식(銅牌飾)(©김인희)

대다수 파괴되고, 6호와 10호 건축이 건설되었으나 얼마 가지 못하고 다시 폐기되었다(〈그림 6〉 참조).<sup>74</sup>

이 중 주목 받는 것은 1호와 2호 건축이다. 1호 건축은 궁성 서남부에 자리하며, 동서로 107미터, 남북으로 99미터로, 약 1만 제곱미터에 이른다. 사방으로 모두 회랑 형식의 벽으로 둘러싸여 있고, 주전(主殿)은 약간 북쪽 중앙에 자리하는데, 동서 8칸, 남북 3칸으로 총 900제곱미터에 이른다. 대문은 남쪽에 자리하는데, 대문과 주전이 하나의 중

축선 속에 자리한다. 대문 남쪽 약 30미터 지점의 7호 건축과도 하나의 중축선 위에 자리하는 것이 특징이다.

궁성의 동부에서 약간 북쪽에 자리하고 있는 2호 건축 또한 큰 규모를 자랑한다. 2호 건축은 동서 53미터, 남북 78미터로, 대략 4천 제곱미터를 상회하고, 회랑 형식의 벽으로 둘러싸여 있다. 1호 건축과 마찬가지로 남향으로 지어졌고, 대문과 주전이 대체로 일직선상에 위치한다. 다만, 2호 건축에서 제사의 흔적이 발견된 것으로 보아 1호 건축과는 성격상 차이가 있어 보이는데, 혹자는 이를 종묘(宗廟)로 추측하고 있다.<sup>75</sup>

이러한 종교 관련 유적은 궁전 구역에서 북쪽으로 약 200~300미터 떨어진 곳에 집중되어 나타나기도 하였다. 발굴자는 이를 제사(祭祀) 구역으로 설정했다. 이곳에서는 원형으로 쌓아 올린 제사 터인 단(壇) 3기와 지표면에서 장방형으로 약간 파 들어간 제사 터인 선(壇) 2기가 발견되었다. 제사 구역의 총면적은 동서 300미터, 남북 200미터 정도다.<sup>76</sup> 2호 건축과 제사구 유적을 통해 당시 얼리터우 사람들에게 공통된 종교 신앙이 있었을 가능성을 추측해 볼 수 있다(〈그림 4〉 참조).<sup>77</sup>

학자들은 ‘井(정)자형 도로의 남쪽 도로 남편에는 녹송석 제작 공방 [TW]이 자리했고, 그 남서편으로 300미터 떨어진 곳에는 청동기 제작 공방[BW]이 자리했던 것으로 보고 있다. TW에서는 수천여 점의 녹송석 파편이 구덩이 속에서 발견되었는데, 그 가운데 인공적으로 자르거나 간 흔적을 띤 파편이 많이 발견되어 녹송석 공방으로 추정하고 있다. 그 범위는 1천 제곱미터 정도 되는데, 얼리터우문화 3~4기로 추정되나,<sup>78</sup> 2기에 이미 녹송석으로 상감된 유물이 발견되는 것으로 보아 2기부터 사용되었을 가능성도 있다. BW에서는 청동 주조와 관련되는

유구(遺構)와 토제 거푸집[陶范], 도가니 파편 등이 출토되어 청동기 제작 공방으로 추정되고 있다.<sup>79</sup> 얼리터우에서 청동기가 2기부터 출현하기 때문에 이 공방 또한 2기부터 사용되었을 가능성이 있다. 이와 함께 유적 중심부인 V구역, 북부의 VI구역, 동북부의 III구역 등지에서도 청동 주조와 관련된 것으로 보이는 도가니 파편 등이 발견되어 얼리터우 유적에서의 활발한 청동기 제작 활동을 시사하고 있다.<sup>80</sup>

이러한 얼리터우 유적의 특징을 종합해 보면, 기원전 18세기~기원전 16세기까지 연속된 하나의 공동체가 자리 잡고 있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이들은 계획적으로 도시를 개발하였고, 이룬 수레를 사용하였으며, 청동기와 녹송석을 제작하는 공방까지 갖추고 있었다. 이를 통해, 당시 얼리터우에 농업 생산에 종사하지 않는 전문적인 직업군이 있었고, 상업도 어느 정도 발달하였음을 추측해 볼 수 있다. 또 광범위하게 발견되는 제사 유적은 이들에게 공통된 종교 신앙이 있었음을 보여 준다. 이처럼 계획된 도시와 전문적인 직업군, 상업과 종교 활동을 통해 이를 종합적으로 관리하는 공공 권력의 존재도 유추해 볼 수 있다. 특히 지배층의 위세품(威勢品)이라 할 수 있는 청동기, 녹송석, 골기 등의 공방이 궁성 주변에 위치하는 것은 당시 전문 수공업 생산을 지배 계층이 직접 통제하였을 가능성이 큼<sup>81</sup>을 보여 준다. 따라서 당시 얼리터우에는 공공 권력을 지닌 지배 계층이 존재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여기서 하나의 의문이 생긴다. 바로 2기에 보이는 ‘井(정)’자형 도로를 통한 궁성 구역의 설정, 그리고 이에 따른 건축물 조성은 이 유적의 주체 집단이 이곳에서 자생한 것이 아니라 다른 지역에서 이주했을 가능성을 보여 준다. 이에 대해 먼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얼리터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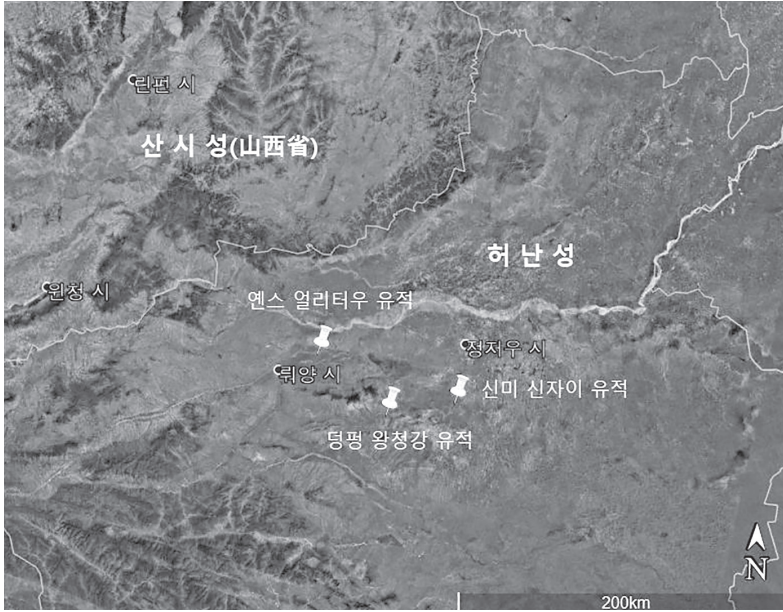
유적을 중심으로 설정된 이른바 얼리터우문화 유형들이다. 얼리터우 유형 외에도 동사평[東下澗] 유형, 사치위엔[下七垣] 유형, 사왕강[下王崗] 유형 등이 있다. 이 유형들은 시간적으로 얼리터우의 개척 시기보다 늦기 때문에 얼리터우의 영향을 받아 형성된 유적으로 보인다.

사실 현재 고고학적 성과만으로는 얼리터우 유적의 개척자들을 찾을 방법은 없다. 그렇기 때문에 중국에서는 문헌 기록에 근거하여 고고학 유적을 해석하는 방법을 채용하고 있다. 전술했듯이 쉬쉬성이 얼리터우를 발견한 것도 문헌 자료에 보이는 하나라의 흔적, 곧 하허를 찾으려는 시도에서 이루어진 것이다.

그러나 쉬쉬성이 처음부터 얼리터우 유적을 하의 유적으로 본 것은 아니었다. 그는 이 지역을 상나라를 개창한 탕임금의 도성인 서박(西亳)으로 여겼다. 이 설은 20여 년간 학계에 큰 영향을 끼쳤다. 그러다 1983년, 얼리터우 유적에서 서남쪽으로 6킬로미터 떨어진 지점에서 이른바 엔스상성[偃師商城]이 발견되면서<sup>82</sup> 학자들의 인식에 변화가 생겼다. 시기적으로 보면 엔스상성의 연대는 기원전 1600년에서 기원전 1300년을 전후한 시기였을 것으로 파악된다.<sup>83</sup> 따라서 중국의 학자들은 하·상 두 나라의 선후 관계를 따라 얼리터우를 하나라의 도성, 엔스상성을 상 초기의 도성으로 인식하기 시작했다.

## 2) 하나라의 초기 도읍지 왕청강과 신자이

이러한 인식의 변화로 얼리터우를 하나라의 도성으로 인식하게 됨에 따라 그 유적의 주체자를 하족(夏族)으로 규정짓고, 문헌 자료를 근



〈그림 8〉 덩펑 왕청강, 신미 신자이, 엔스 얼리터우 유적 위치

거로 그들이 어디서 왔는지 탐색하기 시작했다. 여기서 주목을 받은 유적이 바로 덩펑[登封] 왕청강[王城崗] 유적과 신미[新密] 신자이[新砦] 유적이다.

왕청강 유적은 중국 허난성 덩펑시 가오칭진[告成鎮]에 위치한 것으로, 1951년 허난성문물보관위원회[河南省文物保管委員會]의 문물조사 때 처음 발견되었다. 1959년 쉬취성이 하허를 탐색할 때 이곳을 조사하면서, 룡산문화[龍山文化]와 양사오문화[仰韶文化]의 성격이 동시에 나타남을 지적한 바 있다.<sup>84</sup> 이후 1975년 허난성박물관[河南省博物館] 문물공작대[文物工作隊]는 안진화이[安金槐]를 중심으로 하문화공작조[夏文化工作組]를 구성하여 가오칭[告成] 바팡촌[八方村]을 중심으로 고고 조사와 발



<그림 9> 춘추양성과 룡산양성의 위치

굴을 진행하였다.

1977년에 이르러 두 개의 건축유적이 발견되었다. 하나는 바팡촌 동쪽의 성벽 유적으로, 남북 94.8미터, 남벽의 길이는 97.6미터의 ‘口(구)’자형 소성(小城) 유적이다. 이 유적은 룡산문화 시기에 속하는 것으로 판명되었다. 이와 동시에 동북쪽에서 남북 약 2,000미터, 동서 약 700미터의 성터가 발견되었는데, 출토 문물을 통해 춘추시기 유적으로 밝혀졌다. 여기서 출토된 두(豆)에서 ‘양성식기(陽城倉器)’라는 글자가 발

견됨에 따라, 이곳이 사료에 기록된 춘추전국시대 양성(陽城) 유적임이 밝혀졌다. 이에 안진화이 선생은 이 룡산문화의 성지를 문헌에 기록된 우도 양성(禹都 陽城), 곧 우임금의 도성으로 알려진 양성일 것으로 추측하기도 하였다.<sup>85</sup>

1978년, 룡산문화 시기 소성 유적을 정리하던 고고발굴대는 동쪽 성벽 남쪽 끝에서 다시 동서로 나 있는 성벽의 흔적을 발견하여, 룡산 소성이 단순한 ‘口(구)’자형 소성이 아니라 누워 있는 ‘日(일)’자형 성지라는 특징을 밝혀냈다.<sup>86</sup> 당시 학자들은 이 소성의 연대를 기원전 2100년경으로 보았다. 마침 사서에 기록된 우의 활동 연대가 대략 기원전 2200년에서 기원전 2100년이라는 점을 근거로, 이를 하나라 시기의 양성 유적으로 인식하였다.<sup>87</sup>

1996년 하상주단대공정(夏商周斷代工程) 일환으로 ‘하대 연대학 연구(夏代 年代學 研究): 초기 하문화 연구(初期 夏文化 研究)’ 팀이 구성되어, 그동안 발굴된 자료들에 대한 조사를 통해 하나라의 대략적인 연대를 밝히려 하였다. 그들은 먼저, 얼리터우 유적의 연대가 기원전 1880년에서 기원전 1525년 정도의 범위로 보고, 또 옌스상성의 연대를 기원전 1600년경에 시작되는 것을 근거로, 하나라와 상나라의 교체 연대를 대략 기원전 1600년경으로 설정하였다. 그리고 왕청강 유적의 연대 범위를 기원전 2190년~기원전 1965년 정도로 보고, 또 『죽서기년』에서 하나라 연대를 “우에서 걸(桀)까지 17대, 왕이 있을 때와 왕이 없을 때를 합쳐, 471년이었다”<sup>88</sup>라고 한 것을 근거로, 하나라의 건립 연대를 대략 기원전 2070년으로 설정하였다. 그러나 연구팀은 예기치 않은 곤경에 처했다. 그 이유는 왕청강과 얼리터우 유적 사이에 대략 80~100년의

	심복관	정	증	두	발	기물 덮개
룡산문화 후기						
신자이 기						
얼리터우문화 1기						

〈그림 10〉 룡산 후기(영평 왕청강), 신자이기[新砦期], 얼리터우문화 1기의 전형적 토기 형태의 변화

시간적 공백이 해결되지 않았기 때문이다.<sup>89</sup>

연구팀은 이러한 시간적 공백을 중국 허난성 신미의 신자이 2기 유적에서 찾았다. 신자이 유적은 1979년 발굴을 통해 발견되었는데, 시기적으로 허난 룡산문화[河南 龍山文化] 후기와 얼리터우문화 1기에 해당하지만, 당시에는 큰 주목을 받지 못했다. 그러다 단대공정이 한창 추진되고 있던 1999년부터 신미 신자이 유적 발굴이 재개되었는데, 신자이 유적의 탄소측정연대가 기원전 19세기에서 기원전 18세기 중반으로, 정확히 왕청강과 얼리터우 유적 사이에 위치했다.<sup>90</sup> 토기의 사례를 들면 심복관(深腹罐), 정(鼎), 증(甗), 두(豆), 발(鉢), 기물의 덮개 등에서, 비록 외형상에서 작은 차이가 있지만 전체적으로 계승 관계를 파악할 수 있다고 여겼다(〈그림 10〉 참조).<sup>91</sup> 문헌에 따르면, 계(啓)가 우를 계

승한 이후 태강(太康)에 이르러 후예(后羿)의 반란으로 나라를 잃고, 후예가 하나라를 대신하다가 하후(夏后) 소강(少康)이 후예의 아들들을 멸하고 나라를 다시 일으켰다고 한다.<sup>92</sup> 학자들은 신미 신자이 유적을 바로 후예가 하를 대신하던 시기의 유적으로 보았다.

하상주단대공정의 논리를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다. 하나라는 기원전 2070년 우가 세운 나라로, 당시 도읍은 허난 덩핑 왕청강이었다. 그러다 하후 태강 때에 이르러 실정(失政)을 하는 바람에 후예에 정복당했고, 후예는 40~50년간 패권을 장악하다가 아들 대에 이르러 소강에 멸망했다. 소강은 얼리터우에 터를 잡고 다시 나라를 일으켜 걸왕(桀王) 때까지 명맥을 유지했는데, 걸왕이 폭정을 일삼아 결국 상나라 탕왕에 멸망하였다.

중국의 풍부한 문헌 자료의 전승은 역사를 연구하는 데 큰 도움을 준다. 이와 더불어 1920년대 후반 이른바 ‘과학적’ 고고학이 중국에 자리 잡기 시작하면서 나타난 수많은 고고 유적은 이러한 역사에 생동감을 더해 준다. 따라서 역사와 고고학의 만남은 우리가 역사로 구성된 사실(史實)에서 과거의 사실(事實)로 한발 더 나아가는 발판이 되었다. 이러한 맥락에서 보면 덩핑 왕청강→신미 신자이→옌스 얼리터우로 이어지는 하나라 고고문화 계통은 하나라 역사를 이해하는 데 큰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한편으로 이렇게 설정된 하나라 고고문화 계통은 인위적이라는 의문을 지울 수 없다. 특히, 왕청강에서 얼리터우로 이어지는 고고문화의 공백을 신미 신자이에서 찾은 것은 물질문화에 대한 진지한 고민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측정 연대를 기준으로 짜 맞추었다는 혐의

를 벗을 수 없다. 또한 이곳에서 하나라의 유적임을 증명하는 동시대적 문자 자료가 출토되지 않았다는 점도 이러한 의구심을 갖게 한다. 따라서 현재로서는 얼리터우 등의 고고 유적을 하문화로 선불리 단정 짓기에는 많은 문제가 상존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 3) 하에 대한 중국과 서양 학계의 시각차

하상주단대공정은 1996년에 시작하여 2000년에 마무리되었다. 그리고 2001년 결과보고인 간본(簡本)을 통해 하나라와 상 초기, 상 후기 초반의 대략적인 연대, 그리고 상 후기에서 상나라와 주나라의 교체, 서주 시기 왕의 구체적인 연대가 발표되었다. 이는 기존 문헌 자료에 고고학, 그리고 천문학과 화학 등 인문사회 영역과 자연과학 영역의 성과가 응집된 결과였다. 이를 통해 하나라의 연대를 대략 기원전 2070년에서 기원전 1600년으로 설정함으로써 하나라의 실재를 증명하는 결과를 발표하였다.<sup>93</sup>

중국에서 하상주단대공정이 한창일 때, 공교롭게도 서양에서는 『캠브리지 중국 고대사(cambridge history of ancient china)』가 편찬되고 있었다. 1994년부터 6년여의 준비와 집필을 통해 출판된 이 책은 서양의 고대 중국 연구의 결정체라 할 수 있다.<sup>94</sup> 흥미로운 것은 중국 역사상 최초의 왕조를 상으로 설정한 것이다. 제3장에서 로버트 베이글리(Robert Bagley)는 상 고고학(Shang Archaeology)을, 제4장에서 데이비드 키이틀리(David Keightley)는 표제를 ‘상: 중국 최초의 역사적 왕조(The Shang: China’s First Historical Dynasty)’로 설정, 중국의 역사가 상나라에서 시작되었다고

하였다. 이는 중국이 막 발표한 하상주단대공정의 성과에 완전히 배치 되는 것이었다.

서양 학계는 줄곧 하나의 실존에 대한 물음표를 떼지 않고 있다. 대표적인 학자로 사라 알란이 있다. 그가 중국 신화·전설을 보는 시각은 중국 학자들과는 다르다. 쉬쉬성은 전설이 역사 그 자체라고 할 수 없지만, 역사적 근거가 있기에 전설을 자세히 연구하고 정리하는 작업을 통해 역사적 진상을 얻을 수 있다고 여겼다.<sup>95</sup> 그러나 사라 알란은 신화·전설 속에서 역사적 진상을 얻기보다는 그 구조에 관심을 가졌다. 그는 「주나라와 한나라 문헌에 보이는 태공(太公) 망(望)[The Identities of taigong Wang in Zhou and Han literature]」을 집필하면서 서로 다른 시기의 역사적 인물들, 예컨대 주의 태공 망과 상의 이윤(伊尹), 하의 걸왕과 상의 주왕(紂王) 등이 같은 주제에서 줄곧 함께 논의되고 있음을 발견했다. 이러한 인물들은 또 반대 성향의 인물들과 대비되곤 하는데, 예를 들면 태공 망과 백이·숙제, 걸왕과 탕왕, 주왕과 문왕이 있다. 이를 통해 그는 신화 혹은 전설에 기록된 사건보다는 그 주제와 형식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sup>96</sup> 이러한 관점은 『세습과 선양(The Heir and the Sage: Dynastic Legend in Early China)』에서도 그대로 이어졌다. 그는 이러한 전설은 기본적으로 현실을 위해 봉사하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화자에 따라 내용이 다르게 나타날 수 있다<sup>97</sup>고 하였다.

그는 하와 관련된 신화는 상과 관련된 신화가 구조적으로 변형된 것이라 했다. 예컨대, 상나라 신화는 열 개의 태양, 새, 부상(扶桑), 동방, 하늘과 생명 등과 연관이 있는데, 하나라 신화는 수상 동물인 용과 거북, 그리고 약목(若木), 서방(西方), 황천(黃泉) 등 죽음과 관련 있는 것으로

설정되었다<sup>98</sup>고 한다.

신화 속에 나타난 이러한 구조적 대립은 역사 기술 속에서도 비슷하게 나타난다. 상은 탕임금이 개국했으며, 태갑(太甲)은 부덕하여 동궁(桐宮)에 유폐되었다가 깨우침을 얻어 다시 왕위에 올랐고, 주왕의 폭정과 부덕으로 인해 멸망했다. 하나라 또한 상과 비슷하게 전개된다. 우임금의 개국, 이후 태강의 실정, 후예의 찬탈, 이후 소강의 중흥, 걸왕의 폭정과 부덕으로 멸망하는 구조를 갖고 있다.<sup>99</sup>

〈표 4〉 하·상 관련 문헌에 보이는 신화·역사의 구조적 비교

	하	상
신화적 키워드	용과 거북, 악목, 서방, 황천, 죽음	열 개의 태양, 새, 부상, 동방, 하늘과 생명
개국	우임금의 개국	성탕의 개국
위기	태강의 실정, 후예의 찬탈	태갑의 동궁 유폐
부흥	소강 중흥	태갑 복위
멸망	걸왕의 폭정, 부덕	주왕의 폭정, 부덕

사라 알란의 연구에서 지적된 이러한 신화적 대립과 문헌에 기록된 사적의 유사는 결코 우연이 아닐 것이다. 따라서 하나라의 역사는 실제 역사라기보다는 일정한 구조 속에서 만들어진 역사일 가능성이 크다. 그렇지만, 그가 하나라의 존재를 완전히 부정한 것은 아니다. 다만 문헌에 기록된 하의 역사는 신화 혹은 전설에 근거하고 있으며, 동시대적 고고 자료(문자 같은)가 발견되지 않는 한, 중국에서 이른바 하문화 고고 유적이 하나라의 유적인지 확인할 수 없다는 것이다. 그의 논리대로 본다면, 설사 하라는 나라가 실존했다고 하더라도 현재 문헌에 기록된 하의 모습과는 달랐을 것이다.

그렇다면, 서양 학자들이 하문화(夏文化)에 대해 의문을 품고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

류쉬(劉緒)는 이러한 태도에 대해 일종의 오해가 작용한 것으로 보았다. 서양 학자들은 중국의 학술과 정치, 민족주의를 하나의 선상에 있는 것으로 파악하기 때문에, 중국 고고학의 연구 목적이 순수한 학술 문제가 아니라 국가의 의지, 곧 정치적 목적과 민족 정서가 결합하였다고 여긴다는 것이다.<sup>100</sup>

이 문제는 최근 몇 년간의 문제가 아니라 이전부터 지속적으로 제기 되던 문제다. 2009년 류리(劉莉)는 중국 학자 75명과 외국 학자 28명을 대상으로 정치적 이데올로기가 하(夏)와 얼리터우의 관계를 해석하는데 영향을 미치는지 설문조사를 한 바 있다. 그 결과, 하와 얼리터우의 관계를 해석하는데 정치적 이데올로기보다는 교육환경과 문화 배경, 그리고 중국 고고학의 추세와 더 큰 관련이 있다고 해석하였다.<sup>101</sup> 이와 동시에, 중국과 외국의 서로 다른 교육환경과 문화 배경 속에서 나타나는 다양한 연구 방법론은 관련 연구를 촉진할 수 있으나 그 결론이 같을 수는 없다는 것을 지적하면서, 이러한 문제는 긍정적인 반면에서 학술 토론을 유도해야지, 이를 정치화시키면 안 된다는 점을 강조하기도 하였다.<sup>102</sup>

본문에서 몇 차례 언급했듯이, 얼리터우 유적은 그 자체로 훌륭한 중국의 고고학적 성과다. 비록 하와의 관계에서는 다양한 의견이 존재하지만, 그렇다고 그 가치를 폄훼하거나 더 나아가 중국 고대 문명 자체를 의심하지 않는다. 다만 신뢰성이 떨어지는 문헌에 의존하다 보니 오히려 고고문화 자체의 우수성을 객관적으로 파악하지 못할 우려 때문

에 보다 신중한 태도를 보여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현재 중국의 행보는 아직도 이러한 우려를 유효하게 인식시키고 있다. 전술한 대로 중국은 얼리터우 유적을 세계유산에 등재하기 위한 작업에 착수했고, 동시에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고고중국(2020~2024) 프로젝트에 하문화 연구를 선정하였다. 2020년 10월 9일 옌스 얼리터우하도유적박물관[二里頭夏都遺址博物館]에서 개최된 '얼리터우 유적 고고와 하문화 연구 학술 좌담회[二里頭遺址考古與夏文化研究學術座談會]'에서는 중국 사회과학원 고고연구소의 자오하이타오[趙海濤]가 「얼리터우 유적과 하문화 연구의 회고와 전망[二里頭遺址考古與夏文化研究的回顧與展望]」이라는 기조 강연에서 얼리터우의 왕도(王都)적 기상을 강조하면서, 향후 사회고고학적 맥락과 학제 간 연구, 그리고 문화유산 보호 이념을 가지고 세계문화유산의 표준에 맞춘 고고 발굴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고 밝혔다.<sup>103</sup>

얼리터우 유적의 세계유산 등재 추진은 관련 연구를 하는 사람으로서 반가운 소식이다. 이를 계기로 더욱 활발한 고고 발굴이 진행되기를 기대한다. 또 얼리터우 유적의 가치가 세계적으로 인정받는다면 중국이 기대하는 만큼 국제적으로도 중국 고대문화의 위상을 높일 수 있다.<sup>104</sup> 그러나 이를 신화 혹은 전설의 성격이 강한 하대사(夏代史)를 가지고 해석한다면, 그 고고문화 자체에 대한 객관적 연구가 진행될 수 없다는 부작용이 상존한다는 점을 유념해야 한다.

#### 4. 고고학으로 역사를 밝힐 수 있을까?

이상으로 우와 하의 전승 과정, 그리고 얼리터우로 대표되는 이른바 하문화와의 관계에 대해 검토하였는데, 간단히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우는 원래 주족(周族)의 신화적 혹은 전설적인 치수 영웅으로 전승되어 오다가, 춘추(春秋) 시기에 이르러 구주(九州) 획정(劃定)의 고사가 더해졌고, 전국시기에 이르러 황제(黃帝)에서 곤(鯀)·우로 이어지는 계보가 완성되었고, 이와 동시에 요·순·우로 이어지는 선양(禪讓), 대동(大同)과 소강(小康)의 이상적 세계관 등이 결합하였다.

둘째, 하는 서주 시기에 처음 나타나는데, 사라 알란은 주가 상(商)을 멸망시킨 것을 정당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하를 설정했다고 주장했다. 본문은 여기서 한발 더 나아가 우의 전승이 하와 결합한 까닭에 대해, 천하의 홍수를 불식시키고 구주를 획정한 우의 영웅성이 주가 설정한 하와 맞물리면서, 중국 최초의 세습 왕조인 하로 설정된 것은 아닌지 조심스레 생각해 보았다.

셋째, 얼리터우 유적은 고대 중국 도시 계획의 일면을 보여 주는 중요한 유적으로, ‘井(정)’자형 도로망과 그 가운데에 자리 잡은 이른바 궁성(宮城) 구역, 그리고 그 주변에 자리 잡은 청동기, 녹송석, 토기, 골기 공방과 종교 시설 등을 통해 당시 얼리터우에 농업 생산에 종사하지 않는 전문 직업군이 있었고, 상업은 물론 이들에게 공통적인 종교 신앙도 존재했음을 추측할 수 있었다. 또 이 모든 것을 아우르는 공공 권력을 지닌 지배 계층의 군림 또한 예측해 볼 수 있다.

넷째, 중국은 하상주단대공정을 통해 덩펑 왕청강, 신미 신자이, 옌

스 얼리터우로 이어지는 소위 하문화 고고 계통을 정리하였다. 그러나 전술한 대로 서양 학계에서는 이러한 중국의 성과에 아직도 물음표를 던지고 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동시대적 문자 같은 보다 실증적인 확증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그럼에도 중국은 하문화의 범주 속에서 얼리터우 유적을 세계유산으로 등재하기 위한 프로젝트를 시작하였다.

하의 존재를 긍정하는 학자도, 부정하는 학자도, 모두 고고학에 중점을 두고 있다. 그러나 전자는 고고학을 통해 하의 실재를 증명하려고 노력하는 데 반해, 후자는 고고 유적의 객관적인 인식을 통해, 그 유적의 가치를 밝히는 데 보다 힘쓰고 있다. 최근 중국에서는 베이징대학교의 순칭웨이[孫慶偉]와 중국사회과학원 고고연구소 쉬홍[許宏] 연구원의 논쟁을 대표로 하는, ‘고고학으로 역사를 밝힐 수 있는가’에 대한 논쟁이 벌어지고 있다.<sup>105</sup> 여기서 이들의 논쟁을 소개하고, 필자의 견해를 밝히는 것으로 본문을 마무리하고자 한다.

하의 존재를 부정하는 학자들은 덩핑 왕청강, 신미 신자이, 옌스 얼리터우로 이어지는 소위 하문화 고고 유적이 진정한 하문화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문자적인 확증이 필요하다고 역설한다. 그러나 최근 베이징대학교의 순칭웨이[孫慶偉]는 왕릉, 문자 등 우연성의 발견에 너무 의존하는 것은 “고고학을 우연성의 기초 위에 건립하는 것으로, 사실상 고고학적 탐구 궤도에서 벗어난다”라고 비판하였다. 그는 최근에 펴낸 『택우적(宅禹蹟): 고고학으로 하대 역사의 신빙성을 재구축하다(夏代信史的考古學重建)』<sup>106</sup>를 통해, 역사적 맥락에서의 고고학[歷史語境下的考古學] 연구 방법론을 제시하였다. 그리고 전래 문헌에 대한 상세한 고찰과 문화 비교법에 입각한 황하 중하류 지역의 룡산문화시대 여러 유적

과 얼리터우 유적에 대한 정리와 분석을 통해 하나라 역사의 신빙성을 논증할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다시 말해, 고고 자료의 수집과 정리, 그리고 분석의 구체적인 방식은 역사문제를 통해 결정하고, 또 되도록 역사적인 맥락 속에서 고고 자료를 이해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는 이러한 맥락에서 하나라의 시간적·공간적 범위를 다음과 같이 설정하였다.<sup>107</sup>

〈표 5〉 하문화의 공간적 범위

	구역	문화 유적
제1핵심구	루허(汝河) 잉허(颍河) 상류 지역	메이산(煤山) 유형
	이수이(伊水) 뤼수이(洛水) 지역	왕만(王灣) 유형
제2핵심구	허난 동부, 산둥 서부	자오뤄타이(造律臺) 유형
	허난 북부, 허베이(河北) 남부	허우강(後崗) 유형
제3핵심구	허난 서부	산리차오(三里橋) 유형
	산시 서남부 동단	산리차오 유형
	산시 서남부 서단	타오스(陶寺) 문화
	안후이(安徽) 북부	화자스(花家寺) 유형

먼저, 공간적으로 문헌의 이른바 우역(禹域), 곧 우임금의 영역은 당시 사용된 토기의 분석을 통해 세 개의 핵심구역을 설정할 수 있는데, 이것이 하대의 대체적인 지리적 공간 범위라 했다.<sup>108</sup> 시기적으로는 문헌에 기록된 우정삼묘(禹征三苗)라는 중대한 사건을 하문화의 시작으로, 그리고 얼리터우 유적 4기 후반과 얼리강[二里崗] 문화 하층 단계를 하·상 문화의 분계선으로 보았다.

순칭웨이(舜稱)는 또 중대한 역사 사건이 고고문화에 미치는 영향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역설하였다. 그는 왕조의 변화를 나타낼 수 있는 중요

한 물질문화로 옥기(玉器)를 사례로 들며, 중국 후베이성[湖北省] 텐먼시[天門市] 스자허[石家河] 유적에서 출토된 다량의 옥기에 주목했다. 스자허의 옥기는 1950년대부터 이미 여러 차례 발견된 바 있는데, 2015년 탄자링[譚家嶺]을 발굴할 때는 200여 건이나 출토되었다. 이는 뚜렷한 룡산문화의 색채를 띠기 때문에 스자허 유적의 옥기를 룡산문화가 남하한 증거로 여겼다. 이 옥기는 스자허 문화 후기에 속하는 지층에서 출토되었는데, 대략 기원전 2300년에서 2000년경으로 추정되고 있다. 따라서 그는 산둥과 허난 지역의 룡산문화가 창강 중류 지역에서 나타난 것은 바로 문헌에 보이는 우정삼묘(禹征三苗)를 증명한다고 하였다.<sup>109</sup>

그러나 순칭웨이의 하나라 역사에 대한 신사(信史)적 태도와 달리, 중국사회과학원 고고연구소의 쉬홍[許宏]은 보다 신중한 태도를 취하고 있다. 그는 1999년부터 얼리터우 유적 발굴을 지휘한, 그 누구보다도 얼리터우를 잘 아는 연구자다. 그는 선사(先史, Pre-history), 원사(原史, Proto-history), 역사(歷史, History)라는 고고학적 시대 구분법을 거론하면서, 원사와 역사의 구분은 문자의 유무라는 것을 강조하였다. 그렇게 따지면, 문자가 나타나는 상나라 후기 인쉬문화에 이르러야 믿을 수 있는 역사 단계에 진입했다고 볼 수 있고, 얼리터우는 물론 상 전기 얼리강문화도 믿을 수 있는 역사 단계로 볼 수 없다고 하였다. 그의 논리를 따르다면 이른바 하문화는 동시대적 문자 발견이 동반되지 않는 한 결코 해결될 수 없는 피비우스의 띠라 할 수 있다.

그는 고고학의 장단점을 거론하면서, 고고학은 역사·문화 발전에 대한 장기적인 관찰에는 능하지만 구체적인 역사 인물과 구체적인 역

사 사건을 밝히는 데는 능하지 않다고 여겼다. 따라서 능하지 않은 것을 능하다고 여기는 것은, 다시 말해 고고학을 통해 구체적인 역사 인물이거나 구체적인 역사 사건을 밝힌다는 것은 “장점을 회피하고 단점을 취하는 것”밖에 되지 않는다고 하였다. 결론적으로 그는 고고학은 장점을 살려 취약 형태, 사람과 땅의 관계[人地關係], 사회구조, 기술과 경제, 생계와 교역 등을 연구하는 데 집중할 것을 강조하였다.<sup>110</sup>

그의 이러한 관점은 서양 학자들이 주장하는 문헌에서 독립된 고고학 연구를 상기시킨다. 사라 알란은 비록 얼리터우와 하의 관계를 부정했지만, 얼리터우 자체의 가치는 부정하지 않았다. 그는 얼리터우의 발견에 큰 의미를 부여하면서, 얼리터우문화 자체에 대한 심도 있는 연구를 통해 문화패권(文化霸權, Cultural hegemony)이라는 패러다임으로 연구를 지속하고 있다.<sup>111</sup> 얼리터우의 엘리트 문화 결정체가 그 정치 강역을 훨씬 뛰어넘는 범위까지 받아 들여졌고, 그 특정한 형태가 고급문화의 본보기를 만들었는데, 중국인들은 훗날 이를 자신들의 문명으로 규정했다는 것이다. 다시 말해, 얼리터우문화가 하문화인지는 알 수 없으나 중화문명(Chinese Civilization)의 일종의 근원이 된다는 것에는 어느 정도 동의를 한 것이다.

로타 본 팔켄하우젠(Lothar von Falkenhausen) 또한 고고 자료와 문헌 자료는 성격이 매우 다르며, 각자의 연구방법이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그리고 일부 중국 학자들이 성급하게 이 두 자료를 혼합하여 유적의 성질을 판단하거나, 심지어 객관성을 유지해야 하는 발굴보고서 편찬 과정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지적하였다.<sup>112</sup> 중국 학자인 류리[劉莉] 또한 문헌 자료와 고고 자료는 연구 중에 직접적으로 대조할 수 없으

며, 고고 자료가 전통 문헌에서 독립해야 1차적인 물질 자료로서 분석이 가능하다고 하였다.<sup>113</sup>

정리해 보면, 고고학은 역사가 주는 막연한 상상력에 생기를 불어 넣어주는 학문으로, 역사를 밝히는 데 충분히 역할을 할 수 있다. 그러나 역사시대가 아닌 선사와 원사시대를 밝히는 데, 다시 말해 신화 혹은 전설로 전해지는 시기를 고고학으로 밝히는 것은 쉽지 않다. 순칭웨이(孫承暉)는 ‘역사적인 맥락 속에서 고고학을 연구’하는 방법론으로 하문화의 신빙성을 밝힐 수 있다고 했다. 그러나 미리 하나라 관련 신화 혹은 전설을 이용해 인위적으로 하문화를 설정하고 고고학적 연구를 진행한다는 것은 이미 그 자체로 내재적인 모순점이 있다.<sup>114</sup> 결론적으로 고고학으로 신화와 역사를 증명하는 하문화 연구는 득보다는 실이 많을 수 밖에 없다.

전설 속의 우가 실존한 인물인지 그 여부를 떠나, 또 하나라가 실존했는지 그 여부를 떠나, 중국 고대 문명의 유구성과 우수성은 의심의 여지가 없다. 특히 얼리터우 유적의 경우 룡산(龍山)시대 이후 처음 등장한 문화적 중심이라는 것에서 큰 의의가 있다.<sup>115</sup> 앞서 말한 대로, 얼리터우 유적을 통해 당시 이곳에 공공 권력을 지닌 지배 계층의 군림 또한 예측해 볼 수 있다. 그것이 꼭 하나라일 필요는 없다. 쉬홍(許宏)이 말한 대로 고고학은 구체적인 역사 사건과 인물 등을 밝히는 데는 능하지 못하지만, 역사·문화 발전에 대한 장기적인 관찰에는 능하다. 반대로 얼리터우가 하문화가 아니라는 것도 현재로서는 완전히 증명할 수 없다. 그렇지만 얼리터우가 하문화인지는 최소한 연구의 결과가 되어야지 결코 전제되어서는 안 된다.



제8장  
중화민족 공동체론과 신시대 고고학

김인희 · 동북아역사재단 연구위원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동북아역사재단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 1. 신화가 역사가 되다

중국에서 애국주의가 강화된 이유는 텐안먼 사건으로 노골화된 사회주의에 대한 허무주의 사조를 극복하기 위해서였다. 당시 중국 정부는 허무주의를 민족허무주의와 역사허무주의로 구분하고 이를 극복하기 위해 애국주의 교육과 각종 프로젝트를 실시하였다. 오래된 고대사, 특히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역사를 가진 민족이라는 타이틀은 애국심을 강화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

1990년대 열황열이 일어났으며, 각종 고고학 프로젝트가 실시되었다. 이 사업들의 목적은 신화시대를 역사시대화 하여 가장 오래된 중국의 역사를 만드는 것이었다. 방법은 비교적 간단하여 문헌에 기록된 삼황오제를 고고 유적과 결합하여 실존 인물화 하는 것이었다.

이러한 연구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고고 역사 이론의 재정립이 필요하였다. 먼저 고문헌 기록을 어디까지 믿을 것인가가 문제였다. 중국의 고문헌 기록에 대한 태도는 근대 이전 신고(信古), 근대 초기 의고(疑古), 신중국 성립 이후 석고(釋古)를 거쳐 현재는 신사(信史) 관점을 가지고 있다. 신고 관점은 고문헌 기록을 신뢰한다는 것으로 청말, 근대 이후 의고 경향이 등장하면서 지위가 흔들렸다. 그런데 최근 신고와 유사한 신사 관점이 다시 등장하였다. 신사는 신고에 고고 자료를 활용한 방법론이 추가된 것일 뿐으로, 총체적으로 볼 때 고문헌 기록에 대한 태도는 근대 이전으로 복귀했다고 할 수 있다.

다른 한편으로 중국식 문명, 국가 개념도 재정립하였다. 중국 학계에서는 서양의 문명 개념이 문제가 있음을 지적하고, 문자를 포함하지 않

는 문명 기준을 새롭게 제시하였다. 중국은 직업의 분화, 사회계층의 분화, 독점 권력의 출현, 도시의 출현, 국가의 출현 등을 문명 단계에 진입한 지표로 삼고 있다. 중국에서 제기하고 있는 문자를 포함하지 않는 문명의 기준은 고대사회 발전기준을 가늠하는 하나의 지표로 충분히 가치가 있다고 생각한다. 다만, 왜 훌륭한 문자 전통을 유지하고 있는 중국이 문자를 포함하지 않는 문명 기준을 제시해야 했는가는 의문으로 남는다.

이 글에서는 고고 유적과 연계하여 역사화 작업이 활발히 진행된 염제, 황제, 요임금, 우임금을 대상으로 연구를 진행하였다.

염제는 황제와 더불어 중화민족의 조상이라고 한다. 이러한 결론에 이른 것은 고문헌 자료를 고고 유적에 대입하여 얻은 결론이다. 문헌 자료를 기반으로 한 연구에 의하면 신농과 결합한 염제는 삼황시대의 마지막 인물이고, 황제는 오제시대의 첫 번째 인물이라고 한다. 둘은 형제 관계이기도 한데, 이는 고고 유적과 유물을 통해 증명된다고 한다.

고고학적 연구에 의하면 신석기시대 후기의 양사오문화 반포유형은 염제 유적이고, 양사오문화 마오디거우유형은 황제 유적이라고 한다. 그리고 반포유형과 마오디거우유형이 동일하게 양사오문화에 속하는 점은 이 둘이 같은 부모를 둔 형제 관계임을 증명하고, 반포유형이 마오디거우유형으로 대체되는 것은 문헌상으로 황제가 판천 전쟁에서 염제를 이긴 상황과 일치한다고 한다. 이러한 상황은 ‘새가 물고기를 물고 있는 문양’으로도 증명된다고 한다.

위와 같은 설명은 사실 전국시대 이후 등장하는 염제에 관한 문헌 기록을 근거로 한 것이다. 중국 학계는 후대에 작성된 염제신농이 농경

을 처음 시작했다는 문헌 기록을 신뢰하고, 중국의 초기 문명사를 신석기 후기까지 소급하였다. 만약, 중국 학계가 말하는 것처럼 염제가 실존 인물임이 증명된다면 오제시대 이전 삼황시대의 역사화에 발판을 놓을 수 있게 될 것이다. 그러나 현재 염제의 실존을 증명할 고고학 증거는 부족하다.

염제는 신화적 성격이 강한 인물이기 때문에 문명의 시조신 또는 중화민족의 조상신으로 숭배되고 있다. 중국 각지에서는 염제 관련 기념물이 건립되고, 염제에 대한 제의가 거행되었다. 문헌과 전설의 신빙성 여부와 상관없는 무분별한 수용은 전국 각지가 염제·신농의 고향이 되고, 농사를 짓고, 사망한 곳이 되게 하였다.

황제는 중화민족 공통 조상으로 여러 제왕 중 가장 많은 연구가 이루어졌고, 가장 많은 숭배를 받는 인물이다. 따라서 고고학적인 연구가 다양하게 진행되었고, 황제숭배도 대대적으로 이루어졌다. 중국 학계는 역사허무주의 극복을 위해 황제를 신석기시대 혹은 청동기시대 특정 유적에 대입하여 실존을 증명하고자 하였다. 문헌에 의하면 황제는 모든 제왕의 시조로, 황제가 어느 시대 인물인가는 중국 역사가 언제 시작되었는가와 관련된 중요한 문제이다.

지나친 열정이 화가 된 것일까? 너무나 많은 학자가 너무나 많은 지역에서 열정을 쏟은 결과 황제는 너무나 많은 지역에서, 너무나 다양한 시기에 걸쳐 생존한 인물이 되었다. 황제는 황하 이북의 거의 전 지역에서, 심지어는 황하 이남의 후베이성에서도 생존하였으며, 시기적으로는 신석기시대와 청동기시대를 포괄한다.

그러나 필자의 연구에 의하면 황제는 서주 초기 초나라를 정복한 주

왕, 특히 남정 중에 사망한 주 소왕을 모델로 한 것이다. 황제에 대한 최초의 기록인 『상서』 「여형」은 황제를 ‘黃帝’가 아닌 ‘皇帝’라 기록하고 있다. 여형은 주 목왕이 아버지인 소왕의 원수를 갚기 위해 초나라를 정벌할 자금을 확보하기 위해 반포한 것으로 「여형」편에는 선대 왕의 유훈을 전달하는 방식으로 皇帝가 치우와 묘민을 멸절시킨 이야기가 서술되어 있다. 이는 「여형」의 皇帝가 주 목왕 이전의 주나라 왕임을 말한다. 전국시대 황로학파에 의해 黃帝가 숭배되면서 皇帝와 치우의 전쟁은 黃帝와 치우의 전쟁으로 변형되었고, 사마천에 의해 黃帝는 모든 제왕의 시조가 되었다. 따라서 황제 신화는 서주 초기(기원전 11세기~기원전 10세기)의 역사적 사건을 배경으로 하였으며, 황제는 남정한 주나라 왕을 모델로 하였음을 알 수 있다.

민족허무주의 극복을 위해서 황제를 중화민족의 시조로 숭배하는 대규모 프로젝트가 진행되었으며, 대규모 공공기념물을 건축하고 성대한 의례를 거행하였다. 대표적인 황제 관련 기념물인 허난성의 황제고리와 황제릉에는 각종 정치적인 표어가 전시되고 있으며, 역대 국가 주석을 비롯한 정치인들이 의례에 참여하였다. 따라서 황제에 대한 숭배가 단순히 중화민족의 조상에 대한 숭배가 아니라 현대 정치와 긴밀한 관련이 있음을 알 수 있다. 황제는 중화민족의 공통 조상이라는 임무를 맡고 있기 때문에 애국주의를 강화하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할 수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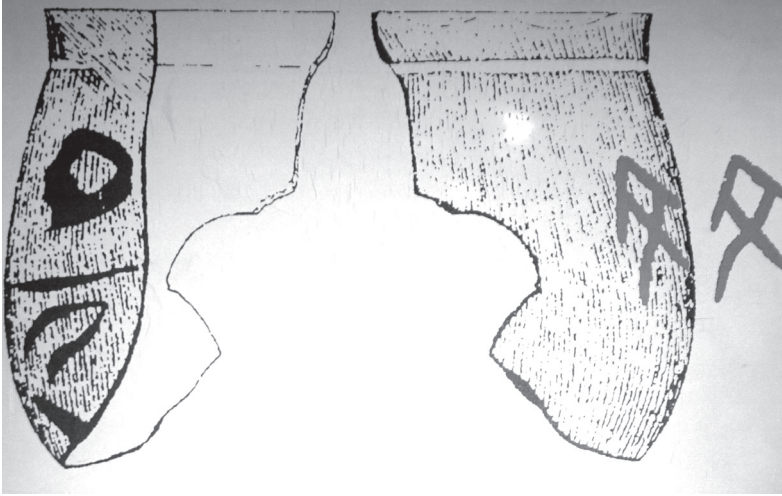
염제와 황제가 신화적 성격이 강한 인물이라면, 요임금과 우임금은 후대의 인물로 역사적 성격이 좀 더 강한 인물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요임금과 우임금은 민족허무주의보다는 역사허무주의 비판에 동원되었다.

이 연구에서 요임금과 타오쓰[陶寺] 유적의 관계에 대해 구체적으로 다루지 못한 것은 아쉬운 점이다. 타오쓰 유적은 산시성[山西省] 상편현[襄汾縣] 타오쓰촌[陶寺村] 남쪽에 위치하며, 기원전 2300년에서 기원전 1900년 사이의 유적으로 알려져 있다. 중국은 직업·사회계층 분화, 독점 권력·도시·국가 출현 등을 문명 단계에 진입한 지표로 삼고 있다. 이와 같은 문명 개념에 의해 중국 고고 문화를 해석하면 타오쓰 유적은 국가(방국) 단계에 이른 것으로 볼 수 있다.

중국 학계에서는 유적지와 유물의 상황으로 보아 타오쓰 유적이 이미 초기 국가 단계에 진입한 것으로 보고 있다. 리보첸[李伯謙]은 군권(軍權)과 왕권(王權)이 주체가 된 왕국이라 하였고,<sup>1</sup> 왕전중(王震中)은 방국(邦國) 단계에 이르렀다<sup>2</sup> 하였다.

유적지는 동서로 약 2000미터, 남북으로 약 1,500미터에 달하며, 면적은 280만 제곱미터이다. 타오쓰 유적에서는 상당한 규모의 성터가 발견되었으며, 유적지에서는 궁전지역, 귀족 거주지역, 수공업지역, 농민 거주지역, 제사지역이 발굴되어 이미 계급분화가 시작되었음을 알 수 있다.

문자(부호)가 새겨진 호리병도 타오쓰 유적이 국가단계에 진입하였음을 보여 주는 징표다. 이 유물은 거주지 유적에서 출토되었는데 붉은 색의 안료로 ‘文’자와 유사한 부호가 쓰여 있다. 중국 연구자들은 이 부호를 문자로 보고 있는데, 그 이유는 한자의 필획 구조가 인쉬(殷墟) 갑골문에서 보이는 것과 차이가 없기 때문이다. 문자는 인류의 사회문화가 일정 단계에 도달했을 때 출현하는 것으로 문명을 판가름하는 중요한 표지다. 따라서 중국 학자들은 이 문자를 타오쓰 유적이 초기 국가



〈그림 1〉 도기 호리병에 그린 문자 혹은 부호, 산시성박물관 소장.(©김인희)

단계에 진입한 중요한 표지로 보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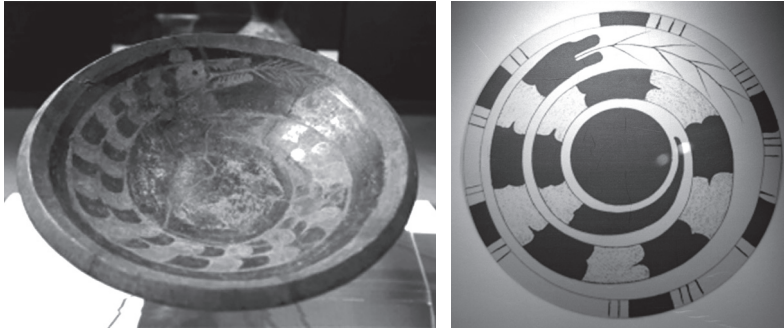
그리고 유적지에서는 문자(혹은 부호)가 새겨진 도기, 용문양이 그려진 채도(彩陶), 건축 재료인 평기와, 관상대(觀象臺)가 발견되었다. 산시성박물관(山西省博物館)의 용문양 채도에 대한 설명에 의하면 “용은 중화민족의 신물로 수천 년 동안 매우 높은 지위를 가지고 있으며 현재도 중국인들은 용의 후예라고 한다. 용문양 채도가 다량의 예기와 함께 큰 무덤에서 출토된 것은 우연이 아니며 이미 용 숭배가 있었음을 알 수 있다”라고 설명하고 있다. 중국 연구자들은 타오쓰 유적은 중화문명의 핵심이 형성되는 시점으로 ‘중국’ 개념이 처음 형성되기 시작한 곳이라 하였다. 따라서 중국 학자들은 타오쓰 유적을 “최초의 중국”이라 부르고 있다. 허누[何弩]는 타오쓰 시기 원초적인 중국[本初中國]이 형성된 것으로 보았다.<sup>3</sup>



〈그림 2〉 관상대. 타오쓰 유적지에 당시의 모습을 복원한 것이다.(©김인희)

연구자들은 『수경주(水經注)』의 “요임금이 평양(平陽)에 도읍을 정하였다”의 ‘평양’이 산시성(山西省) 린펀(臨汾)이라고 한다. 타오쓰 유적은 린펀에서 멀지 않은 곳에 위치하기 때문에 타오쓰 유적이 요임금의 도읍지였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중국 학자 대부분은 타오쓰 문화가 요임금 혹은 요순과 관련이 있다고 한다.<sup>4</sup> 허누는 타오쓰 성터가 요순의 도읍과 관계가 있음을 일련의 고고학적 증거를 통해 제시하였다.<sup>5</sup> 그리고 허누는 타오쓰 유적 발굴과 연구를 통해 요순우 전설시대가 ‘믿을 수 있는 역사’가 되었다고 주장하였다.<sup>6</sup>

타오쓰 유적은 여러 가지 방면에서 초기 국가의 특징이 발견되거나 그렇다고 이 유적이 요임금의 도읍이라 단정할 수 있는 근거는 없다. 연구자들이 인용하는 『수경주』의 기록은 남북조 시대 역도원(酈道元: 466~527)이 주해한 것으로 타오쓰 유적과는 시간적으로 2000년 이상의



〈그림 3〉 용문양이 그려진 채도와 용문양. 산시성박물관 소장.(©김인회)

거리가 있다. 따라서 타오쓰 유적은 초기 국가 단계에 진입한 것은 맞으나 요임금의 도움지라 할 수는 없다.

전근대 시기, 유가 사상이 주류를 이루던 시기에 이른바 중화 제1왕조(中華第一王朝)라 불리는 하나라와 그 창건자로 알려진 우임금의 역사성에는 의심의 여지가 없었다. 그러나 실증주의적인 의고 사조의 영향으로, 고사를 기록한 여러 문헌의 서지학적 문제가 거론되면서 하나라와 우임금의 역사성은 부정되었다.

그러나 1920년대 시작된 인취 발굴 이후 수많은 고고학적 성과가 축적되면서, 중국에서는 고고 유적을 통해 하나라와 우임금의 역사성을 밝히려는 노력이 지속되고 있다. 예컨대, 하상주단대공정(1996~2000)을 통해 하나라의 연대를 대략 기원전 2070년에서 기원전 1600년까지로 확정했고, 허난 덩핑 왕청강, 신미 신자이, 옌스 얼리터우로 이어지는 소위 하문화의 고고학 계보도 완성하였다.

서주 시기 빈공수라는 청동기에 우라는 인물이 등장하는 점, 그리고 얼리터우 유적에 보이는 공공 권력의 흔적은 이른바 하문화의 실체를

밝힌다는 입장에서 큰 유혹이 아닐 수 없다. 그러나 동시대적 문자자료가 없는 상황에서, 결국 결론을 정해 놓고 고고 자료를 끼워 맞추는 것에 불과하다는 비판을 면하지 못하고 있다. 아울러 왕청강·신자이·얼리터우 유적의 고고학적 가치에 오히려 손상을 줄 수 있다는 우려가 있다. 특히 얼리터우 유적의 경우, 계획도시 가능성을 보여 주는 ‘井(정)’ 자형 도로망 및 그 위에 남겨진 이른 수레의 흔적, 중심에 자리한 소위 궁성 구역, 그 주변에서 확인되는 제사 유적 및 청동기, 녹송석, 토기, 골기 공방 등의 흔적은 당시 얼리터우 지역을 아우르는 공공 권력을 지닌 지배계층의 존재를 확인시켜 준다. 게다가 제사장이나 수공업장인 등 농업 생산에 종사하지 않는 전문 직업군이 있었을 가능성도 엿볼 수 있다.

공공 권력과 전문 직업군은 당시 얼리터우 사회의 복잡화 정도를 보여 주기 때문에 얼리터우 유적을 청동기시대 중원 지역에서 나타난 가장 이른 정치적·문화적·종교적 중심지, 곧 도성이라 불러도 손색이 없다. 다시 말해 지금까지 발견된 고고 유적으로 놓고 봤을 때 얼리터우 유적을 최초의 중국적인 도성, 곧 ‘최초의 중국’이라 부를 수 있다는 것이다. 얼리터우와 하나라의 관계를 긍정하는 학자는 물론, 이를 부정하는 학자들도 얼리터우를 최초의 중국이라 부르는 것에 대체로 동의하고 있다.<sup>7</sup>

현재까지 이루어진 중국의 연구성과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다. 염제는 문명의 시조이고, 황제는 제왕의 시조이다. 요임금 시기에는 초기 국가 단계에 진입하였으며 ‘중국’이라는 개념이 처음으로 등장하였다. 우임금은 중국 최초의 왕조인 하나라를 건립하였다. 고문헌 기록에 의하면 황제와 염제는 전국시대 기록에 처음 등장하고, 요임금은 춘추시

기 문헌에 등장하고, 우임금은 서주 시기 금문에 등장한다. 의고학파가 지적한 바와 같이 늦은 시기 문헌에 등장하는 전설상의 제왕들이 더 이른 시기 역사적 인물이 되었음을 알 수 있다.

총체적으로 뭔가 자꾸 중복되고, 논리가 맞지 않는 부분이 있는 듯하다. 황제가 제왕의 시조인데 처음 초기 국간 단계에 진입한 것은 요임금 시절이라고 한다. 그리고 그 후대인 우임금이 최초의 중국 왕조인 하나라를 건립하였다고 한다. 황제가 제왕의 시조라면 당연히 황제 시기에 왕조가 건립되어야 하는 것이 아닌가?

그리고 타오쓰 유적과 얼리터우 유적은 모두 “최초의 중국”이라고 한다. 이와 같은 중복현상이 발생한 것은 얼리터우에 대한 연구를 통해 “최초의 중국”이라 명명하였는데, 이보다 앞선 시기 유적인 타오쓰에서 초기 국가 단계에 진입하고 현대 중국인의 조상이라 하는 용문양이 발견되었기 때문이다. 이는 중국 고고학이 지나치게 역사를 중시하는 경향과 관련이 있다. 한마디로 역사의 과잉이다.

염제와 황제는 신화적 성격이 강한 인물이기 때문에 주로 민족허무주의 비판에 동원되었다. 중국 전역에서 염제와 황제 관련 사당이 건립되고, 제의가 거행되어, 중화민족의 조상으로서 염황의 지위는 더욱 굳건해졌다. 그리고 고고 연구를 통해 염황을 역사적 인물로 만들려는 작업도 진행되었으나 긍정적인 성과를 얻었다고 보기 어렵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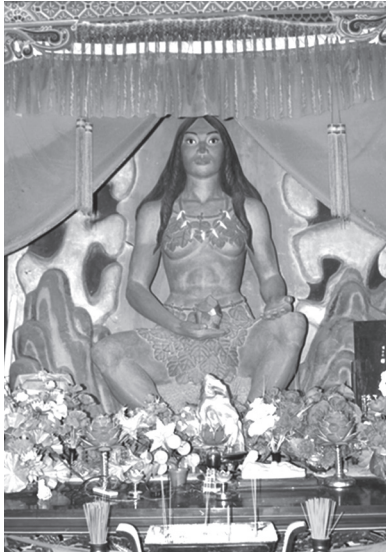
요임금과 우임금은 문헌 기록과 고고 유적이 시간적으로 비교적 근접하기 때문에 주로 역사허무주의를 부정하는 데 활용되었다. 요임금과 우임금 관련 유적들은 초기 국가, 혹은 중국 최초의 국가 성립을 증명한다고 한다. 타오쓰 유적이거나 이리두 유적으로 대표되는 요임금과



<그림 4> 여와사 정문. 정문 옆 벽에 변천도가 그려져 있다.(©김인희)

우임금의 역사화 작업은 일정 정도 성과를 거두었으나 역시 문헌상의 요임금과 우임금이 해당 유적의 실제 주인공이었는지는 아직도 의문으로 남아 있다. 현재 연구성과에 의하면 요임금과 우임금은 실제 제왕으로 인식되기 때문에 대대적으로 대규모의 사당을 짓거나 제의를 거행하지는 않는 것으로 보인다. 물론, 각 지역이 두 임금과의 연고를 주장하고 사당이 우후죽순으로 건립되기는 하였으나 엄황 두 제왕에 비하면 강도가 약하다. 따라서 요임금과 우임금은 민족허무주의보다는 역사허무주의 비판에 주로 활용되었음을 알 수 있다.

중국에서 고대사 만들기에 나선 이들은 학자들뿐만이 아니다. 민간에서는 더 과감히 고대사 만들기가 진행되고 있었다. 필자는 2012년 간쑤성 텐수이시[天水市] 친안현[秦安縣] 룡청진[隴城鎮] 뉘황촌[嫫皇村]에 있는 여와사(女媧祠)를 답사한 적이 있다. 여와사는 명나라 시기 『진안



〈그림 5〉 여와사 안에 모신 여와상(©김인회)



〈그림 6〉 최초의 인류를 만드는 여와의 모습 (©김인회)



〈그림 7〉 28만 년 이래 풍성 10부족(風姓十部族) 변천도(©김인회)

254 중국 애국주의와 고대사 만들기

현지(秦安縣志)』에 기록이 있고, 청나라 때 제사를 지냈다는 기록도 남아 있다. 그러나 문화대혁명 시기 훼손되어 현재의 것은 1989년 새로 만든 것이다.

여와사 정문 옆 벽에는 ‘2.8만 년 이래 풍성 10부족(風姓十部族) 변천도’가 그려져 있는데 AC 2.8만 년부터 AC 1956년까지의 변화가 각종 문양으로 설명되어 있다. AC는 아마도 BC와 AD의 오자로 보인다. 풍씨의 변천사를 설명하는 각종 문양은 중국 각지 신석기문화에서 발견된 문양들이 총집합되어 있었다. 변천도에 의하면 풍(風)씨가 궤(几), 범(凡), 풍(風), 봉(鳳), 숙(夙), 우(雨), 뛴(雷), 먹(幕) 등 10개의 성씨가 되었다고 한다.

## 2. 중국 연구자의 문헌고고방법론에 대한 비판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신화시대 인물을 역사화 하는 방법은 문헌 중의 단편적인 기록을 고고 유적에 대입하여 특정 인물이 실존하였음을 증명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다. 이들 연구는 춘추전국시기 문헌에 등장하는 인물들을 신석기 또는 청동기 고고 유적에 대입하였는데, 문헌 기록과 고고 유적 사이에 존재하는 몇 천 년의 시간 공백은 가볍게 무시되었다. 중국의 연구자들 중에는 위와 같은 방법론으로 새로운 고대사를 개척하려는 경향에 대해 비판을 제기한 바 있다.

허누는 “문헌 고고는 절대로 고고 자료를 이용해 문헌 기록을 증명하는 것이 아니며, 문헌 자료를 절대 국부적 또는 단편적으로 고고 자

료에 대응시켜서는 안 되며, 관련 문헌의 논리적인 관계와 고고 자료의 존재 배경에 대한 총체적인 대응 관계를 살펴야 한다”<sup>8</sup>고 지적하였다.

선창원[沈長雲] 등은 전설시대(오제시대)는 문자가 없었고, 신화, 전설, 고사 등은 후대인이 가공하여 편성한 것으로 의문의 여지가 있기 때문에 당시의 진정한 역사라 할 수 없다며 문헌 자료와 고고학의 결합에 반대했다. 그에 의하면 “문헌고고방법론은 고고 자료에 대한 인식에 적지 않은 문제가 존재한다. 가장 큰 문제는 단순화로, 어떤 고고 문화가 어느 왕조의 문화유적이라 단정을 짓는다. 이러한 연구는 일치하는 내용을 언급하지만 일치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는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고고학과 역사학이 각자 구체적인 연구를 한 후에 결합하는 것이 옳다”<sup>9</sup>고 하였다.

인쉬[殷墟] 발굴을 수년간 지휘했던 탕지건[唐際根]도 “고고 발굴이 왕통(王統)과 관계된 유적과 유물을 찾는 데 주력한다면, 다시 말해 왕통 복원을 목적으로 한다면 고대 유적·유물을 연구 자원으로 삼는 중대한 낭비를 할 수 있다”라고 하였다. 중국역사연구원 고고연구소 천싱찬[陳星燊] 소장은 “고사 전설에 대한 ‘신사’적 태도로, 어떤 이동, 어떤 전쟁, 심지어 어떤 인물, 어떤 고고 문화의 현상, 어떤 성지, 심지어 무덤과 연결하는 것은 근본적으로 중국 선사 고고학의 발전과 중국 선사 역사 증건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역설한 바 있다.<sup>10</sup>

### 3. 중화민족 공동체론과 신시대 고고학

시진핑 정부의 문화정책과 민족정책은 이전의 장쩌민·후진타오 정부와 비교하면 확연한 변화가 있다. 시진핑 주석은 문화정책에 있어 문화 자신(自信)과 문화강국론을 제시하였다. 문화 자신은 중국 전통문화와 공산당의 혁명문화에 대한 자신감을 말한다. 최근 등장한 새로운 견해에 의하면 중국 사회주의 문화의 근원은 중국의 전통문화로 둘은 서로 다른 것이 아니라고 한다. 따라서 전통문화의 창조적 전환을 통해 현대화된 사회주의 문화강국을 2035년까지 건설할 것이라고 한다. 현재 중국에서는 중화주의 색채가 강한 전통문화 열풍이 불고 있다. 학교에서 전통문화 교육을 강화하였을 뿐만 아니라 중화주의 색채가 강한 시가를 전 국민이 낭송하고, 각종 경연대회를 개최하고 있다.

민족정책에도 뚜렷한 변화가 있었다. 2000년대까지 중국의 민족정책의 핵심은 페이샤오통이 제시한 중화민족 다원일체론이었다. 그런데 2011년 중화민족 일체화론이 등장하였다. 후안강[胡鞍鋼]과 후련[胡聯]은 2011년 9월 「제2대 민족정책: 민족의 교류 일체화와 번영의 일체화 촉진[促進民族交融一體和繁榮一體]」을 발표하고 중화민족 일체화를 주장하였다. 후안강은 칭화대학교 교수로 일대일로를 제안한 유명한 학자다. 중화민족 일체화론은 제1대 민족정책인 중화민족 다원일체화론에 이어 등장하였기 때문에 제2대 민족정책이라고도 부른다. 대표적인 학자로는 후안강과 베이징대학교 교수인 마룽[馬戎]이 있다.

후안강은 소수민족의 민족 신분을 없애고 융화하여 중화민족으로 일체화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마룽은 족군이란 용어로 민족을 대신

하고, 공민평등(公民平等)으로 민족 평등을 대신하여 중화민족 공동체를 형성하자고 주장하였다. 두 사람의 주장은 정도의 차이는 있으나 모두 한족 중심으로 중국 내 소수민족을 동화시키자는 것이다.

2014년 중앙민족공작회(中央民族工作會)에서는 기존의 중화민족 일체화론을 대신하여 중화민족 공동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적극적으로 중화민족 공동체 의식을 양성하는 것”을 목표로 설정하였다. 2017년 19대 당 대회 보고문건에서 시진핑 주석은 “중화민족 공동체 의식을 공고히 한다(鑄牢中華民族共同體意識)”라고 하여 중화민족 공동체론은 새로운 민족정책으로 확정되었다. 이후 중국의 민족정책은 위의 당 대회 보고문건 내용을 학습하고 관철하는 방향으로 전개되고 있다.

중화민족 공동체론은 기존의 중화민족 다원일체론과는 확연한 차이가 있다. 중화민족 다원일체론은 현재 중국 내 소수민족은 다양한 기원이 있었으나 하나의 중화민족으로 일체화되었다는 입장이다. 이 이론은 최소한 소수민족이 각기 다른 기원을 가지고 있음을 인정하여, 각 민족의 독자적 역사와 문화를 인정하였다. 그러나 중화민족 공동체론은 각 민족의 독자성을 제거하고 한족으로 동화시키자는 입장이다. 따라서 중화민족 공동체론에 의하면 중화민족은 근대 이후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중국 역사 초창기부터 이미 존재하였다고 한다. 기존에는 문명적 관점에서 화와 이를 구분하였다면 중화민족 공동체론은 화와 이의 구분이 없으며, 다만 문화 발전 정도에 차이가 있을 뿐이라는 것이다. 즉, 모두가 원래부터 중화민족이었다는 것이다. 아마도 역사적 초창기 중화민족이 실존하였음을 증명하는 업무는 고고학이 담당하게 될 것이며, 이러한 움직임은 이미 감지되고 있다.

2020년 9월 28일, 중국공산당 중앙정치국이 「중국 고고학의 최신 발견 성과와 의의[我國考古最新發現及其意義]」라는 주제로 진행된 제23차 집체학습(集體學習)에서 시진핑 주석은 이례적으로 중국 고고학의 방향에 대해 다음과 같이 제시하였다.<sup>11</sup>

“중국 특색·중국 풍격·중국 기백[氣派]이 있는 고고학을 건설하여 고고학이 심오한 중화문명을 더욱 깊이 이해시키고 문화 자신을 높이는 강력한 구심점이 되어야 한다. 고고학은 중화민족의 역사와 중화문명을 구축하고 구현하는 데 매우 중요한 의미가 있다. 고고학은 중화문명의 찬란한 성과와 인류문명에 대한 중화문명의 공헌을 이해하고, 민족 단결력과 민족 자부심을 높이는 데 역할을 해야 한다.”

시진핑 주석은 중국 특색·중국 기백이 있는 고고학을 건설하여 문화 자신을 높이고, 중화문명이 세계문명에 공헌했음을 증명할 것을 요구하였다. 따라서 중국 고고학은 이 요구를 관철하기 위해 고대사 만들기에 더욱 박차를 가할 것으로 보인다.



◆  
부록

김인희 · 배현준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 1. 신농, 염제, 염제신농 관련 주요 문헌 자료와 번역

### 1) 전국시기

包犧氏沒, 神農氏作, 斫木爲耜, 揉木爲耒. 耒耨之利以教天下, 蓋取諸益.

포희씨가 죽자 신농씨가 나와서 나무를 베어 보습을 만들고, 나무를 구부러 쟁기를 만들었다. 쟁기로 밭을 매는 이익을 세상 사람들에게 알려주어 여러 이익을 취하게 하였다.

—『周易』「繫辭下傳」

神農教耕生穀, 以致民利.

신농은 백성들에게 밭을 갈고 곡식을 기르는 것을 가르쳐 백성들에게 이익을 얻게 하였다.

—『管子』「形勢」

神農作, 樹五谷淇山之陽, 九州之民乃知穀食, 而天下化之.

신농씨가 있을 때 기산 남쪽에 오곡을 심었는데, 구주의 백성들이 이로부터 곡식 먹는 법을 알게 되었으며, 이로 인해 천하가 그에 순종하였다.

—『管子』「輕重戊」

古者民不知衣服, 夏多積薪, 冬則煬之, 故命之曰知生之民. 神農之

世, 臥則居居, 起則于于. 民知其母, 不知其父, 與麋鹿共處. 耕而食, 織而衣, 無有相害之心, 此至德之隆也.

옛날 백성들은 옷 입을 줄을 알지 못하여 여름에 땀나뭇을 많이 쌓아놓고, 겨울이면 그것으로 불을 땀으므로, 그들을 일컬어 살 줄 아는 백성이라고 하였다. 신농 때는 누우면 편안하고, 일어서면 스스로 즐거워하였다. 백성들이 그 어머니만을 알고 아버지를 몰랐으며, 사슴들과 함께 살았다. 밭을 일구어 음식을 먹고, 베를 짜서 옷을 해 입었다. 서로 해치는 마음을 갖지 않았으니, 이야말로 지극한 덕이 가장성한 것이다.

—『莊子』「盜跖」

昔少典娶于有嬌氏, 生黃帝炎帝. 黃帝以姬水…成, 炎帝以姜水…成. 成而異德, 故黃帝爲姬, 炎帝爲姜. 二帝用師以相濟也, 異德之故也.

옛날 소전씨가 유교씨를 아내로 맞이하여 황제와 염제를 낳았다. 황제는 희수에 의지하여 나라를 이루었고, 염제는 강수에 의지하여 나라를 이루었다. 나라를 이룬 뒤 덕성이 서로 달랐으므로 황제는 희성이 되었고, 염제는 강성이 되었다. 두 제가 군사를 써서 서로 다툰 것은 덕성이 다르기 때문이었다.

—『國語』「普語」

黃帝與炎帝戰于阪泉之野, 帥熊, 羆, 狼, 豹, 羆, 虎爲前驅, 雕, 鷂, 鷹, 鳶爲旗幟.

황제와 염제는 관천의 들에서 싸웠는데, 곰, 큰곰, 이리, 표범, 맹수,

호랑이 등을 앞에 내세우고, 독수리, 활단새, 매, 소리개 등을 기치로 삼았다.

—『列子』「黃帝」

『神農之教』曰, “土有當年而不耕者, 則天下或受其飢矣. 女有當年而不績者, 則天下或受其寒矣.” 故身親耕, 妻親織, 所以見致民利也.

『신농지교』라는 책에서 이르기를, “사내 가운데 성년이 되었음에도 밭을 매지 않으면 세상에 굶주리는 사람이 있을 것이다. 계집이 되어 성년이 되었음에도 길쌈을 하지 않으면 세상에 추워하는 사람이 있을 것이다”라고 하였다. 그러므로 신농은 친히 경작을 하고, 그의 부인은 친히 길쌈을 하였으니, 백성들에게 이익을 주려고 힘쓰는 것을 보여 주었다.

—『呂氏春秋』「爰類」

兵所自來者久矣, 黃炎故用水火矣.

전쟁의 기원은 오래되었으니, 황제와 염제는 이미 물과 불을 사용하여 서로 싸웠다.

—『呂氏春秋』「蕩兵」

孟夏之月, 日在畢, 昏翼中, 旦婺女中. 其日丙丁, 其帝炎帝, 其神祝融.

맹하인 음력 4월에는 해가 필 자리를 지나고, 황혼에는 익성이, 새벽에는 무녀성이 각각 남쪽 하늘에 남중하는 것을 볼 수 있다. 여름의 날짜는 열 개의 천간 가운데 병과 정에 해당한다. 이때의 주재자는 염

제이고, 신의 이름은 축융이다.

—『呂氏春秋』「孟夏紀」

神農和葯濟人.

신농은 약을 조화시켜 사람들을 구하였다.

—『世本』「作篇」

神農作琴. 神農氏琴長三尺六寸六分, 上有五弦, 曰宮, 商, 角, 徵, 羽.  
文王增二弦, 曰小宮, 商. 神農作瑟.

신농은 거문고를 만들었다. 신농씨의 거문고는 길이가 삼척 육촌 육  
분이며, 위에 다섯 줄이 있으니 궁·상·각·치·우라고 하였다. 문왕이  
두 줄을 더하여 소궁·상이라고 하였다. 신농은 큰 거문고도 만들었다.

—『世本』「作篇」

神農樂曰扶持.

신농의 음악을 부지라고 한다.

—『世本』「帝系篇」

炎帝神農氏, 宋仲子曰, 炎帝即神農氏. 炎帝身號, 神農代號也.

염제신농씨에 대해 송중자가 이르기를, 염제는 신농씨이다. 염제는  
신호이고, 신농은 대호이다.

—『世本』「帝系篇」

## 2) 서한시기

古者民茹草飲水…，采樹木之實，食羸虵之肉，時多疾病毒傷之害。于是神農乃始教民播種五谷，相土地宜燥濕肥撓高下，嘗百草之滋味，水…泉之甘苦，令民知所辟就。當此之時，一日而遇七十毒。

옛날에는 백성들이 풀을 뜯어 먹고, 물을 마시며, 나무 열매를 따서 먹고, 조갯살을 먹어서 때때로 질병을 앓고, 독으로 몸이 상하는 해를 자주 입었다. 이에 신농이 백성들에게 오곡 파종하는 것을 처음으로 가르치고, 토지의 좋고 나쁨·건습·비요·고하를 헤아리게 하였으며, 온갖 종류의 풀 맛과 샘물의 감미로움을 맛보게 하였고, 피하고 나아갈 곳을 알게 하였다. 이때 하루에 70번의 독을 맛보게 되었다.

—『淮南子』「修務訓」

昔者神農之治天下也，神不馳于胸中，智不出于四域，懷其仁誠之心，甘雨時降，五谷蕃植。春生夏長，秋收冬藏。月省時考，歲終獻功，以時嘗谷，祀于明堂。明堂之制，有蓋而無四方。風雨不能襲，寒暑不能傷。遷延而入之，養民以公。其民朴重端慤，不忿爭而財足，不勞形而功成，因天地之資，而與之和同。是故威厲而不殺，刑錯而不用，法省而不煩，故其化如神。其地南至交阯，北至幽都，東至暘谷，西至三危，莫不聽從。當此之時，法寬刑緩，囹圄空虛，而天下一俗，莫懷奸心。

옛날 신농씨가 천하를 다스렸는데, 정신은 흥중에서 뛰어다니지 않으니 안정되어서 함부로 동요되지 아니하고, 지혜는 사역을 벗어나지 아니하고 마음속에 깃들어 있어 어질고 성실한 마음을 보유하고 있었

다. 그리하여 단비가 제 때에 와서 오곡이 무르익고, 봄에는 싹이 트고, 여름에는 자라며, 가을에는 거두고, 겨울에는 저장하여, 다달이 살피고 계절마다 고찰하며, 연말에는 그 공을 바쳐 제 때에 햇곡식을 맛보게 하고, 명당에 제사 지냈다. 명당의 제도는 지붕은 있으나 사면의 벽이 없어도 비바람이 들이칠 수가 없고, 더위와 추위도 상하게 할 수가 없었다. 신농은 유유자적하게 거닐면서 이곳으로 들어가 백성들을 공평하게 양육하였으므로, 그 백성들이 소박·중후·단정·성실해서 분쟁하지 않으면서도 재화가 풍족하고, 형체를 수고롭게 하지 않으면서 공을 이루며, 천지의 자질에 따라서 이와 화동했었다. 그러므로 위력은 엄하면서도 죽이는 일이 없고, 형벌은 제정해놓고도 이용하지 않으며, 법은 줄이어 번잡하지 않았으므로, 그 교화가 신과 같았다. 그래서 그의 땅은 남으로 교지에 이르고, 북으로 유도에 이르며, 동으로 양곡에 이르고, 서로 삼위산에 이르기까지 복종하지 않는 곳이 없었다. 이때에는 법이 너그럽고, 형벌이 관대하여, 감옥이 비고, 풍속이 한결같이 간사한 마음을 품지 않았다.

—『淮南子』「主術訓」

故炎帝于火, 死而爲灶.

그러므로 염제는 화의 덕으로 제가 되었으며, 죽어서 부뚜막신이 되었다.

—『淮南子』「汜論訓」

炎帝者, 黃帝同父母弟也, 各有天下之半. 黃帝行道而炎帝不聽, 故

戰涿鹿之野, 血流標杵.

염제는 황제와 부모가 같은 동생으로서 각각 천하의 반을 가지고 있었다. 황제는 (제왕의) 도를 행하였으나 염제가 따르지 아니하였기에 탁록 들판에서 싸워 피가 흘러 강이 되어 절구공이가 떠다닐 정도였다.

—『新書』「制不定」

軒轅之時, 神農氏世衰. 諸侯相侵伐, 暴虐百姓, 而神農氏弗能征. 於是軒轅乃習用干戈, 以征不享, 諸侯咸來賓從. 而蚩尤最爲暴, 莫能伐. 炎帝欲侵陵諸侯, 諸侯咸歸軒轅. 軒轅乃修德振兵, 治五氣, 蓺五種, 撫萬民, 度四方, 教熊羆貔貅猛虎, 以與炎帝戰於阪泉之野. 三戰, 然後得其志.

현원 때는 신농씨(神農氏)가 쇠약해져 제후들이 서로 침략·정벌하고, 백성들에게 포악하게 굴었으나 신농씨는 정벌할 수 없었다. 이에 현원은 창과 방패 사용법을 익혀서 조공하지 않는 제후들을 정벌하니, 모두가 신하로 복종했다. 그러나 포악한 치우(蚩尤)는 토벌할 수가 없었다. 염제(炎帝)가 제후들을 치려고 하자 제후들이 모두 현원에게 귀의했다. 현원은 덕을 닦고 군대를 정비하였다. 다섯 가지 오행(五行)의 기운을 다스리고, 다섯 가지 곡식을 심는 등 만민을 어루만졌다. 사방의 경계를 조사하고 측량했다. 곰, 호랑이, 범 등 맹수들을 훈련하여 판천(阪泉) 들에서 염제와 세 번 싸운 끝에 뜻을 이루었다.

—『史記索隱』「三皇本紀」

秦靈公作吳陽上時, 祭黃帝, 作下時, 祭炎帝.

진나라 영공은 오양에 상치를 설치하여 황제에게 제사를 지냈고, 하치를 설치하여 염제에게 제사를 지냈다.

—『史記』「封禪書」

神農封泰山, 禪云云. 炎帝封泰山, 禪云云. 黃帝封泰山, 禪亭亭.

신농은 태산에서 봉제를 지내고 운운산에서 선제를 지냈으며, 염제는 태산에서 봉제를 지내고 운운산에서 선제를 지냈으며, 황제는 태산에서 봉제를 지내고 정정산에서 선제를 지냈다.

—『史記』「封禪書」

### 3) 동한 이후

神農以赭鞭鞭百草, 盡知其平毒寒溫之性, 臭味所主, 以播百谷. 故天下號神農也.

신농은 붉은 흙으로 된 채찍으로 백초를 채찍질하여 그 평독한온의 성질, 냄새와 맛을 모두 알고 백곡을 파종하였다. 그러므로 세상 사람들이 신농이라고 불렀다.

—『搜神記』卷一

時爲夏, 夏之言大也. 位在南方, 其色赤, 其音徵. 徵, 止也. 陽度極也. 其帝炎帝者, 太陽也. 其神祝融. 祝融者, 屬續, 其精爲鳥, 離爲鸞.

때는 여름이고, 여름의 말은 크다. 위치는 남방에 있고, 그 색은 붉으며, 그 음은 치이다. 치는 그친다는 것이다. 양이 극에 이르렀다. 그 제

는 염제이며, 태양이다. 그 신은 축융이다. 축융이라는 것은 속에 속하며, 그 정은 새이고, 떠나면 난새가 된다.

—『白虎通』「五行」

炎帝神農氏, 姜姓. 母曰女登, 有媧氏之女, 爲少典妃, 感神龍而生炎帝, 人身牛首. 長于姜水…, 因以爲姓. 火德王, 故曰炎帝, 以火名官. 斫木爲耜, 揉木爲耒. 耒耨之用, 以教萬人. 始教耕, 故號神農氏. 于是作蜡祭, 以赭鞭鞭草木, 始嘗百草, 始有醫葯. 又作五弦之瑟, 教人日中爲市, 交易而退, 各得其所.

염제 신농씨는 강성이다. 어머니는 여등이라고 하며, 유교씨의 딸로 소전의 부인이며, 신룡에게 감응하여 염제를 낳았는데 사람의 몸에 소의 머리였다. 강수에서 자라났기에 그것으로 성을 삼았다. 화덕으로 왕이 되었기에 염제라고 하였으며, 화로 관직의 이름을 삼았다. 나무를 베어 보습을 만들었으며, 나무를 구부려 쟁기를 만들었다. 쟁기로 김매는 법을 사람들에게 가르쳤다. 처음으로 농사를 가르쳤으므로 신농씨라고 불렀다. 이에 납제사를 지냈으며, 붉은 채찍으로 초목을 채찍질하여 처음으로 온갖 풀을 맛보았으니, 처음으로 의약이 있게 되었다. 또 오현의 거문고를 만들었으며, 사람들에게 해가 중천에 있을 때 시장을 열게 하여 교역을 하고 물러나게 하였으니 각자 그 맡은 바를 얻게 되었다.

—『史記』「補三皇本記」

炎帝神農氏長于姜水…, 始教天下耕種五穀而食之, 以省殺生. 嘗味

草木, 宣葯療疾, 救夭傷之命, 百姓日用而不知. 著『本草』四卷.

염제신농씨는 강수에서 자라났으며, 처음으로 천하에 오곡을 뿌리고 기르는 법을 가르쳐 그것을 먹게 하여 살생을 줄였다. 초목의 맛을 보아 약으로 질병을 치료하는 것을 퍼뜨려 한창때에 생명을 상하는 것을 구하였으나 백성들은 날마다 사용하면서도 알지 못하였다. 『本草』 네 권을 지었다.

— 『太平御覽』 卷七二一引 『帝王世紀』

## 2. 황제 관련 고문헌 자료와 번역(춘추시대~한나라)

### 1) 춘추시기

惟呂命, 王享國百年, 耄, 荒度作刑, 以詰四方. 王曰, 若古有訓, 蚩尤惟始作亂, 延及于平民. 罔不寇賊, 鴟義, 奸宄, 奪攘, 矯虔. 苗民弗用靈, 制以刑, 惟作五虐之刑曰法. 殺戮無辜. 爰始淫爲劓刵椽鯨, 越茲麗刑, 并制, 罔差有辭. 民興胥漸, 泯泯棼棼, 罔中於信, 以覆詛盟. 虐威庶戮, 方告無辜於上. 上帝監民, 罔有馨香德, 刑發聞惟腥. 皇帝哀矜庶戮之不辜, 報虐以威, 遏絕苗民, 無世在下. 乃命重黎, 絕地天通, 罔有降格. 群后之逮在下, 明明棗常, 鰥寡無蓋. 皇帝清問下民, 鰥寡有辭于苗. 德威惟畏, 德明惟明. 乃命三后, 恤功于民. 伯夷降典, 折民惟刑. 禹平水土, 主名山川. 稷降播種, 農殖嘉穀. 三后成功, 惟殷于民. 土制百姓于刑之中, 以教祗德. 穆穆在上, 明明在下, 灼于四方, 罔不惟德之

부록 271

勤. 故乃明于刑之中, 率乂於民棊彝. 典獄非訖于威, 惟訖于富. 敬忌, 罔有擇言在身. 惟克天德, 自作元命, 配享在下. 王曰, 嗟, 四方司政典獄, 非爾惟作天牧? 今爾何監, 非時伯夷播刑之迪? 其今爾何懲? 惟時苗民, 匪察于獄之麗. 罔擇吉人, 觀于五刑之中. 惟時庶威奪貨, 斷制五刑, 以亂無辜. 上帝不蠲, 降咎于苗. 苗民無辭于罰, 乃絕厥世.

목왕은 여후에게 명령하였다. 목왕은 왕위에 올라 국가를 경영한 지 100년이 되어 노쇠하였으나 속형을 만들어 천하를 다스리고자 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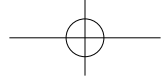
왕은 고대로부터 다음과 같은 유훈이 있었음을 말하였다. 치우가 세상을 어지럽히기 시작하였는데 그 피해가 백성들에게까지 이르러 도적이 없는 곳이 없고, 타고난 양심을 상실하였으며, 법을 어기고 난을 일으키고, 강제로 훔치고 약탈하였다. 치우와 묘민은 선도(善道)를 행하지 않고<sup>2</sup> 오직 중형인 오학지형만 옳다고 하였다. 치우는 코를 자르고, 발꿈치를 자르고, 생식기를 자르고, 문신을 하는 형벌을 실행하고, 제도와 법을 폐지하고, 무고한 사람들의 죄를 감면해 주지 않았다.

묘민은 점점 속이고 쉴 새 없이 난을 일으켰는데, 믿음에 부합하는 것이 없었으며, 맹약을 저버렸다. 잔혹한 형벌을 받은 사람들은 모두 상제에게 자신의 무고함을 알렸다. 상제가 묘민을 조사하니 향기로운 미덕이 없고, 형벌로 인한 피비린내뿐이었다. 皇帝는 죽임을 당한 죄가 없는 사람들을 가련하게 생각하여, 위력으로 형벌을 실행한 사람들에게 벌을 내리고, 묘민을 멸절시켜 그들의 후세가 세상에 남지 않게 되었다. 또 중(重)과 려(黎) 두 사람에게 명령하여 인간과 하늘이 교통하는 것을 단절하여 천신이 다시는 강림하지 않게 되었다. 이후 여

러 후(后)가 계승하였는데, 올바른 도리로 세상을 다스려 의지할 데 없고, 호소할 곳이 없는 사람도 해를 당하는 일이 없게 되었다. 皇帝가 백성들의 어려움을 알아보니 의지할 데 없는 사람들이 모두 묘민을 원망하여 묘민의 덕을 고쳐 위엄을 보이니 묘민이 두려워 복종하고, 어진 이가 덕을 밝히니 덕을 깨닫게 되었다.

皇帝는 세 명의 후(后)에게 명령하여 백성들을 신중하게 다스리도록 하였다. 백이(伯夷)는 법전을 반포하였으며, 백성들의 일은 형법에 따라 판단하였다. 대우(大禹)는 물과 땅을 평정하였고, 명산대천에 대한 치수를 담당하였다. 후직(后稷)은 백성들에게 파종을 하는 것을 가르쳐 농민들이 좋은 곡식을 심도록 하였다. 세 명의 후가 성공을 한 후에 백성들은 충직하고 성실하게 되었다. 형벌을 집행하는 이들은 공정한 형벌로 범인들을 판결하였고, 이로써 백성들이 덕행을 중시하도록 가르쳤다. 다스리는 이들은 온화하고 아름다웠으며, 아래로 관원과 백성들은 모두 매우 분발하고 노력하였다. 공적이 천하에 뚜렷하게 드러났으며, 아름다운 덕을 열심히 지키지 않는 사람이 없었다. 그들은 형벌을 공평하게 시행하였고, 법을 지키지 않는 백성들을 법으로써 다스렸다. 심판하는 최종 목적은 백성들에게 벌을 주기 위한 것이 아니라 백성들이 행복하게 하는 것이다. 천명을 받들고, 합리적이지 않은 말은 스스로 하지 않았다. 하늘의 뜻을 받들며 인간 세상에서 제위를 향유하였다.

목왕은 말하였다. 아! 너희들은 사방을 다스리는 관리이고 형벌을 주관하는 관원들이다. 너희들은 하늘을 대신하여 백성들을 다스리고 있지 않느냐? 현재 너희들은 무엇을 본받고 있느냐? 백이로부터 전



해 내려온 형벌의 도리가 아니란 말이나? 너희들은 현재 무엇으로 징벌을 하는 것이냐? 묘민은 안건을 자세히 살피지 않고, 선량한 사람을 가리지 않았으니, 그들로 하여금 다섯 가지 가혹한 형벌이 적당한가를 자세히 살피게 해야 한다. 그들은 오직 폭력적이고, 재물을 빼앗는 사람을 임용하여 엄격한 다섯 가지 형벌로 사건을 심판하여 죄가 없는 사람들을 혼란시켰다. 상제는 다시 묘민을 사면하지 않고 묘민에게 재앙을 내렸다. 묘민은 징벌을 받는 것에 대해 입이 있으나 할 말이 없었으며, 후대는 멸절되었다.

—『尙書·周書』「呂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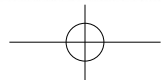
曰：蚩尤比之，述(隤)王魚觸(鼎). 曰：欽伐(戡)，出旅(游)水虫! 下民無智(知)，參蚩蚩(尤)命，帛(迫)命入欲(羹)，裕(滑)入粉(滑)出，毋處其所.

치우의 손가락이 왕의 어정(魚鼎)에 빠졌다. 왕은 말하기를 “경계하여라, 나와서 돌아다니는 물뱀아, 무식한 백성아, 치우의 운명을 보아라. 박명하여 어정에 빠져 뜨거운 탕 속에서 이리저리 미끄러지니 살아날 길이 없다.

—山西省 渾源 출토 魚鼎匕 상의 금문

曰：征(誕)又(有)氏(氏—是)蚩(昆)尸(夷)，述(遂)王魚顛(顛). 曰：欽戡(戡)! 出旅(游)水虫，下民無智(智—知)，參(參—三)目人之蠱(蚩)蚩(尤)命，帛(薄)命入歎(羹)，藉(柔)入藉(柔)出，毋(毋)處其(其)所.

곤이(昆夷)라는 사람이 왕에게 물고기 머리를 바쳤다. 왕은 훈계하여 말하기를 “경계하여라! 너처럼 사망으로 헤엄쳐 돌아다니는 물속



의 것들은 죽임을 당하는 것으로 백성들은 삼묘(三苗)의 수령인 치우의 운명을 알지 못하는데 박명한 물고기 머리가 탕 속에서 이리저리 미끌어지면서 물에 줄여지는 것과 같은 처지가 되지 말아라.”

— 吳鎮烽 제공 魚鼎匕

## 2) 전국시기

黃帝問于伯高曰, 吾欲陶天下而以爲一家, 爲之有道乎? 伯高對曰, 請刈其莞而樹之, 吾謹逃其蚤牙, 則天下可陶而爲一家. 黃帝曰, 此若言可得聞乎? 伯高對曰, 上有丹砂者下有黃金, 上有慈石者下有銅金, 上有陵石者下有鉛錫赤銅, 上有赭者下有鐵, 此山之見榮者也. 苟山之見其榮者, 君謹封而祭之. 距封十里而爲一壇, 是則使乘者下行, 行者趨. 若犯令者, 罪死不赦. 然則與折取之遠矣. 修數教十年. 葛盧之山發而出水, 金從之, 蚩尤受而制之, 以爲劍鎧矛戟, 是歲相兼者諸侯九. 雍狐之山發而出水, 金從之, 蚩尤受而制之, 以爲雍狐之戟, 丙戈, 是歲相兼者諸侯十二. 故天下之君頓戟一怒, 伏尸滿野. 此見戈之本也.

이전에 황제는 백고(伯高)에게 질문한 적이 있다. “나는 천하를 하나의 가정으로 만들고 싶은데 방법이 있겠는가?” 백고가 대답하였다. “각지의 광산에 있는 잡초를 제거하여 광산이 국가의 소유임을 확실히 하고, 각지의 무장세력을 제거하면 천하가 하나의 집안이 될 것입니다.” 황제는 “이 도리를 좀 더 자세히 말해 보아라”라고 말하였다. 백고는 대답하였다. “산의 표면에 단사가 있으면 아래에 금광이 있고, 표면에 자석(慈石)이 있으면 아래에 구리광산이 있으며, 표면에 능석(陵

石)이 있으면 아래에 납·주석·붉은 구리가 있고, 표면에 적토(赤土)가 있으면 철광산이 있으니 이는 모두 산상에 광산자원의 일부가 보이는 것입니다. 만약 광산자원을 발견하면 왕은 마땅히 산을 봉쇄하고 제사를 거행해야 합니다. 봉산(封山)을 한 곳의 10리 되는 곳에 제단을 설치하고, 마차를 타고 간 이들은 모두 이곳에서 하차하여 빠른 걸음으로 걸어 도착해야 합니다. 명령을 어긴 자는 죽음으로도 죄를 면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할 때 사람들이 사사로이 채광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황제는 이 명령을 10년째 되는 해에 실행하였습니다. 갈로산(葛盧山)에 홍수가 난 후 금속과 광석이 노출되었는데 뜻밖에 치우가 이것을 관리하여 검, 갑옷, 창, 극(戟) 등의 무기를 만들었으며, 이 해에 제후 아홉을 겸병하였습니다. 옹호산(雍狐山)을 파면 물이 나오는데 치우는 그곳에서 금속물을 얻어 옹호극(雍狐戟)과 날카로운 창을 만들었으며, 이 해에 제후 열둘을 겸병하였습니다. 따라서 천하의 왕들은 크게 노하였으며, 많은 사람이 죽는 상황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처럼 광산권이 분산되면 큰 전쟁의 기원이 됩니다.”

—『管子·地數』

昔者黃帝得蚩尤而明于天道，得大常而察于地利，得奢龍而辯于東方，得祝融而辯于南方，得大封而辯于西方，得后土而辯于北方。黃帝得六相而天地治，神明至。蚩尤明乎天道，故使爲當時。

옛날 황제(黃帝)는 치우를 얻어 천도(天道)를 명확히 했고, 대상(大常)을 얻어 땅의 이치를 살폈으며, 사룡(奢龍)을 얻어 동방을 구분하였으며, 축융을 얻어 남방을 구분하였으며, 대봉(大封)을 얻어 서방을 구분

하였으며, 후토를 얻어 북방을 구분하였다. 황제는 여섯 명의 재상을 얻어 하늘과 땅을 다스렸고, 신명(神明)이 극에 달하였다. 치우는 천도(天道)에 밝아 시간을 장관하였다.

—『管子·五行』

神農之世, 臥則居居, 起則于于. 民知其母, 不知其父. 與麋鹿共處, 耕而食, 織而衣, 無有相害之心, 此至德之隆也. 然而黃帝不能致德, 與蚩尤戰于涿鹿之野, 流血百里.

신농 시기에 이르러 거처는 안정되고 편안해졌다. 사람들은 어머니를 알았으나 아버지는 알지 못하였다. 미록(糜鹿)과 함께 생활하였으며, 스스로 농사를 지어 먹고, 스스로 옷을 짜서 입었으며, 다른 사람을 해롭게 할 마음이 없었는데 이 시기가 바로 도덕이 가장 번성한 시기다. 그러나 황제에 이르러 이러한 덕행을 갖지 못하게 되었으며, 치우와 탁록의 들에서 전쟁을 하였는데 피가 백 리를 흘렸다.

—『莊子·盜跖』

蚩尤作兵伐黃帝, 黃帝乃令應龍改之冀州之野, 應龍蓄水, 蚩尤請風伯, 雨師, 從大風雨. 黃帝乃下天女曰魃, 雨止, 遂殺蚩尤.

치우가 무기를 만들어 황제를 공격하자 황제는 응룡(應龍)에게 명령하여 기주(冀州)의 들에서 다시 그를 공격하게 하였다. 응룡이 모아둔 물을 치우는 풍백과 우사에게 청하여 큰바람과 비가 쏟아지게 하였다. 황제는 마침내 천녀인 발(魃)을 불러 비를 그치게 하였고, 치우를 죽였다.

—『山海經·大荒東經』

부록 277



應龍處南極，殺蚩尤與夸父，不得復上。古下數旱，旱而爲應龍之狀，乃得大雨。

응룡(應龍)은 남쪽 끝에 사는데 치우와 과부(夸父)를 죽이고 하늘로 올라가지 못하였다. 그래서 농작물을 심을 때 오랫동안 기뭇이 들면 응룡 모양을 만들면 마침내 큰비가 온다.

—『山海經·大荒東經』

黃帝斬蚩尤于中冀。

황제는 치우를 중기(中冀)에서 처형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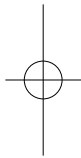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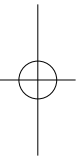
—『屍子』卷下

昔者黃帝合鬼神于泰山之上，駕象車而六蛟龍，畢方竝鍤，蚩尤居前，風伯進掃，雨師洒道，虎狼在前，鬼神在後，騰蛇伏地，鳳凰覆上，大合鬼神，作爲清角。

예전에 황제가 귀신을 태산(泰山) 꼭대기에 모았는데, 6마리의 교룡(蛟龍)이 상아차(象牙車)를 끌고, 필방(畢方)이 마차의 양쪽에서 호위하며, 치우가 앞에서 길을 열었고, 풍백(風伯)이 앞쪽에서 먼지를 쓸었으며, 우사(雨師)가 길을 깨끗이 하였으며, 호랑이가 앞에 있고, 귀신은 뒤에 있으며, 등사(騰蛇)는 땅속에 있고, 봉황은 하늘에서 날았다. 대규 모로 귀신을 모았는데, 이로써 청각(淸角)이라는 악곡을 만들어졌다.

—『韓非子·十過』

維四年孟夏，王初祈禱于宗廟，乃嘗麥于太祖。… 昔天之初，□作二



后, 乃設建典, 命赤帝分正二卿. 命蚩尤于宇, 少昊以臨四方, 司□□上天未成之慶. 蚩尤乃逐帝, 争于涿鹿之阿, 九隅無遺. 赤帝大懼, 乃說于黃帝. 執蚩尤, 殺之于中冀.<sup>3</sup>

맹하(孟夏) 4월 주나라 성왕(成王)은 처음으로 종묘에서 제사를 지내고 태조(太祖) 문왕(文王)에게 새로 거둔 보리를 바쳤다. … 이전에 하늘이 염제와 황제를 양성해 낼 때 법전을 제정하였다. 염제에게 명령하여 두 명의 경사(卿士)인 치우와 소호를 나누어 관리하게 하였다. 그래서 염제는 치우에게 명령하여 주변을 수호하게 하고, 소호에게 더 먼 곳을 관리하게 하였으며, 천제가 아직 완성하지 못한 포상을 주재하게 하였다. 그러나 치우는 도리어 염제를 추격하여 탁록산 아래에서 전쟁을 벌였는데 싸우는 소리가 여러 산자락에 모두 전해졌다. 염제는 매우 두려워하여 황제에게 도움을 청하였다. 황제는 치우를 중기(中冀)에서 잡아 죽였다.

—『逸周書·嘗麥解』

黃帝以姬水成, 炎帝以姜水成, 成而异德, 故黃帝爲姬, 炎帝爲姜.

황제는 희수에서 성장하였고 염제는 강수에서 성장하여, 서로 다른 덕을 이루었음으로 황제는 희로 성을 삼고 염제는 강으로 성씨를 삼았다.

—『國語·晉語』

使卜偃卜之, 曰吉. 遇黃帝戰于阪泉之兆.

복언에게 점복을 하게 하니 “대길합니다. 황제가 관천에서 전쟁을

할 예조가 보입니다”라고 말하였다.

—『左傳·僖公』

黃帝能成命百物，以明民共財。…故有虞氏禘黃帝而祖顓頊，郊堯而宗舜。夏后氏禘黃帝而祖顓頊，郊鯀而宗禹。商人禘舜而祖契，郊冥而宗湯。周人禘嚳而郊稷，祖文王而宗武王。

황제는 각종 사물의 이름을 명명하고 백성들이 사물의 이름을 알게 하였다.… 그래서 유우씨는 황제에게 체제를 지내고 전욱에게 조제를 지냈으며 요에게 교제를 지내고 순에게 종제를 지냈다. 하후씨는 황제에게 체제를 지내고, 전욱에게 조제를 지냈으며 곤에게 교제를 지내고 우에게 종제를 지냈다. 상나라 사람은 제곡에게 체제를 지내고 설에게 조제를 지내고 명에게 교제를 지내고 탕에게 종제를 지냈다. 주나라 사람은 제곡에게 체제를 지내고, 후직에게 교제를 지냈으며 문왕에게 조제를 지내고 무왕에게 종제를 지냈다.

—『國語·魯語』

### 3) 한나라

軒轅之時，神農氏世衰，諸侯相侵伐，暴虐百姓。而神農氏弗能征。於是軒轅乃習用干戈，以征不享。諸侯咸來賓從。而蚩尤最爲暴，莫能伐。炎帝欲侵陵諸侯，諸侯咸歸軒轅。軒轅乃修德振兵，治五氣，藝五種，撫萬民，度四方。教熊羆貔貅猛虎以與炎帝戰於阪泉之野，三戰，然後得其志。蚩尤作亂，不用帝命，於是黃帝乃徵師諸侯，與蚩尤戰于涿鹿之

野, 遂禽殺蚩尤, 而諸侯咸尊軒轅爲天子, 代神農氏, 是爲黃帝. 天下有不順者, 黃帝從而征之, 平者去之, 披山通道, 未嘗宇居. 東于海, 登丸山, 及岱宗. 西至于空桐, 登鷄頭. 南至于江, 登熊湘. 北逐葷粥, 合符釜山, 而邑于涿鹿之阿. … 太史公曰: 學者多稱五帝, 尙矣. 然尙書獨載堯以來. 而百家言黃帝, 其文不雅馴, 薦紳先生難言之. 孔子所傳宰予問五帝德及帝繫姓, 儒者或不傳. 余嘗西至空桐, 北過涿鹿, 東漸於海, 南浮江淮矣. 至長老皆各往往稱黃帝堯舜之處, 風教固殊焉. 總之不離古文者近是. 予觀春秋國語, 其發明五帝德, 帝繫姓章. 顧弟弗深考, 其所表見皆不虛. 書缺有聞矣, 其軼乃時時見於他說. 非好學深思, 心知其意, 固難爲淺見寡聞道也. 余并論次, 擇其言尤雅者, 故著爲本紀書首.

현원씨 시절에 신농씨 국가의 운명은 쇠락하여 제후들 간에 서로 정벌하고 백성들을 폭력으로 학대하였으나 신농씨는 제후들을 정벌할 수 없었다. 그래서 현원씨는 여러 차례 무력을 이용해 정벌하였으나 복종시키지 못하였다. 제후들은 조공을 바치지 않고 복종하지도 않았다. 치우가 가장 폭력적이었으나 정벌할 수 없었다. 염제는 제후들을 침범하여 모욕하고 싶었으나 제후들은 모두 현원씨에게 복종하였다. 현원씨는 덕행을 수양하고, 군사력을 강화하고, 오행의 기를 다스리고, 오곡을 심고, 백성들을 어루만졌으며, 세상을 규범화하였다. 곰, 큰곰, 족제비, 비휴, 구름표범, 호랑이 등을 훈련하여 염제와 판천 교외에서 전쟁을 벌였는데 여러 차례 전쟁을 한 끝에 승리를 거두었다. 치우가 난을 일으켜 황제의 명령을 듣지 않아 현원씨는 제후를 징벌하여 탁록 교외에서 치우와 싸웠는데 결국 치우를 죽였으며, 제후는 모두 현원씨를 천자로 모셨으며, 신농씨를 대신하여 황제(黃帝)라 칭하

였다. 천하에 귀순하지 않은 곳을 황제는 정벌하여 평정하였고, 산을 허물고 길을 열었으며, 편안하게 쉬지 않았다. 황제는 동으로 바다에 이르렀으며, 환산(丸山)과 태산(泰山)에 올랐다. 서로는 공동(空桐)을 지나 계두산(鷄頭山)에 올랐다. 남으로는 창강[長江]에 도달하였으며, 웅산(熊山)과 상산(湘山)에 올랐다. 북으로는 훈죽(葷粥)을 추격하여 부산(釜山)에 이르러 제후들과 부결(符契)을 맞추었고, 마침내 탁록(涿鹿)에 도읍을 정하였다.… 태사공이 말하기를 학자들이 대부분 오제(五帝)를 일컫지만, 시대가 너무 오래되었다. 그러나 『상서』에 홀로 요임금이래의 일을 기록하였다. 그리고 많은 학과에서도 황제를 말했지만 문장이 우아하거나 숙련되지 않아서 사대부와 선생들도 황제에 대해서 말하기가 어려웠다. 공자께서 전하신, 채여가 질문한 『채여문오제덕(宰予問五帝德)』과 『제계성(帝系姓)』 두 편은 유생 중에 어떤 사람에게는 전수하지 않았다. 나는 일찍이 서쪽으로는 공동(空桐)에 이르고, 북쪽으로는 탁록을 지났으며, 동쪽으로는 바닷가에 진입하고, 남쪽으로는 창강과 회하에 이르렀는데 그곳의 노인들은 각자 황제·요·순의 사적에 대하여 말하였고, 풍속과 가르침이 달랐다. 총체적으로 보아 나는 노인들이 말하는 내용이 고문경전에서 말하는 것과 부합하고 사실에 가깝다고 생각한다. 나는 『춘추』와 『국어』를 읽었는데, 이를 통해 이들 책이 『오제덕(五帝德)』과 『제계성(帝系姓)』에 대해 잘 서술하고 있음을 알았다. 단지 사람들이 깊이 고찰하지 않았을 뿐 기록한 바가 모두 허망한 것은 아니다. 『상서』가 손상된 지 오랜 시간이 지났으나 빠진 부분은 종종 다른 책에서 찾을 수 있다. 배우기를 좋아하지 않고 깊이 생각하지 않으면 진정한 의미를 알 수 없으며, 얕은 지식과 들은 바가

적은 사람은 설명하기 매우 어렵다. 나는 이러한 자료를 평가하고, 배열하고, 특별히 우아한 문장을 선택하여 『본기(本紀)』를 서술하여 전체 책의 제1편으로 삼았다.

—『史記·五帝本紀』

漢興, 高祖之微時時, 嘗殺大蛇. 有物曰, 蛇, 白帝子也, 而殺者赤帝子. 高祖初起, 禱豐枌榆社. 徇沛, 爲沛公, 則祠蚩尤, 蚩鼓旗, 遂以十月至灞上, 與諸侯平咸陽, 立爲漢王. 因以十月爲年首, 而色上赤.

二年, 東擊項籍而還入關, 問, 故秦時上帝祠何帝也. 對曰, 四帝, 有白青黃赤帝之祠. 高祖曰, 吾聞天有五帝, 而有四, 何也. 莫知其說. 於是高祖曰, 吾知之矣, 乃待我而具五也. 乃立黑帝祠, 命曰北時. 有司進祠, 上不親往. 悉召故秦祝官, 復置太祝太宰, 如其故儀禮. 因令縣爲公社. 下詔曰, 吾甚重祠而敬祭. 今上帝之祭及山川諸神當祠者, 各以其時禮祠之如故.

後四歲, 天下已定, 詔御史, 令豐謹治枌榆社, 常以四時春以羊彘祠之. 令祝官立蚩尤之祠於長安. 長安置祠祝官女巫. 其梁巫祠天地天社天水房中堂上之屬. 晉巫祠五帝東君雲中司命巫社巫祠族人先炊之屬. 秦巫祠社主巫保族累之屬. 荆巫, 祠堂下巫先司命施糜之屬. 九天巫, 祠九天. 皆以歲時祠宮中. 其河巫祠河於臨晉, 而南山巫祠南山秦中. 秦中者, 二世皇帝. 各有時.

한나라가 일어났다. 한나라 고조가 황제가 되기 이전에 일찍이 큰 뱀 한 마리를 죽였는데 한 신인이 말하기를 “이 뱀은 백제(白帝)의 아들로 이 뱀을 죽인 이는 적제(赤帝)의 아들이다”라고 하였다. 고조가 처음 군

사를 일으켰을 때 풍현(豊縣)의 분유사(粉榆社)에서 기도를 하였다. 패현(沛縣)을 점령한 후 패공(沛公)이 되었으며 치우신을 제사하고 희생된 제물의 피로 북과 깃발을 붉게 물들였다. 마침내 10월 군사가 파상(灑上)에 이르렀으며 여러 제후와 함께 함양(咸陽)을 정복하고 한나라 왕이 되었다. 따라서 10월을 한 해의 시작으로 삼고 붉은색을 숭상하였다.

다음해 동쪽으로 항우(項羽)를 공격하고 군사를 돌려 돌아온 후에 고조는 물었다. “과거 진(秦)나라 때 제사한 상제(上帝)는 누가 있는가?” 신하들은 대답하기를 “모두 4명의 상제를 제사하였는데 백제(白帝), 청제(靑帝), 황제(黃帝), 적제(赤帝) 등의 사묘가 있습니다”라고 하였다. 고조는 “나는 모두 하늘에는 오제(五帝)가 있다고 들었는데 오직 4개의 사묘만 있으니 무슨 원인인가?”라고 물었다. 누구도 대답하지 못하였다. 그래서 고조는 “알았으니 나는 5명의 상제의 수를 모두 갖출 것이다”라고 대답하였다. 그래서 흑제사(黑帝祠)를 건립하고 북치(北時)라 하였다. 관련 기구에서 제사를 주관하였으며 황제는 직접 제사하지 않았다. 과거 진나라 때의 축관(祝官)을 모두 채용하고 태축(太祝), 태재(太宰)를 설치하였으며 이전의 의례와 마찬가지로 하였다. 이러한 까닭으로 각 현에 공용의 사묘를 설치하고 “나는 사묘를 중시하고 제사를 지내는 것을 공경한다. 지금 상제와 산천의 제신에 대한 제사는 마땅히 거행해야 하며 각 주와 현의 관련 기관에서는 정해진 시간에 이전과 마찬가지로 제사를 지내라”고 조서를 내려 명령하였다.

4년 후 천하는 이미 평정되었으며 어사(御史)에게 조서를 내려 풍현(豊縣)에 분유사(粉榆社)를 수리하고 제사하게 하였으며 네 계절에 제사를 지내는데 봉철에는 양과 돼지로 제사하게 하였다. 축관으로 하여

금 장안(長安)에 치우사(蚩尤祠)를 건립하게 하였다. 장안의 사당에 축관과 여무(女巫)를 설치하였다. 그 중 양무(梁巫)는 하늘과 땅, 천사(天社), 천수(天水), 방중(房中), 당상(堂上)과 같은 종류를 제사하였다. 진무(晉巫)는 오제(五帝), 동군(東君), 운중군(雲中君), 사명(司命), 무사(巫社), 무사(巫祠), 족인(族人), 선취(先炊)와 같은 종류를 제사하였다. 진무(秦巫)는 사주(社主), 무보(巫保), 족루(族累)와 같은 종류를 제사하였다. 형무(荆巫)는 당하(堂下), 무선(巫先), 사명(司命), 시미(施糜)와 같은 종류를 제사하였다. 구천무(九天巫)는 구천(九天)을 제사하였다. 매해 초와 계절제는 궁중에서 제사하였다. 하무(河巫)는 하신(河神)을 임진(臨晉)에서 제사하였으며 남산무(南山巫)는 남산(南山)과 진중(秦中)을 제사하였다. 진중(秦中)은 진나라 이세황제(二世皇帝)를 제사지내는 것이다. 제사는 각각 정해진 시간이 있다.

—『史記·封禪書』

(劉邦)祠黃帝, 祭蚩尤於沛庭.

유방은 황제와 치우를 패정(沛庭)에서 제사하였다.

—『史記·高祖本紀』

蚩尤氏頭有角, 與黃帝鬪, 以角抵人, 今冀州爲蚩尤戲.

치우씨는 머리에 뿔이 있으며 황제와 싸우는데 뿔로써 사람을 들이박는데 지금 기주(冀州)에 치우희(蚩尤戲)가 있다.

—『史記·樂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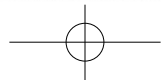
軒轅戰涿鹿, 殺兩皐蚩尤而爲帝.



헌원은 탁록에서 두 명의 역(疇)과 치우를 죽이고 제왕에 올랐다.

— 『鹽鐵論·結和』

力黑問□□□□□□□□□□□□□□驕□陰謀, 陰謀□□□□□□□□□□  
 □□高陽□之若何? 太山之稽曰, 子勿患也, 夫天行正信, 日月不處, 后  
 然不台(怠), 以臨天下. 民生有極, 以欲涅□, (涅)□□失. 豐而(爲)□, □  
 而爲既, 予之爲害, 致而爲費, 緩而爲□, 憂桐而寤之, 帳而爲之(咎). 累  
 而高之, 部(踣)而弗救也. 將令之死而不得悔, 子勿患也. 力黑曰, 單數  
 盈六十而高陽未失. 涅□蚤□, □曰天僅, 天僅而弗戒, 天官地一也, 爲  
 之若何? (太)山之稽曰, 子勿言僅, 交爲之備, □將因其事, 盈其寺, 轉  
 其力, 而投之伐, 子勿言也. 上人正一, 下人靜之, 正以待(待)天, 靜以  
 須人. 天地立名, □□自生, 以隋(隨)天刑. 天刑不?, 逆順有類. 勿驚□  
 戒, 其逆事乃始. 吾將遂是其逆而戮其身, 更置大直而合以信. 事成勿  
 發, 胥備自生, 我將觀其往事之卒而東焉. 寺(侍)其來(事)之遂刑(形)而  
 私(和)焉. 壹束壹禾(和), 此天地之奇□□其民作而自戲也, 吾或使之自  
 靡也. 單盈才, 大(太)山之稽曰, 可矣. 于是出其鏹錢, 奮其戎兵. 黃帝身  
 禺(遇)之(蚩)尤, 因而禽(擒)之. 剥其□革以爲干候, 使人射之, 多中者賞.  
 斷其髮而建之天□, 曰之(蚩)尤之旌, 充其胃以爲鞠. 使人執之, 多中者  
 賞. 腐其骨肉, 投之苦(醢), 使天呬集之. 上帝以禁, 帝曰, 毋止吾禁, 毋  
 留(流)吾(醢), 毋亂吾民, 毋絕吾道. 止禁, 留(流)?(醢), 亂民, 絕道, 反義  
 逆時, 非而行之, 過極失當, 擅制更爽, 心欲是行, 其上帝未先而擅興  
 兵, 視之(蚩)尤共工. 屈其脊, 使甘其箭. 不死不生, 憲爲地?. 帝曰, 謹守  
 吾正名, 毋失吾恒刑, 以視(示)後人.



역흑(力黑)은 태산계(太山稽)에게 말하였다. 치우는 교만하고 방탕하며 음모를 꾸미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태산계가 대답하였다. 너는 걱정할 필요가 없다. 천도(天道)의 움직임은 올바른 것으로 해와 달도 규정된 궤도에 따라 쉬지 않고 운행한다. 천도와 일월은 운행을 게을리 한 적이 없으며 그들은 사람들의 이러한 규정된 법칙을 보여 주고 있다. 만약 천도와 일월의 운행과 같다면 인류의 물욕은 한계가 있는 것으로 최고의 단계에 이르면 쇠하게 되는 규율을 따르게 되는 것으로 욕망을 부추김을 통하여 그 방탕함이 극치에 달하게 되니 방탕함이 극치에 달하였을 때 실패를 향하게 된다. 지금 최고에 이르렀으므로 쇠락을 향하게 되는 것으로 이익이 증가됨으로써 극도의 쇠락으로 방향이 바뀌게 된다. 그가 더 많이 탐욕을 하고 위해를 가하게 하며 더 많이 재물을 탐하게 하면 그는 나태하게 된다. 풍족하고 영예스러워진 후에는 그를 잡아 죄를 물으면 된다. 계속해서 높아지게 한 후에 그들 잡아 쓰러뜨리면 살아날 방법이 없다. 이와 같이 그가 거의 죽을 지경에 이르게 되면 후회를 해도 소용이 없다. 너는 너무 걱정을 할 필요가 없다. 역흑(力黑)은 말하였다. 치우와 전쟁을 한 지 16차례이나 고양(高陽)이 이기지 못하였다. 치우는 교활하고 방탕하나 세력이 강한데 이것은 하늘이 도와주는 것이다. 치우는 하늘의 도움을 믿고 두려울 것이 없으니 어찌 하늘과 땅은 치우를 돕는단 말인가? 이를 어떻게 하면 좋은가? 태산은 대답하였다. 너는 우선 도와준다느니 하는 말을 하지 말아라. 우리가 지금 필요로 하는 것은 위아래가 하나의 마음으로 잘 준비를 하는 것이다. 나는 치우가 행한 잘못된 일을 이용하여 그의 욕망을 만족시키고 그가 나쁜 일을 하도록 독려하여 악행

부록 287

이 만연하게 하고자 한다. 너는 아무것도 말하지 말아라.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들은 마음을 단정히 하고 아랫사람들은 의지를 그대로 지켜라. 단정한 마음으로 하늘의 때를 기다리고 굳은 의지로 인간관계를 살피면 천지는 명분을 만들고 만물은 그에 따라 생겨나고 자연규율의 지배를 받게 된다. 천도는 영원한 것으로 실패가 없으며 거스름과 순조로움이 모두 각각 경계가 있다. 놀라 허둥대지 말고 두려움을 느끼지도 말고 치우의 순리를 거스르는 악행은 징벌을 받을 것이다. 나는 치우가 극악무도하게 한 후에 그를 죽일 것이며 그 후에 다시 신의에 맞는 제도를 세울 것이다. 모든 것이 준비되었으니 치우를 놀라게 하지 말아라. 멀지 않아 스스로 멸망할 것이다. 나는 치우가 이전에 한 모든 일을 조사하여 치우가 모든 나쁜 일을 하기를 기다려 계획을 세워 행동할 것이다. 지난 일을 조사하여 조용히 과거의 일을 관찰할 것인데 이는 하늘과 땅 사이의 신묘한 작용이다. 사람들이 스스로 일어나 그를 전복시키는 때를 기다려 나는 그를 멸망시킬 것이다. 태산계는 말하였다. 현재 이미 치우를 물리칠 시기이다. 병기를 진열하고 병사들을 격려하여 황제는 치우와 전쟁을 벌여 치우를 잡았다. 치우의 살가죽을 벗겨 과녁을 만들어 사람들에게 화살을 쏘도록 하고 많이 맞추는 자에게 상을 주었다. 머리카락을 잘라 하늘에 달았는데 이것을 치우기(蚩尤旗)라고 한다. 위장을 잘라 공을 만들어 사람들이 그것을 차게 하여 공을 많이 넣은 자는 장려하였다. 그의 뼈와 살은 다져서 육장(肉醬)을 만들어 씬바귀 나물과 섞어 모든 사람들이 먹게 하였다.

황제는 상제의 명의로 신하와 백성에게 금기 조항을 명하였다. 내가 만든 규율을 위반하는 것을 금하고, 내가 내린 육장을 먹지 않는 것

을 금하고, 내 백성의 마음을 혼란하게 하는 것을 금하고, 내가 제시한 방법을 따르지 않는 것을 금지한다. 만약 법령을 위반하고, 만약 몰래 육장을 쏟아버리고, 만약 민심을 혼란시키고, 만약 나의 말을 듣지 않고, 만약 규율을 준수하지 않고, 만약 알면서도 범죄를 고의로 저지르고, 만약 경계를 넘어서고, 만약 사사로이 자기식대로 제도를 바꾸고, 만약 하고 싶은 대로 하고, 만약 내가 명령을 내리지 않았는데 군사를 일으켜 배반을 하면 치우와 공공(共工)같은 징벌을 받게 될 것이다. 그들은 잘못을 인정하고 노예가 되었으며 그들은 자신의 변을 먹고 살고자 하나 살 수 없고 죽고자 하나 죽을 수 없게 되었으며 지하에 무덤의 기둥을 담당하게 되었다. 황제는 마지막으로 말하였다. 너희들은 공경하는 마음으로 내가 만든 제도를 준수하기 바라며 내가 제정한 형률(刑律)을 거역하지 말아 후인들의 모범이 되어라.

—馬王堆帛書『黃帝四經·十六經·正亂』

黃帝殺之于中冀，蚩尤肢體身首異處，而其血化爲鹵，則解之鹽池。因其尸解，故名其地爲解。

황제가 치우를 중기(中冀)에서 죽이고 팔다리, 머리, 몸을 여러 곳에 버렸는데 그 피는 소금이 되었다. 즉, 해(解)라는 곳의 염지(鹽池)이다. 치우의 시신을 나뉘기 때문에 그곳을 해(解)라고 한다.

—『孔子三朝記』

武帝時，太原有蚩尤神畫見，龜足蛇首。

무제(武帝)시기 태원(太原)에 치우신이 낮에 보였는데 거북이 발에

뱀의 머리였다.

—『漢書』

黃帝攝政前, 有蚩尤兄弟八十一人, 并獸身人語, 銅頭鐵額, 食沙石子, 造立兵杖刀戟大弩, 威振天下, 誅殺無道, 不仁不慈, 萬民欲令黃帝行天子事. 黃帝仁義, 不能禁止蚩尤, 遂不敵, 乃仰天而歎. 天遣玄女下授黃帝兵信神符, 制服蚩尤, 以制八方. 蚩尤沒後, 天下復擾亂不寧, 黃帝遂畫蚩尤形象以威天下. 天下咸謂蚩尤不死, 八方萬邦皆爲殄伏.

황제가 다스리기 전에 치우 형제81인이 있었는데 짐승의 몸을 하고 있으나 사람의 말을 하였으며 머리는 구리이고 이마는 철이며 모래와 돌을 음식으로 먹으며 장(杖), 도(刀), 극(戟), 대노(大弩) 등의 병기를 만들어 천하를 두려움에 떨게 하였다. 사람을 죽이는데 덕이 없었으며 인정과 자비라고는 없었다. 모든 사람들은 치우를 대신하여 황제가 천자의 일을 하기를 바랐다. 황제는 인자하고 올바른 임금이었으나 치우를 제압하지 못하였으며 그들을 이기지 못하여 마침내 하늘을 우러러보며 탄식하였다. 하늘은 현녀를 내려 보내 황제에게 병신신부(兵信神符)를 주어 황제는 치우를 제압하고 천하를 통일하였다. 치우가 죽은 후에도 천하의 난은 계속되었고 끝이지 않았는데 황제는 치우상을 그려 천하를 두려워 떨게 하였다. 세상의 사람들은 치우가 죽지 않았다고 생각하였으며 세상의 모든 곳과 모든 사람들이 평정되고 복종하였다.

—『太平御覽』卷七九引『龍魚河圖』

黃帝之初, 有蚩尤兄弟七十二人, 銅頭鐵額, 食沙石, 制五兵之氣, 變

化雲霧.

황제가 다스리기 시작한 초기에 치우의 형제 72인이 있었는데 머리는 구리고 이마는 쇠이며 모래와 돌을 먹고 5가지 병기의 기를 제압 하였으며 구름과 안개를 변화시켰다.

—『漢學堂叢書』輯『龍魚河圖』

## 미주

### 제1장

- 1 王鐸義, 2013, 「回看〈河殤〉事件」, 『當代作家評論』2013年 第3期, 191쪽.
- 2 『王震傳』編寫組, 2008, 『王震傳』, 北京人民出版社, 655~659쪽.
- 3 曉冬, 1990, 「民族虛無主義和全盤西化的宣言-〈河殤〉批判」, 『松遼學刊』1990年 第1期.
- 4 江澤民, 1989, 「在慶祝中華人民共和國成立四十周年大會上的講話」, 『人民日報』1989年 9月 30日.
- 5 中共中央文獻研究室, 2010, 『江澤民思想年編』(1989-2008), 中央文獻出版社, 8쪽.
- 6 中共中央文獻編輯委員會, 2006, 『江澤民文選』第1卷, 人民出版社, 94쪽.
- 7 『辭海』編輯委員會, 1980, 『辭海』, 上海辭書出版社, 1807쪽.
- 8 田居儉, 2005, 「歷史豈容虛無-評史學研究中的若干歷史虛無主義言論」, 『高校理論戰線』2005年 第6期.
- 9 韓吉木斯, 2017, 『當代中國歷史虛無主義思潮研究』, 內蒙古大學博士學位論文, 35쪽.
- 10 사항기본원칙(四項基本原則)은 1979년 3월 30일 덩샤오핑이 중공중앙이 베이징에서 개최한 이론공작무허회(理論工作務虛會)에서 강연한 내용이다. 덩샤오핑은 강연 중 반드시 사항기본원칙을 견지해야 한다고 제안하였다. 사항기본원칙은 첫 번째는 사회주의 길을 반드시 견지하는 것, 두 번째는 반드시 무산계급의 전체 정치를 견지하는 것, 세 번째는 반드시 공산당의 지도를 견지하는 것, 네 번째는 마르크스 레닌주의와 마오쩌둥 사상을 견지하는 것이다.
- 11 杜金金, 2017, 「近十年來我國學者關於歷史虛無主義的研究綜述」, 『西南交通大學學報(社會科學版)』2017年 3月 第18卷 第2期, 116쪽.
- 12 司馬躡, 1991, 「馬克思主義和孔子教義-李一氓給蔡尚思的信讀後」, 『真理的追求』1991年 第3期.
- 13 鄧小平, 1994, 『鄧小平文選』第三卷, 人民出版社, 1994, 326~327쪽.
- 14 江澤民, 「在慶祝中華人民共和國成立四十周年大會上的講話」, 『人民日報』1989年 9月 30日.
- 15 趙應科·羅大文, 2005, 「回顧與思考, 25年來的愛國主義教育」, 『西北工業大學學報(社會科學版)』第25卷 第4期 2005年12月, 12쪽.
- 16 習近平, 「建設中國特色中國風格中國氣派的考古學, 更好認識源遠流長博大精深的中華文明」, 『求是』第23期, 2020年 12月.

### 제2장

- 1 馮友蘭, 1938, 「馮序」, 『古史辨』(第6冊), 上海書店, 1쪽.
- 2 馮友蘭, 1935, 「中國近年研究史學之新趨勢」, 『三松堂全集』(第14卷), 鄭州: 河南人民出版社, 2001년판, 255쪽.
- 3 崔述, 『崔東壁遺書』, 上海: 上海古籍出版社, 1983년판, 17쪽.
- 4 那珂通世, 1902, 「考信錄解題」, 『史學雜誌』13-7, 1902. 1932년 위스위(于式玉)는 『史學年報』(第4期)에 이 논문을 중국어로 번역하여 게재하였다.
- 5 崔述 著, 那珂通世 標點, 1903, 『崔東壁先生遺書』, 日本史學會, 1903.
- 6 白鳥庫吉, 1909, 「支那古傳說の研究」, 『東洋時報』131.
- 7 顧頡剛, 1923, 「與錢玄同先生論古史書」, 『古史辨』1, 上海: 上海古籍出版社, 1982년판, 60쪽.

292 중국 애국주의와 고대사 만들기

- 8 林泰輔, 1911, 「堯舜禹의 抹殺論に就て(1)」, 『漢學』 2-7; 林泰輔, 1911, 「堯舜禹의 抹殺論に就て(2)」, 『東亞研究』 1-1.
- 9 네이버 백과, '도미나가 나카모토'에서 발췌, <https://terms.naver.com/entry.naver?docId=3352895&cid=62070&categoryId=62087> (2021-3-21 검색)
- 10 内藤湖次郎, 1925, 「大阪の町人學者富永仲基」, 『内藤湖南全集』 9, 筑摩书店, 1970년판, 387~390쪽.
- 11 라오밍춘(廖名春)은 구제강의 '고사변(古史辨)' 운동이 일본의 영향을 받은 것으로 인식했다(廖名春, 1998, 「試論古史辨運動興起的思想來源」, 『原道』 4, 上海: 學林出版社).
- 12 黃東陽·成祖明, 2020, 「“疑古”與“釋古”-文明探源與古史重建理論的百年反思與展望」, 『齊魯學刊』(04), 44~51쪽.
- 13 徐旭生, 1985, 『中國古史的傳說時代』, 文物出版社(초판은 1937년 출판), 국내에는 조우연 선생에 의해 『중국전설시대와 민족형성』(학고방, 2012)이라는 제목으로 번역 출간 되었다.
- 14 徐旭生, 1985, 『中國古史的傳說時代』, 文物出版社(초판은 1937년 출판)
- 15 梁启超, 1901, 「中國史敘論」, 『清議報』 100期, 1901. 12. 20.
- 16 橫陽翼天氏(梁啓超), 1903, 『中國曆史』, 東京東新譯社.
- 17 夏曾佑, 1904, 『最新中學教科書中國曆史』, 商務印書館.
- 18 李泰棻, 1922, 『中國史綱』, 武學書館.
- 19 顧頡剛·王鍾麟, 1923, 『本國史』, 商務印書館.
- 20 王國維, 1925, 『古史新證』, 清華大學出版社, 1994년판(1925년부터 칭화대 국학원에서 강의한 내용을 출판)
- 21 陸懋德, 1927, 北京師範大學 歷史系 수업 교재
- 22 王桐齡, 1927, 『本國史』, 文化學社.
- 23 郭沫若, 1930, 『中國古代社會研究』, 上海聯合書店.
- 24 張震南, 1931, 『國史通略』, 中華書局.
- 25 孟世傑, 1931, 『中國史』, 百山書局.
- 26 李雲坡, 1931, 『本國史』, 文化學社.
- 27 繆鳳林, 1932, 『中國通史綱要』 第一冊, 中華書局.
- 28 章嶽, 1933, 『中華通史』, 商務印書館.
- 29 白進彩, 1933, 『高中中國史』, 文化學社.
- 30 張齒麟, 1941, 『中國史綱』, 青年書店.
- 31 繆鳳林, 1943, 『中國通史要略』, 鍾山書局.
- 32 黎東方, 1944, 『中國曆史通論·遠古篇』, 商務印書館.
- 33 金兆梓, 1945, 『中國史綱』, 中華書局.
- 34 周予同, 1947, 『本國史』, 開明書店.
- 35 王國維, 1925, 『古史新證』, 清華大學出版社, 1994년판, 2~3쪽. 1925년 9월부터 칭화국학연구원에서 개설한 '고사신증(古史新證)' 강의 중 제안하였다.
- 36 饒宗頤, 2003, 「談三重證據法」, 『饒宗頤二十世紀學術文集』(第一卷), 臺北: 新文豐出版公司, 16~17쪽.
- 37 李學勤, 1992, 「走出疑古時代」, 『走出疑古時代』(修訂本), 長春: 長春出版社, 2007. 10쪽. 국내에는 『의고시대를 걸어 나오며』(이유표 역, 글항아리, 2019)라는 제목으로 번역 출간되었다.
- 38 蒙文通, 1933, 『古史甄微』, 上海商務印書館.  
徐旭生, 1985, 『中國古史的傳說時代』, 文物出版社.
- 39 鄒衡, 1980, 『夏商周考古學論文集』, 文物出版社.
- 40 俞偉超, 1980, 「先楚與三苗文化的考古學推測」, 『文物』 1980-10, 1~12쪽.
- 41 蘇秉琦, 1991, 「關於重建中國史前史的思考」, 『考古』 1991-12, 1109~1118쪽.
- 42 嚴文明, 1989, 「東夷文化的探索」, 『文物』 1989-9.

- 嚴文明, 1992, 「略論中國文明的起源」, 『文物』 1992-1.
- 43 李學勤, 1992, 「走出疑古時代」, 『走出疑古時代』(修訂本), 長春: 長春出版社, 2007, 1~10쪽.
- 44 김경호 등, 2008, 『하상주단대공정: 중국 고대문명 연구의 허와 실』, 서울: 동북아역사재단.
- 45 李伯謙, 2019, 「古史傳說的考古觀察: 三皇五帝能否求證」, 『美成在久』 2019-4, 6~9+2쪽.
- 46 孫慶偉, 2019, 「傳說時代與最早中國」, 『遺產』, 2019-1, 191~194쪽.
- 47 孫慶偉, 2018, 「界說與方法—夏代信史考古學重建的途徑」, 『中國文化研究』 2018-3, 23~37쪽.
- 48 陳立柱, 2020, 「夏代有無之爭的症結所在」, 『中國社會科學報』(2020-06-02)
- 49 최몽룡, 2011, 「한국 문화기원의 다원성」 『동북아시아의 문명 기원과 교류』, 학연문화사, 21쪽.
- 50 E. R. 서비스 저·신형식 역, 1986, 『원시시대의 사회조직』, 서울: 삼지연.
- 51 리펑 지음·이청규 옮김, 2017, 『중국고대사』, 사회평론, 34~41쪽.
- 52 蘇秉琦 지음·朴載福 옮김, 2016, 『中國文明的起源을 새롭게 탐구한 區系類型論』, 도서출판 考古, 110~143쪽.
- 53 『史記』 1, 「五帝本紀」. …(黃帝)置左右大監, 監於萬國…(堯)百姓昭明, 合和萬國…
- 54 趙輝, 2020, 「古國時代」, 『華夏考古』 2020-6.
- 55 朱乃誠, 2019, 「炎黃時代與中國文明的起源和形成」, 『信陽師範學院學報』 39-3을 참고하여 작성
- 56 Brew, J.O., "The Metal Ages : Copper, Bronze, And Iron", Man, Culture And Society, oxford univ. press, 1956, pp.111~138. (하문식, 2011, 「요동지역의 문명기원과 교류」 『동북아시아의 문명 기원과 교류』, 학연문화사, 155쪽에서 재인용)
- 57 王巍, 2020, 「中華5000多年文明的考古實證」, 中國歷史研究院 홈페이지(2020-01-19 게시) <https://mp.weixin.qq.com/s/ulfHlP-o25FhGVFJedai-w> 2020-10-15 접속(원문에는 '문자와 야금술을 포함하지 않는 문명의 기준'이라고 되어 있지만, 정작 본문에는 야금술이 언급되어 있다.)
- 58 이유포, 2020, 「중국 고등학교 국정 교과서 『중외역사강요』의 고대문명사 서술 특징」, 『동북아역사논총』 70호, 71~72쪽.
- 59 대표적인 학자가 로타 폰 팔켄하우젠(Lothar von Falkenhausen)으로, 그는 일부 중국학자들이 고고자료와 문헌자료를 성급하게 혼합하여 유적의 성질에 대한 판단을 내리거나, 심지어 발굴보고서 편찬 과정의 객관성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한 바 있다(羅泰, 李志鵬 採錄, 2009, 「考古: 匡正書本上的歷史」, 張冠梓 主編, 『哈佛看中國』(文化與學術卷), 北京, 人民出版社, 206쪽).
- 60 李政, 2020, 「專家學者研討二里頭遺址考古工作和夏文化研究」, 文博中國微信官網, 2020-10, <https://mp.weixin.qq.com/s/xWtHZSPWsCcdlnStXXnLxw> 2020-10-20 접속.
- 61 홍산문화와 황제문명론에 대해서는 국내학계에서 김정열(2014)에 의해 비교적 상세하게 비판된 바 있다(김정열, 2014, 「홍산문화론-우하방 유적과 중국 초기 문명론을 중심으로」, 『한국고대사연구』 76.)
- 62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리스트의 설명 참조(<https://whc.unesco.org/en/list/1592/>)(2020-10-15 접속)

### 제3장

- 『左傳』昭公17年, 吾祖也, 我知之. 昔者黃帝氏以雲紀, 故為雲師而雲名. 炎帝氏以火紀, 故為火師而火名.
- 趙燕姣, 2019, 「也談陳侯因敦銘中的“高祖黃帝”」, 『東嶽論叢』 40, 59~67쪽.
- 『史記』28, 「封禪書」. 秦靈公作吳陽上時, 祭黃帝, 作下時, 祭炎帝.
- 秦文, 2011, 「“炎黃子孫”稱謂的來龍去脈」, 『群文天地』 2011-5, 61~62쪽.
- 趙燕姣, 2019, 「也談陳侯因敦銘中的“高祖黃帝”」, 『東嶽論叢』 40
- 劉玉堂, 2015, 『炎帝神農文化讀本』, 人民出版社, 242~283쪽.
- 高強·田延峰, 2000, 「試論清末“黃帝子孫”稱謂的勃興」, 『寶雞文理學院學報(社會科學版)』 2000-3,

### 294 중국 애국주의와 고대사 만들기

40~44쪽.

- 8 彭英明, 1981, 「從“反滿”到“五族共和”-辛亥革命前後中國資產階級革命派的民族政策」, 『江漢論壇』, 1981-5, 8쪽.
- 9 劉玉堂, 2015, 『炎帝神農文化讀本』, 人民出版社, 242~283쪽.
- 10 雷彥儒, 2008, 「“炎黃子孫”稱謂的歷史演變及其意義」, 『協商論壇』, 2008-4, 21~24쪽.
- 11 『國語』10, 「晉語」4, 昔少典娶于有嬌氏, 生黃帝炎帝, 黃帝以姬水…成, 炎帝以姜水…成, 成而異德, 故黃帝爲姬, 炎帝爲姜. 二帝用師以相濟也, 異德之故也.
- 12 『列子』2, 「黃帝」, 黃帝與炎帝戰于阪泉之野.
- 13 『淮南子』13, 「汜論訓」, 故炎帝于火.
- 14 『周易』, 「繫辭下」, 包犧氏沒, 神農氏作, 斲木爲耜, 揉木爲耒. 耨之利以教天下, 蓋取諸益.
- 15 『管子』1, 「形勢」, 神農教耕生穀, 以致民利.
- 16 『管子』, 「輕重戊」, 神農作, 樹五谷淇山之陽.
- 17 『世本』秦嘉謨輯輔本 9, 「作篇」, 神農和葯濟人.
- 18 『世本』秦嘉謨輯輔本 9, 「作篇」, 神農作琴.
- 19 『世本』秦嘉謨輯輔本 1, 「帝系篇」, 炎帝神農氏, 宋仲子曰, 炎帝卽神農氏.
- 20 『史記』28, 「封禪書」, “神農封泰山, 禪云云; 炎帝封泰山, 禪云云; 黃帝封泰山, 禪亭亭.”
- 21 『史記』1, 「五帝本紀」, 軒轅之時, 神農氏世衰. 諸侯相侵伐, 暴虐百姓, 而神農氏弗能征. 於是軒轅乃習用干戈, 以征不享, 諸侯咸來賓從. 而蚩尤最爲暴, 莫能伐. 炎帝欲侵陵諸侯, 諸侯咸歸軒轅. 軒轅乃修德振兵, 治五氣, 蓺五種, 撫萬民, 度四方, 教熊羆貔貅羆虎, 以與炎帝戰於阪泉之野. 三戰, 然後得其志.
- 22 『史記索隱』130, 「三皇本紀」, 炎帝神農氏, 姜姓. 母曰女登, 有媧氏之女, 爲少典妃, 感神龍而生炎帝, 人身牛首. 長于姜水… 因以爲姓. 火德王, 故曰炎帝, 以火名官. 斲木爲耜, 揉木爲耒. 耨耨之用, 以教萬人. 始教耕, 故號神農氏. 于是作蜡祭, 以赭鞭鞭草木, 始嘗百草, 始有醫葯. 又作五弦之瑟, 教人日中爲市, 交易而退, 各得其所.
- 23 鄭燦學, 2005, 『五帝神話의 形成과 漢代의 受容樣相 研究』, 延世大學校大學院 博士學位論文.
- 24 秦楠楠, 2020, 「“神農氏”“炎帝”融合過程考辨-兼論二者分合之原因」, 『信陽師範學院學報(哲學社會科學版)』40-5.
- 25 『管子』14, 「四時」, 東方曰星, 其時曰春, 其氣曰風, 風生木與骨… 南方曰日, 其時曰夏, 其氣曰陽, 陽生火與氣… 中央曰土, 土德實輔四時出入, 以風雨節, 土益力… 西方曰辰, 其時曰秋, 其氣曰陰, 陰生金與甲… 北方曰月, 其時曰冬, 其氣曰寒, 寒生水與血…
- 26 박정윤, 2002, 『음양오행설의 성립과 그 이론적 배경: 춘추·전국시대 중심으로』, 고려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84~90쪽 (표5, 표6, 표7 참조)
- 27 『國語』4, 「魯語上」, 昔烈山氏之有天下也, 其子曰柱, 能殖百穀百蔬.
- 28 秦楠楠, 2020, 앞의 논문, 89쪽.
- 29 嚴文明, 1981, 「龍山文化和龍山時代」, 『文物』, 1981-6.  
嚴文明, 1992, 「略論中國文明的起源」, 『文物』1992-1.
- 30 中國社會科學院考古研究所考古資料信息中心, 1998, 「1991年以來中國文明起源研究述評」, 『考古』1998-6, 90~95쪽.
- 31 王巍, 2007, 「关于开展中国古代文明起源与早期发展过程研究的构想」, 『中國古代文明研究中心通訊』
- 32 張弛, 2019, 「中國史前區域, 社會與文明起源」, 『區域, 社會與中國文明起源』, 科學出版社, 386~391쪽.
- 33 嚴文明, 1998, 「中國新石器時代聚落形態的考察」, 『史前考古論集』, 科學出版社, 48~62쪽
- 34 中國社會科學院考古研究所 編著, 2010, 『中國考古學-新石器時代卷』, 中國社會科學出版社에서 편집
- 35 李新偉, 2013, 「廟底溝文化時代的剖面 靈寶西坡」, 『大眾考古』2013-6, 馬蕭林·李新偉·楊海青, 2008, 「河南靈寶市西坡遺址墓地2005年發掘簡報」, 『考古』2008-1

- 36 馬蕭林·李新偉·楊海青, 2006, 「靈寶西坡仰韶文化墓地出土玉器初步研究」, 『中原文物』2006-2, 69~73쪽.
- 馬蕭林·李新偉·楊海青, 2008, 「河南靈寶市西坡遺址墓地2005年發掘簡報」, 『考古』2008-1.
- 馬蕭林, 2020, 「仰韶文化中期的聚落與社會-靈寶西坡遺址微觀分析」, 『中原文物』2020-6, 64~73쪽.
- 37 範毓周, 2020, 「河南鞏義雙槐樹“河洛古國”遺址淺論」, 『中原文化研究』2020-8에서 편집
- 38 일반적으로 '북두칠성'으로 부르지만, 북두칠성은 육안으로 확인되는 별의 수가 7개여서 그런 것이고 실제로는 9개의 별로 이루어져 있어 '북두구성'으로 부르기도 한다.
- 39 範毓周, 2020, 「河南鞏義雙槐樹“河洛古國”遺址淺論」, 『中原文化研究』2020-8, 15~20쪽
- 40 朱乃誠, 2019, 「炎黃時代與中國文明的起源和形成」, 『信陽師範學院學報』39-3
- 41 中國社會科學院考古研究所 編著, 2007, 『新中國的考古發現和研究』, 方志出版社, 46~47쪽. 방사성탄소연대 측정 결과 반포유형이 마오디거우유형보다 먼저 출현했고, 두 문화유형은 일정 기간 공존했던 것으로 밝혀졌다.
- 42 韓建業, 2019, 『走進五帝時代』, 文物出版社, 185~193쪽.
- 43 國家文物局主編, 1995, 『中國文物精華辭典-陶瓷卷』, 上海辭書出版社·商務印書館(香港) 편집
- 44 이학근 지음, 이유표 옮김, 2019, 『의고시대를 걸어 나오며』, 글항아리, 83~95쪽. 그렇다고 그가 염제와 황제의 존재를 부정한 것은 아니다. 그는 염제와 황제가 어떠한 인물이었는지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중화문명의 형성과 염황의 전설이 서로 밀접한 관계를 가진 것으로 판단했다.
- 45 동북아역사재단의 김인희, 이유표 연구위원은 2018년 7월 1일~7월 2일 염제의 후손들이 거주한다고 알려진 장청바오촌을 방문하여 조사하였다. 위 내용은 당시 조사한 내용을 바탕으로 작성하였음.
- 46 『寶鷄縣志』“(姜氏城)昔傳炎帝, 周姜誕于此”
- 47 정진선, 2013, 「중국 국가급 무형문화유산의 정리 작업과 그 현재적 의미」, 『중국문학』76.

#### 제4장

- 1 呂思勉·童書業, 1982, 『古史辨』第7册(中), 上海古籍出版社, 52~53쪽.
- 2 張舜徽, 1984, 『鄭學叢著』, 齊魯書社, 429쪽.
- 3 吳廣平, 1995, 「軒轅黃帝的原型破譯」, 『青海師範大學學報(社會科學版)』1995年 第1期, 43쪽.
- 4 郭沫若, 1966, 『十批判書』, 科學出版社, 134쪽.
- 5 常玉芝, 2008, 「由商代的“帝”看所謂“黃帝”」, 『文史哲』2008年 第6期.
- 6 陳明遠, 2015, 「“甲金文驗古學”之七-黃帝崇拜的來龍去脉」, 『社會科學論壇』2015年 第7期, 43쪽.
- 7 徐旭生, 1943, 『中國古史的傳說時代』, 中國出版社.
- 8 蘇秉琦, 1993, 「迎接中國考古學的新世紀」, 『東南文化』1993年 第1期.
- 9 李學勤, 2009, 「炎帝·黃帝的歷史統緒同著」, 『李學勤說先秦』, 上海科學技術文獻出版社, 54쪽.
- 10 이 글에서 제왕의 시조인 黃帝는 한글로 '황제'라 표기하고, 인간계의 임금인 황제는 한자로 '皇帝'로 표기하겠음.
- 11 謝科峰, 2015, 『早期古書流傳問題研究-以相關出土文獻與傳世文獻的比較為例』, 上海大學博士學位論文, 67쪽.
- 12 『莊子·天下』“書以道事.”
- 13 『尚書緯』“孔子求書, 得黃帝元孫帝魁之書於秦穆公, 凡三千二百四十篇, 斷遠取近, 定可以為世法者, 百二十篇, 以百二篇為『尚書』, 十八篇為『中侯』.”
- 14 『論語·述而』“子所雅言, 詩書執禮, 皆雅言也.”
- 15 『莊子·天下』“其在於詩書禮樂者, 鄒魯之士, 搢紳先生, 多能明之.”

#### 296 중국 애국주의와 고대사 만들기

- 16 『史記·儒林列傳』“秦時焚書，伏生壁藏之。其後兵大起，流亡，漢定，伏生求其書，亡數十篇，獨得二十九篇，即以教于齊魯之間。”
- 17 『漢書·藝文志』“武帝末，魯恭王壞孔子宅。”
- 18 顧頡剛，1923，「論『今文尚書』著作時代書」，『古史辨』第一冊，201쪽.
- 19 顧頡剛，1990，『讀書筆記』，『顧頡剛讀書筆記』卷9，(臺北)聯經出版有限公司，6753쪽.
- 20 錢穆，2001，『兩漢經學今古文平議』，商務印書館，379쪽.
- 21 郭沫若，1954，『金文叢考』，人民出版社，43~45쪽.
- 22 張西堂，1958，『尚書引論』，陝西人民出版社，196~198쪽.
- 23 晁福林，2002，「郭店楚簡『緇衣』與『尚書·呂刑』」，『史學史研究』2002年 第2期.
- 24 (俄)郭靜云，2009，「『尚書·呂刑』不同版本及其思想研究」，『史學史研究』2009年 第2期.
- 25 馬小紅，1989，「試論〈呂刑〉的制定年代」，『晉陽學刊』1989년 3月，84쪽.
- 26 李銳，2016，「上古史新研-試論兩周古史系統的四階段變化」，『清華大學學報(哲學社會科學版)』2016年 第4期，99쪽.
- 27 李夏廷，1992，「渾源彝器研究」，『文物』1992年 第10期; 杜小鈺，2012，「“蚩尤匕”試讀」，『學行堂語言文字論叢』2012年 00期.
- 28 何琳儀，2007，「魚鬮匕補釋-兼說昆夷」，『中國史研究』2007年 第1期.
- 29 楊效雷·曹然，2014，「遼博館藏魚鬮匕銘文與『易經』震卦」，『東北史地』2014年 01期.
- 30 陶芷剛，1983，「山西渾源縣李峪村東周墓」，『考古』1983年 第8期.
- 31 馬承源，1995，『中國青銅器全集』，文物出版社，42쪽.; 何琳儀，2007，「魚鬮匕補釋-兼說昆夷」，『中國史研究』2007年 第1期; 李夏廷，1992，「渾源彝器研究」，『文物』1992年 第10期.
- 32 吳鎮烽，2015，「“魚鬮匕”新釋」，『考古與文物』2015年 第2期，54쪽; 張一方，2019，「魚鬮匕校讀」，『文物鑑定與鑑賞』2019年 21期.
- 33 陶芷剛，1983，「山西渾源縣李峪村東周墓」，『考古』1983年 第8期.
- 34 杜小鈺，2012，「“蚩尤匕”試讀」，『學行堂語言文字論叢』2012年 00期.
- 35 吳鎮烽，2015，「“魚鬮匕”新釋」，『考古與文物』2015年 第2期.
- 36 『國語·楚語』“顓頊受之，乃命南正重司天以屬神，命火正黎司地以屬民，使復舊常，無相侵瀆，是謂絕地天通。”
- 37 『資治通鑑·秦記』“德兼三皇，功過五帝。”
- 38 十三經注疏整理委員會，2000，『尚書正義(十三經注疏)』，北京大學出版社，631쪽.
- 39 十三經注疏整理委員會，2000，『尚書正義(十三經注疏)』，北京大學出版社，631쪽.
- 40 『左傳·僖公』二十五年“使卜偃卜之，曰吉。遇黃帝戰于阪泉之兆; 『國語·晉語』“黃帝爲姬，炎帝爲姜，二帝用師以相濟也，異德之故也。”
- 41 『國語·魯語』“黃帝能成命百物，以明民共財，顓頊能修之。”
- 42 『國語·魯語』“夏后氏禘黃帝而祖顓頊。”
- 43 『論衡·正說』“『尚書』者，以爲上古帝王之書。”
- 44 『史記·太史公自序』“書記先王之事，故長于政。”
- 45 馬小紅，1989，「試論〈呂刑〉的制定年代」，『晉陽學刊』1989年 3月，84쪽.
- 46 尤韶華，2012，「〈呂刑〉的穆呂之爭」，『尚書·呂刑』性質辨析』，『江蘇警官學院學報』2012年 第2期.
- 47 刁琦，2013，「『尚書·呂刑』之贖刑探析」，『社科縱橫』，2013年 第11期，91쪽.
- 48 중국학계는 일반적으로 “초와 묘가 혈통, 언원, 문화에서 일치한다”는 초묘동족설(楚苗同族說)을 지지한다. 린후이생(林惠祥)은 “삼묘는 남만으로 형초에 위치하며 초 역시 자칭 남만이라 한 것으로 보아 삼묘는 초민족의 조상이다. 초는 원래 남방민족으로 적어도 상나라 중기에 강한(江漢)의 형산(荆山) 일대에 거주하였다. 판원란(范文瀾)은 삼묘는 묘족으로 형초의 조상이다”(蕭兵, 1992, 『楚辭文化』, 中國社會科學出版社).

143쪽)라고 하였다.

- 49 『左傳·昭公』四年 “寡人是征，昭王南征而不復，寡人是問。對曰，賁之不入，寡君之罪也，敢不賁給昭王之不復，君其問諸水濱。”
- 50 『初學記』卷7『古本』『竹書紀年』 “昭王十六年，伐楚荆，涉漢，遇大兇。又，昭王十九年，天大噎，難免皆震，喪六師于漢。”
- 51 『太平御覽』卷874『古本』『竹書紀年』 “昭王末年，夜有五色光貫紫微，其年，王征南巡不返。”
- 52 『呂氏春秋·音初』 “周昭王親將征荆，辛余靡長且多力，爲王右，還反涉漢，梁敗，王及蔡公墮于江中。辛余靡振王北濟，又反振蔡公。”
- 53 『楚辭·天問』 “昭後成游，南土愛底？厥利惟何，逢彼白雉。”
- 54 『史記·周本紀』 “昭王之射，上道微缺，南巡狩，不返，卒于江上。其卒不赴告，諱之也。”
- 55 『竹書紀年』 “周昭王十六年，伐楚荆，涉漢，遇大兇。”
- 56 『竹書紀年』 “周昭王十九年，天大噎，難免皆震，喪六師于漢。”
- 57 『竹書紀年』 “昭王末年，夜清，五色光貫紫微。其年王南巡不反。” 『呂氏春秋·音初』 “周昭王親將征荆，辛餘靡長且多力，爲王右，還反涉漢，梁敗，王及蔡公於漢中。”
- 58 『史記·周本紀』 “昭王之射，上道微缺，南巡狩，不返，卒于江上。其卒不赴告，諱之也。”
- 59 孫毓來，1995，『關於周昭王伐楚原因和結果的探討』，『松遼學刊(社會科學版)』1995年 第1期。
- 60 盧本珊，2007，『中國古代金屬礦和煤礦開采工程技術史』，山西出版集團·山西教育出版社，10~11쪽。
- 61 『國語·晉語』 “黃帝以姬水成，炎帝以姜水成，成而異德，故黃帝爲姬，炎帝爲姜。”
- 62 淺野裕一，1992，『黃老道の成立と展開』，創文社，183~184쪽(김희경, 『黃帝神話와 黃老思想의 自然觀-黃帝四經을 중심으로』, 『도교문화연구』 제17집, 103쪽에서 재인용)
- 63 『小戴禮·表記』 “殷人尊神，率民以事神，先鬼而後禮。”
- 64 『尚書·蔡仲之命』 “皇天無親，唯德是輔。”
- 65 『尚書·召誥』 “唯不敬厥德。”
- 66 『尚書·召誥』 “嗚呼！皇天上帝改厥元子，茲大國殷之命，惟王受命。”
- 67 馬曉穩，2012，『出土戰國文獻『尚書』輯證』，安徽大學碩士學位論文，39~41쪽。
- 68 (俄)郭靜云，2009，『『尚書·呂刑』不同版本及其思想研究』，『史學史研究』2009年 第2期，89쪽。
- 69 (俄)郭靜云，2009，『『尚書·呂刑』不同版本及其思想研究』，『史學史研究』2009年 第2期，89~90쪽。
- 70 李紹連，1992，『炎黃文化與炎黃子孫』，『中州學刊』1992年 第5期。
- 71 劉起鈞，1991，『我國古史傳說時期綜考』，『古史續辨』，中國社會科學出版社，23~24쪽。
- 72 嚴文明，1997，『黃河文明的發祥與發展』，『華夏考古』1997年 第1期。
- 73 蘇秉琦，1993，『迎接中國考古學的新世紀』，『東南文化』1993年 第1期；王震中，1995，『從仰韶文化與大溪文化的交流看黃帝與嫫祖的傳說』，『江漢考古』1995年 第1期；陳旭，1998，『炎黃歷史傳說與中華文明』，中州古籍出版社，142~150쪽；許順湛，1992，『黃帝時代是中國文明的源頭』，『中州學刊』1992年 第1期；許順湛，1997，『再論黃帝時代是中國文明的源頭』，『考古與文物』1997年 第4期；許順湛，2006，『三論黃帝時代是中國文明的源頭』，『炎黃文化研究』2006年 第3輯；李學勤，2009，『炎帝·黃帝的歷史統緒』同著，李學勤說先秦，上海科學技術文獻出版社，54쪽；李學勤 主編，2007，『中國古代文明與國家形成研究』，中國社會科學出版社出版，193~203쪽。

## 제5장

- 1 趙彥飛，2014，『當前邊疆穩定中的民族虛無主義思潮防治』，『貴州民族研究』2014年 第8期，19쪽。
- 2 魯諒，2002，『弘揚炎黃文化促進中華民族的偉大復興-在2002年炎帝與漢民族國際學術研討會上的致

## 298 중국 애국주의와 고대사 만들기

- 辭,『寶鷄社會科學』2002年 第3期(總100期), 14쪽.
- 3 魯諒, 2002, 「弘揚炎黃文化促進中華民族的偉大復興-在2002年炎帝與漢民族國際學術研討會上的致辭」,『寶鷄社會科學』2002年 第3期(總100期), 13쪽.
  - 4 黃帝와 皇帝의 구분을 위하여 黃帝는 한글로 표기하고 皇帝는 한자로 표기하겠음.
  - 5 呂思勉·童書業, 1982, 『古史辨』第7册(中), 上海古籍出版社, 52~53쪽.
  - 6 張舜徽, 『鄭學叢著』, 齊魯書社, 1984, 429쪽.
  - 7 吳廣平, 1995, 「軒轅黃帝的原型破譯」, 『青海師範大學學報(社會科學版)』1995年 第1期, 43쪽.
  - 8 郭沫若, 1966, 『十批判書』, 科學出版社, 134쪽.
  - 9 常玉芝, 2008, 「由商代的“帝”看所謂“黃帝”」, 『文史哲』2008年 第6期.
  - 10 陳明遠, 2015, 「“甲金文驗古學”之七-黃帝崇拜的來龍去脈」, 『社會科學論壇』2015年 第7期, 43쪽.
  - 11 徐旭生, 1943, 『中國古史的傳說時代』, 中國出版社.
  - 12 蘇秉琦, 1993, 「迎接中國考古學的新世紀」, 『東南文化』1993年 第1期.
  - 13 李學勤, 2009, 「炎帝·黃帝的歷史統緒同著」, 『李學勤說先秦』, 上海科學技術文獻出版社, 54쪽.
  - 14 에릭 홉스봄, 박지향·장문석 옮김, 2005, 『만들어진 전통』, 26쪽.
  - 15 白紅菊, 2019, 「近百年國內黃帝部落發祥地研究綜述」, 『隴東學院學報』2019年 5月 第30卷 第3期.
  - 16 皇甫謐, 『帝王世紀』, “生黃帝于壽丘, 壽丘在今魯城東門之北, 今在兗州曲阜縣東北六里.”
  - 17 『史記·五帝本紀』 “南至于江, 登熊湘.”
  - 18 蔣南華·王化偉, 2011, 「伏羲炎黃堯舜故里考」, 『貴州師範學院學報』, 2011年 第2期.
  - 19 劉俊男·易桂花, 2015, 「黃帝及堯、舜、禹三支後裔的地望及主要史迹研究(上)」, 『重慶文理學院學報』, 2015年 第4期.
  - 20 莊壽雨, 2002, 「黃帝部族與古滿-通古斯族群」, 『滿語研究』, 2002年 第1期; 周光華, 2007, 「華夏起源與齊文化融合」, 『管子學刊』, 2007年 第2期.
  - 21 範文瀾, 2000, 『中國通史簡編』, 河北教育出版社, 9~10쪽.
  - 22 顧詒剛, 1963, 『史林雜識初編』, 中華書局, 179쪽.
  - 23 徐旭生, 1985, 『中國古史的傳說時代』, 文物出版社, 43쪽.
  - 24 林祥庚, 1985, 「黃帝與夏商周」, 『學術月刊』, 1985年 第3期, 47쪽.
  - 25 龔維英, 1983, 「周族先民圖騰崇拜考辨-兼說黃帝族, 夏族的圖騰信仰」, 『人文雜誌』, 1983年 第3期, 78쪽.
  - 26 王獻唐, 1985, 『炎黃氏族文化考』, 齊魯書社, 528쪽.
  - 27 劉起鈺, 1988, 「我國古史傳說時期綜考(下)」, 『文史』第二十九輯, 中華書局, 32쪽.
  - 28 魯敏杰·祁慧, 2008, 「炎黃黎苗新解」, 『學習月刊』, 2008年 第1期, 29쪽.
  - 29 胡義成, 2016, 「楊官寨遺址是應確定黃陵祭祀爲“國家公祭”的考古主證-論黃陵墓主即西安“黃帝都邑”楊官寨遺址族群盛期首領」, 『黃帝陵是中華民族的精神標識』, 陝西人民出版社, 21~39쪽; 胡義成, 2019, 「西安楊官寨遺址中心廣場蓄水池解讀-兼議河南靈寶西坡遺址爲黃帝族“副都邑”」, 浙江樹人大學學報 第19卷 第5期 2019年 9月.
  - 30 沈長雲, 2013, 「石峁古城是黃帝部族居邑」, 『光明日報』, 2013年 3月 25日.
  - 31 許順湛, 1983, 『中原远古文化』, 河南人民出版社.
  - 32 許順湛, 1996, 「鄭州西山發現黃帝古城」, 『中原文物』, 1996年 第1期.
  - 33 楊國勇, 1982, 「黃炎華夏考」, 『山西大學學報』, 1982年 第4期, 55~57쪽.
  - 34 楊亞長, 1987, 「炎帝, 黃帝傳說的初步分析與考古學觀察」, 『史前研究』, 1987年 第4期, 82쪽.
  - 35 李耀宗, 1992, 「天心一柱定中華-論黃帝出生, 建都有熊的歷史人文契機」, 『中央民族學院學報』, 1992年 第1期, 19쪽.
  - 36 徐杰舜, 1989, 「漢民族主源炎黃東夷論(上)」, 『廣西民族學院學報』, 1989年 第2期, 2쪽.
  - 37 李友謀, 1993, 「炎黃文化與裴李崗文化」, 『鄭州大學學報』, 1993年 第6期, 60쪽.

- 38 有為·辛夷, 1994, 「根在河洛功存華夏-中華炎黃文化與河洛文明國際學術討論會綜述」, 『史學月刊』, 1994年第1期, 115쪽.
- 39 李紹連, 1992, 「炎黃文化與炎黃子孫」, 『中州學刊』 1992年 第5期.
- 40 王震中, 1995, 「從仰韶文化與大溪文化的交流看黃帝與嫫祖的傳說」, 『江漢考古』 1995年 第1期.
- 41 陳旭, 1998, 『炎黃歷史傳說與中華文明』, 中州古籍出版社, 142~150쪽.
- 42 嚴文明, 1997, 「黃河文明的發祥與發展」, 『華夏考古』 1997年 第1期.
- 43 韓建業, 2002, 「涿鹿之戰探索」, 『中原文化研究』 2002年 第4期.
- 44 李紹連, 2006, 「黃帝部族活動的北綫地域」, 『中原文物』, 2006年 第1期, 21쪽.
- 45 張光遠, 2006, 「黃帝時代的中國文明」, 『協商論壇』, 2006年 第3期, 7쪽.
- 46 李學勤 主編, 2007, 『中國古代文明與國家形成研究』, 中國社會科學出版社, 193~203쪽.
- 47 李桂民, 2011, 「二重證據法與夏周, 黃帝族源問題」, 『廣西社會科學』 2011年 第6期 94쪽.
- 48 馬世之, 2007, 「天上白玉京五城十二樓-淺析黃帝時代的西山古城」, 『文物建築』, 2007年 00期, 188~192쪽.
- 49 李德力, 2008, 「孟津妣祖遺址與黃帝遺迹」, 『河南科技大學學報』, 2008年 第4期, 10~12쪽.
- 50 徐日輝, 2008, 「錢穆所論黃帝政治中心的考古印證」, 『浙江工商大學學報』, 2008年 第6期, 69~71쪽.
- 51 李德力, 2008, 「孟津妣祖遺址與黃帝遺迹」, 『河南科技大學學報』, 2008年 第4期, 10~12쪽.
- 52 宮衍興·呂浩文, 1986, 「東夷族文化初探-東夷族在中國走向文明過程中的歷史作用」, 『史前研究輯刊』, 133쪽.
- 53 楊向奎, 1988, 「先秦儒家之一統思想-兼論“炎黃”“華夏”兩實體之形成」, 『山東大學學報』, 1988年 第4期, 101쪽.
- 54 王北辰, 1994, 「黃帝史迹涿鹿, 阪泉, 釜山考」, 『北京大學學報』, 1994年 第1期, 109쪽.
- 55 沈長雲, 1999, 「從周族的起源論及黃帝氏族的發祥地」, 『張家口職業技術學院學報』, 1999年 第3期, 12~13쪽.
- 56 蘇秉琦, 1994, 「華人·龍的傳人·中國人-考古尋根記」, 遼寧大學出版社, 130쪽; 蘇秉琦, 2009, 「中國文明起源新探」, 『蘇秉琦文集(三)』, 文物出版社, 329~330쪽.
- 57 蘇秉琦, 1994, 「燕山南北長城地帶考古工作的新進展」, 『華人·龍的傳人·中國人』, 遼寧出版社.
- 58 韓建業, 2002, 「涿鹿之戰探索」, 『中原文物』 2002年 第4期; 常文鵬·王剛, 「從考古學角度試論黃帝在涿鹿」, 『文物春秋』 2013年 第3期.
- 59 郭大順, 2010, 『追尋五帝』, 遼寧人民出版社, 122~123쪽.
- 60 金字飛, 2003, 「炎黃傳說的考古學證明」, 『复旦學報』, 2003年 第3期, 106쪽.
- 61 雷廣臻, 2007, 「化石」, 『山海經』與紅山文化-紅山文化區系黃帝, 顯現活動區之佐證」, 『化石』, 2007年 第1期, 26쪽.
- 62 張遠山, 2017, 「黃帝軒轅, 玉帝玄電-黃帝族祭天, 威儀, 裝飾玉器總論」, 『社會科學論壇』, 2017年 第4期, 5쪽.
- 63 제프리 K. 올릭 지음, 강경이 옮김, 2011, 『기억의 지도-집단지역은 인류의 역사와 사회, 그리고 정치를 어떻게 뒤바꿔놓았나?』, 26쪽.
- 64 『世本』“黃帝居軒轅之丘.”
- 65 皇甫謐, 『帝王世紀』“受國于有熊, 居軒轅之丘, 故因以爲名, 又以爲號. 有熊, 即今河南新鄭是也.”
- 66 『史記·五帝本紀』“黃帝崩, 葬橋山.”
- 67 『史記·孝武本紀』와 『史記·封禪書』“其來年冬, 上議曰, 古者先振兵澤旅, 然後封禪. 乃遂北巡朔方, 勒兵十余萬, 還祭黃帝冢橋山.”
- 68 에릭 홉스봄 외 지음, 박지향·장문석 옮김, 2005, 『만들어진 전통』, 역자 서문.
- 69 本書編寫組 編寫, 2017, 『十九大報告』, 黨建讀物出版社, 14~15쪽.
- 70 제프리 K. 올릭 지음, 강경이 옮김, 2011, 『기억의 지도-집단지역은 인류의 역사와 사회, 그리고 정치를 어떻게 뒤바꿔놓았나?』, 6쪽.

300 중국 애국주의와 고대사 만들기



71 에릭 홉스봄, 박지향·장문석 옮김, 2005, 「전통들을 발명해내기」, 『만들어진 전통』, 26쪽.

## 제6장

- 1 中國社會科學院考古研究所 등, 2015, 『襄汾陶寺: 1978~1985年發掘報告』(北京: 文物出版社).
- 2 何驚, 2007, 「陶寺文化遺址-走出堯舜禹傳說時代」의 探索, 解希恭 主編, 『襄汾陶寺遺址研究』(北京: 科學出版社), 180~183쪽; 王守春, 2007, 「堯的政治中心的遷移及其意義」, 『襄汾陶寺遺址研究』, 368~375쪽; 王克林, 2007, 「陶寺文化與唐堯, 虞舜-論華夏文明的起源」, 『襄汾陶寺遺址研究』, 376~393쪽; 王迅, 2007, 「五帝時代與夏代史迹的考古學觀察」, 『襄汾陶寺遺址研究』, 394~397쪽; 解希恭·陶富海, 2007, 「堯文化五題」, 『襄汾陶寺遺址研究』, 398~405쪽.
- 3 李元慶, 1997, 『三晉文化源流』(太原: 山西古籍出版社), 140~143쪽; 侯毅 2001, 『山西通史』卷一(先秦卷)(太原: 山西人民出版社), 94~98쪽.
- 4 李元慶, 위 책, 114~128쪽; 侯毅, 위 책, 113~117쪽.
- 5 이미 국내 학계에서도 현재까지 지속하고 있는 이러한 문명 만들기의 문제를 지적한 공동연구가 산출된 바 있다(김병준 등, 2008, 『중국의 '지역문명 만들기'와 역사, 고고학 자료 이용 사례 분석』[동북아역사재단]).
- 6 '요하문명론'에 대해서 국내 학계에서도 문제점을 지적하는 공동연구가 출간되었다(송호정 등, 2008, 『중국 동북지역 고고학 연구현황과 문제점』[동북아역사재단]).
- 7 李學勤, 1997, 「古史, 考古學與炎黃二帝」, 『走出疑古時代』(沈陽: 遼寧大學出版社), 38~46쪽; 李零, 1998, 「考古發現與神話傳說」, 『李零自選集』(桂林: 廣西師範大學出版社), 58~84쪽.
- 8 Robin McNeal, 2015, "Moral Transformation and Local Identity: Reviving the Culture of Shun at Temples and Monuments across China," *Modern China* 41. 4, pp.436-464.
- 9 로타 본 팔겐하우젠 지·심재훈 역, 2011, 『고고학 증거로 본 공자시대 중국사회』(세창출판사), 43~48쪽.
- 10 裘錫圭, 2004, 「中國古典學重建中應該注意的問題」, 『中國出土文獻十講』(上海: 復旦大學出版社), 1~16쪽.
- 11 陳永超, 2000, 『堯舜傳說研究』(南京: 南京師範大學出版社); 吳銳, 2015, 『中國上古的帝繫構造』(北京: 中華書局).
- 12 Jae-hoon Shim, 2017, "The Eastward Relocation of the Zhou Royal House in the Xinian Manuscript: Chronological and Geographical Aspect," *Archive Orientalni* 85/1, pp.67-98.
- 13 『繫年』의 東遷과 이를 둘러싼 여러 문제들에 대해서는 심재훈, 2014, 「전래문헌의 권위에 대한 새로운 도전: 清華簡 『繫年』의 周 왕실 東遷」, 『歷史學報』 221, 261~296쪽 참조.
- 14 蘇東燮, 2020, 「商周시기 鄂의 역사지리 재검토: 고문자와 전래문헌 誤讀의 함정」, 단국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15 山西省 鄉寧과 湖北省 隨州 이외에 中國國의 소재지인 定州(오늘날 河北省) 唐縣도 堯帝가 始封된 지역으로 알려진 바 있다(『元和郡縣志』, 欽定四庫全書, 卷22, 河北道3, 定州).
- 16 『括地志』와 거의 비슷한 시기인 621년 찬수된 『隋書』 『地理志』에도 최초로 昌寧縣에 嶧山이 있었던 것으로 나타나기 시작한다(『隋書』 [北京: 中華書局, 1959], 851쪽).
- 17 『四庫全書總目提要』(<http://ssp21.or.kr/db/>).
- 18 『元和郡縣志』, 卷15, 河東道2, 慈州.
- 19 『太平寰宇記』, 欽定四庫全書, 卷40-50.
- 20 張守節은 『史記正義』의 唐에 대한 주석에서 "故唐城이 絳州 翼城縣 서쪽 20리에 있었는데, 바로 堯의 후손이 봉해진 곳이다"라고 『括地志』를 인용했는데(『史記』 [北京: 中華書局, 1959], 1636쪽), 『元和郡縣志』에도 翼城縣의 서쪽 20리에 堯의 후예가 봉해진 故唐城이 있었다고 하여(卷14, 河東道1, 絳州), 이 설은 그대로 차용하고 있다.

미주 301

- 21 현존하는 명칭시대 출간된 『山西通志』는 다음의 6종이다: 胡謐纂成化『山西通志』17권, 周斯盛纂嘉靖『山西通志』32권, 李維禎 등纂萬曆『山西通志』30권, 劉梅 등纂康熙『山西通志』32권, 儲大文纂雍正『山西通志』230권, 王軒 등纂光緒『山西通志』184권(張麗娜, 「明清山西通志研究」, 華東師範大學 碩士學位論文, 2017, 4). 온라인상에서 활용이 용이한 萬曆과 雍正『山西通志』를 분석 대상으로 삼았다.
- 22 『(萬曆)山西通志』 卷10, 403쪽. 이하 『(萬曆)山西通志』는 모두 “愛如生-中國基本古籍庫”의 中國方志庫 (<http://dh.ersjtk.com>)를 활용했다. 쪽수는 그 사이트에 의거한다.
- 23 『漢書』(北京: 中華書局, 1959), 1551쪽.
- 24 『後漢書』(北京: 中華書局, 1959), 3397쪽.
- 25 『晉書』(北京: 中華書局, 1959), 416쪽.
- 26 『魏書』(北京: 中華書局, 1959), 2477쪽.
- 27 위 책, 169쪽.
- 28 김상범, 2005, 『唐代 국가권력과 민간신앙』(신서원), 54쪽.
- 29 舜生於諸馮, 遷於負夏, 卒於鳴條, 東夷之人也. 文王生於岐周, 卒於畢郢, 西夷之人也. 地之相去也, 千有餘里; 世之相後也, 千有餘歲.
- 30 『孟子注疏』, 李學勤 主編『十三經注疏(標點本)』(北京: 北京大學出版社, 1999), 213~214쪽.
- 31 『禮記』, 十三經注疏, (北京: 中華書局, 1980), 1281쪽.
- 32 『史記』, 44쪽.
- 33 『孟子正義』(中華書局, 1987), 537~538쪽.
- 34 楊伯峻, 1960, 『孟子譯注』, (中華書局), 184쪽.
- 35 현재까지 중국 전역에서 舜이 농사를 지었다고 전하는 歷山만 21곳에 이른다고 한다(鄒明華, 2008, 『舜』 歷史與“真”文化—山西洪洞的活態古史傳說, 『文學評論』2008-5, 127쪽).
- 36 池田末利, 1976, 『尚書』, (東京: 集英社), 119쪽; Michael Loewe ed., 1993, *Early Chinese Texts: A Bibliographical Guide*, (Berkeley: The Society for the Study of Early China), p.378.
- 37 『墨子閒詁』, 諸子集成 (北京: 中華書局, 1986), 64~65쪽.
- 38 『漢書』, 1550쪽.
- 39 劉緒, 2007, 『晉文化』(北京: 文物出版社), 47~49쪽.
- 40 『(光緒)山西通志』6 (北京: 中華書局, 1990), 2403쪽.
- 41 陳橋驛, 1999, 『水經注校釋』(杭州: 杭州大學出版社), 112쪽.
- 42 『魏書』, 2466쪽.
- 43 심재훈, 2018, 『중국 고대 지역국가의 발전: 진의 봉건에서 문공의 폐업까지』, 일조각, 71~75쪽. 필자는 晉의 최초 분봉지 唐에 대해 洪洞 일대를 주목한 바 있다.
- 44 Tracy Miller, 2007, *The Divine Nature of Power: Chinese Ritual Architecture at the Sacred Site of Jinci* (Cambridge: Harvard University Asia Center), pp.42~50.
- 45 춘추시대 진의 확장에 대해서는 심재훈, 2018, 359~365쪽에 상술되어 있다.
- 46 『日知錄集釋』(四部備要), 30.31a~31b.
- 47 陳槃, 1969, 『春秋大事表列國作姓及存滅表誤異』(臺北: 中央研究院), 36~47쪽.
- 48 山西省考古研究所 등, 1996, 『太原晉國趙卿墓』(北京: 文物出版社), 237~244쪽.
- 49 Miller, 2007, p.177.
- 50 Miller, 2007, pp.51~56, p.178.
- 51 필자는 이러한 좋은 사례로 한국 고대사의 논쟁거리인 箕子朝鮮 설을 들고 싶다. 기원전 2세기경에 편찬된 『尚書大傳』과 『史記』「宋微子世家」에 周의 克商 직후인 기원전 11세기에 商의 賢人 箕子가 朝鮮으로 도피하여 朝鮮에 봉해졌다는 기록이 있다. 필자를 비롯한 국내외의 많은 학자들이 이 기록의 불합리성을 지적했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그럼에도 아마도 司馬遷의 권위 때문인지 箕子와 朝鮮의 연관

### 302 중국 애국주의와 고대사 만들기



성은 전통시대 중국과 한국의 학자들 뇌리에 각인되어 있었던 것 같다. 수많은 전통시대 史書에 箕子와 朝鮮은 상투적으로 엮여서 등장하고 그 스토리가 증폭되는 경향까지 두드러진다. 箕子 朝鮮 東來說의 추이와 그 시대착오성에 대해서는 심재훈, 2016, 『고대 중국에 빠져 한국사를 바라보다』, 푸른역사, 222~237쪽 참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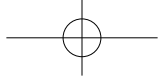
- 52 근래 중국 학계의 信古 경향을 둘러싼 李學勤과 裘錫圭 등의 논의는 심재훈, 2007, 「하상주단대공정과 信古 경향 고대사 서술」, 『韓國史學史學報』 16, 104~110쪽 참조. 故事 전설 자료에 대한 비판을 필수적으로 보는 郭永秉 역시 일체의 故事 전설을 상고사 연구의 신뢰할 수 있는 자료로 보는 것 반대한다. 故事를 (역사가 아닌) "전설"로 본 顧頌剛을 비롯한 古史辨派의 방법론이 타당하다고 보아 고사변과의 업적에 대한 무원칙적 공격도 지양해야 한다고 제안한다(郭永秉, 2008, 『帝系新研: 楚地出土戰國文獻中的傳說時代古帝王系統研究』 [北京: 北京大學出版社], 1~9쪽).
- 53 상 후기 갑골문에 나타나는 산서성 서남부의 정치체들과 그 추이에 대해서는 심재훈, 2018, 53~70쪽 참조.
- 54 衛聚賢, 1976, 『堯舜禹出現於甲骨文考』 (臺北: 山西文獻社); 林已奈夫, 1964, 『舜帝考』, 『甲骨學』 10.
- 55 林小安, 1986, 「殷武丁臣屬征代與行祭考」, 『甲骨文與殷商史』 2 (上海: 上海古籍出版社), 223~302쪽.
- 56 鄭杰祥, 1994, 『商代地理概論』 (鄭州: 中州古籍出版社), 303쪽.
- 57 馬保春, 2010, 『晉國地名考』 (北京: 學苑出版社), 153~157쪽; 孫亞冰·林獻, 2010, 『商代地理與方國』 (北京: 中國社會科學出版社), 338쪽. 西周시대의 楊國에 대해서는 陳槃, 1969, 462上-463下 참조. 洪洞縣 永凝堡에서는 서주시대 楊國의 유적으로 추정되는 상당 규모의 묘지가 발굴된 바 있다(山西省文物工作委員會 등 1987, 「山西洪洞永凝堡西周墓葬」, 『文物』 1987-3, 1~16쪽; 臨汾地區文化局, 1994, 「洪洞永凝堡西周墓葬發掘報告」, 『三晉考古』 1, 71~93쪽).
- 58 심재훈, 2018, 71~75쪽.
- 59 朱鳳瀚, 2007, 「規公簋與唐伯侯于晉」, 『考古』 2007-3, 64~69쪽.
- 60 吳鎮烽, 2014, 「晉公盤與晉公鎬銘文對讀」, 復旦大學出土文獻與古文字研究中心網站, 2014년 6월 22일.
- 61 『漢書』, 1550~1551쪽.
- 62 保利藝術博物館 編, 2002, 『熒公盃: 大禹治水與爲政以德』 (北京: 衆藝裝書局).
- 63 김정열, 2008, 「하늘이禹에게 명하여-새로 발견된 빈공수의 내용과 그 자료적 의의-」, 『중국고중세사 연구』 20, 287~324쪽.
- 64 郭永秉, 2008, 22쪽.
- 65 荊門市博物館, 1998, 『郭店楚墓竹簡』 (北京: 文物出版社), 157~160쪽.
- 66 馬承源 主編, 2002, 『上海博物館藏戰國楚竹書』(二) (上海: 上海古籍出版社), 186쪽.
- 67 顧史考, 2018, 「上博楚簡二〈子羔〉篇新編及概述」, 『出土文獻與中國古典學』, 復旦大學出土文獻與古文字研究中心, 耶魯-新加坡國立大學學院陳振傳基金漢學委員會合編 (上海: 中西書局), 31~45쪽.
- 68 李承律, 2005, 「上海博物館藏戰國楚竹書『容成氏』譯注(上)」, 『出土文獻與秦楚文化』 2, 102쪽.
- 69 馬承源 主編, 2002, 255쪽.
- 70 馬承源 主編, 2002, 259~260쪽.
- 71 『史記』, 33쪽.
- 72 그는 堯舜 전설이 商代의 신화(上帝가 상 왕조의 첫 번째 조상에게 천하를 다스리도록 명했다는)에서 비롯되었을 것으로 추정하지만 전승된 문헌 부족으로 언제, 어떻게 이런 변형이 일어났는지 추적 불가능하다고 한다(Sarah Allan, 2015, *Buried Ideas: Legends of Abdication and Ideal Government in Early Chinese Bamboo-Slip Manuscripts* [Albany: State University of New York Press]), p.17.
- 73 叔向問焉曰, 寡君之疾病, 卜人曰, 實沈臺駘為祟, 史莫之知, 敢問此何神也, 子產曰, 昔高辛氏有二子, 伯曰閼伯, 季曰實沈, 居于曠林, 不相能也, 日尋干戈, 以相征討, 后帝不臧, 遷閼伯于商丘, 主辰, 商人是因, 故辰為商星, 遷實沈于大夏, 主參, 唐人是因, 以服事夏商, 其季世曰唐叔虞. 當武王邑姜, 方震大叔,

夢帝謂己, 余命而子曰虞, 將與之唐, 屬諸參而蕃育其子孫, 及生有文在其手, 曰虞, 遂以命之, 及成王滅唐而封大叔焉, 故參爲晉星. 由是觀之, 則實沈, 參神也.

- 74 『春秋左傳正義』十三經注疏(北京:中華書局, 1980), 2022쪽; 楊伯峻, 1981, 『春秋左傳注』(北京:中華書局), 1217~1218쪽.
- 75 楊伯峻, 1981, 525쪽.
- 76 『論語注疏』, 十三經注疏(北京:中華書局, 1980), 2535쪽.
- 77 楊伯峻, 1981, 964쪽.
- 78 顧頡剛, 1982, 「討論古史答劉胡二先生」, 『古史辨』第1冊(上海:上海古籍出版社), 中篇, 118쪽.
- 79 童書業, 1982, 「帝堯陶唐氏名號溯源」, 『古史辨』第7冊 下篇, 19쪽.
- 80 陳泳超, 2000, 8쪽; 吳銳 2015, 571~588쪽. 「世經」에는 唐帝에 대하여 『帝繫』를 인용하여 “帝嚳의 네 번째 부인인 陳豐이 帝堯를 낳았다”고 한다. 唐에 封해졌으며, 高辛氏의 世가 쇠퇴하자 天下가 唐에 귀의하여 陶唐氏로 불렸다고 한다(『漢書』, 1013쪽).
- 81 楊寬, 1982, 「中國上古史導論」, 『古史辨』第7冊 上篇, 269~277쪽.
- 82 郭永秉, 2008, 68~71쪽.
- 83 楊伯峻, 1981, 633~638쪽.
- 84 위 책, 1087쪽.
- 85 吳銳, 2015, 585쪽.
- 86 David W. Pankenier, 1999, “Applied Field-Allocation Astrology in Zhou China: Duke Wen of Jin and the Battle of Chengpu (632 B.C.),” *Journal of American Oriental Society* 119.2, pp.266-267.
- 87 위 글, p.277.
- 88 崔振默, 2008, 「중국 고대 夢占의 논리와 그 사회적 기능」, 『中國古中世史研究』 16, 146~149쪽, 156~161쪽.
- 89 김석진, 2018, 「戰國 楚簡 역사류 연구 試論」, 『中國古中世史研究』 48, 1~27쪽.
- 90 Yuri Pines, 2018, “History without Anecdotes: Between the Zuozhuan and the Xinian Manuscript,” *Between History and Philosophy: Anecdotes in Early China*, edited by Paul van Els and Sarah A. Queen (Albany: State University of New York), pp.288-289.
- 91 김석진, 2018, 19~21쪽(특히 각주 32).
- 92 Miller, 2007, p.39.
- 93 Li Feng, 2006, *Landscape and Power in Early China: The Crisis and Fall of the Western Zhou, 1045-771 B.C.*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pp.20-21.
- 94 김상범, 2005, 54쪽.
- 95 『漢書』, 1550. 최근 金龍濂도 『漢書』 「地理志」의 제사 시설을 분석하며 山西省은 河東郡 蒲反의 堯山祠 하나가 있었다고 보았다. 다만 당시 실존한 모든 신과 제사 시설을 총괄하지 않고 국가권력이 특별히 관심 기울인 중요한 것을 선별했으리라 추정했다(金龍濂, 2018, 「前漢代 國家祭祀의 中央集中 編制」, 2018년 동양사학회 춘계연구발표회 「동아시아의 국가와 사회」, 4월 28일 서울대).
- 96 『晉書』, 416쪽.
- 97 『漢書』, 1550쪽.
- 98 위 책, 1551쪽.
- 99 위와 같음.
- 100 위 책, 1648~1649쪽.
- 101 『毛詩正義』, 十三經注疏(北京:中華書局, 1980), 360쪽.
- 102 Miller, 2007, p.177.
- 103 위에서 설명한 蒲反縣과 晉陽縣을 제외하고 『漢書』 「地理志」의 河東郡과 太原郡 산하에 소속된 43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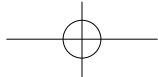
### 304 중국 애국주의와 고대사 만들기





縣에 대한 班固의 주해 중에 西周 후기 厲王이 도피(奔)했다는 蕺縣만이 春秋시대 이전의 내력을 전하고 있다.

- 104 Gopal Sukhu, 2005-2006, "Yao, Shun, and Pefiguration: The Origins and Ideology of the Han Imperial Genealogy," *Early China* 30, pp.91-153; 吳統, 2015, 54~55쪽.
- 105 『漢書』 「地理志」에 堯가 지명과 연관된 경우는 위의 山西省의 사례를 제외하고 한 차례 더 나타난다. 오늘날 河南省 남동부와 山東省 서남부에 위치한 宋의 故地에 대한 개괄적 설명에서 "옛날 堯가 成陽에 遊宮을 지었다(昔堯作遊成陽)"라고 언급하고 있다. 더욱이 이 지역을 『左傳』 '襄公 9년'에 나오는 대로 "陶唐氏의 火正인 關伯의 虛"로 명시하고 있다(『漢書』, 1663~1664쪽).
- 106 이 논쟁의 발단과 추이에 대해서는 이승률, 2013, 『죽간, 목간, 백서, 중국 고대 간백자료의 세계1』 (예문서원), 58~80쪽 참조.
- 107 Edward L. Shaughnessy, 2006, *Rewriting Early Chinese Texts*, (Albany: State University of New York), p.263.
- 108 『後漢書』, 3397쪽.
- 109 위 책, 3523쪽.
- 110 위 책, 3456~3457쪽.
- 111 『魏書』, 2477쪽.
- 112 위 책, 2468쪽.
- 113 司州 東郡 東燕縣의 堯祠(『魏書』, 2459쪽); 定州 中山郡 上曲陽縣의 堯山과 安喜縣의 趙堯祠(『魏書』, 2462쪽); 定州 鉅鹿郡 曲陽縣의 堯祠; 股州 南趙郡 廣阿縣의 堯臺(『魏書』, 2472쪽); 營州 昌黎郡 龍城縣의 堯祠(『魏書』, 2494쪽); 青州 齊郡 臨淄縣의 堯山祠(『魏書』, 2522쪽); 北豫州 廣武郡 陽武縣의 堯祠(『魏書』, 2536쪽); 海州 東海郡 下密縣의 堯廟(『魏書』, 2557쪽).
- 114 『元和郡縣志』, 卷19, 河東道6, 澤州.
- 115 위 책, 卷14, 河東道1, 河中府.
- 116 위 책, 卷14, 河東道1, 絳州.
- 117 위 책, 卷15, 河東道2, 晉州.
- 118 위 책, 卷15, 河東道2, 慈州.
- 119 위 책, 卷7, 河南道2, 陝州.
- 120 위 책, 卷16, 河東道3, 太原府(并州).
- 121 위의 114와 같음.
- 122 김상범, 2005, 54~63쪽. 특히 부록의 '당대 사료신앙 개황표'에 전국에 분포한 堯舜禹의 祠廟가 대체로 정리되어 있다(322~323쪽).
- 123 堯의 경우 오늘날 山東省에 해당하는 兗州 瑕丘縣에 堯祠(卷11, 河南道6)가, 曹州 濟陰縣 定陶故城이 堯의 거주지로(卷12, 河南道7), 濮州 雷澤縣에 堯母廟와 堯陵(卷12, 河南道7)이 있었다. 河南省 동북부에 해당하는 相州 堯城縣이 堯의 城으로(卷20, 河北道1), 河北省 일대의 定州 唐縣이 堯의 초봉지로, 인근의 望都縣에는 堯山과 堯祠가 있었다(卷22, 河北道3). 오늘날 安徽省 일대의 池州 青陽縣에도 堯城이 있어서 堯舜의 南巡地로 전해졌고(卷29, 江南道), 廣東省 인근의 廣州 滄溪縣에 堯山이 있었다(卷35, 嶺南道). 舜의 경우는 河南省 동남부 宋州 虞城縣이 舜의 분봉지로(卷8, 河南道3), 曹州 濟陰縣이 舜의 "陶于河濱" 지역으로, 濮州 雷澤縣이 "舜耕歷山" 지역으로 인식되었다(卷12, 河南道7). 浙江省 일대 越州 餘姚縣이 舜의 후에 支庶가 분봉된 지역으로(卷27, 江南道2), 湖南省 岳州 湘陰縣에 舜의 二妃冢이(卷28, 江南道3), 永州에 舜을 장사지냈다는 九疑가, 道州 弘道縣에 舜의 二妃 관련 사적이, 延唐縣에 舜祠와 舜廟가 있었다(卷30, 江南道5). 禹의 경우는 安徽省 濠州 鍾離縣이 禹가 妻를 얻었다는 塗山氏의 지역으로(卷10, 河南道5), 山東省 淄州 淄川縣이 禹의 治水 관련 지역으로(卷13, 河南道8), 浙江省 越州 會稽縣이 禹의 巡行地로(卷27, 江南道2), 安徽省 宣州 當塗縣을 禹가 제후들과 회합한 塗山으로 보았다(卷29, 江南道4).
- 124 영문 알파벳에 이어지는 숫자는 위에서 명시된 『元和郡縣志』의 현별 번호이다.



- 125 『太平寰宇記』, 卷40, 河東道1, 并州.
- 126 위 책, 卷43, 河東道4, 晉州.
- 127 위 책, 卷44, 河東道5, 澤州.
- 128 위 책, 卷46, 河東道7, 蒲州.
- 129 위 책, 卷46, 河東道7, 解州.
- 130 위 책, 卷47, 河東道8, 絳州.
- 131 위 책, 卷48, 河東道9, 慈州.
- 132 위 책, 卷41, 河東道2, 嵐州.
- 133 위 책, 卷42, 河東道3, 忻州.
- 134 위 책, 卷45, 河東道6, 潞州.
- 135 위 책, 卷50, 河東道11, 威勝軍.
- 136 『(萬曆)山西通志』, 卷10, 太原府, 388쪽.
- 137 위 책, 卷14, 太原府, 677쪽.
- 138 위 책, 卷10, 太原府, 390쪽.
- 139 위 책, 卷10, 平陽府, 403쪽. 錄文의 舜은 堯의 오류이다.
- 140 위 책, 卷14, 平陽府, 704쪽.
- 141 위 책, 卷10, 平陽府, 403쪽.
- 142 위 책, 卷14, 平陽府, 705쪽. 錄文의 虞陵舜은 虞舜陵의 오류이다.
- 143 위 책, 卷10, 平陽府, 406쪽.
- 144 위 책, 卷10, 平陽府, 404쪽. 錄文의 帝州는 蒲州의 오류이다.
- 145 위 책, 卷14, 平陽府, 701~702쪽.
- 146 위 책, 卷10, 平陽府, 692.
- 147 위 책, 卷14, 澤州, 755.
- 148 『(雍正)山西通志』, 卷164, 祠廟一. 참고.
- 149 위 책, 卷165, 祠廟二.
- 150 위 책, 卷166, 祠廟三.
- 151 위 책, 卷167, 祠廟四.
- 152 위 책, 卷172, 陵墓一.
- 153 위 책, 卷174, 陵墓三.
- 154 위 책, 卷58, 古迹二.
- 155 위와 같음.
- 156 위 책, 卷60, 古迹四.
- 157 祁縣 二帝行祠(元 大德과 明 嘉靖 연간에 수리); 洪洞縣 堯廟(元 至正 14년[1354년] 鄉人 楊道甫 건립); 浮山縣 帝堯廟(金 皇統 三年[1143년]에 邑宰 牛承值가重修), 禹湯廟(唐代 건립, 元 大德 9년[1305년] 錄事 沈永之가重修); 太平縣 帝堯廟(宋 政和 2년[1112년] 重修), 帝舜廟(元 大德 2년[1298년] 重修), 禹王廟(明 正統 7년 [1442년] 건립); 霍州 帝堯祠(宋代 건립); 芮城縣 大禹廟(宋 雍熙 4년[987년] 건립); 絳州 禹王廟(元 中統 연간 [1260~1264년] 건립); 長治縣 大禹廟(宋 咸平 연간[998~1003년] 重建); 長子縣 帝堯廟(元 至元 연간[1335~1340년] 소급); 壺關縣 大禹廟(元 延祐 6년[1319년] 건립).
- 158 Romeyn Taylor, 1997, "Official Altars, Temples and Shrines Mandated for all Counties in Ming and Qing," *Toung Pao* 83, pp.93-125; 李允頤, 2006, 「雍正帝와 清代 國家祭祀: 禮制의 측면에서 본 雍正 統治」, 『明清史研究』 25, 171~211쪽.
- 159 馬興, 2007, 「堯舜時代研究」, 東北師範大學 博士學位論文, 109~117쪽, 121~125쪽. 수당대에 帝堯는 平陽(臨汾), 帝舜은 河東(永濟)을 정통으로 간주한 반면에, 송대에는 堯(陶唐氏)를 제사 지내는 장소가 鄆

306 중국 애국주의와 고대사 만들기





州(荷澤) 등 山東으로 전이 되었다. 元代에 다시 山西가 중시되다가 청 順治 연간에 唐堯는 산동의 東平에서, 虞舜은 호남의 寧遠(永州)에서 제사하도록 陵寢祀典을 제정했다.

- 160 劉益齡, 2013, 『山西地方志史』(太原: 三晉出版社), 280~281쪽.
- 161 黃愛平, 2011, 「清代的帝王廟祭與國家政治文化認同」, 『清史研究』 2011-2, 13~20쪽.
- 162 閔斗基, 1964, 「〈大義覺迷錄〉에 대하여」, 『震檀學報』 25, 274~275 참조.
- 163 李允頤, 2006, 192~202쪽.
- 164 Taylor, 1997, p.118.
- 165 馬興, 2007, 128쪽.
- 166 『(雍正)山西通志』, 卷164, 祠廟一.
- 167 Pines, 2017, pp.264~287. Pines는 이러한 記事類 문헌들은 춘추전국시대 각 나라에서 내부용으로만 들어졌기 때문에, 교훈적인 내용을 담은 記言類의 이야기에 비해 보편성이 떨어져, 그 생명력이 짧았을 것으로 본다. 따라서 오랫동안 살아남은 유사역사적 이야기들이 후대 학자들로 하여금 중국 고대사를 재구성하는 토대가 되었으리라 암시한다.
- 168 David Schaberg, 2011, "Chinese History and Philosophy," in *The Oxford History of Historical Writing, Volume 1: Beginnings to AD 600*, edited by Andrew Feldherr and Grant Hardy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2011), p.398.
- 169 위 글, p.41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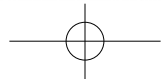
## 제7장

- 1 智慧 等, 2020, 「二里頭遺址申報世界文化遺產工作啓動」, 博物館之都, 2020-7-14, <http://bwgzd.lymuseum.com/cms/show-562.html> (2020-8-10 접속)
- 2 應妮, 2020, 「國家文物局: 已啓動“考古中國·夏文化研究”重大項目(2020—2024)」, 中國新聞網, 2020-8-21, <http://www.chinanews.com/cul/2020/08-21/9271287.shtml> (2020-8-28 접속)
- 3 崔述, 1983년판, 『崔東壁遺書』, 上海: 上海古籍出版社.
- 4 那珂通世, 1902, 「考信錄解題」, 『史學雜誌』 13-7; 崔述 著, 1903, 那珂通世 標點, 『崔東壁先生遺書』, 日本史學會.
- 5 白鳥庫吉, 1909, 「支那古傳說の研究」, 『東洋時報』 131.
- 6 顧頡剛, 1982년판, 「與錢玄同先生論古史書」, 『古史辨』 1, 上海: 上海古籍出版社, 60쪽.
- 7 內藤虎次郎, 1970년판, 「大阪の町人學者富永仲基」, 『內藤湖南全集』 9, 筑摩書店, 387~390쪽.
- 8 라오밍춘(廖名春)은 구제강의 '고사변(古史辨)' 운동이 일본의 영향을 받은 것으로 인식했다(廖名春, 1998, 「試論古史辨運動興起的思想來源」, 『原道』 4, 上海: 學林出版社).
- 9 李學勤, 2010년판, 「在“全國大禹文化研討會”上的演講」, 『通向文明之路』, 北京: 商務印書館, 40쪽.
- 10 『史記』 권2 「夏本紀」, 北京: 中華書局, 1959년판, 49~84쪽.
- 11 『毛詩正義』 권13-2, 「小雅·信南山」, 阮元刻, 1980년판, 『十三經注疏』, 北京: 中華書局, 470쪽, “信彼南山, 維禹甸之.” 본문에서 『十三經注疏』를 인용할 때, 별도의 주기가 없는 한 모두 이 판본을 사용한다.
- 12 『毛詩正義』 권16-5, 「大雅·文王有聲」, 526쪽, “豐水東注, 維禹之績.”
- 13 『毛詩正義』 권18-4, 「大雅·韓奕」, 570쪽, “奕奕梁山, 維禹甸之.”
- 14 『毛詩正義』 권20-2, 「魯頌·閟宮」, 614쪽, “奄有下土, 纘禹之緒.”
- 15 『毛詩正義』 권20-4, 「商頌·長發」, 626쪽, “洪水芒芒, 禹敷下土方.”
- 16 『毛詩正義』 권20-4, 「商頌·股武」, 627~628쪽, “天命多辟, 設都于禹之績.”
- 17 전국시기 후반의 모형(毛亨) 등이 편찬한 『모시(毛詩)』는 「신남산」은 유왕(幽王)을 풍자하기 위해(470쪽),

미주 307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문왕유성」은 무왕(武王)이 문왕(文王)을 계승하여 상(商)을 정벌했을 때(526쪽), 「한혁」은 선왕(宣王) 때 윤길보(尹吉甫)가 선왕을 찬미하기 위해 지은 것이라 한다(570쪽).

- 18 『모시』는 「노충」은 춘추시기 노희공(魯僖公)을 찬송하는 시편이고, 「상송」은 춘추시기 송(宋) 나라 정고보(正考甫)가 주(周)의 태사(太史)에게서 얻은 것이라 한다. 이는 「노충」과 「상송」의 춘추설의 유력한 근거가 되고 있다(『毛詩正義』 권20, 608~628쪽).
- 19 劉雨·嚴志斌, 2010, 『近出殷周金文集錄二編』, 北京: 中華書局.
- 20 關公胤 명문, 『근출(近出)2』 458, “天令(命)禹專(專)土, 隨山浚川.” 빈공수와 관련된 구체적인 내용은 김정열의 「하늘이 우에게 명하여—새로 발견된 빈공수의 내용과 그 자료적 의의」(『중국고종세사연구』 20, 2008)를 참조
- 21 『尙書正義』 권3, 130쪽, “兪, 咨禹, 汝平水土, 惟時懋哉.”
- 22 『尙書正義』 권4, 138쪽.
- 23 『尙書正義』 권6, 146쪽, “禹敷土, 隨山刊木, 奠高山大川.”
- 24 『尙書正義』 권12, 187쪽, “箕子乃言曰, 我聞在昔, 鯀陞洪水, 汨陳其五行, 帝乃震怒, 不畀洪範九疇, 彝倫有斁, 則鯀死, 禹乃嗣興, 天乃錫禹洪範九疇, 彝倫有敘.”
- 25 『尙書正義』 권17, 232쪽, “其克詰爾戎兵, 以陟禹之迹.”
- 26 구제강은 당초 「임정」의 연대를 동주(東周) 시기로 보았으나(顧頡剛, 1982년판, 『論今文尙書制作時代書』, 『古史辨』 1, 上海: 上海古籍出版社, 200~205쪽), 만년(晩年)에는 서주 시기부터 전해져 내려온 것으로 볼 수 있는 여지를 남겼다(顧頡剛, 1979, 『周公制禮的傳說和『周官』一書的出現』, 『文史』 6, 北京: 中華書局, 1~4쪽; 顧頡剛·劉起鈺, 『尙書校釋譯論』, 北京: 中華書局, 2005, p.1708).
- 27 『春秋左傳正義』 권17, 1833쪽, “舜之罪也殛鯀, 其舉也興禹.”
- 28 徐元誥 撰, 2002년판, 『國語集解』(修訂本), 北京: 中華書局, 94~95쪽, “其在有虞, 有宥伯鯀, 播其淫心, 稱遂共工之過, 堯用殛之於羽山, 其後伯禹念前之非度.”
- 29 『春秋左傳正義』 권17, 1839쪽, “祀, 國之大事也, 而逆之, 可謂禮乎… 故禹不先鯀, 湯不先桀, 文武不先不韙.”
- 30 徐元誥 撰, 『國語集解』(修訂本), 159쪽, “夏后氏禘黃帝而祖顓頊, 郊鯀而宗禹.”
- 31 류자난(劉佳南)은 『춘추좌씨전』을 사상적 측면, 사료 획득의 시점, 『춘추좌씨전』 속 예언의 실현 연대 등을 다각도로 분석, 그 편찬연대가 기원전 360~350년대라는 것을 밝혔다(劉佳南, 2008, 『左傳』成書年代問題的多視角考察』, 吉林大學碩士學位論文).
- 32 강유웨이(康有爲)는 『춘추좌씨전』이 서한(西漢) 말 유흥(劉歆, B.C.50~A.D.23)의 위작이라 여겼다(康有爲, 1987년판, 『經學偽經考』, 『康有爲全集』 1, 上海: 上海古籍出版社, 599쪽).
- 33 王聘珍, 1983년판, 『大戴禮記解詁』, 北京: 中華書局, 126~130쪽, 黃帝產昌意, 昌意產高陽, 是爲帝顓頊… 顓頊產鯀, 鯀產文命, 是爲禹… 黃帝居軒轅之丘, 娶于西陵氏之子, 謂之嫫祖氏, 產青陽及昌意… 昌意降居若水, 昌意娶于蜀山氏, 蜀山氏之子謂之昌濩氏, 產顓頊… 鯀娶于有莘氏之子, 謂之女志氏, 產文命. 禹娶于塗山氏之子, 謂之女嬌氏, 產啓.
- 34 정재서 역주, 1985년판, 『산해경』, 서울: 민음사, 335~338쪽, 黃帝生駱明, 駱明生白馬, 白馬是爲鯀… 禹鯀是始布土, 均定九州… 洪水滔天, 鯀竊帝之息壤以堙洪水, 不待帝命. 帝令祝融殺鯀於羽郊. 鯀復生禹. 帝乃命禹卒布土以定九州.
- 35 『春秋左傳正義』 권29, 1933쪽, “於虞人之箴曰, 茫茫禹迹, 畫爲九州, 經啓九道.”
- 36 명문 中國社會科學院考古研究所 編, 1984~1994, 『殷周金文集成』, 北京: 中華書局.
- 37 『집성(集成)』 285: “…尸(夷)典其先舊, 及其高祖, 赫赫成唐(湯), 又有(有)敢才(在)帝所, 專(傳)受天命, 嗣戛夏后… 咸有九州, 處禹之堵(土)…”
- 38 석문(釋文)은 린즈펑(林志鵬)의 「전국 초죽서 『용성씨』 교독(戰國楚竹書 『容成氏』校讀)」(『嶺南學報』 2018-2)을 따른다. “舜聽政三年, 山陵不尻(處), 水潦不浴(谷), 乃立禹以爲司工. 禹既已受命, 乃弁服纘簪, 冒美(蒲)蓑

### 308 중국 애국주의와 고대사 만들기



(塗),手足(匪匪),面乾,脛不生之毛,鬻(鬻)沼(微)流,禹親執粉(畚)耜,以陂明都之澤,決九河之阻,於是乎夾(兗(兗))州,徐州始可處,禹通淮與沂,東注之海,於是乎競(魯)州,濰(魯)州始可處也.禹乃通婁與易,東注之海,於是乎(兗)州,始可處也.禹乃通三江五湖,東注之海,於是乎荊州,揚州始可處也.禹乃通伊洛,并瀧,澗,東注之河,於是乎(豫)州始可處也.禹乃通涇與渭,北注之河,於是乎(涇)州始可處也.”

- 39 『周禮注疏』 권33, 861~864쪽.
- 40 許維遙 撰, 2009년판, 『呂氏春秋集釋』, 北京: 中華書局, 276~278쪽.
- 41 『爾雅注疏』 권7, 2614쪽.
- 42 李零, 2002, 「容成氏釋文考釋」, 『上海博物館藏戰國楚竹書(二)』, 上海: 上海古籍出版社.
- 43 李零, 2002, 「容成氏釋文考釋」, 『上海博物館藏戰國楚竹書(二)』.
- 44 李零, 2002, 「容成氏釋文考釋」, 『上海博物館藏戰國楚竹書(二)』; 黃人二, 2005, 「上博簡容成氏所述九州及相關問題探研」, 『出土文獻論文集』, 臺中: 高文出版社.
- 45 顧頡剛, 「與錢玄同先生論古史書」, 『古史辨』 1, 63쪽.
- 46 여기서 구제강은, 설사 자신이 이 설을 폐기하지 않았더라도, 이 설은 자신의 주장의 대의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말하기도 하였다(顧頡剛, 「自序」, 『古史辨』 2, 3쪽)
- 47 그러나 구제강은 훗날, '우'가 동물이라는 설을 다시 끌어들이며, '우'가 '하'의 토LEM이었을 가능성을 제기하기도 하였다(顧頡剛, 1990, 「高山族之蛇圖騰」, 『顧頡剛讀書記』 5, 臺北: 聯經出版事業公司, 3798쪽).
- 48 주평환(朱鳳翥)은 서주 초기 『상서』 등에 이미 '하'가 보이기 때문에 구제강이 '하'의 존재까지는 부정할 수 없었다는 점을 지적하였다(朱鳳翥, 2019, 「夏文化考古學探索六十年的啓示」, 『歷史研究』 2019-1, 24~25쪽).
- 49 『毛詩正義』 권18-1, 「大雅·蕩」, 554쪽, “股鑿不遠, 在夏后之世.”
- 50 『毛詩正義』 권19-2, 「周頌·時邁」, 589쪽, “我求懿德, 肆于時夏, 允王保之.”
- 51 『毛詩正義』 권19-2, 「周頌·思文」, 590쪽, “無此疆爾界, 陳常于時夏.”
- 52 『毛詩正義』 권20-4, 「商頌·長發」, 627쪽, “韋顧既伐, 昆吾夏桀.”
- 53 『尚書正義』 권11, 184~185쪽, “我文考文王, 克成厥勳, 誕膺天命, 以撫方夏…華夏蠻貊, 罔不率俾, 恭天成命.”
- 54 『尚書正義』 권14, 203쪽, “惟乃丕顯考文王, 克明德慎罰, 不敢侮鰥寡, 庸庸, 祗祗, 威威, 顯民. 用筆造我區夏.”
- 55 『尚書正義』 권16, 224쪽, “惟文王尙克修和我有夏.”
- 56 『尚書正義』 권17, 231쪽, “帝欽罰之, 乃侔我有夏.”
- 57 『尚書正義』 권15, 213쪽, “我不可不監于有夏, 亦不可不監于有殷.”
- 58 『尚書正義』 권16, 219쪽, “惟時天罔念聞, 厥惟廢元命, 降致罰. 乃命爾先祖成湯革夏, 俊民甸四方.”
- 59 『尚書正義』 권17, 228쪽, “惟帝降格于夏, 有夏誕厥逸, 不肯戚言于民.”
- 60 艾蘭, 2011년판, 「夏之迷」, 『早期中國歷史·思想與文化』, 北京: 商務印書館, 76쪽.
- 61 何寧 撰, 1998년판, 『淮南子集釋』 권6 「覽冥訓」, 北京, 中華書局, 479~480쪽.
- 62 『禮記正義』 권46, 1590쪽, “共工氏之霸九州也, 其子曰后土, 能平九州, 故祀以爲社.”
- 63 통수예(童書業)은 『고사변(古史辨)』 제7책 상편의 「자서(自序)」에서 양관(楊寬)의 ‘신화분화설’을 소개하였다(童書業, 1982년판 「自序二」, 『古史辨』 7-上, 上海, 上海古籍出版社, 3~4쪽.)
- 64 Mark Isaak, *Flood Stories from Around the world, The TalkOrigins Archive*, <http://www.talkorigins.org/faqs/flood-myths.html> (2020-10-19 접속)
- 65 陳建憲, 2006, 「多視視野中的西方洪水神話研究」, 『華中師範大學學報』 2006-2, 81~89쪽.
- 66 춘추전국시대에 '우(禹)'와 '하(夏)'가 결합되었다는 인식은 일본의 와타나베 히데유키(渡邊英幸)의 『고대(중화) 관념의 형성(古代(中華)觀念の形成)』(東京, 岩波書店, 2010)의 제6장 「우적에서 제까지(禹蹟から諸夏へ)」에서 비교적 상세히 다뤄진 바 있다. 와타나베 히데유키는 '우'가 개척한 대지를 의미하는 '우지적(禹之蹟)', '우적(禹迹)', '우지서(禹之緒)' 등의 용법과 『시경』과 『상서』에서 '우'가 '하'를 자처하는 '시하(時夏)',

‘구하(區夏)’ 등의 용법이 모두 ‘주’의 중심지인 풍호(豐鎬)지역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였다(渡邊英幸, 2010, 『古代(中華)觀念の形成』, 東京: 岩波書店, 220~228쪽).

- 67 고본(古本) 『죽서기년(竹書紀年)』에 의하면, 반경은 즉위 후, ‘엄[奄, 지금의 산둥성 취푸(曲阜) 일대]에서 ‘북몽(北蒙)’으로 옮겼는데, 이를 ‘은’이라 일컬었다고 한다(方詩銘·王修齡 撰, 2005년판, 『古本竹書紀年輯證(修訂本)』, 上海: 上海古籍出版社, 30쪽, 『竹書紀年』曰, 盤庚即位, 自奄遷于北蒙, 曰殷. 『水經·沔水注』). ‘은’에 대해서는 대체로 지금의 허난성 안양시 인쉬로 여기고 있지만, 일부 학자들은 ‘은’의 위치에 대해, ‘엔스’, ‘정저우(鄭州)’ 등의 의견을 피력하고 있기도 하다. 이와 관련된 여러 학설에 대해서는 귀첸(郭橐)의 『20세기 80년대 이후 ‘반경천은’ 지점 연구 종합(20世紀80年代以來盤庚遷殷地點研究綜述)』(『殷都學刊』 2015-3) 참조.
- 68 王國維, 1959, 『殷卜辭中所見先公先王考』, 『觀堂集林』, 北京: 中華書局, 409~437쪽; 『殷卜辭中所見先公先王續考』, 437~450쪽.
- 69 徐旭生, 1959, 『1959年夏豫西調查“夏墟”的初步報告』, 『考古』 1959-11.
- 70 朱鳳瀚, 2019, 『夏文化考古學探索六十年的啓示』, 『歷史研究』 2019-1, 30쪽.
- 71 朱鳳瀚, 2019, 『夏文化考古學探索六十年的啓示』, 『歷史研究』 2019-1, 28~30쪽.
- 72 趙海濤等, 2019, 『二里頭遺址發現60年的回顧·反思與展望』, 『中原文物』 2019-4.
- 73 中國社會科學院考古研究所 編著, 2014, 『二里頭(1999-2006)』, 北京: 文物出版社, 582쪽; 王煜凡, 2019, 『走近二里頭都邑的宮殿區』, 『文史知識』 2019-9.
- 74 許宏, 2017, 『先秦城邑考古』, 金城出版社·西苑出版社, 143쪽.
- 75 杜金鵬, 2006, 『二里頭遺址宮殿建築基址初步研究』, 『考古學集刊』 16, 北京: 文物出版社, 227~230쪽.
- 76 杜金鵬, 2019, 『偃師二里頭遺址祭祀遺存的發現與研究』, 『中原文物』 2019-4, 57쪽.
- 77 中國社會科學院考古研究所 編著, 『二里頭(1999-2006)』, 1659쪽.
- 78 國家文物局, 2005, 『2004年中國重要考古發現』, 北京: 文物出版社, 50쪽.
- 79 中國社會科學院考古研究所, 1999, 『偃師二里頭—1959年~1978年考古發掘報告』, 北京: 中國大百科全書出版社.
- 80 박양진, 2007, 『중국 초기 도시의 연구—수공업공방의 출현과 발전을 중심으로』, 『백제연구』 46, 40~41쪽.
- 81 박양진, 2007, 『중국 초기 도시의 연구—수공업공방의 출현과 발전을 중심으로』, 『백제연구』 46, 42쪽. 박양진은 이를 ‘관영공방(官營工房)’으로 일컬었다.
- 82 中國社會科學院考古研究所洛陽漢魏古城工作隊, 1984, 『偃師商城的初步勘探和發掘』, 『考古』 1984-6, 488~504쪽.
- 83 夏商周斷代工程專家組, 2000, 『夏商周斷代工程1996~2000年階段成果報告(簡本)』, 北京: 世界圖書出版公司, 65~67쪽.
- 84 徐旭生, 1959, 『1959年夏豫西調查“夏墟”的初步報告』, 『考古』 1959-11, 597~598쪽.
- 85 河南省文物研究所·中國歷史博物館考古部, 1983, 『登封王城崗遺址的發掘』, 『文物』 1983-3, 20쪽, 98쪽.
- 86 河南省文物研究所·中國歷史博物館考古部, 1983, 『登封王城崗遺址的發掘』, 『文物』 1983-3, 14~15쪽; 方燕明, 2017, 『追尋“禹都陽城”: 河南登封王城崗遺址考古發現歷程』, 『大眾考古』 2017-2, 25~26쪽.
- 87 이후 2002년 ‘중화문명탐원공정(中華文明探源工程)’의 일환으로 ‘평평 왕청강 유지 주위 문산문화 유지의 조사(登封王城崗遺址周圍龍山文化遺址的調查)’ 탐이 꾸러져 다시 발굴을 시작했는데, 이때 동서 약 600미터, 남북 약 500미터, 총면적 30여만 제곱미터의 성지가 발견되었다(方燕明, 2017, 『追尋“禹都陽城”: 河南登封王城崗遺址考古發現歷程』, 『大眾考古』 2017-2). 학자들은 이 성이야말로 ‘우도 양성’에 부합한다고 평가하였다. 기존의 누워있는 ‘日’자형 소성은 이 성의 동북부 모퉁이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을 확인하였다(그림 9 참조. 方燕明, 2017, 『追尋“禹都陽城”: 河南登封王城崗遺址考古發現歷程』, 『大眾考古』 2017-2, 25쪽).

### 310 중국 애국주의와 고대사 만들기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 88 方詩銘·王修齡 撰,『古本竹書紀年輯證(修訂本)』,20쪽,“『紀年』曰,……自禹至桀十七世,有王與無王,用歲四百七十一年.”(『太平御覽』卷八二皇王部)
- 89 夏商周斷代工程專家組,『夏商周斷代工程1996~2000年階段成果報告(簡本)』,74~80쪽.
- 90 北京大學考古文博院 等,2000,『河南新密市新砦遺址1999年試掘簡報』,『華夏考古』2000-4, 3~10쪽; 夏商周斷代工程專家組,『夏商周斷代工程1996~2000年階段成果報告(簡本)』,80쪽.
- 91 夏商周斷代工程專家組,『夏商周斷代工程1996~2000年階段成果報告(簡本)』,78쪽.
- 92 『史記』권2,『夏本紀』,85~87쪽.
- 93 夏商周斷代工程專家組,『夏商周斷代工程1996~2000年階段成果報告(簡本)』,86쪽.
- 94 심재훈,2003,『고대중국 이해의 상반된 시각: 의고와 신고 논쟁』,『역사비평』65, 285쪽.
- 95 徐旭生,1985,『中國古史的傳說時代』(修訂本),北京,文物出版社,20쪽.
- 96 사라 알란 지음,오만중 옮김,2009,『한국의 독자들에게』,『선양과 세습』,예문서원,13~21쪽.
- 97 사라 알란 지음,오만중 옮김,2009,『선양과 세습』,예문서원.
- 98 艾蘭,『夏之迷』,『早期中國歷史·思想與文化』,76쪽.
- 99 사라 알란 지음,오만중 옮김,2009,『선양과 세습』,예문서원.
- 100 劉緒,2018,『夏文化探討的現狀與任務』,『中原文化研究』2018-5, 9쪽
- 101 劉莉 著,付永旭 譯,『中國考古學中的學術自由·政治思想正確和早期文明:關於夏—二里頭關係的討論』,『南方文物』2009-4, 170쪽.
- 102 劉莉 著,付永旭 譯,2009,『中國考古學中的學術自由·政治思想正確和早期文明:關於夏—二里頭關係的討論』,『南方文物』2009-4, 171쪽.
- 103 李政,2020,『專家學者研討二里頭遺址考古工作和夏文化研究』,文博中國微信官網,2020-10, <https://mp.weixin.qq.com/s/xWtHZSPWsCcdlnStXXnLxw> 2020-10-20 접속
- 104 2019년 중국의 良渚文化 유적이 세계문화유산에 등재되었다.
- 105 2018년 4월 22일, 삼聯서점(三聯書店)에서 주최한 ‘삼聯지식대회(三聯知識大會)’에서 순칭웨이(孫慶偉)와 쉬홍(許宏)을 초청하여, 문헌의 이른바 ‘하대(夏代)’는 믿을 수 있는 역사인가를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하였다. 또, 이 둘은 2019년 여름 허난대학(河南大學)에서 주최한 ‘제2회 하문화 국제연토회(第2屆夏文化國際研討班)’에서도 관련 토론을 이어 나갔다(『夏代信史之爭:孫慶偉VS許宏』,搜狐網, [https://m.sohu.com/a/241669533\\_100191010](https://m.sohu.com/a/241669533_100191010) (2020-10-19 접속);張立東 等,『第二屆“夏文化”國際研討班紀要』,『華夏考古』2019-4).
- 106 孫慶偉,2018,『罍宅禹蹟:夏代信史的考古學重建』,北京,三聯書店.
- 107 孫慶偉,『罍宅禹蹟:夏代信史的考古學重建』,404쪽.
- 108 孫慶偉,『罍宅禹蹟:夏代信史的考古學重建』,403~407쪽.
- 109 孫慶偉,『罍宅禹蹟:夏代信史的考古學重建』,407~438쪽.
- 110 張立東 等,2019,『第二屆“夏文化”國際研討班紀要』,『華夏考古』2019-4, 123~124쪽.
- 111 艾蘭,2009,『二里頭與中華文明的形成:一種新的思維』,荆志淳 等編,『多維視域—商王朝與中國早期文明研究』,北京:科學出版社.
- 112 羅泰,李志鵬 採錄,2009,『考古:匡正書本上的歷史』,張冠梓 主編,『哈佛看中國』(文化與學術卷),北京:人民出版社,206쪽.
- 113 劉莉 著,付永旭 譯,2009,『中國考古學中的學術自由·政治思想正確和早期文明:關於夏—二里頭關係的討論』,『南方文物』2009-4, 166쪽.
- 114 순칭웨이의 문헌자료 활용에 대해 심재훈은 문헌의 맹목적 신빙성을 바탕으로 한 그의 여러 주장은 손쉬운 비판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점을 지적하였다(심재훈,2020,『이리두 중국 고대국가 기원론의 딜레마』,『역사학보』245, 211~213쪽).
- 115 심재훈,2020,『이리두 중국 고대국가 기원론의 딜레마』,『역사학보』245, 231쪽.

## 제8장

- 1 李伯謙, 2015, 「略論陶寺遺址在中國古代文明演進中的地位」, 『華夏考古』 2015年 第4期.
- 2 王震中, 2015, 「陶寺與堯都, 中國早期國家的典型」, 『帝堯之都, 中國之源-堯文化暨德廉思想研討會文集』, 中國社會科學出版社, 36~62쪽.
- 3 何鷲, 2011, 「陶寺圭尺“中”與“中國”概念由來新探」, 『三代考古』四, 科學出版社, 85~128쪽.
- 4 高江濤·何鷲, 2018, 「陶寺遺址考古研究論著存目」, 『中國陶寺遺址出土文物集萃』, 天津古籍出版社, 315~332쪽.
- 5 何鷲, 2015, 「陶寺考古: 堯舜“中國”之都探微」, 『帝堯之都, 中國之源-堯文化暨德廉思想研討會文集』, 中國社會科學院出版社, 63~123쪽.
- 6 何鷲·高江濤, 2018, 「薪火相傳探堯都-陶寺遺址發掘與研究四十年歷史述略」, 『南方文物』 2018年 第4期, 38쪽.
- 7 許宏, 2009, 『最早的中國』, 科學出版社, 2009. 사라 일란 또한 '문화패권(Cultural hegemony)' 패러다임으로 연구를 하면서, 엘리트 문화의 결정체가 그 정치 강역을 훨씬 뛰어넘는 범위까지 받아들여졌고, 그 특정한 형태가 '고급문화'의 본보기를 만들었는데, 중국인들은 훗날 이를 자신들의 문명으로 규정했다고 여겼다.(艾蘭, 2009, 「二里頭與中華文明的形成: 一種新的思維」, 蔣志淳 等編, 『多維視域-商王朝與中國早期文明研究』, 北京: 科學出版社).
- 8 何鷲, 2002, 「文獻考古方法論芻議」, 『華夏考古』 2002年 第1期, 106쪽.
- 9 沈長雲, 張渭蓮, 2009, 『中國古代國家起源與形成研究』, 人民出版社, 152~177쪽.
- 10 「夏代信史之爭: 孫慶偉VS許宏」, 搜狐網, [https://m.sohu.com/a/241669533\\_100191010](https://m.sohu.com/a/241669533_100191010) (2020-10-19 접속)
- 11 習近平, 「建設中國特色中國風格中國氣派的考古學, 更好認識源遠流長博大精深的中華文明」, 『求是』 第23期, 2020年 12月.

## 부록

- 1 鄭燦學, 2005, 『五帝神話의 形成과 漢代의 受容樣相 研究』, 延世大學校大學院 博士學位論문을 참고하였음.
- 2 馬曉穩의 『出土戰國文獻『尚書』輯證』(安徽大學 碩士學位論文, 2012, 41쪽)의 번역을 따랐음.
- 3 『일주서』라는 이름은 『설문해자』에서 처음으로 보인다. 현재 학자들의 연구에 의하면 “사료와 책의 내용, 사용된 단어를 고찰해 볼 때 『일주서』가 만들어진 시기는 전국시기일 것으로 보고 있다.

## 312 중국 애국주의와 고대사만들기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찾아보기

5·4 신문화운동 30

ㄱ

가상원칙(加上原則) 32, 196  
 건가지학(乾嘉之學) 28  
 건가학과(乾嘉學派) 28  
 고국(古國) 37, 40~42, 46, 60, 64  
 고국단계 41, 64  
 고문상서(古文尚書) 84  
 고문화(古文化) 40~42  
 고사변파(古史辨派) 32, 139, 189  
 고서변파(古書辨派) 32  
 고성(古城) 37, 40~42, 149  
 고신씨(高辛氏) 162, 163, 165  
 고양(高陽) 164, 203, 287  
 곤(鯀) 197, 200~204, 209, 212, 234, 280  
 공공권력 222, 234, 239, 250, 251  
 공공기념물 105, 118, 120, 127, 134, 246  
 공공씨(共工氏) 212  
 공공제의 105  
 공산당의 혁명문화 257  
 구계유형(區系類型) 35, 36  
 구정(九州) 209, 210  
 구주(九州) 147, 197, 200, 201, 203~205, 207~209, 212, 213, 234, 262  
 국가 4, 5, 7, 28, 35, 36, 38, 39~45, 49, 60, 81, 82, 91, 99, 106, 110, 118, 119, 169, 184, 186, 232, 243, 244, 246, 247, 249~252, 272, 275, 281  
 국가(state)단계 7, 39, 40, 45, 247, 250~252  
 국학열 22  
 궁성 7, 44, 216, 219, 220~222, 251  
 귀근당(歸根堂) 72  
 금문상서(今文尚書) 84  
 기복수(祈福樹) 119, 120  
 기억행위 117

ㄴ

녹송석(綠松石) 216, 221, 222, 234, 251

ㄷ

당숙우(唐叔虞) 151, 153, 154~158, 162, 163, 167, 168, 170, 171, 175, 179~181, 183  
 당평 왕청강 224, 227, 228, 234, 235, 250  
 당평(登封)왕청강(王城崗)유적 224  
 도당씨((陶唐氏) 164~166, 179  
 등사평(東下馮)유형 223

ㄹ

문명(civilization)단계 39, 42, 44~46, 244, 247  
 문명국가 44  
 문헌고고방법론 255, 256  
 문헌비판(extual criticism) 30  
 문화 자신(自信) 257, 259  
 문화강국론 257  
 문화대혁명 35, 103, 106, 131, 255  
 민족허무주의 16, 17, 103, 116, 243, 246, 253

ㅁ

방국(方國) 40~42, 44, 247  
 배조광장(拜祖廣場) 119, 120  
 배조대전 광장 123  
 복합사회 40~42, 60, 61, 76  
 복합사회 단계 40  
 부족단계 40  
 분질적 종족체제(segmentary lineagesystem) 40  
 비모화(非毛化) 18  
 빈공수(邠公雒) 명문 128, 199, 209

ㅇ

사회발전 단계론 41  
 사회주의 6, 15, 16, 18, 19, 103, 104, 257  
 삼중증거법(三重證據法) 34  
 삼황시대 38, 52, 76, 77, 244, 245  
 삼황오제(三皇五帝) 22, 30, 38, 40, 138, 207

상서(尙書) 30, 82~86, 92, 116, 133~147, 198, 199,  
 201, 207, 210~212, 246, 282  
 상서정의(尙書正義) 85, 90  
 샤효위엔(下七垣) 217  
 석고(釋古) 27, 28, 34, 35, 45, 243  
 성씨수(姓氏樹) 122  
 속형(贖刑) 89, 92, 93, 272  
 수장사회 단계 40  
 수장사회(番邦社會) 40~42, 46, 60  
 순묘(舜廟) 175, 182, 183, 186  
 시경(詩經) 30, 163, 170, 171, 198, 210~212  
 시진평 사상 130  
 신고(信古) 27, 28, 34, 39, 139, 154, 192, 243  
 신농사(神農祠) 68, 72  
 신미 산자이 224, 228, 234, 235, 250  
 신미(新密)신자이(新巖)유적 224, 227, 228  
 신사(信史) 38, 39, 156, 185, 237, 243, 256  
 신자이 유적 227, 228  
 신화분화설((神話分化說) 212  
 신화시대 6, 22, 77, 81, 105, 243, 255  
 실증주의 사학 39

一  
 〇

애국주의 6, 8, 16, 18~23, 38, 103, 138, 243, 248  
 애국주의 교육 18, 20, 38, 75, 243  
 애국주의 교육기지 75  
 양성(陽城)유적 226  
 어정비(魚鼎匕) 87~89  
 얼리터우문화(二里頭文化) 35, 38, 44, 138, 217,  
 221, 223, 227, 238  
 얼리터우(二里頭)유적 38, 44, 138, 195, 215, 218,  
 222~224, 226, 227, 232~237  
 여와사(女媧祠) 253~255  
 여형(呂刑) 82~93, 95~99, 116, 133, 246  
 역사시대 6, 22, 239, 243  
 역사의 과잉 252  
 역사허무주의 17, 18, 103, 243, 246, 252, 253  
 염릉(炎陵) 75  
 염제고리(炎帝故里) 68  
 염제릉(炎帝陵) 68, 72, 75  
 염제신농 52, 55~59, 68, 72, 75, 262, 265, 271  
 염제신농고리(炎帝神農故里) 75

염제주양씨(炎帝朱襄氏) 75  
 염화거상 134  
 염황문화축제 104  
 염황시대 104, 111  
 염황열(炎黃熱) 22, 68, 77, 103~105, 118, 124, 127,  
 243  
 염황의 자손 75  
 염황자손 50~52, 77, 126  
 엔스 얼리터우 224, 228, 250  
 엔스상성(偃師商城) 223, 226  
 오제(五帝) 23, 37, 60, 90, 137, 284, 285  
 오제시대(五帝時代) 22, 36, 28, 41, 52, 76, 77, 197,  
 244, 245, 256  
 왕청강 유적 224, 226  
 요·순·우 말살론(堯舜禹 抹殺論) 29, 30, 196  
 요묘(堯廟) 142~144, 170, 173~175, 179, 182, 186  
 요하(遼河)문명론 138  
 우역(禹域) 236  
 우왕묘 179, 181~183  
 우왕성 유적 140  
 우정삼묘(禹征三苗) 236, 237  
 유사역사 167, 183, 189, 190  
 유학열(儒學熱) 20  
 의고(疑古) 27~29, 31, 32, 34, 35, 37, 138, 189, 196,  
 209, 212, 243, 250  
 의고파(疑古派) 30, 32, 33, 38, 81, 85, 105, 139, 189  
 이중증거법(二重證據法) 34  
 인류운명공동체 22  
 일대일로 126, 257

一  
 ㅈ

자유주의파 지식인 17  
 전국 40, 53~58, 76, 81, 84~87, 90, 91, 105~107,  
 133, 139, 140, 154, 158, 161, 164~168, 189, 196,  
 199, 201, 203~209, 234, 244~246, 251, 262, 275  
 전반서화론자(全般西化論者) 15  
 진옥(顛頊) 황제 90  
 진과론 21  
 제2대 민족정책 257  
 제2의 문화대혁명 131  
 제국(帝國) 40, 41, 168  
 종족주의 21

주 소왕(昭王) 92~95, 246  
 중국 전통문화 16, 257  
 중국몽(中國夢) 8, 20, 22, 126, 130~132  
 중화 제1왕조(中華第一王朝) 196  
 중화문명 60, 77, 238  
 중화문명탐원공정(中華文明探源工程) 6, 22, 38, 60, 82, 106  
 중화민족 공동체 257, 258  
 중화민족 다원일체론 257, 258  
 중화민족 일체화 257  
 중화삼조당 134  
 중화성씨 기원도(尋根圖) 122  
 중화성씨광장(中華姓氏廣場) 119, 120, 122  
 중화염황문화연구회(中華炎黃文化研究會) 104, 118, 124  
 지역국가(early regional state) 46  
 진사(晉祠) 151, 152, 168, 175  
 집단기억 116, 117, 133, 134  
 집체주의 19

一  
 天

천명사상 96, 97, 99  
 천하세계관 50  
 최초의 중국 248, 251, 252  
 치우(蚩尤) 27, 37, 81, 82, 87~89, 91, 93, 95, 97, 98, 106, 113, 114, 123, 133, 134, 246, 268, 272, 276~279, 281, 284, 285~291

一  
 E

타오쓰(陶寺)유적 7, 59, 137, 144, 247~250, 252  
 탁록(涿鹿) 109, 113~115, 277, 281, 282, 286  
 텐안먼 사건 6, 15~19, 103, 243

一  
 冢

평등사회 40~42, 64, 76  
 프로토타입의 국가(雛形國家) 60

一  
 冢

하나라 6, 22, 23, 35, 36, 38, 41, 77, 80, 112, 140, 166, 175, 180, 195, 203, 210~212, 215, 223, 226, 228, 229~231, 236, 237, 239, 250~252

하대사(夏代史) 233  
 하문화(夏文化) 35, 45, 195, 214, 229, 231~239, 250  
 하상(河殤) 15~17  
 하상주단대공정(夏商周斷代工程, 1996~2000) 6, 22, 37, 38, 226, 228~230, 234, 250  
 하왕조 196, 215  
 하우사 177  
 하족(夏族) 223  
 하허(夏墟) 35, 215, 223, 224  
 하후(夏后) 205, 210, 228  
 허난 덩핑 왕청강 228, 250  
 허무주의 16, 17, 103, 104, 243  
 현원고리사(軒轅故里祠) 118~120, 122  
 현원구(軒轅丘) 109, 111, 118~120  
 현원기념관 119  
 현원묘(軒轅廟) 127, 128, 131  
 현원전 129, 130  
 화평연변(和平演變) 18  
 황노학파 98, 106  
 황제(黃帝) 6~8, 22, 23, 27, 28, 31, 32, 37, 40, 50~56, 58, 60, 64~67, 75~77, 81~83, 89~91, 95, 98, 99, 103~134, 138, 139, 153, 195~198, 202~204, 209, 212, 234, 244~246, 251, 252, 263, 264, 268, 269, 271, 275~285, 288, 289, 291  
 황제 23, 82, 85, 87, 89~93, 95~99, 133, 174, 246, 271~273, 283, 285  
 황제 부락 108, 113  
 황제릉 51, 111, 117, 118, 127, 128, 130~132, 246  
 황제문화 98, 108, 110~113, 115, 116, 118, 132  
 황제보경(黃帝寶鼎) 120, 121  
 황제성(黃帝城) 110, 111  
 황제의 발자국 127, 128  
 황제의 자손 50~52  
 황제주정원(黃帝鑄鼎原) 117  
 후진타오 사상 130  
 후토(后土) 212, 277



동북아역사재단 연구총서 128

## 중국 애국주의와 고대사 만들기

초판 1쇄 인쇄 2021년 7월 20일

초판 1쇄 발행 2021년 7월 30일

지은이 김인희, 배현준, 심재훈, 이유표

펴낸이 이영호

펴낸곳 동북아역사재단

등 록 제312-2004-050호(2004년 10월 18일)

주 소 서울시 서대문구 통일로 81, NH농협생명빌딩

전 화 02-2012-6065

팩 스 02-2012-6189

홈페이지 [www.nahf.or.kr](http://www.nahf.or.kr)

제작·인쇄 청아출판사

ISBN 978-89-6187-645-2 93910

- 이 책은 저작권법으로 보호를 받는 저작물이므로 어떤 형태나 어떤 방법으로도 무단전제와 무단복제를 금합니다.
- 책값은 뒷표지에 있습니다. 잘못된 책은 바꾸어 드립니다.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